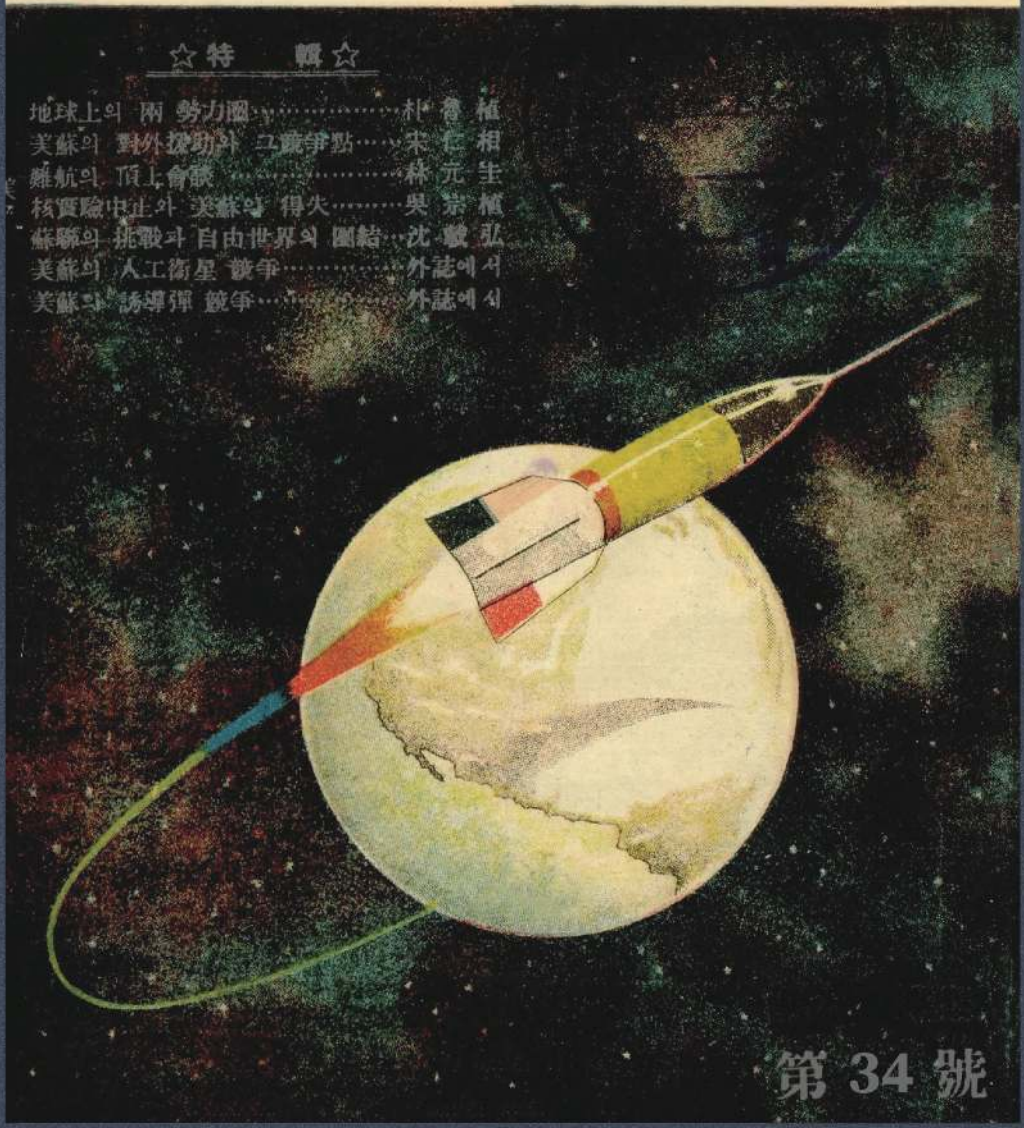
THE COMET

코메트

☆特　輯☆

地球上의 兩 勢力圈……朴 魯 植
美蘇의 對外援助와 그 競爭點……宋 仁 相
難航의 頂上會談……林 元 生
核實驗中止와 美蘇의 得失……吳 宗 植
蘇聯의 挑戰과 自由世界의 團結……沈 駿 弘
美蘇의 人工衛星 競爭……外誌에서
美蘇의 誘導彈 競爭……外誌에서



第 34 號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둥(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黑 → 메구로(目黑)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 · 솔라 → 에밀 · 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꾀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봐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쨉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벌서 → 벌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씌운

오랭캐 → 오랑캐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숀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캬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땐스파아티이→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쥴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불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대화 내용 」,— 대화내용」인 경우 → " 내용 "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가 책, 논문일 경우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로 표기한 경우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34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 알렉산더 대왕(大王)의 입성(入城)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샤를 르 브륀 작(作)

화보(畵報)
◇ 무명용사(無名勇士) 영전(靈前)에 헌화(獻花)하시는 이(李) 대통령 각하
◇ 우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
◇ 통신취급소(通信取扱所) 개소식(開所式)
◇ C-46 및 특수비행(特殊飛行) 수료식(修了式)
◇ 무사고비행(無事故飛行) 상장수여식(賞狀授與式)

〈권두언(卷頭言)〉 한 방울의 초로(草露)는 아니다 김기완(金基完) 2

괴뢰평화통일론(傀儡平和統一論)의 정체(正體) 김창순(金昌順) 4

공군(空軍)을 핵심(核心)으로 하는
국방기구개편(國防機構改編)의 긴급성(緊急性) 알렉산더 세버스키 11
전력론(戰力論)(중(中)) 이경춘(李慶春) 19
공산숙청(共産肅淸)의 흑막(黑幕)
-나지 숙청(肅淸)과 그것이 의미(意味) 하는 것- 박성환(朴聖煥) 24

멕시코에 다녀와서 김재호(金在鎬) 30
바기오 〈기행(紀行)〉 최옥자(崔玉子) 35

시원(詩苑)
하늘에의 노래 공중인(孔仲仁) 39
창(窓) 이봉래(李奉來) 43
비와 방심(放心) 성찬경(成贊慶) 45

우주(宇宙)를 정복(征服)하는 유인(有人) 미사일 X-15의 정체(正體) 외지(外誌)에서 47

증고(增高)되는 항로상(航路上)의 위기(危機) 이인호(李仁虎) 53

지구상(地球上)의 양대(兩大) 세력권(勢力圈)
- 지정학상(地政學上)으로 본 2개의 세계(世界) - 박노식(朴魯植) 58

핵실험(核實驗) 중지(中止)와 미소(美蘇)의 득실(得失) 오종식(吳宗植) 62
난항(難航)의 정상회담(頂上會談) 임원규(林元圭) 71
미소(美蘇)의 인공위성(人工衛星) 경쟁(競爭) 홍성표(洪聖杓) 80
미소(美蘇)의 유도탄(誘導彈) 경쟁(競爭) 소고(小考) 외지(外誌)에서 89

수필(隨筆)
계절(季節) 김요변(金燿變) 94
말의 생리(生理) 박남수(朴南秀) 95
5월(月)의 창(窓)을 열면 박기원(朴琦遠) 98

유도탄(誘導彈)과 그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 전봉희(田鳳熙) 101
경종(警鐘) - 공산마수(共産魔手)는 이렇게 뻗쳐 온다 - 김의섭(金義燮) 114

★만화(漫畵)★
양지영감 이상호(李相昊) 110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영공이론(領空理論) 이한기(李漢基) 130
TV는 이렇게 방송(放送)된다
- 원리(原理)와 방송의의(放送意義)를 중심으로 - 김상임(金相林)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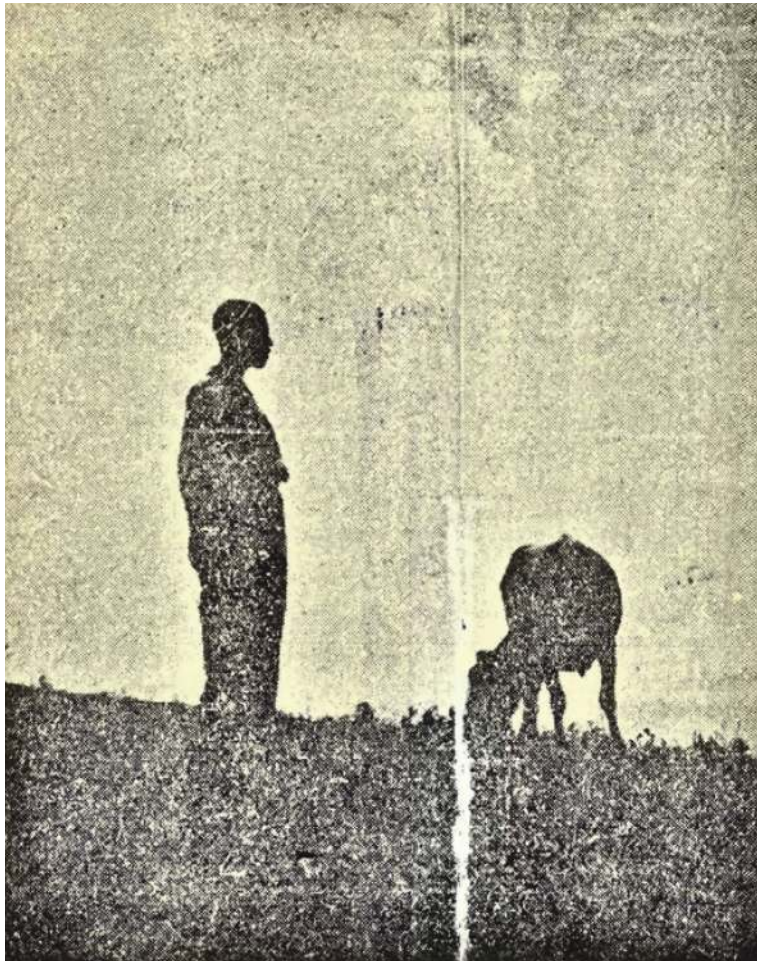
레코드 음악(音樂)의 감상(鑑賞) 계정식(桂貞植) 143
연극예술(演劇藝術)의 기초(基礎) 한빈(韓彬)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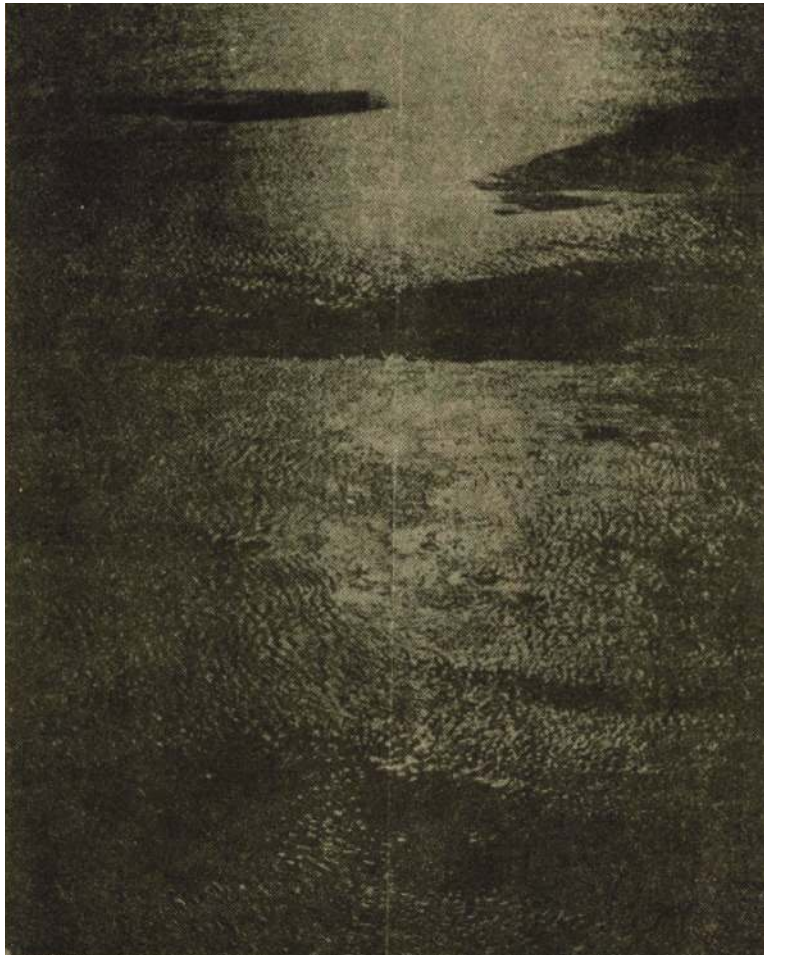
레이다에 의(依)한 방공원칙론(防空原則論) 배종영(裵鍾榮) 158
레이더와 방공작전(防空作戰)의 실제(實際) 손주현(孫周鉉) 165
레이더의 역사(歷史) 박문기 171

★ 코메트 휴게실(休憩室) 중간 중간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이곳저곳

미(美) 남북전쟁(南北戰爭) 시(時)의 두 장군(將軍) 조효원(趙效源) 178
베스트 골프 (3) 토미 아머 183
현대철학(現代哲學)의 특징(特徵) 박종홍(朴鍾鴻) 124
외로운 사람들 〈단편소설(短篇小說)〉 이명온(李明溫) 190
붉은 밤 (4) 〈연재소설(連載小說)〉 임옥인(林玉仁) 199
몽중(夢中)의 살인(殺人) 〈신비소설(神祕小說)〉
로버트 아더 원작/박운암(朴雲岩) 역(譯) 208





알렉산더 대왕(大王)의 입성(入城)

샤를 르 브륀 작(作)

샤를 르 브륀[1]은 프랑스의 17세기 화가였다. 이 작품은 그의 성장기인 1660년에서 1668년까지에 그린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파리에서 나서 파리에서 죽은 순진한 파리인이다. 그는 일찍이 프랑스와 페리에[2]에게, 다음에는 시몽 부에[3]에게 사사(師事)했고, 퐁텐블로 궁에서 수많은 그림을 모사했다. 그는 열다섯 살 때부터 리슐리외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궁정의 고관과 가까이 한 덕분에 19세가 되던 해에는 이미 궁정화가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루이 14세의 신임이 두터웠던 재상 콜베르의 비호 아래 프랑스 미술을 위해 크게 진력했다. 프랑스 〈회화 및 조각 로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1648년), 로마에 그 연구소를 설치한 것(1666년) 등도 전부가 그의 공로이다.

그의 작품은 우미하고 화려한 면에서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광활한 학식과 상상력이 그 화면을 장중호분(莊重虎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등장할 루이식 미술의 선구자라서 동시대의 일반 미술에 많은 감화를 주었다.

그는 1662년에 루브르 궁전의 아폴로 관[4]을 장식했고, 이어 베르사이유 궁의 대 계단과 '전쟁과 평화의 방' 등을 장식하여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베르사이유의 정원 등도 거의 전부가 그의 창안에 의한 것이었다. 그란 1683년 콜베르의 죽음은 곧 르 브륀의 실각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궁정 출입을 금지당한 지 7년째인 1690년에 사망했다.

대체로 음울하고 붉은빛이 도는 색채와 답답한 데생과 격조가 어울리지 않는 터치 등이 일반적인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 풍요한 상상력과 광대한 스케일 등은 역시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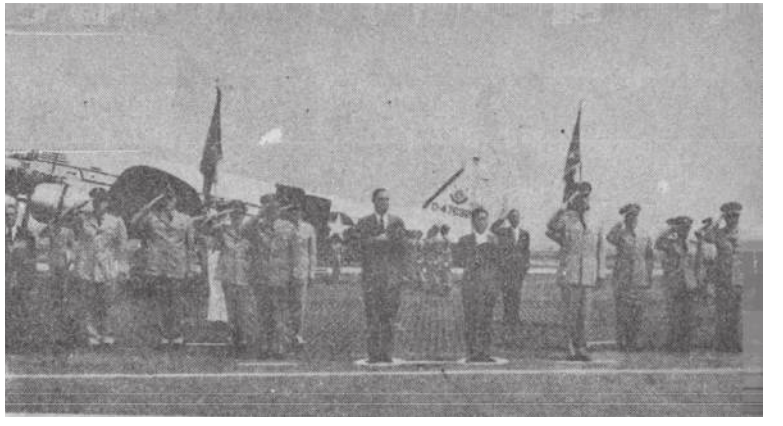
1) Charles Le Brun ; 1619~1690. 불어식 발음은 브룅?
2) François Perrier
3) Simon Vouet
4) the Apollo Gallery

무명용사(無名勇士) 영전(靈前)에
헌화(獻花)하시는 이(李) 대통령(大統領) 각하(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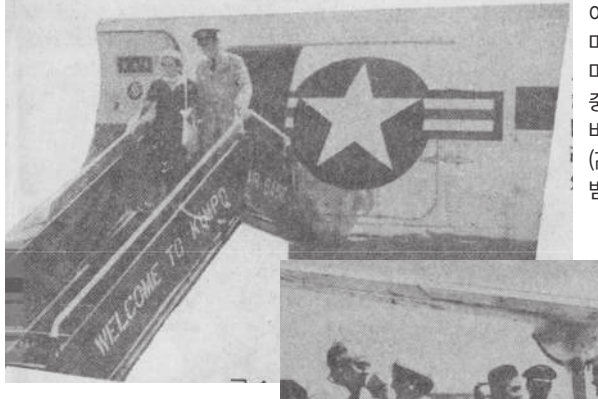
우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

전 UN군 참모장(參謀長) 타드 중장 이임인사차 장(張) 총장을 예방(禮訪)

신임(新任) UN군 참모장 리 중장이 김 참모차장의 영접(迎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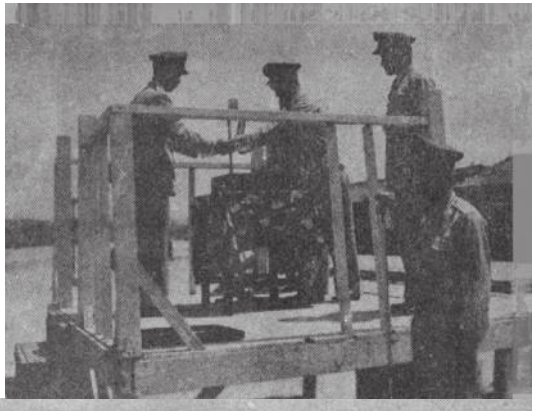


미 공군장관 더글러스 씨가 한국 내의 미 공군기지를 시찰(視察)하기 위해 지난 5월 내한(來韓)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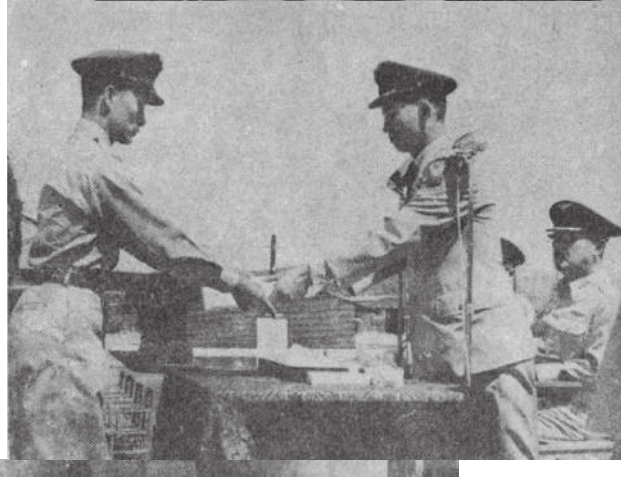


이임인사(離任人事)를 마치고 로 향하는 전 미 제5 사령관 스미스 중장(中將)이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한국 고급장교(高級將校)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김포공항(金浦空港)에 내리는 스미스 중장 부처(夫妻)



무사고비행(無事故飛行)
상장 수여식
(1훈련비행단)



C-46 및
특수비행수료식
(항본창(航本廠))

통신취급소
(通信取扱所)
개소식(본부)

코메트

THE COMET

제34호

<권두언(卷頭言)>

한 방울의 초로(草露)는 아니다

정훈감(政訓監) 김기완(金基完)

'기존 역사 자료 손실로 인해 내용 없음.'

'기존 역사 자료 손실로 인해 내용 없음.'

괴뢰평화통일론(傀儡平和統一論)의 정체(正體)

김창순(金昌順)

'기존 역사 자료 손실로 인해 내용 없음.'

그의 수단문제는 내부 침식(侵蝕)과 파괴 공작이다. 예컨대 6.25 이전과 휴전 이후의 '대남정치공작'이란 것은 그의 구체적 형태이다.

요컨대 '무력수단'이건 평화수단이건 간에 양자는 모두 우리 한국을 침략하여 공산화하겠다는 기본전략문제에 엄격히 종속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침략의 최고수단으로서의 무력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계제(階梯)냐 아니냐의 여부만이 그들 수단문제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공산침략의 수단문제는 소위 '혁명의 하강기 – 축력기'에 있어서의 전술문제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침략이란 궁극적 목적 – 기본전략문제에 엄격히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의 의도 – 기본전략문제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들의 동향 – 전술문제를 시시각각으로 적확하게 포착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고 이기기 위한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모름지기 공산당의 전술문제란 것은 어느 때나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분절과 그 판단에 입각하여 그들의 하고자 하는 계제(階梯)적 계획을 어떠한 수단으로서 수행할 것인가를 체계화하고 규정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적측의 당면전술이란 것도 이 범주(範疇)에서 떠난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보편적 전술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특정지역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그들의 두뇌조직이 점차로 현지성을 중요시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될는지는 모른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전술의 고정화 및 도식화를 피하고 현실적 측면을 더욱 보강하자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예컨대 재작년 2월의 제20차 소련 공산 당 대회의 '식민지 테제'는 종전의 코민테른의 그것을 변경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도를 명백히 했다고 한다.

종전의 코민테른의 식민지 테제는 공산주의혁명의 사회적 기본역량을 노농층에 치중하는 나머지 민족자본가와 그 영향 하의 민족인텔리들을 본질적인 반동요소로 취급해온 것만도 사실이다. 전술적 경험에서 볼 때 그들의 그러한 규정은 공산주의가 많은 손해를 자초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착안한 스탈린 사후의 크렘린의 세계 정책가들은 전술문제에서 부득이 전환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재작년 2월의 제20차 소련 공산 당 대회의 '식민지 테제'에 관한 재검토와 변경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코민테른의 '식민지 테제'가 그대로 그들의 금과옥조였던 시기까지는 인도의 간디 옹(翁)은 공산주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재작년 2월의 제20차 소련 공산 당 대회에서는 간디 옹을 반제투쟁의 훌륭한 민족적 상

징이라고까지 예찬했던 것이다.

이것은 간디 옹의 무저항주의를 무리하게도 소인간의 '평화적 원칙'에 용화(熔化)시키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시아적 의지와 감정 속에 공산주의는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서는 부득이 시인한 모양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술전환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고 그들의 기본사상체계와 전략문제에 어떤 변동이 있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여 우리는 공산주의의 보편적 전술을 '특정 지역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공산주의 두뇌조직의 현실주의적 경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반전(反戰)평화통일의 그늘'을 크게 펴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들로서 이퇴위진(以退爲進)의 당면 전술임을 우리는 과부족 없이 알고 있어야 한다.

2. 무력(武力) 재남침(再南侵)까지의 유인납치전술(誘引拉致戰術)

적측의 기본전략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공산화하자는데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그 수단문제에 있어서 무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부침식이냐의 전술적 과제만이 바뀔 따름이다.

이 시기의 적측의 전술과제는 무력침공의 최고수단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자기네보다 월등하게 강하다는 것을 그들로서 확인하고 난 뒤의 태도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들의 힘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하다는 것으로 사태가 바뀌게 된다면 그들은 또 무엇이 두려워서 무력수단을 감행하지 않을 건가.

오늘날 그들이 소위 '반전평화통일'의 표방을 크게 내세우게 된 까닭은 적아의 세력관계에 균형을 파괴하기까지 또는 우리는 약하고 자기네는 강하게 되기까지의 한국침략전술로서 내부 침식과 파괴 작용을 확대하자는데 있다. 그러자면 "싸우지 말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그늘을 크게 치고 이 그늘 밑에 통일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처럼 '반전평화통일'의 말질을 늘어놓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공산 측이 조작하는 이 '그늘'이란 것은 사실상공산주의의 장막속인 것이다. 그러니 공산주의의 장막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자는 것이다.

오늘의 사정상 우리 민족의 정치적 욕구와 생존적 욕구는 무엇 무엇해도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염원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줄 안다. 통일을 그리워하는 것이 남북 동포의 공통적인 심정이다. 이 통일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싸우지 말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공산 측의 장막 속에 몰아넣자는 것이 요컨대 이 계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전술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한 사람 한사람 앞에서 "당신은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거든 우리 편으로 가담하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수단 방법 문제보다는 훨씬 유효하다는 것을 타산하고 난 뒤의 그들의 전술과제로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족 앞에서 "당신은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좋아하거든 우리 편으로 가담하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수법을 가지고서는 공산 측은 우리 민족 앞에서 뺨을 얻어맞기가 보통일 줄 안다.

그러니 그런 수법을 가지고서는 한국침략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그들의 '자각' 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서 "당신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가?"라고 묻지 말고 "당신은 싸우지 말고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유인의 수법 치고는 훨씬 유효하다는 것이겠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원하거든 우리 편에 가담하시오"라고 권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타산하게 된 것이 현재 공산 측의 소위 '반전평화통일'의 전술과제인 것이다. 오늘날 집요(執拗)한 평화적 통일의 제청과 문건의 철포(撤布)는 모두 이 시기의 공산 측 전술과제의 물질적 현상들이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그들 전술문제의 오묘를 잘못 간파하고 덤비다가는 그들의 장막 속에 납치되고 만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실한 생존적 과업이되 공산 측의 평화통일 표방이란 것은 한낱 전술과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분간(分揀)할 줄 알아야 한다. 적측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시켜서 소련의 예속 하에 두자는 것인데 그것이 무력수단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손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 번 다른 수단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원하는 통일은 기본성격에 있어서 기어이 반공통일이어야 하므로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적측의 그것과는 거의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리는 이러하건만 하도 통일이 되지 않고 지루한 세월만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기본 성격문제와 수단문제를 분명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평화통일'을 입 밖에 하여 서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황당하다고까지 지적할 수 있는 경향으로서는 평화통일을 입 밖에 해야만 소위 진보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보인 듯이 관념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

짐작컨대 공산 측의 노리는 점도 바로 이것일 줄 안다. 평화통일을 입 밖에 해야만 진보적인 듯이 허파에 바람이 든 사람이면 그가 지주의 자식이라도 좋고 기업주의 따님이라도 좋다는 것이 지금의 공산 측 전술문제이다. '평화적 통일'의 표방을 가지고 펼치는 '인민전선' 전술의 투망공작이다. 그것은 '평화통일'이란 허풍선이 표방으로 '반미반정부행위'의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것만

이 공산 측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무력통일론자도 아니지만, 공산주의로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적측의 '평화적통일론'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 점에서는 나도 무력통일론자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이 그 수단문제에서야 평화통일이건 무력통일이건 아니 평화적으로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기어이 반공민주통일이어야 한다는 기본성격에 는 추호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반공민주통일이란 것은 어느 한 개인만의 주장이거나 정책문제가 아니요, 또 어느 한 정당정권의 정책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거족적 정치염원이며 생존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만일에 적측의 평화적 통일방안이란 것이 우리 민족의 거족적 정치염원과 생존적 욕구를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라면 그건 역시 반공민주통일이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자체가 바보일 수밖에 없으니 그들과 더불어 평화적 통일을 하자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또 뭐냐.

어떤 부질없는 논자들이 말하기를, 그럴 바엔, 공산주의로서 통일하자는 주장과 반공민주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합쳐서 반반으로 쪼개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들은 지정학상의 공산주의 세계정복계획을 한 번도 검증해 본 일조차 없는 사람인 줄 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정복되는 인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 적측은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흉책(凶策)하고 있는 것이다.

3. 반공통일(反共統一)이어야 하는 까닭과 실제문제(實際問題)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라. 우리 민족 가운데 실지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고 있는가를.

북한 괴뢰는 북한에 공산당원이 백만이나 있다고 큰소리를 한다. 그들이 그런 말을 염치없이 뱉는다면 우리는 남한에 3,300만의 반(反)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에 700만의 반공 민주주의자들이 엄존한다고 할 판이다. 북한 인구가 오늘 현재로 딱히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영지(英誌)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11월에 보도한 바를 보면 550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1호의 식구를 5명으로 보고 1호당 1인이 공산당원이어야 백만 당원이 되는 셈이겠다. 그렇건만 이런 일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호당 1인이 공산당원이라 치더라도 그들은 정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당원들인가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원래 공산당원이란 것은 정예주의조직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북한 공산당만이 이 전통을 '파계'하고 조합주의식 공산당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들은 대부분 관제 당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공산당에 진심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벌써 바랄 것이 못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강요당한 당원이니까 그들에게 자의식적 충성심이란 없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 괴뢰집단에서 오늘 현재의 북한 인구를 1,000여만 명이라 해 놓고 그 중에서 공산당원이 100만이라고 했으니 〈이코노미스트〉 지가 보도한 대로 550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산당원수도 그 비례에 따라서 55만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100만이고 55만이고 간에 그 대부분이 관제 당원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면종복배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북한 공산당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거족적인 반공 민족으로 산하여 잘못이 없을 줄 안다. 반공 민족이 원하는 통일은 과시 어떠한 통일이겠는가. 비록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나 우리 민족은 꾸준히 통일을 원해 왔고, 또 반공 투쟁을 하여 왔으니 이들의 원하는 조국 통일은 기어이 반공통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기어이 반공통일이야 한다는 논리의 종착점과 사실의 증명이 확연하다.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산 측은 여태껏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그 기본성격을 한 번도 명확히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는 반공통일이라고 버젓이 내세우는데 반해 그들은 공산주의통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의 겸허(謙虛)한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에 민첩하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석(明晳)하게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관해서 공산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입 밖에 했다가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고립되고 배척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다고 인정해 준다. 이 한 가지 사실은 공산 측도 하는 수 없이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여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 반공산주의로 쪼개 보았던들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정치세력을 쪼개는 또 하나의 특수한 산법을 골라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이른바 '평화통일'이란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입 밖에 하는 사람이면 결국에 가서 자기 투망에 걸려들 수 있지 않겠는가를 타산하게 된 것이 공산 측의 궁여지책이다. 이것은 "당신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공산주의란 상품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은 평화통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평화통일이란 상품이 있소"라고 하는 것이 길가는 사람이나 어수룩한 사람들을 낚는데 훨씬 형편이 좋으리라고 타산하게 된

것이 이 마당에서의 공산 측의 전술문제임을 알아야 하겠다.

'평화통일'의 표방으로 가식한 적측 전술의 당국적 측면은 이런 곳에서 찾아볼 줄 아는 사람들에겐 공산당의 간첩들은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다수의 적색 간첩들이 검거되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란 것은 거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적측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적기의 세력관계를 역전시키자면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품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절실한 문제(통일문제)를 사기수단으로 판매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실인즉 상품의 렛텔을 모조리 평화통일로 마련한 것이다.

말은 바른대로 군사기밀의 정탐, 파괴란 목적으로 침투했다가 검거되었다가 하면 누구든지 그놈 죽일놈이라고 해서 '그런 물건'은 없애야 한다고 할 판이지만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쩐지 그런 상품은 진열하기에도 곤란을 덜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자의 조악품보다는 고객의 관심하는 바도 다를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실인즉 이처럼 모두가 '평화적 통일상인'으로 가장되어 밀파된 것이라 본다. 물론 그들은 암매인이지만.

또 한 가지는 적아(敵我) 세력관계를 역전시키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번 선거야말로 그의 호개(好個)의 기회라고 적측은 타산했다. 평화통일을 운운해야만 다음 민의원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적 기운을 조성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평화통일을 운운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루(固陋)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사회진보에 장애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념은 부식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산당의 앞잡이들을 더 많이 출마시키고 당선시키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적측의 전술적 실천으로 인지된 바에야 우린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출제(出題)의 성질상 <정보(情報)> 지(誌)의 소론(小論)이 중복되었음을 알립니다)

공군(空軍)을 핵심(核心)으로 하는

국방기구개편(國防機構改編)의 긴급성(緊急性)

미 공군참모총장 고문(顧問)
알렉산더 드 세버스키

작년 9월 2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은 평시 사상최강의 군사력을 보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추상적인 견해로는 옳은 말이다. 우리는 과연 평시 사상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역사상 우리의 가상적국에 비해서 이처럼 약했던 때도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만약에 미 국민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시급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술적,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자유진영과 의존하는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다. 냉전의 충돌 하에서 이 양대 진영은 더욱 더 거대한 힘을 얻고 있고 언제 폭발될지도 모르는 현 정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인민이 무적의 강력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지만 이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에 대한 초기의 공식반응은 그것을 비단 무용한 과학적 트릭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련의 가장 큰 실책으로서 간단히 망각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보좌관 셔먼 아담스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설에서 우리의 목적은 외계에서의 야구시합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역시 대통령 보좌관인 클레어런스 B. 랜들 씨는 작년 10월 21일 소련의 인공위성을 엉터리 물건이라고 간단히 말해 버렸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비극적인 것이 아니었던들 모든 이와 같은 말은 재미있는 말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과학기술관계 보좌관인 제임스 R. 킬리안 박사의 존재가 백악관 측근들의 위신을 회복해 줌으로써 대통령이 다시는 과학 분야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세계에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 ★ ★

가상적국 소련의 과학적 업적에 대한 우리의 관료적이고 자기 만족하는 일부의 반응은 특히 소련이 그 인공위성과 유도탄 발전을 단일문제로 통합하여 주력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의 그릇된 비평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큰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문은 불여일견인 것이다. 적은 그때 대륙간 탄도탄(ICBM)과 인공위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조해야 할 것인가?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일은 1947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1947년에 개정된 바 있는 '군통합법'을 폐지하는 일이다. 이 법에는 군사적 불행의 씨(種)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시대의 기술적 현실과 일치된 새로운 군사력이 창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서방 여러 나라의 창조적인 재능을 널리 총동원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창조적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

소련이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우리와 거의 비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과학적 및 기술적 재능의 결핍으로 인한 것일까? 혹은 생산지식의 결핍으로 인한 것일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상최대의 생산국이다. 65만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현재로 기술적 두뇌의 양에서 소련을 25% 능가(凌駕)하고 있다 – 물론 소련은 위험하리만큼 급속도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낡은 전략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물건인 생산지식과 과학적, 기술적 두뇌를 여러 가지 부적절한 군사계획에 낭비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아직도 호화판 상륙용 주정(舟艇)을 만들고 있고 적전 상륙기동부대라는 '장식품'을 가지고 있으며, 위장폭탄, 구식 탱크, 육군의 '저성능' 전투항공대 등 전자학적 창의와 과학적 마술(魔術)에 가득찬 지상전쟁을 위한 각종의 진기한 고안물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공중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동결된 자산이다.

그리고 해군의 기동부대를 생각해보자. 해군 기동부대를 위해서 5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구식인 항공모함 – 그 자체의 기동부대를 방어하기에도 부족하고 굉장한 적군과 대항해서 구아(歐亞)를 공격하기에는 훨씬 부족한 약간의 항공기와 유도탄 밖에 발사할 수 없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재래식으로 추진되는 해군함선을 원자력 추진함선으로 대치한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8만 톤의 거대한 원자력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취역할 무렵에는 활동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될 적 공군의 공격권 내에 들어가면 소형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 것이다. 진주만에서의 전함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신형 군함들은 그들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사이도 없이 해저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소련은 해외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항공모함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소련은 이 수십억 달러를 탄도탄과 장거리 전략공군에 아낌없이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큰 소리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 공군은 국방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놀랄 것이다. 우리 공군이 국방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의 공군예산 175억 달러 가운데 40억 달러 공군에 의해서 오직 순전(純全)한 지상전쟁에만 소용되는 전술공군, 부대공수부대 수송기 등에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상전쟁은 먼저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공중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40억 달러는 사실상 육군을 위한 것이며 공군은 불과 135억 달러를 차지하는 셈이고 육군이 차지하는 것은 본래의 육군예산 90억 달러에 공군의 이 40억 달러를 합해야 하므로 도합 135억 달러 즉 공군과 동액인 것이다. 한편 해군은 115억 달러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다 해군은 원자해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원자력 분야에서의 모든 국가적 노력을 합하면 해군도 역시 공군 및 육군과 동액인 135억 달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3개의 개별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균등하게 할당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본국과 외국 태생의 과학자들을 서로 다투어가며 나누어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강해지려고 우리의 과학적 및 생산적 노력을 호화판 상륙주정에서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무기 전반에 걸쳐 분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중 전쟁이라는 결정적 분야에서 우리의 군사기술의 리더십을 적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와 같이 낭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한 구실은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제한된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낭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한 구실은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제한된 전

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실은 불건전한 것이다. 그러한 소규모의 전쟁은 총검을 가지고 싸우든 원자탄을 가지고 싸우든 간에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다. 우리의 지상군이 말을 타고 싸우든 낙타를 타고 싸우든 탱크를 가지고 싸우든 혹은 미 육군 참모총장 맥스웰 테일러 대장이 말하는 '저성능 항공기'를 가지고 싸우든 간에 그러한 것은 결코 양대 진영의 세력관계에 조금도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 ★ ★

한국전쟁과 수에즈 운하분쟁 따위 소규모의 전쟁은 그것이 대규모의 원자전쟁으로 폭발되지 않는 한 언제나 시작된 당시와 꼭 같은 상태에서 종식(終熄)되고 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해군은 90%가 항공대이며 비행기와 유도탄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육군 역시 비행기와 유도탄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자체의 독립된 항공대에 대해서 소란하게 떠들고 있다.

서로 분리된 3군의 동일한 무기, 이를테면 비행기, 유도탄 등을 가지고 동일한 공중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의 3군을 하나의 군복, 하나의 진급명단, 하나의 참모부를 가진 단 1군으로 통합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새로운 군사기구는 모든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공군성'이어야만 하며, 그 안에 '군함국', '지상군국' 및 기타 보조부대의 여러 국이 속해 있도록 해야 한다.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된 것은 1949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폭탄은 1955년 11월 즉 우리보다 6개월 앞서 폭발시켰으며, 대륙 간 제트 폭격기의 생산도 우리보다 앞섰고, 우리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중거리탄도탄을 생산했으며 ICBM의 발표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모든 이와 같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제세력관계를 공산 측에 유리하게 변화시켰다. 당시의 국방장관 윌슨 씨는 1957년도 예산에 언급하여 "지난해(1956-1957년)의 국제정세에는 이와 같은 정책과 개념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고 시사하는 사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정책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야 할 시기는 그 당시에도 이미 지난 지 오래였다. 그러나 미 국민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 국민은 자기 만족하는 우리의 리더십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 재난의 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행동하도록 각성시켜 준 것은 소련의 스푸트니크였다.

오직 미 국민만이 국회에 있는 그들의 대표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상반되고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세계 사상 최대의 무기경쟁에서 완전무장하고 있을 때 평화롭게 살고 쾌유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는 공공연한 야망을 품고 있고 한쪽은 그 자유를 수호하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궁극적인 군사적 시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 ★ ★

그러면 우리가 지향할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현재 장거리 제트기나 탄도탄에 있어서 소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균형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모든 신무기의 출현은 처음에는 그것을 보유하는 측에 방어할 수 없는 공격수단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결국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방법이 생기고 공격과 방어의 균형은 회복되었다.

핵탄두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 파괴력은 목표에 운반하기가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억제될 것이다.

전쟁은 어느 것이나 이 전의 전쟁과는 크게 다르다. 제1차 대전이 참호전투를 특색으로 하는 정적인 것이었지만, 제2차 대전은 동력화한 장비와 공군력을 가진 고도로 동적이고 기동성 있는 것이었다. 다음의 대전은 정적인 것이 됨으로써 크게 다를 것이다 – 이것은 전투가 아음속의 속도로 전개될 것이므로 모순된 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전쟁은 마치 고정된 두 개의 요새에서 서로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 교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탄도탄이 현실화됨으로써 공격력은 그 절정에 달했다. 따라서 우리의 가상적국이 과학적 정력과 자원을 자동적으로 방위 노력에 집중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방위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근본적 가정에 의해서 유도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우리는 속도 그 자체는 이제 공격의 방어적 특색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도탄이 아무리 빨리 공중이나 우주 속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운반수단

과 그것이 운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둘째 근본문제는 각종의 과학적 수단에 의한 공중무기탐지의 범위는 가까운 장래에 지구전역을 망라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기습공격은 한쪽이 깊이 잠들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 ★ ★

미국은 바로 여기에 최대의-그리고 최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기회는 전체적으로 우세한 우리의 전자전투력을 가지고 고도로 능률적인 요격망(邀擊網)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에 관계되는 과학에서의 우리의 기술적 리더십 이외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전쟁을 위해서 유일무이하게 장비되어 있다. 나는 항상 이 점을 확신해 왔다.

소련은 기술적으로 장족의 발달을 했으나 그 생활수준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그 몇 가지만 열거하더라도 전화, 전신, 수신용 테이프, 텔레타이프 극초단파 시설 등을 크게 확장시켰다. 효과적인 방어조직에 불가결한 요소인 이 고도로 능률적인 통신망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의미하는 이 통신망은 우리의 자유기업과 산업문명의 소산이다. 어떤 정부나 아무리 독재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앞으로 3년 이내에 이와 같은 조직을 창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심지어 노예노동을 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나의 주장을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결코 전자 마지노선을 주창하는 것도 아니요, 방위전략을 주창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공격만이 전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쟁 원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전에서의 방어는 적이 5천마일 밖에서 공중에 떠오른 그 순간에 비행기, 유도탄 및 핵탄두를 가지고 이를 요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단한 전자전투이다. 그리고 역시 공격도 공격을 위해서 공중에 떠오른 그 순간부터 투표를 향해 가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격과 방어는 둘 다 제공권 획득을 위한 전체의 투쟁에서 불가결한 부분인 것이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해외기지가 이제는 공격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주대륙에서 직접 작전하는 탄도, 로켓 추진의 장거리 공격력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적의 치명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격력은 적의 방어를 무력하게 만드는 우수한 역계(逆計)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적의 공격세력을 말살(抹殺)하기 위한 우수한 대(對)역계를 가진 방어세력을 우리의 대륙에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소련보다 아직도 우월한 유일한 영역이다.

최근 소련으로부터 나온 군사적 선전은 제트 폭격기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골동품(骨董品)이 되었다고 말한 흐루쇼프의 성명이다. 그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롱조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가 우리의 4배나 되는 높은 비율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흐루쇼프의 성명은 음흉한 간책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즉 우리는 1961년까지에 ICBM에 있어서 소련과 동등해지려고 모든 노력을 이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략공군(SAC)을 희생시키고 말지도 모르고, 한편 소련은 그 이전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하늘이 까맣게 폭격기를 가지고 우리를 뒤덮어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히틀러의 V-1, V-2, 제트기, 로켓 요격기 및 기타 진기한 과학적 고안물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 10년이나 되는 B-17과 B-24와 같은 폭격기를 가지고 파상공격을 감행하여 독일 전토를 뒤덮어 버렸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의 제트 추진 전략공군은 4배로 증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항속거리는 연장되어야 하고 적의 기습공격에서 생존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대륙간 폭격기의 생산은 1주 7일 3부교대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최단 시일 내에 소련과 동등해지기 위해 우리의 탄도탄의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통신, 전자장치 및 유도탄 생산을 촉진시키고, 조기경보망을 연장하며, 특히 충돌방법에 의한 ICBM 폭격용 대(對) 유도탄 유도탄을 신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대륙방공세력을 조성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정당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타성과 감상과 전통에 의해서만 보존되고 있는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려는 '그릇 인도된 시도'를 고집하는 한 우리는 모든 이와 같은 것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전통을 존중하고 찬양한다. 나는 단결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상속물이 인간의 발달을 방해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향수병의 과거로 추방하고 우리의 군사기구에 필요한 근본적 변화를 단행할 만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냐, 그렇

지 않으면 파괴적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당하느냐, 하는 데 있다. 끝.

필자소개(筆者紹介)

'공군력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고 현재 미 공군 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는 필자, 알렉산더 P. 드 세버스키 씨는 평생을 비행기와 공군력의 연구에 바쳐오고 있다. 1894년 러시아의 티폴리스에서 출생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비행사로서 13대의 독일 비행기를 격추한 용사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항공관계임무를 띠고 미국을 방문 중에 있었는데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눌려 살게 되었다.

20대에 그는 미 공군의 선구자로서 유명한 빌리 미첼 장군의 고문이 되었고 폭격조준기를 설계했는데, 당시 미 육군항공대에서는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일에 그는 전방 기지와 공중에서 장거리 추격기를 가지고 일했다. 그는 행정 능력과 테스트 파일럿의 자격을 겸비한 보기 드문 능력가였다. 미 육군항공대 예비역 소령인 드 세버스키 씨는 현재의 리퍼블릭 항공기 회사의 전신인 세버스키 항공기 회사의 창설자이다. 1939년에 그는 25년 동안 항공에 헌신해온 공적으로 하먼 상비(賞碑)[5]를 받았다.

드 세버스키 씨는 20년 전부터 공군력과 국방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는 예언자가 되어 왔다. 1939년 찰스 린드버그 씨가 전 세계에 대해 영국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불과 2, 3일에도 못 가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드 세버스키 씨는 영 공군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영 본토는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일에 역사가 증명한 바와 같이 드 세버스키 씨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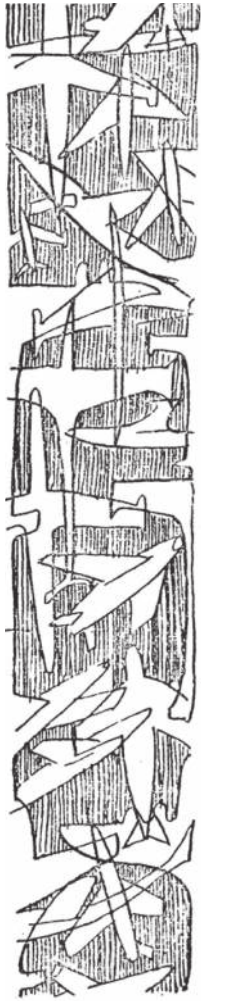
여기에 게재된 본 기사는 드 세버스키 씨가 미국과 전 자유세계에 대해 부르짖는 또 하나의 경고이다.

5) 원문의 상비(賞碑)는 상패(賞牌)로 보임.

전력론(戰力論)

군비(軍備)를 중심(中心)으로 한 몇 가지 기본적(基本的) 사고관(思考觀)에한 시비(是非)

공군 대령 이경춘(李敬春)



제3절 연합적전략관(聯合的戰略觀)에 입각(立脚)한 근대식(近代式) 군비보유(軍備保有)의 문제점(問題點)

클라우제비츠의 고전적인 전쟁에 대한 정의는 '전쟁은 변형된 정치의 연장이며, 폭력행위'였는데, 현대에서는 정치기술 그 자체가 일종의 전쟁기술로 변모했으니 지금은 곧 폭력수단 이외의 방법으로서 추구되는 냉전이라는 시대이다.

냉전을 야기한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나 혹은 전래적인 국민감정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정치이념의 차이 생활원리가 서로 합치할 수 없는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하는 2대 진영의 극히 긴장된 세력균형 상태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재래식인 세력균형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핵과학의 발견으로서 이루어진 전쟁무기의 극(極)파괴성이 가져온 포화된 힘의 균형 이데올로기의 파동적인 투쟁인 것이다.

인류가 전화할 줄은 알면서도 이를 억지할 줄 모르는 새로운 물리적인 힘은 현대전을 파괴의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의 전쟁에 혁명을 가져왔고,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사용 가능하게 된 그 파괴성의 증대는 전략개념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도 자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일부 전략가 및 전문가들은 원수폭의 가공한 파괴력 그 자체가 대전쟁의 가능성을 감소하며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쟁의 수행목적인 자기보존이라는 것이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여기에서 새로운 전략개념이라는 것은, 1955년 3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행한 연설 가운데, "지금은 이들 소핵무기가 엄격히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전투에 있어서 소총탄이나 기타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안 된다는

이유를 나는 발견할 수 없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전면전쟁 대신 국지전쟁이라는 관념 하에서 소핵무기로서의 전술적 전쟁 양상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소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군축회담의 진의도 이 핵무기에서 오는 공포감에 입각되는 것인 동시에 가능한 한 대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국가의 세계적화라는 야망은 결코 이러한 파괴무기의 출현으로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괴뢰군이 원자무기를 보유하며 중공군 35만을 포함하는 74만 2천 명의 지상군과 24개의 지하시설을 가진 비행기지로서 7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는 공군과 52개소의 레이더 장치소 그리고 900대에 달하는 전차를 가짐으로써 휴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증강되었고 이것이 단적인 소련의 의사표시일 진대 한편으로는 군축이라는 문제 등으로서 전면전쟁을 회피함을 기도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여 국부적인 잠식(蠶食)을 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경이적인 초파괴무기의 출현도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소시켰으나, 국지전쟁마저는 부인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유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는 NATO 중동지구에는 MEATO 동남아시아에는 SEATO를 극동지역에 있어서는 미중 미일 한미협정이라는 일련의 포위방어선을 구성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대공포위선의 일부분 기지에 해당하는 한국이 미국의 그 전략적 견지에서 점할 수 있는 가치에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을 포기(抛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여 그로 인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군비의 중요성을 논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리고 지나간 한국전란을 발생시킨 동기의 일 원인으로서 미국이 한국을 그들의 극동방위선 외에 방치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물론 전략적인 면에서는 절대성을 가지지 않은 하나의 전초기지적인 존재 그 이상으로 의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 대외원조책임자인 존 B. 홀리스타 씨가 상원외교위원회의에서 증언한 한 구절에 '대외원조계획을 2년간 감독해온 경험으로서 동 계획이 한국 대만 월남에서 공산침략을 저지시키고 있는 무기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동 계획의 비용보다 몇 배나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조비를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함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한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 이상의 가치로서 미국에 이익이 되므로 원조하다는 말은 결국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고가로 될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리라는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나 혹은 전략적인 문제에도 동일하며 고수해야 할 진지의 가치가 이를 수호하는데 소요되는 희생이 다대할 시는 이를 포기하여 후퇴하는 것은 전술의 기본적 이론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포기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도 아니며 포기된 후의 단독적인 안전보장이라는 문제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방위를 포기하여 그의 방위선을 후퇴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힘으로서도 한국방위에 지불될 대가가 너무나 고가로 될 것이며, 한국의 힘 자체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결과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고려하는 전략적인 대가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상으로 초과되지 않을 경우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개재하는 것이니, 만일 적의 재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점하는 전략적 가치상 개전초기에 미군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까지 상실될 수 있는 제반 요소가 크면 클수록 그 가치는 반비례적으로 감소되며, 또 그에 소요되는 노력은 증대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인 주안(主眼)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여 방위선 외에 방치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면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한국방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최후까지 한국 자체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신적 문제는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전략문제와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고립적인 상태 하에 포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조작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약간 다른 각도로서 구명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묵과(默過)하여서는 안 된다.

개전 초기에 공산침략군을 저지하는 절대불가결한 요소는 현존하는 군비력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그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국의 능력이 이에 미급하므로 이의 만족한 해결의 관건은 미국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현재 한국군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능력이 강대한 군비와 공산군이 부유하는 불균형을 인정하며 그 대책을 강구코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전략 개념의 일부인 현지군 즉 한국군의 강화로서 미

국 자체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그 부족은 미국의 기동성 있는 군의 운영으로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체가 불안감을 금치 못하는 정도로 주저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를 미 국방장관 찰슨 윌슨 씨의 기자회견담에서 들어본다면

"미국은 주한미국군 2개 사단을 원자무기로서 장비시킬 것을 심의 고려 중에 있다."고 말하여, 현재의 군비의 불균형 상태를 인정했고 또 이어서

"그러나 한국군에 강력한 무기를 지급할 전망은 요원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므로 열렬한 한국 지도자는 북한을 공산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북진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52년-1953년 제7회 국연 총회의 의장이며 현재 캐나다의 외상인 레스더 피어슨 씨의 저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전기 윌슨 씨의 언급과 대조하여 보면, 그는 말하기를 "현재 어느 국가적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유일의 수단으로서 타국을 자기국가의 전쟁에 유인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갖는 몇 개의 정부가 극동에 존재한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 자체는 우리는 동정할 수 있는 가치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단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 목표라는 것은 공산주의자에게 탈취당한 자유와 영토를 탈회(奪回)하는 그것이며, 그를 위한 전쟁에 서방의 어느 국가는 필연코 지원할 것이라고 단독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들 아시아 여러 나라 정부는 그 민주주의의 실행이나 국민의 자유에 대한 태도는 아직 민주주의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공적인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민주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러한 전쟁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선언되고 있다."라고 논급(論及)했다.

또 NANA 외부국장 존스탄틴 브라운 씨의 '강화된 한국군과 UN군'이라는 최근해설을 보면

"한국의 지도자는 북한의 강대한 군비보유의 현실에 비추어 한국민족의 현대식 장비 공급과 군비증강에 관하여 백악관에 보내는 각서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미국인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가 잘 훈련된 한국군에 현대식 장비를 공급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책수립자들은 더욱 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책임 있는 사관들에게 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를 질문하면 비공식적인 답변으로서는 만약 한국군이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된다면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 개의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국가 목적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전쟁을 유발시키고자 원하며, 강력한 군비를 보유하여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는 그러한 충돌을 야기한다는 위험을 느끼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침략을 부인하며 평화를 수호한다는 군사원조의 대의명분에 역행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즉각적으로 미국이 세계여론 앞에 고립되지 않을 수 없는 고경(苦境)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적 이익의 그 본질에 비추어서 한국을 지원하는 것을 본의는 아닐지라도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불행을 현실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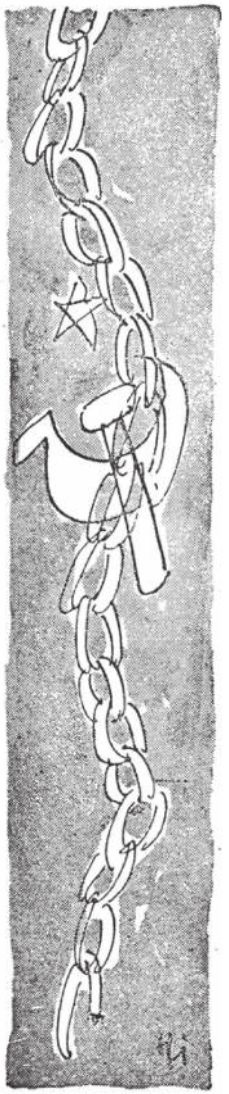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중 '국제연합에 대해 부담한 의무에 배치(背馳)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적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3조에서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는 미온적 협정성격을 가지게 된 하나의 큰 이유인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상호방위협정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그 불안전성의 원인이 나변(奈邊)[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또 현대화된 강력한 군비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자기 자신이 조작(造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전략상의 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전에 그 위험을 스스로가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 국가의 근시안적 전략개념의 소이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견고한 연합의 영속성 있는 유대는 그 국가이해가 상호충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명심해야 하며, 한 주권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보다 높은 전략관에 입각하지 않는 한 한국이 원하는 전력의 보유는 불가능하며 설령 강대한 전력을 가질지라도 연합적 전략에 철저히 기초 지워지지 않는 한 한국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엄존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산숙청(共産肅淸)의 흑막(黑幕)

나지 숙청(肅淸)과 그것이 의미(意味)하는 것

박성환(朴聖煥)



지난 6월 17일 모스크바 방송은 돌연, 비통하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만 1958년의 헝가리 혁명을 지도했던 임레 나지[6] 씨를 비롯한 6명의 헝가리 지도자들을 처형했다고 발표했다. 임레 나지 씨는 1956년 10월에 헝가리 인민이 임시적이나마 소련의 앞잡이들을 몰아내고 해방과 승리의 개가를 올렸던 5일 동안의 단명으로 끝난 혁명정치를 영도하던 수상이었다. 그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지 씨 밑에서 국방상에 취임하여 용맹하게도 헝가리의 자유 투사들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팔 말레테르[7] 씨와 2명의 신문기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지 씨를 비롯한 6명의 헝가리 혁명군 당시의 영웅들이 처형되었다는 보도는 즉시 전 세계 인민의 경악(驚愕)과 분노를 자아내었다. 자유세계 여러 나라는 그들 소련의 악랄(惡辣)하고도 야만적인 배신행위라고 규정했고, 인도, 미얀마 등을 비롯한 중립국가들과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폴란드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다. 유엔 헝가리 특별조사위원단에서는 나지 씨 처형에 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기타 자유세계의 일부 유력한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그를 문제 삼으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나지 씨가 처형되었다는 보고에 접하고 우리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소련이 그의 처형을 발표한 시기였다. 돌이켜 보면 나지 씨는 그가 간악한 소련의 흉계에 빠져 체포된 지 18개월 만에 처형된 셈이다.

1956년 10월에 헝가리 혁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헝가리 인민은 닷새 동안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그때 나지 씨는 헝가리 인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 정치를 조직하여 수상에 취임했던 것이다.

이때 헝가리 인민의 의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고, 외부에서는 그들의 영웅적인 피의 항쟁이 드디어 열매를 맺어 헝가리는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완전독립을 획득할 것같이도 보였다. 소련은 헝가리 인민의 죽음을 모르는 항쟁 앞에 어떻게 손을 써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고, 당황한 소련 부수상 아나스타스 미코얀[8]은 헝가리로부터 소련군을 즉시 철수시키겠다고 공적으로 엄숙히 선언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4일 후에 사태는 돌변했다. 임레 나지 수상은 부다페스트 방송을 통해 헝가리 및 전 세계 인민을 향해 비장한 어조로 소련군이 부다페스트에 돌연 진주하기 시작했다고 통고했다. 나지 씨는 즉시 유고 대사관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련인들은 나지 씨를 유고 대사관으로부터 유인해 내기 위해 갖은 재주를 다 피웠다. 1956년 11월 21일 소련군의 손으로 수상 직에 올라앉은 야노스 카다르[9]는 유고 정부에게 '임레 나지 씨와 그의 일행은 절대로 그들이 취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안전하게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서약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나지 씨 일행이 유고 대사관에서 나오자 소련군은 즉시 그를 체포하여 버렸다. 카다르는 얄밉게도 나지 씨가 루마니아에 피난을 요구했기 때문에 루마니아로 호송되었다고 발표했다.

나지 씨와 이번에 운명을 같이 한 전 국방상 말레테르 씨도 이와 거의 똑같은 수법으로 소련인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말레테르 씨는 혁명 중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선두에 나서 그들을 지휘한 사람으로서 나지 씨에 의해 국방상에 임명되었다. 아나스타스 미코얀이 소련군 철수를 발표하자 그는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소련군 철수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근방의 토콜[10]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 갔었다. 그러나 밤중이 되어 소련의 비밀경찰[11] 두목 이반 세로프[12]가 돌연 회담 장소에 들어서더니, 말레테르를 체포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소련 대표들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했고 소련 대표 단장이었던 아지닌은 그에 항의를 제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세로프가 아지닌을

6) Imre Nagy
7) Pál Maléter
8) Anastas Ivanovich Mikoyan
9) Janos Kadar
10) Tököl
11) KGB
12) Ivan Serov

데리고 구석에 가서 무엇인지 수군거리더니 아지닌은 곧 소련 대표단원들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말레테르는 마침내 간악한 소련 비밀경찰의 손에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다.

생각컨대 임레 나지 씨를 비롯한 헝가리 혁명의 영웅들이 악랄한 흉계에 넘어가, 소련인들에 의해 체포된 몸이 되었을 때, 자유세계는 소련이 그들에게 완전 통행권을 부여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했으면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오늘의 운명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나지 씨가 체포된 지 18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소련이 그를 처형하고 마치 그것이 일으킬 파문(波紋)을 미리 노리기나 한 듯이 태연하게 모스크바 방송을 비롯해 기타 그의 위성 여러 나라의 방송망을 통해 널리 선전했다는 사실에 각별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뿐이다.

그러면 소련이 오늘날 나지 씨를 처형하고 또한 그를 널리 선전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들은 나지 씨 일행을 멀리 시베리아나 혹은 다른 깊숙한 소련의 산중으로 끌고 가 비밀리에 살해해 버리고 그들이 폐병이라든지 기타의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은 것 같이 가장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또한 니키타 흐루쇼프가 그와 같이도 목이 닳도록 부르짖던 동서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성숙해가고 있는 오늘날 돌연 나지 씨의 처형을 발표한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흐루쇼프를 비롯한 교활한 소련 지도자들이 나지 씨 처형이 세계전체에 던질 파문(波紋)을 예지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며, 그들은 반드시 그것이 여태까지 미소(微笑) 전술과 경제원조 등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나지 씨를 비롯한 헝가리 혁명의 영웅들이 처형되었다는 보도에 접한 자유세계의 소련문제 전문가들과 시사평론가들은 그 뒤에 숨은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구한 추측과 판단을 가하여 왔다. 그들이 대체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결론에 의할 것 같으면, 나지 씨와 그의 부하들을 소련이 처형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며 위성 세계에 일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소련이 나지 씨 처형을 단행한 것을 전후하여 크렘린은 확실히 수상한 동향을 보였다. 크렘린은 서방국가들에 주재하는 주요 대사 4명을 모스크바로 소환하여 그 무엇일지는 몰라도 비밀지령을 전달했고,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열었으며,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숙의를 거듭했던 것이다.

최근에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사이가 갑자기 악화하고 상호간에 비난과 반박(反駁)이 오고가고 하기 시작하자 서방 진영에서는 그에 관해서 두 가지의 관측이 떠돈 바 있었다. 그 하나는 흐루쇼프가 어디까지나 계몽된 공산주의자로서 스탈린 시대의 암흑정치를 지양하고 어느 정도 자유화 정책을 신봉하는 자라는 전제에 입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모스크바와 베오그라드의 관계가 악화한 첫 번째 이유는, 크렘린 내에 미하일 A. 수슬로프를 중심으로 하는 스탈린주의적인 파벌이 모가지를 들기 시작했고, 중공의 마오쩌둥이 그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를 가장 잘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중공이 유고의 티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최선봉을 섰다는 사실을 들고 있었다.

둘째의 견해는, 흐루쇼프 역시 근본적으로는 스탈린주의자이며 현재까지 그가 쳐들었던 '사회주의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라든지, 혹은 개인숭배의 지양 등은 모두 그가 오늘날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했던 일시적인 방편이며,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사람들은 소련 정책의 여태까지의 표면상 유동성은 모두 현실주의적인 흐루쇼프가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조작하고 조종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에도 크렘린의 제1인자로서의 흐루쇼프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으며, 유고와의 관계가 악화한 것도 역시 흐루쇼프 자신의 의사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임레 나지 씨와 팔 말레테르 씨를 포함하는 헝가리 혁명지도자들이 처형되었다는 모스크바 방송의 공식 발표는 이러한 구구한 억측에 종지부를 찍은 감이 있다. 즉 전자의 니키타 흐루쇼프가 계몽된 공산주의자이며 자유화의 경향을 가진 독재자라고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의 주장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소련이 나지 씨의 처형을 발표한 시기와 관계하여 생각나는 점은 그것이 1953년 6월 17일 공산 동독에서 전후 처음으로 인민봉기가 일어난 지 5년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란 언제나 '기념일'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소련 지도자들은 나지 씨 처형을 발표하는데 특히 이날을 선택함으로써 위성 여러 나라에게 한층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줄 것을 노렸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생각컨대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대외정책에서 동유럽 위성 여러 나라를 그의 손아귀에 잡아 두는 문제는 항상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를 이루어 왔다. 그의 생존을 위해 언제나 서방측과 겨뤄야만 하는 소련에게 동유럽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3년 6월의 동독 폭동 이래 동유럽 위성세계는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어느 때 폭발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스탈린의 빈틈없는 잔학한 독재정치로 억눌려오던 동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동경심(憧憬心)이 급속히 자라기 시작했다.

따라서 흐루쇼프가 이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지배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위성 여러 나라에 대해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모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공산당 전당대회 석상에서 눈물을 짜가며 스탈린을 비난하고 '개인숭배'의 지양이니 '사회주의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등의 슬로건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흐루쇼프는 이와 같은 소위 '신(新)노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몸소 베오그라드를 방문하고 티토 원수에게 과거의 '스탈린의 잘못'에 사과하는 동시에 새로운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흐루쇼프의 신노선은 결과적으로 볼 때, 목적할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소련에게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그의 대 위성국 관계에서 그러했다.

흐루쇼프의 신 노선은 유고슬라비아를 소련 진영 내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위성국 인민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구를 조장시켜 마침내 헝가리 혁명, 폴란드 폭동을 야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헝가리 혁명 이후 흐루쇼프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관계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스탈린주의자다."라고 선언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소련이 또다시 스탈린주의로 복귀하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신호이기도 했다.

오늘날 소련은 스탈린주의로 또다시 완전히 복귀한 듯한 감을 준다. 특히 소련이 유고의 '수정사회주의'를 맹렬히 공격하고 전력을 다하여 티토 원수를 쓰러뜨리기 위한 운동을 일으킨 것이 흐루쇼프가 니콜라이 불가닌[13]을 몰아내고 수상 직마저 박탈하여 소련의 전력권을 한 손아귀에 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흐루쇼프는 마침내 제2의 스탈린이 되었고, 공산세계 전체에 군림하는 새로운 독재자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흐루쇼프가 나지 씨와 팔 말레테르 씨의 처형을 명령한 것은 위성세계에게 그의 권위를 인식시키고 제2의 나지는 앞으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흐루쇼프가 스탈린이 손수 지명한 후계자였던 게오르기 말렌코프[14]를 쫓아버리고 소련의 실권을 장악한 이래 확실히 단시일 내에 너무나 많은 모험을 감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억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수명도 그의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흐루쇼프는 근세 소련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유능한 정치가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히 증명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작년 가을에 몰로토프, 말렌코프, 카가노비치[15] 등의 볼셰비키의 원로들을 일거에 숙청해 버리고, 다시 금년에 들어서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던 게오르기 주코프[16]마저 무난히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 오랫동안 허수아비로 인정되어 오던 니콜라이 불가닌을 정식으로 수상직에서 물러앉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뺏음으로써 마침내 당 제1서기와 각료회의 의장이라는 감투를 혼자서 독점해 버렸다.

소련 내에는 현재 흐루쇼프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올해 77세의 클리멘티 보로실로프[17]는 정치적 야심을 부리기에는 미하일 수슬로프[18]는 아직 젊지만 흐루쇼프의 모가지를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소련 내에서 그의 지반을 튼튼히 한 만큼 위성세계에 대해서 손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공산세계 전체를 동원하여 유고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헝가리 혁명의 영웅 임레 나지 씨마저 처형해 버리는 대담한 행동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13) Nikolai Alexandrovich Bulganin

14) Georgy Malenkov
15) Lazar Moiseevich Kaganovich
16) Georgy Zhukov
17) Kliment Voroshilov
18) Mikhail Andreyevich Suslov

<기행소감(紀行所感)>

멕시코에 다녀와서

김재호(金在鎬)

나는 지난 3월 20일부터 동 25일까지 6일간 멕시코국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반공대회 예비회의에 백낙준(白樂濬) 박사 최규남(崔圭南) 박사 조민하(趙民夏) 선생을 모시고 20여 일 동안 미국을 거쳐 멕시코국을 다녀왔다.

원래 발표력이 부족한 나에게 글을 부탁하기에 사양을 했으나, 멕시코국에 다녀온 분이 별로 없다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행 중 대략 보고 들은 것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에 이번 대회의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멕시코국에 대해서 몇 마디 쓰고자 한다.

이번 대회의 성과를 말하기 전에 이번 대회의 주최자의 하나인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의 약사(略史)와 이번 대회가 개최되기까지의 경과를 써야 할 것이다.

<멕시코국 국부(國父)인 Benito Juarez 152주년(週年) 생일(生日)에 그의 동상(銅像) 앞에서 우단(右端)이 필자(筆者)>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은 세계적인 반공지도자이신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제창하시어 1954년 6월 15일 진해에서 한국, 자유중국(대만), 필리핀, 월남, 태국, 홍콩, 마카오, 류큐(琉球)[오키나와] 등 5개국과 3개 지역 민간대표 42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아시아 민족반공대회를 개최한바 동 대회에서 공동선언 및 조직원칙 등을 결의함으로써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이 국제적 제휴로서 발족하게 된 것이다.

1949년 이래 복잡 미묘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공유화정책에 대한 항거와 아시아 민족 간의 단결을 주창하고 1954년 6월 15일 제1차 아시아 민족반공대회를 개최한 이래, 1956년 3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반공대회를 개최하여, 연맹 헌장을 채택했으며, 1957년 3월 27일부터 월남 사이공 시에서 개최된 제3차 반공대회에서는 호주, 버마(미얀마), 말레이 연방(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터키 등을 포함하는 정식 회원 국가 14개국과 그리스와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옵서버 국 5개국을 포함하는 19개국의 참석 하에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의 항구적인 사무처를 월남 사이공(호치민)에 설치할 것과 1956년 이래 철의 장막 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내분과 분규가 거듭될수록 본 연맹은 적극적인 행동으로써 문화 경제 교육 기타 모든 부면의 교환과 협조를 건실히 할 것 등을 결의하는 한편 동년 9월 26일에 중국 타이페이(台北)에서 제1차 연맹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 이사회에서는 세계반공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중남미 지역의 20여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 미 대륙 방위연맹(Inter American Confederation for the Defense of the Continent)과 유럽의 20여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연락사무소(International Liaison Bureau)와 합작하여 1958년 3월에 멕시코시티에서 세계반공대회를 위한 예비회의를 개최키로 결의가 되어 당시 양 기구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타이완에서 아시아 민족반공연맹과 전개 2단(團) 개체가 합의해 공동주최로 1958년 3월에 멕시코 시에서 세계 반공대회 예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어, 지난 3월에 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실로 1954년 6월 15일 진해에서 뿌렸던 씨는 얼마 안가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예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본 대회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첫째로, 본 대회의 일자 및 장소이다. 일자는 헝가리의 반소(反蘇) 반공의거일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의 제2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23일로 결정했다.

장소는 그 나라 정부의 협조 여하를 고려하기 위해 제3 후보지까지 정했다. 제1 후보지는 터키의 이스탄불, 제2 후보지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제3 후보지는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터키의 이스탄불이 거의 확정적인데, 특히 이곳을 택한 데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아아(亞阿)회의를 카이로에서 가진 적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카이로에 대칭되는 점이 이스탄불인 까닭이다.

이 회의에서는 본 대회의 명칭도 결정을 보았다. 맨 처음에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대회'라고 제의가 나왔으나 그것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지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산 진영이나 중립국들도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을 수 없다 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반공대회(World Anti Communist Congress for Freedom and Liberation)라고 명칭을 정했다.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곧 그것은 철의 장막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천만의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다섯 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첫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강화할 것.

둘째, 공산선전의 무대로 되어 버릴 우려가 있는 동서 간 정상회담의 반대.

셋째, 동서 간 통상촉진의 반대.

넷째, 공산세력 침투의 위험을 내포하는 동서 간 문화교류의 반대.

다섯째, 철의 장막으로부터 넘어온 피난민에 대해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원호사업에 자유진영이 공동책임을 질 것, 등 다섯 가지의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조직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14개국 대표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었으며 우리 한국도 한 멤버가 되었다.

운영위원회 밑에는 사무국을 두어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그리고 부원 약간명으로 조직되었다. 이곳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의 결의에 따라 사무집행을 하며 예비회의의 참가국 기타 각국에 산재하는 반공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기능을 발휘하여 완벽을 기할 것이다.

또한 세계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사무국을 설치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파키스탄 대표가 임명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임원의 선정을 보았는데 운영위원회 사무총장에는 미국에 있는 '백만인 위원회(중공을 UN에 가입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반공단체)의 사무총장인 리브맨 씨이며 앞으로 개최될 본 대회의 의장으로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아들이며 루즈벨트 미 대통령 당시에 해군 장관을 지냈고, 뉴저지 주의 지사를 지낸 바 있는 찰스 에디슨 박사를 추대했다.

이제 사무국은 헌장을 기초할 것이며 본 대회의 준비에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야말로 명실 공히 그 기능을 강화하고 헌장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철의 장막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용기와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뜻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부여된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한국을 주동으로 발족한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이 드디어 세계반공대회로 확대, 강화되는데 성공 지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 큰 성과이며 세계에의 공헌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멕시코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 웅대한 나라에는 자연의 미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비롯하여 저열대(低熱帶) 지방의 특수성과 유명한 화산 등이 있으며 특히 고대 아즈텍(AZTEC)의 유물이 풍부하며 이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형적으로 변화가 많아서 열대지방으로부터 온대지방에 이르는 기후적 차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 나라는 동서의 2대 산맥이 횡단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개의 큰 산맥 사이에는 비옥(肥沃)한 분지가 점재(占在)하고 있다. 중앙 평원은 이들 2대 산맥의 중간에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들은 이들 농업지방에 산재되어 있다.

멕시코의 명칭은 아즈텍(AZTEC)의 군신(軍神)인 메키시트리(MEXITLI)란 말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이 나라는 에스파냐[스페인]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3대 인디아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1325년에 아즈텍 인들은 오늘날 멕시코 시티인 테노티치틀란(TENOCHTITLAN)이라는 도시를 창설했다.

유카탄(YUCATAN)은 1517년에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FRANCISO HERNADEZ DE CORDOBA)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1519년에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S)가 베라크루스(VERACRUZ)에 상륙하여 2년간에 아즈텍 인을 정복시켰다.

이 나라는 근 300년간이나 에스파냐의 부왕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다.

1810년 9월 16일 미구엘 이달고(MIQUEL HIDALGO)의 영도 하에 멕시코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구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12년에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이 나라의 국부이며 인디언 출신인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가 1858년에 대통령이 되어

1867년에 프랑스의 지배 하에서 해방을 시켰다.

동시에 유명한 법률가인 후아레스(JUAREZ)는 민주적인 헌법을 공포했다.

멕시코는 29개의 주와 두 개의 지역과 연방 지방을 포함하는 대합중국(大合衆國)이다. 행정권은 대통령(6년제)이 행사하며 직접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거되며, 입법권은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행사한다.

또한 이 나라는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을 승인 투표했으며, 한국문제 토의에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멕시코 안을 제출하여 국련(國聯)에서 중남미 여러 나라의 리더 격이 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 시에는 34만 8천 달러에 해당하는 쌀 등을 한국에 원조한 적이 있다. 1905년에 1,030명의 우리 교포가 멕시코로 이주하여 그곳 농장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중 약 400명이 1920년에 다시 쿠바로 이주했으며, 현재 멕시코 전 지역을 걸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수는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 멕시코시티에는 약 300여 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1905년에 이곳으로 이주한 교민의 1세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2세, 3세, 4세들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현지 국민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어인 한글은커녕 우리의 말도 하지 못한 채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심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중남미 각국과의 국교는 물론 우리의 교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우리의 공관을 이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필자(筆者) 한국 아시아 반공연맹(韓國亞細亞反共聯盟) 섭외부장(涉外部長)>

<기행(紀行)>

바기오

최옥자(崔玉子)

지난 3월 14일부터 3주간 필리핀 북부 산악지대 휴양지인 바기오[19]에서 열린 모랄 리아마먼트(도덕재무장운동)[20] 아시아 대회에 참석했다. 2년 전에도 이곳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여자 의사회가 있어, 다년간 많은 일을 했었지만 이번에 모든 것이 특히 새로워 보인 것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새로운 정신 사상운동에 참가한다는 것이 나에게 알지 못할 긴장감을 주었다.

마닐라 비행장에 내린 순간의 뜨끈한 바람은 약간 숨이 답답할 정도였다. 우리 일행은 쉴 사이도 없이 마닐라 국제비행장에서 차를 타고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국내비행장에 준비된 마닐라에서 바기오에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었다. 바로 우리나라 부산 서울간의 K.N.A 여객기 같은 것이었다.

약 1시간 2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해발 4천 피트나 되는 고원지대인데 안개가 끼어 도중의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다. 26개국 대표 250명이나 되는 굉장한 국제가족은 이곳 커다란 아름다운 파인즈 호텔[21]에 여장을 풀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학교 음악과의 졸업음악회에 참석했던 비라민(동남아 언론기자회장) 씨 조지 이스트맨(미국 로스앤젤레스 전 상공회의소 소장)씨 존 우드(M.R.A 본부 사무담당자) 씨 등의 환영을 받으며 음악회 때의 즐거웠던 감상을 또 다시 환담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각국 대표도 주로 정치가가 많았다. 특히 각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많이 끼어 있었지만, 그 외의 각계각층의 인사가 다 섞인 특수한 모임이었다.

이 바기오 시의 기분은 매우 서늘하여 조석으로는 스웨터를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였다. 이곳은 필리핀의 유일한 유명한 피서지이다.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있고, 각국 공관이 별장을 가지고 있어, 이 나라의 여름의 수도라고도 할 만한 곳이다.

우리 250명은 이 호텔에서 숙식을 같이하고 또한 회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이

19) Baguio
20) Moral Re-Armament
21) Pines Hotel

회의의 특색은 모든 나라의 대표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승전국이고 패전국이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길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으려는 거룩한 힘이 한자리에서 불꽃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엇이 옳으냐를 찾아 즐겁게 인간의 모든 힘을 아낌없이 바쳐보자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그 목적과 표준을 찾는다는 것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사명이었다.

이번에 한국팀을 참석시키기 위해 미국 사람 로렌드 하커 씨는 자기의 자동차를 기쁜 마음으로 팔아서 비행기 표를 사 보내왔다. 한국 사람을 위해 차까지 팔아서 바친다는 것이 M.R.A 정신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생활이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적에 인간은 가장 고독하고 약해지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본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나라와 나라에만 사람과 사람에만 불평과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 에서도 항상 자기 아닌 자기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실을 알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평화를 얻게 하는 길은 역시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닌, 자기가 발견하고 깨닫고 노력하여 실천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은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M.R.A는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다 주었다." 라고 극찬했다 한다.

중국에서 참석한 하응흠 장군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M.R.A 운동뿐이라"고 말했다.

이름만이 아시아 대회이지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서서[瑞西: 스위스] 등등 세계 각국 사람이 다 모인 것 같다.

회의장에서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각국 대표가 각각 자기 모국어를 쓰는데 그 말을 모두 영어로 통역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영어가 완전히 국제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보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는 영어 하나만은 완전히 마스터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또 어떤 모임에 참가할지라도 불편이 전혀 없으리라고 믿어진다.

바기오 농과대학에는 버섯 연구로 유명한 박재영 박사가 계셨다. 하루는 그분 댁에 우리 일행이 초대받아 오래간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음악을 듣고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이분은 어찌나 바기오 시에서 유명한지 '머쉬룸(버섯) 박'이라고 하면 길가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그곳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다.

하루는 내가 한복을 입고 거리에 약을 사러 나갔다가 약방 여주인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기엔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아 – 머쉬룸 박 박사의 고국이시군요. 하고 말하기에 깜짝 놀랐다. 바기오를 떠나는 며칠 전 일이다. 박 박사 댁을 가려고 나섰는데 밤에 갔다온 길이 되어 잘 찾을 것 같지 않아 교통순경에게 물었다. 그는 친절하게도 상세히 안내하여 주었다. 물론 교통순경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우리 한국의 박 박사가 이렇게 모든 시민과 친히 알고 지낸다는 것이 더 감명 깊었다.

하루는 박 박사의 안내로 필리핀 산 사람의 생활을 견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산속에 군데군데 부락을 이루고 사는데, 그 살고 있는 집은 우리나라 판잣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남자고 여자고 온통 벗고 험한 곳만 겨우 가릴 정도였다.

학교도 없고, 물론 글도 모르고 나서 5, 6세만 되면 나무 깎기를 시작한다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조각을 잘하는 데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의 경작하는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야생하는 과일을 또는 목각으로 업을 삼고 원시 그대로를 즐겁게 사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 산중에도 국회의원 출마 때의 광고지가 이 벽 저 벽을 너저분히 붙은 것을 보고 이들이 자기 이름자도 모르지만, 유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유진영의 민권주의는 이렇게 해서 급급한 성장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기오에서 마닐라에 간 날이 우리 이 대통령 탄생일이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저녁에 그곳 각료와 각국 대사들을 초대한 칵테일파티가 있었다. 내가 알 만한 사람으로는 필리핀 외무장관 내외가 참석했고, 우리나라에 공사로 오래 와있던 닥터 가스트로 부인도 만났다. 그 분은 우리나라 색동 옷감으로 필리핀 양복을 지어 입고 와서 한국 자랑을 한바탕 해주어 매우 유쾌했다.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교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을 게 아니라 그 부인들에 대해도 한국 여성들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우리 일행은 자유중국(대만) 하응흠(河應欽) 장군의 초대를 받아 4월 3일 마닐라를 출발하여 저녁 다섯시 경에 타이페이에 도착했다. 비행장에는 하장군 외에 백여 명의 합창대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나중에 듣고 알았지만, 그 백 명의 청년들이 작년 여름에 미국 마키노 섬에서 열린 청년 대회에 가서 2개월 간 훈련을 받고 와서 중국에 도덕 재무장 운동을 열렬히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백 명의 모든 비용은 미국의 미스 토커라는 여인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 재산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전에 상하이에서 오래 살아 중국과 중국 사람을 무척 사랑하여 임종할 때 자기 딸을 보고 이 남은 재산은 중국 청년들을 위해 쓰라고 유언했다 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때마침 중국 청년 백 명이 미국에 초대를 받고도 달러가 없어 곤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기쁘게 그 재산을 바쳤다는 것이었다. 그분도 이번 대회에 참석했기에 직접 그 분의 감회를 들었는데,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을 벗어 놓은 것 같다고 하며 중국은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민족과 역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 양명산(陽明山) 총칭 그래스마운틴[22]은 나무도 많고 온천도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 장 총통(總統)이 주로 외국 손님을 이곳에 영접하고 또 국민당 지도자들을 이곳에 오랫동안 합숙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유황 온천이므로 좀 냄새가 역겨웠지만, 주위의 풍경은 매우 좋았다.

공회당도 약 천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 건물이었다.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들의 특색은 그들 모두가 카키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점이었다. 한 나라가 잘 발전하려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하고도 귀한 일이라고 믿는다. 이런 산야가 아름다운 곳에 훈련소를 정한 장 총통의 탁견과 노고를 잠시 엿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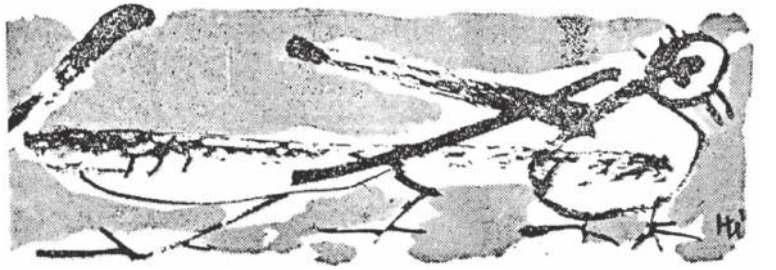
<필자(筆者) 수도사대(首都師大) 부학장(副學長)>

우주비행(宇宙飛行)의 자료수집(資料蒐集)

스트라 토라브 기구발사(氣球發射)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미 공군은 장래의 우주비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958년 중에 일련의 스트라 토라브 기구들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층 대기의 자료는 지구 상공 1,000마일 내지 6,400km의 영역으로부터 수집될 것이다.
미 공군은 지상 실험소로 송전될 정보들에는 우주선이도(宇宙線離度)의 측정, 지구의 자계(磁界) 및 '공군의 과학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지(基地)의 자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 the Grass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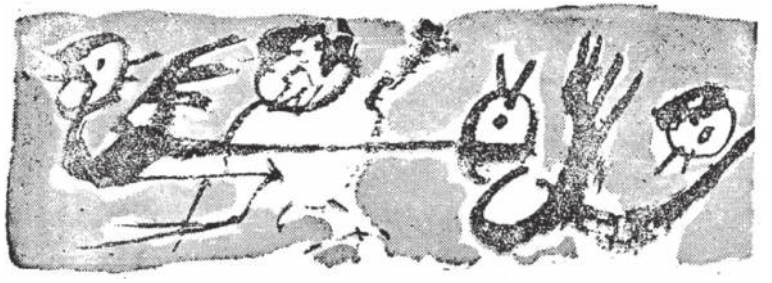
시(詩)

하늘에의 노래

공중인(孔仲仁)

이 영원의 푸름을
이 빙원의 무언(無言)을,

한결같이 배움하여
마음 바친 보라매여



하늘같이 무궁토록
조국의 자유를 지키자

용사여, 노래하라
우리는 불사조!

이 하늘 길이 지키므로
내 나라, 내 겨레
만대에 번영하리
만대에 번영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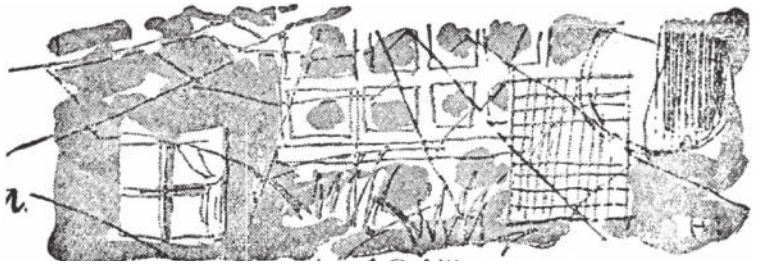
시(詩)

불사조(不死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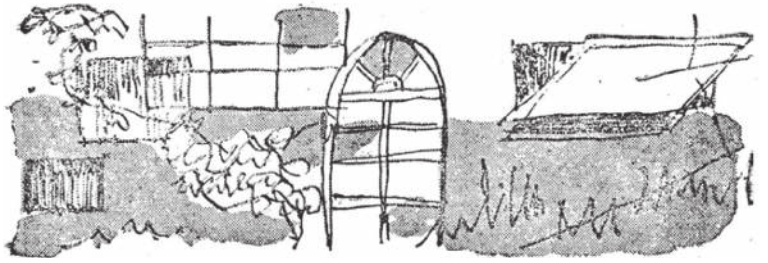
김구용(金丘庸)

불바다를 나는 무색의 비둘기! 나의 눈(眼)보다 맑다.

구구구, 그 노래를 들으면, 니토(泥土)처럼 어리는 눈물 너머로 너는 늘 원광을 감고 있었다. 확확 타오르는 거리는 푸른 잎 한 점 없는데, 비둘기야! 변함없는 너의 매력은 끝없어 차라리 무심하구나. 네 영롱한 칠색의 가락을 받아, 나는 날



마다 울며 울며 이렇게 옥피리를 분단다. 구름도 불이 붙었다. 모든 육벽(肉壁)에 골조(骨組)의 빙수가 나타난다. 하늘의 해도 피투성이다. 나는 옥피리를 쉬지 않고 분단다. 왜 이리도 울고 싶으냐. 참으로 착한 마음이 울리게 하지 않느냐. 불을 끄는 모든 눈물에, 비둘기! 맑은 누리 그대로 변하고 구구구 마지막 노래를 전한 옥피리 파도(波濤)처럼 부서질, 그날이 그립다. 무너진 벽돌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 가까이 와, 내 이마에 닿는 그대의 입술 고요히 떠는고나.



시(詩)

창(窓)

이봉래(李奉來)

창을 열어 보아라! 꽃 입김을 싣고 바람은 창의 마음속에 따사로이 앉는다. 창에 하-얀 그림자가 꽃무늬처럼 햇빛에 떨고 나비의 촉각처럼 소녀의 손이 흰 손수건을 흔들고 있다.

숨 가쁘게 달음박질치듯
아니 파문을 일으키듯
눈동자와 입술 사이를

스쳐가는 수천수만의 웃음.

그 웃음소리에 어느덧 울음소리가 뒤섞여 가면 창엔 어느 날 한 모금 물조차 마실 수 없이 이름 없는 산허리에서 쓰러진 그 사람의 검은 눈동자와도 같은 두 개의 탄흔(彈痕)이 아로새겨진다.

탄흔에 나비가 앉는다
죽은 듯이 두 개의 손을 펼치며
어제 전야에서 돌아온
나비가 와 앉는다.

공포에 싸인 나비의 눈동자, 창을 열어 보아라. 숨 가쁜 가슴을 헤쳐 놓듯이 창을 열어 보아라.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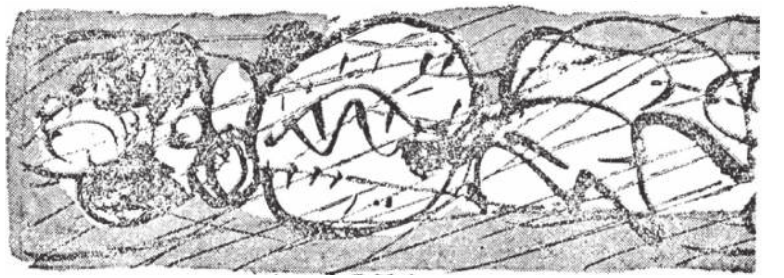
비와 방심(放心)

성찬경(成贊慶)

비가 내린다.
난 비를 맞고 서 있다.

30분만 보내면 그이와 만날 약속이 있다.
그것은 구원이다.

한 시간이 지난 후
약속은 구원이 되지 못 하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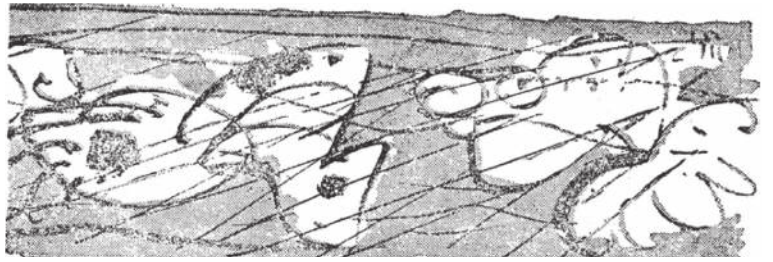
비가 내린다.
난 비를 맞고 거닌다.

생각해 보니 제2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구원이다.

비가 내린다.
난 비를 맞고 헤맨다.

제3의 약속이 있었던가.

비와 함께
어둠이 내린다는 것이 구원이다.



우주(宇宙)를 제압(制壓)하는 유인(有人) 미사일

X-15의 정체(正體)

외지(外誌)에서

우주선(宇宙線) 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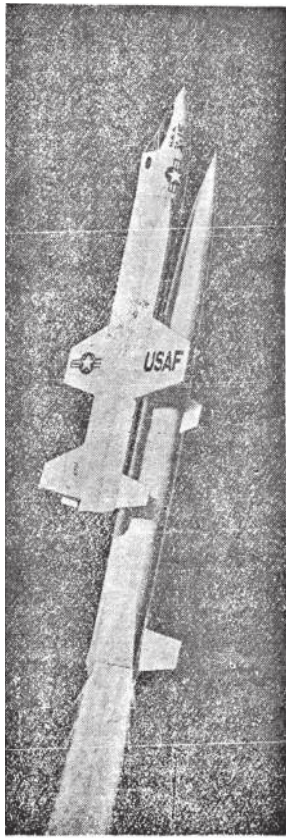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 〈ICBM〉과 인공위성의 성공으로 이때까지 비밀에 싸여있던 대기권 외의 비밀이 차츰차츰 명백히 되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상과학소설에서만 전매특허같이 취급돼왔던 우주여행에의 길이 바야흐로 개방되었다. 앞으로 항공기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인 탄도 미사일이나 초음도(超音度)를 비행하는 유인 하이퍼 소닉기, 그밖에 대기권의 하부를 비행하는 종래의 유익(有翼)유인기의 3종으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가장 손쉬운 스페이스 비히클 〈우주선(宇宙船)〉에의 길은 미사일과 유인 하이퍼 소닉기의 결합일 것이다.

마하〈MACH〉 5.5-7의 속도와 16만 피트의 고도를 목표로 하는 노즈 아메리칸 X=15는 그야말로 하이퍼 소닉 시대의 개척자가 될 것이며, 또한 우주선 개발에의 알파라고 불려야 할 혁명적인 기반이다. 알파는 그리스 문자로서 '최초'의 뜻으로 사용되며, 미국 인공위성 제1호 익스플로러는 1958년 알파로 명명되었다.

웅대(雄大)한 비행계획(飛行計劃)

〈X=15〉는 제2차 대전 말기부터 활발(活潑)히 전개되어 온 X 시리즈 〈X=1, X=2, X=3 등〉의 최신형으로서 성공되면 물론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높은 고도까지 도달하는 유인기로 군림하게 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개발에 특히 도움이 된 것은 X=2 그 밖의 X 시리즈의 로켓에 의한 고속도와 고도비행의 연구성과일 것이다. X=2는 현재 세계 최속기(最速機)로서 시속 3,638km를 내며 고도 37,860m에 도달한 기록이 있다.

NACA (노스 아메리칸 항공회사)에서는 X=2가 개척한 연구를 인계받을 기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실험을 1952년에 개시했다. 하지만 미국 공군의 ARDC, 미 해군 항공국 및 NACA의 3자 대표들이 참석한 토의는 1954년 7월 제1차 소집된 바 있으며, 동년 12월에 X=15의 명칭 하에 경쟁적인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1955년 12월 3대의 발주를 노스 아메리칸이 받았다. X=15에 지출된 금액은 이미 500만 달러를 능가(凌駕)한다고 하며, 제1호기가 가까운 장래에 완성되어 금년 여름부터는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초의 테



스트 비행은 벨 항공회사 일련의 X=시리즈 기를 조종한 스콧 크로스필드(Scott Crossfield) 씨가 하게 될 것이며, 다음은 노스 아메리칸 항공회사의 A. J. 워카 씨가 각각 예정되어 있다. 공군이 수령한 이후 본격적인 비행은 일찍이 X=2 로켓기로서 시속 2,665km 고도 약 37,400 미터의 기록을 세운 A. C. 킨체로 소령이 할 것이다. 킨체로 소령은 고도 1만 2천 미터에서 모기(母機) B-52로부터의 공중 이승실험(空中離昇實驗)을 금년 중으로 하고, 먼저 고도 16만 미터에 달할 예정이다.

제2차로 부스터를 사용하여 고도 약 20만 미터까지 상승, 대기권 돌입실험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3단계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최근 발표된 바 있는 X=15B로서 초속(秒速) 5,300미터의 속도로 궤도를 타고 인류 최초의 유인, 인공위성으로서 지구를 몇 차례 선회(旋廻)하면서 지상으로 귀환한다는 야심적인 항공기이다.

과연(果然) 유인(有人) 미사일인가?

이와 같은 혁명적인 계획을 행하는 X=15는 종래의 고속기와 전혀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되고 있는데, 최근 명백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과연 X=15가 항공기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유인 미사일에 가까운 것이다.

우선 형태로부터 보면 마하 5를 발휘하는 레드스톤(Redstone)에 X=17과 흡사한 테이퍼(taper)를 가진 주익을 단 것 같으며, 지금까지의 추정과 다른 것은 머리 부분의 프로필이 더욱 둥글게 생겼다는 것, 조종석이 전부 동체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꼬리 부분 밑면에 안정판이 달려있다는 것 등이다.

머리 부분의 둥근 원(圓) 모양은 이미 ICBM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처럼 대기권 돌입 시에 발생되는 고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의 하나로, X=15의 머리 부분은 약 45도의 각도로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종석을 머리 부분으로부터 분리하여 마련한 것은, 이것 역시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X=15는 대기권을 수직상승 중에 마하 35를 초과하므로 기체 표면의 온도는 화씨 1천도를 돌파한다. 이와 같은 고열로부터 파일럿을 보호하며 동시에 중량 다시 말하면 부하(Load)에 대해 중심점을 유지하도록 조종석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다.

꼬리 부분 하면의 안정판은 착륙 시에는 투하해 버린다.

X=15의 시스템

X=15의 조종은 대기권 외와 권내에서 행한다. 그런데 대기권 외에서의 조종은 제트가 사용된다. 노스 아메리칸에서는 X=15의 조종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철의 십자가란 장치를 만들어 각종 실험을 해 왔으나, 최근 X=1B의 1기는 이 압착공기 사용의 제트 조종 장치를 장비하고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마하 2 전후에서의 효과의 비행실험을 하고 있다.

X=15에는 냉각 환원된 HTP에 의해 동작되는 로켓이 사용될 예정으로 노즐의 직경은 약 38cm라고 한다. 이 제트 파일럿 장치 때문에 보통의 조종간(操縱桿)과 달리 두 개의 레바가 조종석의 좌우에 달려있다. 파일럿은 이와 같은 레버나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여 제트를 끊었다 넣었다 하지만 숙련을 요하는 것이다. 롤링을 행하려면 양 날개의 중앙부근에 있는 소형의 에루론이 병용된다.

X=15의 주날개의 전연(前緣)은 F=104의 그것보다도 두텁고 약 4분의 1인치이며, 거기서 타원형(楕圓形)의 커브를 그리며 완전한 방형을 한 후연(後緣)과 연결된다. 후연의 부피(厚)는 익단이 약 9.5mm, 안쪽이 53.6mm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흥밋거리는 수직꼬리날개이다. 이것도 방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나 후연의 부피는 30.4cm나 된다. 방형의 각도는 가장 큰 곳에서 20도나 된다. 이 수직꼬리날개의 반부(半部)는 좌우로 요동이 되며 대기권 내에서의 '요잉 컨트롤'(yawing control)에 사용된다. 수평 꼬리날개는 약 15도의 하반각을 가지고 있다.

동체(胴體)의 과반(過半)의 연료관(燃料罐)

X=15의 동력은 〈리액션 모터 회사〉제의 경량 로켓 1기로서 해면상의 추력은 27.221kg이라고 한다. 이 중량 약 455kg의 엔진은 극히 비좁게 꼬리부분에 장치되어 있다. 문제의 추진제(推進劑)는 종래의 하이드로 카본과는 달리 무수(無水) 암모니아가 채용되고 있다.

무수 암모니아는 액체산소와 같이 약 270의 펄스(pulse)를 발생시키며 연소온도는 화씨 4,940도로 추산한다. 이 정도의 온도면 각추력(各推力)에 있어서 지속 연소기간 6분에 엔진이 견뎌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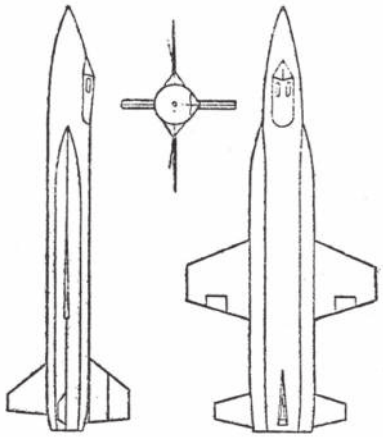
무수 암모니아와 액체산소는 동체 내의 인테그랄 탱크 내에 저장되지만, 탱크

는 기체의 과반을 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는 커다란 페어링(fairing)의 내부에 저장하기로 했다. 페어링의 채용은 익부와 동체 간의 저항을 최소로 하는 데도 유익하다. 페어링의 표면은 고속비행 때에 발생하는 고온에 대비하여, 전면이 베릴륨(Beryllium)으로 피복(被覆)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체 구조도 강도와 내열에 충분한 고려가 미치고 있으며 〈노스 아메리칸 회사〉가 개발한 브레즈드 하니캄이 광범히 채용되고 있다. X=15의 외피에 대해 이탈리아의 어떤 기술진들은 부피(후(厚)) 12.6mm의 리륨층을 함유한 더블 스키닝(2중 표피)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탈출(脫出)의 기회(機會)는 92퍼센트

X=15는 지상에서의 이승(離昇)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때는 레일(軌道) 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발사되는데 나바호 유도탄을 발사하는 부스터 로켓의 224.580kg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추력의 발사장치가 사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G에 인간이 과연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모기에 의해 고도 12,000m로부터의 공중 이승이 보통 채택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파일럿은 처음부터 좌석 내에 밀폐되어 있다.



<X-15의 추정삼면도(推定三面圖)>

제원 전폭 6.66m(수평미익 4.54m) 전고 3.95m, 동체직경 1.21m, 기체중량 약 14,850kg, 승원 1명, 대기권 외에서의 추력 31,500kg 속력 마하 5.5~5.7, 최고 도달고도 160~180km, 항속거리 720km

테스트 비행은 전술한 것과 같이 신중히 행해지지만, 최초로 X=15를 타는 크로스필드는 기체의 강도와 신뢰성 일반을 테스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아마도 마하 2 혹은 3 정도의 속력 이외는 내지 않을 것이다. 그 도달 고도도 2만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크로스필드의 다음에 X=15의 중량 테스트를 하는 책임은 NACA가 지며, 동 회사의 J. A. 워카 씨가 담당한다. 모기로 되는 B-52는 에드워드 기지나 그 동방 780km 지점에 있는 웬도버 기지에 배치된다. 어느 쪽이 되던 공중 이승은 웬도버 기지 상공에서 행하기도 되어 있으며 양 기지 간의 X=15 비행 코스에는 지금 지상 추미(追尾) 시설이 배치되고 있다. 이 코스를 X=1B와 X=1E가 에드워드에서 정기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지상측은 X=15의 비행일을 대기 중에 있다.

'대기권으로 비행한 사상 최초의 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킨첼로[23] 대위의 생명을 보장하는 탈출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작년 벨X=2의 사고로 순직한 밀번 엡트[24] 대위의 비극은 우리들의 기억에도 새롭다. 엡트 대위는 탈출 캡슐로 X=2로부터 이탈했으나, 캡슐 내부에서 격심하게 신체의 동요를 받아, 끝내 캡슐로부터 패러슈트 강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X=15의 경우는 물론 캡슐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탈출방식은 좀 더 안전한 고도와 속도로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최초로 X=15를 조종하는 크로스필드 씨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탈출의 찬스는 92% 있다고 자신을 보이고 있다.

좌석의 여압(與壓)방식도 종래의 2배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압된 공기의 온도까지 조정된 좌석 내에 여압복을 입은 파일럿이 밀폐된다. 파일럿이 호흡하는 공기와 산소는 여압복을 통해 보내지며 좌석 내의 공기온도는 별개의 시스템으로서 조정된다. 여압복은 미리부터 약간 부풀어 올려놓아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이 방법에 따라 기압과 온도의 양면에서 파일럿은 2종의 방벽을 가지는 셈이며, 그 안전이 보장되는 셈이다. 보통의 조종간과는 달리 레버가 채용되어 여압복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은 파일럿에게는 대단히 안심스러운 설계이다.

곤란(困難)한 착륙(着陸)

X=15의 비행에서 항공의학 심리학 상의 문제는 물론 조종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대기권 돌입에서도 돌입 각도가 틀리면 치명적일 것이다. 킨첼로 대위는 대기권에의 돌입에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나 테스트 비행을 해야 한다.

또한 궤도를 탄 비행을 하는 경우에도 무추력의 상태로 대기권 상층부를 스킵(Skip)하는 예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큰일이다. 결국 X=15는 대기권 외에서 대기권 내로 들어가거나 나오기도 하는 것이며, 기체의 평균 온도는 이로 인해 껑충 뛰어오른다.

이와 같은 비행이 성공했다고 해도 착륙 문제가 남아있다. 착륙은 에드워즈의 건호상(乾湖床)에서 행해질 예정이지만 아마도 비행기의 중심점에서 약간 후방으로 차륜이 하나 달려있어서 접지에 이용될 것이다. 브레이크 파라슈트로서 착륙 속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지만, 접지 후 시속 320km 이상의 속도로서 지상을 활주하면 꼬리 부분에서 스키드[skid]를 내고 안정을 유지한다.

회고컨대 X시리즈의 제1호 벨X=1 로켓이 인류 최초의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

23) Iven C. Kincheloe
24) Milburn "Mel" Apt

한 이래 X시리즈의 각 기체는 차례차례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왔으며, 이와 같은 업적을 밑바탕으로 한 X=15가 마하 7의 속력으로 대기권 외의 고공에 도전하는 모습은 실로 '우주세기 제2년'에 걸맞은 장관일 것이다.

(LIS 생(生))

진기(珍奇)한 소송사건(訴訟事件) 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일어난 일. 어느 양조장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양조장 주인이 그 지방 목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 이유인즉 – 양조장 위에 벼락이 떨어지게 해주십사 하고 목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일어난 일. 어느 농부가 이웃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인즉 – 이웃사람이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의 말이 놀라서 달아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영국에서 일어난 일. 어느 노파가 옆집 노파를 고소했다. 그 이유인즉 – 옆집으로부터 달팽이가 담을 넘어와 자기 집 다알리아 꽃을 잘라먹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미시간 주에서 일어난 일. 한 처녀가 정유소(精油所)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 이유인즉 – 자기의 머리털이 일어설 지경으로 몸서리치는 악취를 내뿜었기 때문이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일어난 일. 어느 과부가 장의사(葬儀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인즉 – 영구차의 운전수가 공동묘지로 가는 도중 술집 앞에서 차를 멈추고 술을 마심으로써 자기에게 '억울함과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증고(增高)되는 항로상(航路上)의 위기(危機)

공중사고미연방지책(空中事故未然防止策) 시비(是非)

외지(外誌)에서

「주(註)」 =속도(速度)가 빠른 분사식 항공기(噴射式航空機)의 출현(出現)은 조종사(操縱士)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상(精神上)의 고충(苦衷)을 강요(强要)하고 있다. 그중 가장 커다란 문제(問題)는 항로(航路)의 폭주(輻輳)로 충돌(衝突)의 위험성(危險性)이 증가(增加)된다는 사실(事實)로 인(因)한 것이다. 조종사(操縱士)들이 어떻게 하여 불시(不時)에 앞으로 닥쳐오는 비행기(飛行機)와 비행기를 피할 것인가?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을 달리던 1대의 미 공군 제트 전투기가 지난 4월 21일 네바다 상공에서 1대의 대륙 횡단 민간 여객기와 공중 충돌하여 49명의 생령(生靈)을 희생시킨 일대 참사를 계기고 급속도로 발전되는 육공기(陸空機) 속도에 관하여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위험스러운 문제란 바로 항로의 폭주 문제이다. 그날 민간 항공 여객기와 충돌한 제트기는 조종 훈련용으로 민간 항로와 동일한 항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무선 육로표식과 레이더 피콘을 탐지하는 기구는 민간 항공기도 사용한다. 이와 같은 기구는 수천 대의 개인 비행기뿐만 아니라 전략 공군 사령부나 그 밖의 군용 항공기도 예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미국 상공에는 언제 어느 때든지 1,200대 이상의 군용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항공기의 40%는 항로에서 계기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저속의 민간항공기와 충돌하는 대부분의 제트기는 맹목 비행시에 사고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내 도처에는 역시 상당수의 상용 제트기가 취항하고 있다. 이들 항공기의 속도는 대형의 민간항공여객기의 배에 달하는 것이다.

사고(事故)의 기록(記錄)

지난 10년 동안에 민간항공기 80대가 미국 상공에서 공중충돌로 상실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군용기 간의 충돌은 이상의 숫자보다 더욱 막대하다.

지난 4월 21일의 참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의 군민 간 항공기 충돌 사고였다. 지나간 10년 동안에 백여 명이 이와 같은 사고로 희생되었다.

그런데 비행 안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고가 더욱 빈발(頻發)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1957년 중 6개월간에 발생된 항공기의 충돌직전 회피(廻避)사건은 628건이며 이 중에는 거의 100피트 전방까지 육박하여 아슬아슬하게 회피한 것도 있다. 그 중 반수 이상은 군·민간기 사이에 야기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연속에 대해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미 국회의 1분과위원은 지난번의 라스베이거스 사건을 조사했다. 조지아 주 출신의 프린스 니 프레스톤 씨는 사고의 조사결과 '사고의 빈발은 항로의 2중적 관제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의 방안은 전체 항공기를 지상관제 하에 두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제도는 충분한 실험 이후에 앞으로 3년 내에 건설될 수 있다.'라고 부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근 항로 개선 계획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8시간 노동제까지 중지시키고 연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일층(加一層)의 관제(管制) 연구(研究)

군·민간 항공연구가들은 지금, 충돌이 발생될 염려가 있을 때 조종사들에게 사전에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기구를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충돌이 임박했을 때 자동적으로 비행기를 대피시킬 수 있는 장치도 연구 중에 있다. 민간 항공기 간에 현용(現用)되는 레이더는 다만 산이나 전면에 있는 농운(濃雲) 혹은 항공기의 측면 등만을 탐지할 수 있을 뿐이다. 2년 후 미국 내 항공회사들은 더욱 발전된 경보장치의 연구를 위한 200만 달러의 연구비 지출을 결정했다. 그러나 항공회사 측에서는 각자의 계획을 추진시키는데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다. 그것은 코스트의 앙등(昂騰)으로 인한 것이다.

<4월 21일 네바다 상공(上空)에서의 충돌 시에는 4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항공회사 측 관리들은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이 정도의 경비 지출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몇몇 군용 항공기는 이미 수직 수평을 물론하고 전 주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레이더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미해결의 문제는 이와 같은 장치가 최소한도의 생산비로 가장 가볍게 제조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한편 복잡한 항로상에서는 군 민간 항공기를 막론하고 '계기비행'으로 제한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

현재 이 계획 비행 규칙은 통상 악천후로 인하여 시계가 불명하다거나 전연 알 수 없을 때에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레이더나 기타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지상 관제소에서 항로에 따라 교통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들은 충돌을 막기 위해 각기 상이한 시간에 고도를 지정해 주며 항로와 고도를 조종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 5월 미 국민 간 항공 기구는 길이 수백 마일의 1 항로를 차단하고 전천후 고고도(高高度)상에서의 '적극적인 관제' 실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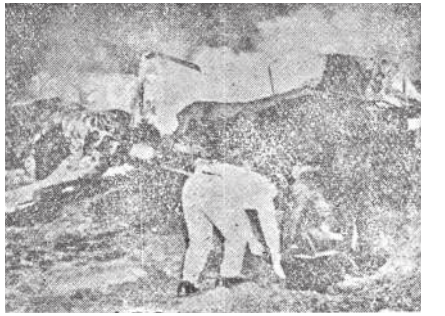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수단'이 항로상에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전 항로에 전면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 관리들은 당장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민간 항공기구의 수반인 제임스 파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전면적인 계기비행 규칙으로 전환한다면 모든 지상기구가 마비될 것이다. 이 지상기구는 지금 악천후에 항로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과분하다. 기술적으로나 계기적으로나 24시간 중 도처의 항로를 통제할 만큼 장비되지 못했다."

백만인(百萬人)을 위한 계획(計劃)

미국 정부의 유일한 항공정책기관인 민간 항공 기구는 1962년까지 국내 전 항로를 장거리 레이더, 계산기, 항공시설 및 그 밖의 개선된 도구로서 혁신하기 위해 7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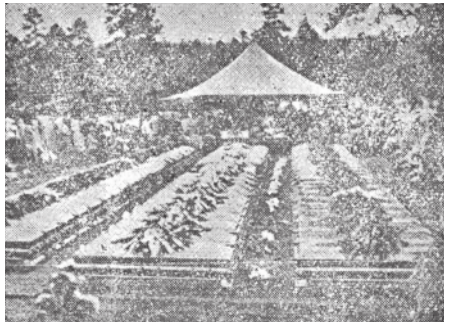
그러나 몇몇 관리들은 이러한 문제가 군 민간을 물론하고 정부기관 사이에 가일층의 협력이 신속히 실현되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써 더욱더 신식 레이더와 장치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번 라스베이거스 충돌사고를 야기한 항공회사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분산된 권한과 분산된 책임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에 동정할 여지가 없다. 하고 많은 논쟁을 했어도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입장은 명백히 표시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자라는 정도까지는 노력했다."



<3월 27일에는 C-124와 C-119가 충돌하여 18명이 사망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개막될 민간 상용 제트 시대를 맞이하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될 것



<1956년(年) 그랜드캐니언 상공에서의 충돌 시는 128명이 사망했다>

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첫째로 고속도라는 문제를 제기시킬 것이고 다음은 동 시각에 재래식과 분사식 항공기를 관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시속 600마일의 제트기가 양 방향에서 정면을 보고 서로 돌진해 올 때 실제적으로 시속 1,200마일의 접근율을 가지는 셈이며 이것은 권총 탄환과 같이 빠른 것이다. 노련한 조종사의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은 속도로서는 정면에서 돌진해오는 상대방의 비행기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제트의 고속도로 종래까지 맑은 날씨에서만 사용되던 '목측(目測)비행규칙'을 거의 무능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 고속도와 고고도로 제트기가 비행할 때 조종사는 정면에서 불과 6피트 이상의 거리에는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밝혀졌다.

군용 비행기는 그들이 특수비행이나 타 비행기를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비행 이외에 정상적 비행을 하는 한 민간 항로를 순항(巡航)하거나 횡단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어떠한 날에는 일정한 항로가 훈련비행기로 충만될 때가 있다.

지난번 라스베이거스 상공에서 민간항공기에게 돌진한 그 제트기도 역시 이와 같은 경우의 사건이었다. 학생 조종사는 정면만을 보았고 교관은 일 측면만을 목측(目測)했을 뿐이었다. 그때 인근 공군기지의 지시로 강하하려다 그만 민간기와 충돌해버린 것이다.

민간인 조종사들은 군용기들은 상당히 좋은 일기 하에서도 민간기를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군용기들이 항공교통보다도 훈련 자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들은 민간항로에서의 특수 훈련비행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지만, 민간 항로를 군사 훈련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방위를 위한 훈련임 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자택일(兩者擇一)의 시기(時機)

많은 의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양자 중 택일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첫째는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현생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장차 효과적인 관제를 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가진다.

둘째는 이러한 효과적인 체제를 신속히 완성시키기 위해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입체영화(立體映畵)

입체영화를 구경하고 있는 한 사나이가 앞에 앉아 있는 부인에게 말했다.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모자 좀 벗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 다소 언짢은 어조로-
"별꼴 다 보겠네. 아, 입체영화를 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운 사람은 요조심(要操心)

한 사나이가 어느 날 밤 클럽에서 금과 다이아로 된 카프스 단추를 잃어버렸다. 며칠 동안 주운 사람이 나타나기만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게시판에 이러한 광고를 써 붙였다.
'금과 다이아로 된 카프스 단추를 잃어버렸음. 주우신 분이 나타나면 그것을 사든지 혹은 팔든지 하겠음.'

육체적(肉體的) 연애(戀愛)는 싫어

한 청년이 파티에서 만난 금발미인이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넌지시 말해 보았다.
"어떻습니까. 내 아파트로 놀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위스키와 소파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금발미인-
"천만의 말씀. 난 위스키와 소파에는 취미 없어요. 진과 플라토닉 러브(정신적 연애)같으면 몰라도요."

약제사(藥劑士)의 채점(採點)

두 약제사가 다른 약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특집(特輯)

미소(美蘇)의 대결

★ 지구상(地球上)의 양 세력권(兩勢力圈)
★ 핵실험중지(核實驗中止)와 미소(美蘇)의 득실(得失)
★ 미소(美蘇)의 대외원조(對外援助)와 그 경쟁점(競爭點)
★ 난항(難航)의 정상회담(頂上會談)
★ 소련(蘇聯)의 도전(挑戰)과 자유세계(自由世界)의 단결(團結)
★ 미소(美蘇)의 인공위성(人工衛星)
★ 미소(美蘇)의 유도탄경쟁(誘導彈競爭) 소고(小考)

지구상(地球上)의 양(兩) 세력권(勢力圈)

박노식(朴魯植)

1. 서론(緖論)

제2차 대전은 지구상에 큰 정치적 변동을 초래했다. 그 하나는 민족의식의 고조(高潮)에 따르는 식민지의 민족 해방이며, 이것으로 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정치현상과는 반대로 주의사상을 달리하는 민주 사회 양 진영의 세력권 즉 광역권의 형성이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는 근대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교통이 편리하게 됨에 따라서 넓은 세계가 차차로 축소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접촉은 더 심해져서 마찰(摩擦), 융화, 결합 등의 정치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지구상에 미영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주의 사상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민주주의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의 대결을 보게 되었다.

식민지의 민족 해방을 표면에 내세우며, 내면에서는 위성 국가의 민족을 식민화하려는 모순된 정치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권에 대해 민주주의권은 사회주의권과는 달리 식민지에서 해방된 약소민족을 영구히 확고한 지반 위에 세워서 독립 국가를 수립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鼓吹)함으로써 사회주의 침략에서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국가 체제를 갖추도록 육성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사상면, 정치면, 경제면, 문화면에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여서 공산주의의 모든 침략에 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서로 목적, 사상, 주의를 달리하게 된 원인을 지정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양(兩) 세력권(勢力圈)의 지리적(地理的) 환경(環境)의 차이(差異)

우선 민주주의권(전자)의 지리적 위치가 사회주의권(후자)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권의 영원한 번영(繁榮)에 근본적 요인이 된다. 이 우수한 위치가 전자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권의 절대적인 승리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천의로 정해 준 숙명적 위치가 후자의 위치와 전도되어 있더라면 전자는 세계문화를 지도하는 데 큰 지장을 가져오고 또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인류 사회 복지(福祉)를 위해 전자의 숙명적 우수한 위치를 축복하여 마지않는다.

후자의 숙명적 위치가 빙설로 영구히 폐쇄된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대권 내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해 전자는 온난한 난류가 흐르는 개방적이고 융화적이고 평온한 근대문명의 중심지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온대 내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고대문명의 등상지(登祥地)는 대세권이지만 근대문화의 핵심지는 확실히 열대도 아니고 한 대도 아닌 온대라는 것은 문화 분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후자가 대부분이 동결된 냉각대륙이라면 전자는 대부분이 온화한 생기가 충만한 육지와 해양이다. 후자는 항상(恒常) 빙설로 덮인 동토, 삼림 또는 황막(荒漠)한 초원 불모지, 고준(高峻)한 산악이 대부분이라면, 전자는 4계절이 자연법칙에 의해 순환하는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인류생활 거주에 적당한 평야, 구릉, 산악, 해양이 교착된 여러 가지 지형을 가진 토지가 대부분이다.

또 후자가 폐색(閉塞)된 북극해에 면하여 지형이 너무도 무가치하게 단순하여 해양으로 진출할 루트가 완전히 봉쇄된 건조한 대륙인데 반해, 후자는 개방된 태평양에 양호한 기후와 복잡한 지형을 갖추고 임하여, 항구의 입지 조건이 좋아 교통이 발달한 윤택한 해양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권의 폐색된 한랭(寒冷)하고 건조한 대륙민족은 기회만 있으면 개방적이고 온난하고 습윤한 해양을 동경하여 지옥과 같은 동토대에서 천국과 같은 낙원을 향해 남하 침략정책을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지리적 환경은 사회주의권의 민족을 경제적 빈곤에서 영구히 기한(飢寒)과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경제적 빈곤에서 온 민족생활의 불안은 수세대를 통해 국토에 대한 애호 정신을 희박하게 했다. 그래서 민족은 국토를 버리고 타민족, 타 국토에 침입하는 침략성을 갖게 되며, 또 침략자는 잔인성을 본질로 삼아 갖은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에서 자라난 민족의 민족성은 정관적(靜觀的), 보수적, 인내적인데 반해, 전자의 우수한 지리적 환경은 여유 있는 민주주의의 민족에게 타민족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도록 한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민족생활의 영원한 발전을 초래하여 국토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공고(鞏固)해지며, 국토 애호의 정신을 함양(涵養)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정신을 발휘한다. 더 나아가 전

자는 해외로 진출하는 동태적, 진취적 또는 평화적인 인생관을 가지며, 민족성이 명랑 쾌활하고 낙천적이다.

또 후자의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그 민족을 영구히 근대문화지대에서 격리시켜 근대문명의 혜택의 은전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반해, 전자는 근대문화의 중심지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문화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항상 자유진영 내의 문화의 교류, 융화를 추진시키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 문화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구성되었다. 민주주의권 내에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근대 공업이 발달됨에 따라, 공업 제품이 많이 생산되어 국내의 자급자족은 물론, 국제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향해 전출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산업 자본의 축적을 보게 되며 일층 더 산업의 합리적 발달을 위해 근대 과학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 발전에 따른 근대 과학의 발달은 바로 민주주의권의 핵심부에서 시작이 되어, 즉각 자유진영 내로 파급되었다.

이런데 반해 사회주의권에서는 반봉건적인 단계에 있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불합리적인 농업정책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농토는 농민과 유리되고 부동(浮動) 농민이 많이 발생하며 식량부족 때문에 농민의 경제생활이 불안하게 되자, 농민 궐기, 정치 혁명이 일어나 반봉건적인 농업사회가 그대로 연장되어 갔다. 이것은 지리적 환경의 불리와 문화중심에서의 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후진성을 면하려면 아직 몇 단계의 비약적 발전이 필요하다.

3. 양(兩) 세력권(勢力圈)의 지정학적(地政學的) 규정(規定)

민주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광역권 형성 과정에서 목적과 근본정신이 다른 만큼 광역권 구성형태는 전혀 다르다.

후자는 소련을 중심으로 많은 위성국가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하에 강제적으로 예속되고 있다. 이 관계는 식민지 국가에서 모국과 식민지 국가와의 관계보다 더 가혹한 압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위성국가들은 독립 국가이면서도 자주적으로 주권이나 국민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또 고유한 정체 경제 문화를 가지면서도 사회주의라는 체제 밑에서 통제(統制)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전통적인 민족의식이 있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 하에 억압되어 충분히 민족정신을 발휘하지 못 할뿐 더러, 그 주의에 순종을 거부할 경우 그 나라의 운명은 민족이 있으면서 국토가 없고 주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의 민족적 총궐기는 바로 식민지 압제에서 민족해방을 간절히 바라는 민족정신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련은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인구가 희박한 생활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키기 위해 위

성국가를 침략한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만일 '지정학이 국가체제를 가진 민족생활과 그 생활권과의 관계를 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지정학적 비판을 가하여 제지를 가하고 싶다.

설사 영토가 너무 협소한데 민족성은 대단히 우수한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민족은 도저히 좁은 영토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여 국가의 존립을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 생활권이 넓은 타민족을 침략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정학적 규정에 의해 용인 못할 것이다. 하물며 광대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시키기 위해 타국을 불법 침략한다면 사회주의 세력권 확대는 인류 역사상에서 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전자에서는 자유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적 사상, 정체, 경제, 문화를 그야말로 자유로 선택하고 있다. 선택하는 국가의 의사에 의해, 국시에 의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데도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조건이 수반(隨伴)되지 않는다. 또 전자에서는 독립국가는 독립국가로서 자주적 입장에서 자유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사상, 언론, 종교 등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 이 권내에서는 후자의 권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식민국가로서의 예속 또는 모국의 침략은 영구히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독립국가의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인류사회, 문화의 발전과 공산주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결합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공동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투쟁을 할 뿐이다.

이와 같이 전자가 민주주의권이라는 한 유기체를 형성하여 지구상에서 정치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정불변한 궤도를 자연법칙에 따라 회전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임의로 회전시켜 정치적 질서를 문란(紊亂)시키고 있다.

<필자(筆者) 신흥대학(新興大學) 교수(敎授)>

핵실험중지(核實驗中止)와 미소(美蘇)의 득실(得失)

오종식(吳宗植)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등장한 이래 미소 양 진영의 군확(軍擴) 냉전은 심각한 비약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도 뒤이어 발사한 인공위성은 그것이 직접 전략 무기화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장래(將來)할 위험성을 계산에 넣어 핵무기 경쟁을 가일층 촉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면적인 전쟁은 인류를 전멸시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에서 세계 도처에서 그런 병기의 실험 중지와 사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천되기에는 현실적 난관이 많은 모양이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운동 이상으로 전면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하든 간에 미소 양 대국부터 먼저 전멸할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사자이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보장을 받을 근거가 없는 한,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가혹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 같다. 국련(國聯)이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지만, 결정적 패배를 방지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원폭, 수폭, 대륙간 탄도병기가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마당에서 패배와 승리를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요, 평화냐 전멸이냐는 양자택일의 운명에서 양 대국의 지도자들은 항상 불안과 싸워야 할 것이다.

(1)

지금 북극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소의 대립상과 그 위험성은 심상한 것이 아니다. 소련의 대륙 간 탄도병기는 발사 후 30분이면 미국의 주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으리라고 선전되고 있으며 59년부터 60년경에 실용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도탄 제작에 뒤떨어진 미국은 이 위험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수소탄을 탑재한 미군의 군 폭격기들은 주야로 북극 상공을 비상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에서의 연락만 있으면 즉시 공격을 가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0분간에 대륙 간을 무인 비행하는 탄도병기의 위력도 놀랄 만한 것이지만 미 전략공군의 위력도 적지 않다. 2차 대전 중에 미영 양국이 사용한 전 폭탄보다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B-52 중폭격기 같은 것도 있다.

핵병기의 시험을 반복함으로써 상호위협만 가해 오던 미소 병력의 대항은 스푸트니크와 대륙 간 탄도병기의 출현설로서 미 전략공군이 임전(臨戰)체제에 들어가게 되어 역(逆) 대항조치로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즉 탄도탄의 성능이 발달되어 무경고 공격을 받으면 전략공군이 이륙할 여유도 없이 파괴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항상 일정수의 비행기를 소련국경 근처에 떠있게 하는 것을 현명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파워 미 전략공군사령관은 전 세계에 600 내지 700기를 항상 비행시켜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렇게 공중 '수폭 패트롤'이 계속되고 있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비행사의 과오나 기계의 고장으로 패트롤하는 폭격기 한 대가 수폭을 던지면 즉시 핵병기에 의한 3차 대전이 발발(勃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위, 경계비행 또는 신무기의 경쟁은 쌍방이 선전 위주로 과도한 발표를 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에서 고형연료 로켓까지 발사하게 된다면 균형, 반균형의 공포는 무한정 깊어 갈 것이다. 이러한 공포 같은 것은 관념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해결을 위해 국제회의의 무대에 내놓으면 항상 원칙적인 선입감에 의해 냉정히 거부되고 말았다.

위와 같은 미국의 북극 경계비행에 대해 소련에서는 이것을 도발 비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비행 중지 결의안을 제출했다. 안보에서 수적 우세를 가진 미국은 소련이 핵실험의 일방적 정지 성명 이후 불리한 입장에 섰던 위치를 전복하기 위해 앞으로'북극권을 대칭하는 기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찰 제도설치안'을 제출하여 소련의 외교공세에 대비했다.

안보에서 소련안(案)은 군축위에서 토의될 성질의 것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철회되었고 미국안(案)은 소련의 83회째 거부권 행사로 매장되고 말았다. 이 토의에서 다그 함마르셸드 유엔 사무총장까지 이례의 발언을 청하여 세계 인류의 소리를 대표한다고 전제하고 이 안을 채택함으로써 군축문제의 난관을 타결하

라고 희망했으나 소련대표에 의해 비난을 당하고 말았다. 찬성 10반대 1(소련)표로서 사찰안이 생매장된 후 실망을 표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함마르셸드 사무총장도 "버스를 놓친 느낌인데, 버스가 한 번 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군축을 중심하는 핵무기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 '무조건 실험을 중지하자'는 소련안과 '그 전제조건으로서 공중감시를 실시하자'는 미국안의 원칙을 반복하여 왔다. 한편에서는 탄도탄을 만들고 한편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준공시켰건만 국제회의에 나오는 외교관들의 입에서는 똑같은 말이 되풀이될 분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추진되는 중무장과 공포에 떠는 일반의 여론의 입장을 달리하여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는 길이 없는 것도 같고 강대국으로서의 미소는 공존할 전제조건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

본제로 돌아와서 핵실험 중지에 따르는 미소 양국의 득실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영국의 러셀 경을 위시한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은 미소 양국의 원수에 대해 누차 그 실험 중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양 원수의 답변은 똑같이 자기 측 입장의 전제조건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핵심은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련은 일방적으로 실험 중지를 성명했다.

그러나 광대한 철의 장막 안을 자유진영의 인사들이 자유로이 관찰할 수 없는 한 그 실험 중지 성명은 무의미하다. 넓은 영토 내에서는 언제든지 비밀리에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니 자유 진영의 감사가 없는 한 실험 중지 성명은 발표 중지의 성명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미 영에서 실험을 계속하는 한 소련만 발달에서 뒤떨어지려 할 리 만무하니 약소국들이나 학자들에 대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 중지의 실효를 거두려면 강대국이 합의해 공동으로 중지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또한 실험 중지가 병기제조의 중지 내지는 지금까지 보유하는 핵병기를 파괴 불법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실험중지 더욱이나 소련의 일방적인 중시 성명 정도 가지고서는 핵전쟁을 예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1개국만이라도 실험 중지를 한다면 실험에 의한 피해만이라

도 그만큼 예방될 것이니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나 지금까지 세계의 여론이 실험에 의한 피해를 보고서 이를 없애기 위해 실험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1 단계의 성공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핵실험을 거듭하니 대기가 오염되고 물과 눈에까지 방사능이 섞였다고 하며 그 피해는 7, 80년을 간다고 하니 직접 인간에 피해 주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험이라도 중지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무제한 핵실험이 대기를 한없이 오염시켜 나중에는 지구상의 생물을 전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돋우기 위한 공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같다.

그러므로 핵실험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인도상의 문제다. 핵실험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는 모르나 실험이란 결과를 잘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려는 행위이니만큼 핵실험은 큰 불장난이다. 평화산업에도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파괴용의 병기 기능으로서만 추구된다면 이는 외교나 국방 이전의 인간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소련의 입장과 같이 외교도구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위로 돌아가서 허심탄회해야만 할 것이다.

속임수로 핵실험을 취급한다거나 외교상의 거래로 생각하면 언제나 폭발의 위험성과 대결해야 할 것이다. 미소의 득실이라기보다도 인기 전술이나 외교상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일방적인 중지성명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인도적 입장에 서서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먼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상호간에 의심이 나지 않게 감시도 하고 사찰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일방적인 사용도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과 실력을 떠나서 득실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련의 일방적 중지성명이 일부 여론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득실과 반향은 그들이 5월 2일의 안보이사회에서 83회째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0 대 1의 고립과 중립적인 함마르셸드 사무총장까지도 실망할 사태로 그들 자신이 후퇴하고 있다. 양보를 모르는 독선적인 권력은 '수폭 패트롤'로 봉쇄해두는 것 외에 도리가 없나 보다.

<필자(筆者)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주필(主筆)>

미소(美蘇)의 대외원조(對外援助)와 그 경쟁점(競爭點)

송인상(宋仁相)

근년 미소의 대외원조의 초점은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거나, 또는 신흥국가로서 그 정치적 경제적 터전이 굳지 못한 경제적 후진 여러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근자에 와서 정치적 불안정의 틈을 타서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중근동 여러 나라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소련의 경제적 공세가 격화됨에 따라 미국도 그의 대외 원조 정책의 초점을 돌리고 있다. 이리하여 경제적 후진 여러 나라야말로 미소의 원조 경쟁의 대결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蘇聯)의 경제적(經濟的) 후진국들(諸國)에 대한 경제공세(經濟攻勢)

1953년 이래 소련은 경제적 후진국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근동 제국에 대해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수법인 경제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소련은 국제 공산주의의 확대를 위해 구주(歐洲)의 정복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또한 기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폭력과 직접적인 파괴활동에 의존할 방법도 좌절되었기에 이와 같은 경제공세로 그 수법을 전환한 것이다. 물론 소련의 이와 같은 경제 공세의 목적은 미국과 그 동맹 여러 나라의 경제적 후진 여러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유세계의 방위동맹을 교란(攪亂)하며, 자신의 위신과 권력을 증대하는 데 그 정치적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련권 제국이 경제적 후진제국에 원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협정액은 1957년 12월 말까지에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 소련은 또한 이집트에 대해 이미 공여한 거액의 군사원조에 더해 약 2억 3천만 달러의 경제개발 원조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9억 달러 중 소련의 원조는 10억 달러를 점하고 있으며, 대체로 원조는 관대한 차관(借款) 형식을 취하고 있다. 원조는 중점적으로 공여되고 있는데, 소련의 눈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약간의 국가들, 즉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시리아에 집중했고, 이 6개국에 대한 공여액은 전 원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원조는 1955년부터 1957년 말까지에 5억 7000만 달러에 달하여 소련의 총 원조액의 절반 이상을 이 지역에 주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후 이래 1957년 9월 말까지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 총액은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 33억 6,000만 달러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소련의 원조액은 근소(僅少)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원조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원조액은 15억 7,000만 달러로 총액으로는 소련의 5억 7,000만 달러를 능가하고 있다. 소련의 원조가 부여되고 있는 소위 중립적 색채가 강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실론(스리랑카), 인도 등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 원조액은 4억 20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소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될 만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차관 조건은 일반적으로 극히 관대해 이자는 25%, 상환 기한은 12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상환의 일부를 물자 또는 피원조국 통화로 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이에 대항(對抗)하는 미국(美國)의 원조정책(援助政策)

이러한 소련의 경제공세에 당면하여 미국은 그 원조정책을 재검토했다. 이리하여 미국의 대외 원조의 기본 목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 방침을 재검토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위촉(委囑)을 받아 미국의 새로운 대외원조방침과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방침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한 '페어리스 위원회' 보고와 '존 스톤 위원회' 보고는 소련의 경제공세에 대항하여 미국의 취할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페어리스 위원회' 보고는 미국의 대외원조의 기본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즉 미국은 자유세계와 더불어 소련 진영의 전체주의적 지배와 제국주의적 팽창의 위협에 대해 탄력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집단 안전보장 계획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공산침략에 대항하는 방위동맹 참가 제국에 대해 원조를 공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동 보고는 집단안전보장계획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산진영의 무장침략

의 위협을 저지할 만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는 생활조건의 향상과 개인의 복지향상의 점에서 독재제도보다도 자유제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항상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차 대전의 막대한 전재(戰災)를 단시일 간에 복구케 한 '마샬 플랜'은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이는 서구를 파국으로부터 구출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경제적 후진국들은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집단안전보장계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미국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존스톤 위원회' 보고에서 강조하고 있다. 동 보고에서는 이들 경제적 후진국이 자유세계의 장래와 평화의 유지에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미국의 공업생산과 방위생산에 불가결한 많은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미국이 이들 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다름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해 미국이 우선 관심을 가지고 이들 여러 나라를 원조하는 첫째 이유는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경제적 후진 지역은 현재 거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극히 폭발적인 정세에 놓이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후진국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경제적 후진국들을 평화와 진보의 궤도 위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후진국들의 순조로운 경제 발전에 의해 이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경제발전은 국내 긴장의 주요한 해결책이 되며, 국가적 과시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안정과 평화의 주요한 촉진제가 된다.

만약 경제적 후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불안의 증대가 예상되고 현재의 온건한 정부는 일층 극단적인 정부로 대치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2. 미국의 경제개발 원조는 장래의 지출과 인명의 상실을 방재하는 예방약의 한 형태라고 믿고 있다. 약체의 사회가 소련권에 의한 파괴활동 조작 또는 공격에 약하다는 실례는 많다. 인도네시아, 희랍[그리스], 한국 및 최근에는 중동이 그

예이다. 한번 국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서 사태 수습이 곤란하게 된다. 경제개발 원조에 사용되는 1달러는 군사원조에 사용되는 1달러보다 미국에 대해 한층 항구적인 안전을 초래할 것이다.

3. 미국의 경제적 후진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원조는 상호적으로 이해하고 영향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미국과 이들 여러 나라와의 경제협력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유사회를 희구하는 미국의 목적과 이들 여러 나라와의 목적을 결부시키는 가장 영속적인 중개가 될 것이다.

4. 미국 자신의 이익을 별도로 하고 경제적 후진 여러 나라의 경제적 진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미국 자신의 도의적 전통과 지도적 지위에 수반(隨伴)된 미국의 현재의 책임을 유지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특히 경제적 후진제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미국은 개발 차관 기금을 설립하고 초년도인 1958년에 3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58~1959년도의 정부의 신규 대외 원조권한 요청액에서도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비율을 현 회계연도의 3 대 1로부터 2 대 1로 하여 경제원조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수출입 은행 융자 한도의 20억 달러 인상을 회의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1958년 1월 16일에는 인도에 대해 2억 2천 5백만 달러의 신(新)차관을 공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1월 18일에는 미국의 개발차관기금의 이자를 비영리사업에 대해는 연 3.5% 영리사업에 대해는 연 5.5% 내지 5.7%로 한다고 발표하여 소련의 경제공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소련(蘇聯)의 원조능력(援助能力)

소련은 그 자신 및 위성국들의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의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현재 정도의 대외원조 계획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여하한 부담도 그 인민에게 부과하려고 결의하고 있는 듯하다.

미 국무성이 지난 1월 3일에 발표한 〈소련의 경제적 후진제국에 대한 경제공세의 실태에 관한 조사〉 중에 서도 소련의 원조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동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과 그 구주 위성 여러 나라의 국민 총생산액은 1957년에 2,350억 달러였

다. 앞으로 수년간 국민총생산액은 연간 5%씩 증대해, 1965년까지에 약 3,500억 달러까지 증대시킬 것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 여러 나라의 광공업 생산고는 1957년에는 1,000억 달러였는데, 1965년 말까지에는 매년 약 6.5% 씩 증대해 약 1,600억 달러로 할 것이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상의 숫자만으로 본다면 앞으로 8년간에 원조액이 현재 수준의 2배에 달한다고 해도 동 기간의 계획생산 증대분의 5%에 미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고찰해보면 소련의 능력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특히 최근에 소련의 국내판 신문에서는 소련권에 대한 원조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신중히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소련이 그 국민에 대해 원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소련의 경제성장률의 둔화, 저수준의 소비 및 최근 위성 여러 나라에 대한 소련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 등으로 보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소련은 그 대외원조의 부담이 자신의 경제력으로 보아 과중하며, 국민에 대해는 내핍(耐乏)생활을 강요하면서 세계공산화 특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취약(脆弱)한 경제적 후진국들의 침략을 목적하여 무리한 경제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1945년 이래 현재까지 총액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원조를 공여하여 전후 세계의 부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집단 안전보장 계획을 공고히 확립했다. 이제 바야흐로 미소 원조 경쟁의 초점이 경제적 후진국들에 집중되어 있어, 점차 치열(熾烈)의 도를 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자유우방 여러 나라의 결속은 미국의 승리를 약속하여 줄 것이다.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도 머지않아 소련의 야망을 간파하여 자유세계로 돌아올 것인데, 최근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도 또다시 서방측 여러 나라와 친근해지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외전(外電)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끝)

<필자(筆者) 부흥부(復興部) 장관(長官)>

난항(難航)의 정상회담(頂上會談)

소련(蘇聯)은 무엇을 흥정하려는가?

임원규(林元圭)

장거리 유도탄이 원수소탄(原水素彈)을 싣고 세계 도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오늘날 파멸이라는 공포에 휩쓸린 전 인류는 핵무기 전쟁을 유발하게 될 위험스러운 국제 긴장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고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 세계의 공통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동서 정상회담은 마치 인류 파멸의 전율할 막다른 골목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유일한 운명의 타개책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13년간에 걸친 동서 양 진영, 특히 미소 양국의 냉전과 대립이 해소되고 새로운 조정의 기반이 거기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와 같은 회담이 개최되고 난 후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단언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련이 과거에 그와 같은 목적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진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취해온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볼 때, 올해 말까지에는 개최될 것이라고 전문(傳聞)되는 동서 정상회담에서도 또한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추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련은 과거의 온갖 국제회의에서 어떠한 행동을 나타냈는가를 생각해 봄이 타당할 줄로 안다. 지엽적인 것을 생략하고 핵심을 파고들어 관찰하면, 첫째는 자유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단결력을 분열시켜 공산진영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왔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국제적 무대를 선전장소로 이용했다. 셋째로 이와 같은 선전의 목적은 항상 전 세계에 소련이 유일무이한 평화애호국과 같이 인식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4방 대국들을 호전적인 제국주의 국가인 것처럼 믿게 하는데 그 근본의 목표를 두고, 정치 군사적으로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있는 중립 국가들을 서방 진영으로부터 이간시켜 공산진영으로 포섭(包攝)하는 데 제2차적인 목표를 삼았다.

대체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감행하여 온 것이 바로 평화공세이다.

그동안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취하여 온 평화공세를 집대성시켜 온 세계 인민 앞에 클로즈업시키려는 무대가 바로 동서 정상회담이니, 이것이야말로 크렘린의 세기적 음모라고 할 것이다.

과거는 그러했거니와 이번에 그렇게 열을 올려서 개최해보려고 온갖 선전을 다하는 동서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소련은 무엇을 흥정해 볼 셈인가?

소련은 동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외상회의(外相會議)에서 그들의 대표가 반대하는 의제의 토론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주목거리다.

이것은 정상회담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독일의 통일문제라든지 그들에게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의제의 토의를 제거하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문제를 의제로 삼아보자는 속셈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소련이 정상회담에서 흥정해보자는 것이 군비축소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군축문제 중에서도 병력 감축이라든가, 재래식 무기의 감축은 이미 고전적인 것으로 후퇴하고 과학과 경제력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핵무기 실험의 중지가 주요 문제로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양국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소련은 평화 선전의 한 수단으로서 핵실험을 중지하겠다고 선전을 했으나, 미국은 즉각적으로 실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공중 감시 혹은 공중 개방의 감찰제도 실시만이 군축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소련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군축문제를 둘러싼 대립상(對立相)으로 보아도 정상회담에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난관은 소련이 미국의 해외기지의 철폐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은 미국이 주장하는 우주의 평화이용문제가 해외기지를 철폐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것을 볼 때 소련은 정상회담에서 너무나 욕심 많은 흥정을 하려고 한다.

이리하여 덜레스 국무장관도 "소련은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천명(闡明)했다.

소련은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미 사전공작을 개시했다.

미국 폭격기들이 북극에 출동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유엔 안전이사회까지 열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표면상은 정상회담과 이것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이것은 정상회담 협상에 새로운 문제를 주입시킨 것이다.

그들의 항의는 정상회담 협상의 초반부터 미국이 수세 입장에 놓이게 하려는 책략이다.

그로미코[25] 소련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터뜨려 놓은 불평은 수소탄을 실은 미국 폭격기가 소련을 향해 북극으로 비행을 해 왔다는 것이며, 그는 이를 '도전적' 행동이라고 부르고 UN 안보이사회에 항의하겠다고 발설했다.

소련의 군사전략을 해부해 보면 첫째, 현 시기에 공중작전에 관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소 양국 간에 새로운 분쟁을 조장시켜 앞으로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구태여 지금 이때를 골라 그런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정상회담 준비의 협상 중 그들이 취하는 모순된 행동을 음폐(陰蔽)하려는데 있고, 셋째로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대 협상이 개최되려는 이때 미국을 세계여론 앞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몰아넣으려는 계략인 것이다.

이렇듯 소련은 위에서 논술한 자유세계 단결력의 분열, 선전장화(宣傳場化), 미국의 고립화 등 세계정복을 최종적 목표로 하는 세 가지 목적을 흑심 속에 감추고 표면으로 인민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정상회담에 나서려는 소련의 크나큰 약점은 동구 제위성국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미 경제상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는 곧 소련 및 위성 여러 나라 내에 동요와 불황이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흐루쇼프가 헝가리를 방문한 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성국의 안전보장에 상당히 부심(腐心)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련이 이러한 국내적 불안의 약점 때문에 정상회담에의 국제적 협상에서 얼마나 양보와 성의를 보일 것인가가 주목할 대목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서간의 분열과 모순의 정도가 이미 바로잡기 어려울 만큼 심

25) Andrey Andreyevich Gromyko

각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동서 정상회담에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필자(筆者) 시사통신사(時事通信社) 사장(社長)>

대기돌입(大氣突入) 시(時)의 초고온(超高溫) 등 모방가능(模倣可能)

극초음속(極超音速) 시속(時速) 3천리(千哩)로

미 공군은 유도탄들이 하나의 새로운 '극초음속' 풍동(風洞) 속에서 지구의 대기로 재돌입함으로 말미암아 봉착하게 되는 초고온의 온도 압력 및 속력을 모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극초음속은 시속 3천 마일(4,800km) 이상의 속도를 의미한다. 이 풍동은 화씨 1만 5천도(섭씨 8,215도) 이상의 온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속력은 음속보다 10배 내지 20배나 더 된다.

이 풍동은 약 100만 암페어의 전류의 흐름에 의해 발전되는 1전기고광(電氣孤光)의 방전(放電)으로써 운용된다.

화성왕복(火星往復)에 350일(日) 소요(所要)

로켓 과학자(科學者) 에릭 씨(氏) 발표(發表)

미국의 유명한 로켓 과학자의 한 사람인 크래프트 A. 에릭 씨에 의하면, 화성으로의 왕복여행은 500일 또는 350일 만에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대부분의 추산에 의하면, 그와 같은 하나의 우주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3년이 될 것으로 보았다.

에릭 씨는 산 디아고에서 개최된 미국 로켓 협회의 한 회의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서 그의 추산을 발표했다. 그는 그 추산이 화성행 우주선으로서 이전에 고려되었던 엔진보다 훨씬 더 큰 원자력 엔진을 가진 우주선의 사용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핵 엔진은 액체수소를 가열시킴으로써 우주선을 추진할 것이다.

소련(蘇聯)의 도전(挑戰)과 자유세계(自由世界)의 단결(團結)

심재홍(沈載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까지도 인류는 전쟁의 승리가 무기발달 여하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원자탄 한 개의 세례로서 거의 멸망의 경지에 이른 일본이 얼마나 혼이 났던지 최후의 일병(一兵)까지 싸우겠다던 결심을 단념하고 항복하게 된 것으로서도 증명이 되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10여 년 후인 금일은 어떠한가? 원자탄보다 수백 배의 파괴력을 가졌다는 수소탄을 자유세계의 미국과 영국 또 공산진영의 소련이 제각기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나 해상에서 비밀지역을 정해놓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화약 장난을 하듯 폭발실험을 계속하여 전 세계의 약소민족들 앞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소련의 실험은 자유세계는 말할 것 없고, 특히 위성 국가들과 위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큰 위협을 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그와 달라 공산 침략에 대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인류 역사 최초인 이 무서운 무기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터진 지 불과 4년 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맹격으로 국토가 처참(悽慘)하게 파괴된 소련도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과거 10년에 걸쳐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의 병기 및 과학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여준 소련은 최근 장거리 유도탄이 좀 더 발달된다면 현재의 전투기나 폭격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거의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무서운 수소탄두로 장치된 유도탄이 시속 1천마일 이상의 속도로 1만 5천마일 사정 내에 있는 어느 목표에나 도달할 수 있다면 지구상 한 지점에서 발사하여 어느 다른 지점까지 못 갈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나 폭격기가 하등의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소련은 또한 작년에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를 미국보다 앞서 우주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여 일부 면에서 그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대체로 10년 전까지도 후진국으로 알려졌던 소련이 어떻게 이처럼 단기간 내

에 장족의 진보를 보게 되었나? 그 내막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련은 2차 대전 후 동독의 무수한 과학자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정력을 총동원시키는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써서 각국에 간첩을 파견한 뒤 원자탄 및 기타 무기에 대한 비밀을 입수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기는 하나, 이것이 전면적인 발전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최근 소련의 인공위성(SPUTNIK) 3호(1톤 반 중량)의 발사 성공을 듣고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유도탄 계의 권위자인 독일인 폰 브라운 박사의 발표, 즉 미국의 1톤 반 급의 인공위성을 띄울 때까지에는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는 솔직한 말을 들더라도 소련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무서운 수소탄을 한 나라만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오늘날 제3차 대전은 전승국이나 패전국을 막론하고 자살적 행위라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연 제3차 대전은 그리 쉽게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대신 냉전(cold war)만은 각 방면에서 종래보다 몇 십 배나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강대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소련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인 미국을 생산 면에서도 능가하려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5년 계획이니 7년 계획을 계속하는 공산당 수뇌 간부들은 무서운 전제정치를 감행함으로써 군비 확대에 전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 얻은 수천만에 달하는 외국인 포로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막대한 건설을 성취시키는 한편, 각 산업방면에서도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게 하여 과중한 생산 책임량을 완수케 하는 소련 정부의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가?

일반 과학자 및 예술가에 대한 대우는 황금의 나라인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하니 우수한 과학자로서 소련을 벗어나 자유국가로 탈출한 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그뿐이랴 소련은 현재 미국보다 매년 2배 내지 3배의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상 예(例)가 없을 정도의 초속도로 과거 10년간 어마어마한 과학 진보를 보여준 소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전술도 소련은 미국보다 더 능숙한 편이다.

공산 측은 물론 기만술을 위주로 하는 까닭에 우매한 후진국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속아 넘어간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무성의와 실행 없는 약속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공산당 지배하에 처하게 됨으로써 속수무책의 운명에 이르게 됨을 면치 못한다. 소련은 기막힌 감언이설과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중소국가를 꾀는 한편 자유세계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선전하여 민주주의로부터 이탈케 만든다.

이것이 3차 대전을 대신한 소련의 도전이며, 상기한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뒤떨어져 가는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국방예산은 사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여 어느 계획을 막론하고 청사진에서부터 제작완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장시간을 요한다. 수많은 군비안들의 하나하나가 국방성 각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합 참모본부에서도 단독 결정을 못 내려 육군 해군 공군은 각자의 현안 그리고 각자가 책임진 국방의 중요성을 주장 고집하는 까닭에 예산 할당의 감소는 물론이고 조달마저 늦어진다.

이와 반대로 소련은 독재자 1인의 명령 하에 무제한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 제작에 착수함으로 모든 계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소요 시간은 미국보다 불과 절반 밖에 안 걸린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수한 무기를 제작하는데 미국이 2년 걸린다면 소련은 불과 1년이 걸린다는 말도 허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외교 면은 어떠한가? 금일의 외교는 대체로 선전경제 및 기술원조 그리고 광범위한 문화, 과학 그 외 또 교육 교환을 의미하는 까닭에, 이것을 평화공세 혹은 냉전이라고 부른다.

소련은 기묘한 외교 술책으로 과거 수년에 걸쳐 중동 지역에 마수를 뻗쳤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양 대륙에서 튼튼한 기지를 확보하고, 현재는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도 끊임없는 외교공세로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공산당의 마수가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평화공세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선수를 쓰게 되는 이유는 물론 독재정치인 때문인데, 바꿔 말하자면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의 하나하나를 시행하려면 먼저 국민의 여론 및 그 반응을 생각해야만 되지만, 소련 정부는 국민의 의사나 반응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지령을 내려 단행해 버리는 까닭이다.

가령 소련이 어느 약소국가를 자기 진영에 가담시키려고 할 때 언제나 미국보

다 먼저 막대한 경제원조를 한다든가,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구실 하에 그 민심을 얻고 제5열 분자들의 활발한 지하공작에 의해 위성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세계는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소련의 위성국가들 중에서 더러는 반기(叛旗)를 들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속출할 것이므로.

저 동독의 폭동 헝가리의 의거 포즈난 폭동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위협 하에 처한 금일의 자유세계의 심정은 마치 1940년 말기 신무기를 갖춘 히틀러의 군대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를 순식간에 정복하고, 영국군을 덩케르크에서 바다로 몰아냈던 때와 흡사하다. 그때 유럽을 유린한 다음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 맹진하는 파시즘을 감히 막아낼 나라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말았다. 언제나 위기에 당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독재주의보다 강력하고도 교묘하게 대처해 나가곤 한다. 전쟁이 불가피해질 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과 영국은 힘을 합하여 단결함으로서 독재의 침략을 막는 데는 늘 성공해왔다. 자유세계는 1948년 이탈리아를 수중에 넣으려는 공산당의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그리스, 터키, 에스파냐[스페인] 등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물리쳤다.

오늘날 나토 연맹이 다소 흔들리기는 하나 공산 측의 바르샤바 협정보다는 공고(鞏固)한 지반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헝가리의 반란을 회고하건 데 만일 제3차대전이 일어날 때 위성국가인 헝가리가 소련에 향해 반기를 들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며, 12년을 두고 불평과 불안 속에서 내려온 폴란드의 경우도 유사시에 소련은 자기의 우방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한다.

공산 측에 편입된 군대로서 배반 행동을 취한 예가 허다한데, 세계 제2차 대전 시 35만 명에 달하면 소련군대가 스탈린 독재로부터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 소위 러시아 해방군에 자원했고, 또 한국동란 시 14,000명에 달하는 중공 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행정이 비효과적으로 판명될 때 국민의 여론 및 비평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산국가가 잘못되는 것은 극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그 과실이 판명될 때는 이미 시기가 늦어서 개선할 수 없게 된다. 이상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세계는 과연 소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가? 물론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산 치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불같은 결심으로 단결해야 하며, 자유세계의 막대한 자원 그리고 과학 산업 교육 외교 각 방면에서 총동원해야 비로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수호하려는 모든 자유인들의 굳은 결심과 용기는 인권을 박탈하고 전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공산도배(盜輩)들을 결국에 가서는 꺾어 누르고 말 것이다.

<필자(筆者) 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주필(主筆)>

38시간(時間) 41분(分) 50초(秒)나 계속(繼續)

미 윌 부인 능변기록(能辯記錄)을 수립(樹立)

노스캐롤라이나 주 이 고을에서 일곱 번째로 말 잘하는 부인이 이미 앞에 사람 6명이 깨뜨린 세계 다변(多辯) 기록을 타도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곳 한 철물상점에서 개최된 능변(能辯) 경연 대회에서 여섯 번째의 경연자 프랭크 윌리엄스 부인은 38시간 41분 50초 동안 얘기를 계속한 후 입을 다물었다.
이곳 방송국에서 때때로 주최하는 능변주간 행사 중 이것이 클라이맥스였다. 윌리엄스 부인은 아마 세계 최대의 능변가로서 이 철물상으로부터 1,500달러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다.
경연대회가 끝난 후에도 11일 얘기를 계속하면 일곱 번째의 경연자는 어느 육군 대령의 처로 이곳 텔레비전 방송에 종사하는 에르나이 부인이었다.

미소(美蘇)의 인공위성(人工衛星)

홍성표(洪聖杓)

미소(美蘇)의 인공위성(人工衛星)

27억 3천만이나 되는 우리 인류, 이들 중 극소수에 불과한 몇몇 과학자와 그 종사자들에 의해 제조된 둥글거나 길쭉한 몇 개의 인공위성이 초속 5마일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주공간을 맴돌고 있다.

소련의 SPUTNIK 제1호, 제2호, 제3호를 비롯하여 미국의 EXPLORER 제1호와 VANGUARD 제1호 등의 뒤를 이어 최근 EXPLORER 제3호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크고 작은 인공위성이라는 우주의 괴물이 계속하여 하늘을 날고 있다. 이제는 벌써 갈릴레오의 지동설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지식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끝없는 우주공간에 훨훨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 수 있는 우주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계수나무 그늘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님들의 그림자를 보고 아름다운 시나 읊었던 시대의 환상은 사라졌는지 오늘에 와서는 과학 진흥의 소리만 높아가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은 실로 한심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30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석유의 수명이나 천년 밖에 가지 못하리라는 석탄의 수명을 미리부터 짐작하여, 석탄이 내는 열량의 300만 배에 해당되는 우라늄 개발이용이나 1분간 1평방센치미터 면적에 2Cal(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무궁무진한 태양열을 이용하게끔 되었다는 화려하고도 굉장한 외국 소식에 비하면, 이미 우리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전력조차 비가 오지 않는다면 대단히 부족함을 느껴 중세기의 유물인 촛불 신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의 환경은 아직은 다 꺼져가는 촛불같이 희미하다. 다음에 미소 양국이 우주여행의 꿈을 안고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아니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에 총 과학진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인공위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소련의 SPUTNIK 제1호

모스크바 방송은 소련이 작년 10월 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국제지구관측연도(IGY) 연구 계획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가 소련에서 계획되어왔다고 말하고, 이어서 10월 2일 발사된 인공위성은 약 560miles의 고도를 타원형의 궤도를 따라 1시간 36분 2초 만에 한 번씩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공위성은 직경이 22.8inch이고 184lbs(파운드)의 중량을 가졌으며 또한 무전 송신장치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했던 결과 이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초속 26.250ft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또한 동 인공위성이 광범한 한 파장의 아마추어 청취자들이 쉽사리 수신할 수 있게끔 강력한 2개의 송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0.3초 간격을 두고 20.0002메가사이클과 40.002메가사이클로 신호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 방송은 인공위성은 약 3주일간 선회하리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회전하던 인공위성은 금년 1월 4일 지구상에 융해(融解)되어 떨어지고 말았다. SPUTNIK 제1호가 발사된 지 불과 만 1개월만이요 우주 사이를 그대로 회전하고 있을 때 즉 11월 3일 소련은 SPUTNIK 제2호가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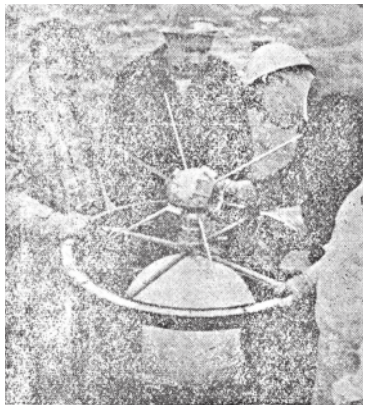
소련의 SPUTNIK 제2호

SPUTNIK 제1호는 공기의 고도와 유성군에 의해서 지식을 얻고자 한 데 대해 제2호는 생물에 의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인공위성 제2호의 발사에는 복합식 ROCKET가 사용되었다. 이 ROCKET이 지구 표면에서 수백 마일에 높이에 도달했을 때 ROCKET의 최후의 단계는 지구의 표면과 평행하여 초속 26,250Ft를 넘는 속도로 운동을 시작하여, 이 부분이 인공위성이 되는 순간에 ROCKET의 연료는 완전히 소비되어 기관은 정지되었다. 인공위성의 그 후에 운동을 ROCKET를 발사할 때에 발생한 동력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 궤도가 지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은 1056miles의 거리에 있다. 이것은 제1호 발사에 의해 도달된 최고 고도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인공위성 제2호에는 태양광선을 연구하기 위한 장치 무전기 기타의 기계를 넣은 컨테이너(CONTAINER). 실험용 개 한 마리를 넣은 밀폐실이 있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 원거(遠距) 전달기, 온도측정기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전력원도 있다.

원거(遠距) 전달기는 인공위성으로 행하는 모든 측정 DATA[26]를 지구에 전파로 전달했다. 인공위성 제2호에 의한 측정과 관련한 과학조사계획은 7 주야가 걸릴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현재에 있어서 이미 완료되었다. 인공위성의 무전기와 원거 전달기는 그의 활동을 중지했



<미국 해군(海軍)의 Vanguard 제1호>

26) 원문의 DATE는 DATA의 오기로 보임.

다. 그 후 제2호의 관측은 광학기계와 RADAR 장치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그 목적은 대기권 상층부를 연구하여 인공위성의 운동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위성 제2호의 기계를 가지고 태양의 단파광선 우주선의 강도가 과학적으로 측정되어 우주비행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현상이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주지의 사실과 같이 제2호에는 '라이카'라는 애칭을 가진 개 한 마리를 넣은 특수의 밀폐실과 동물의 생리기능을 조사하는 측정기가 장치되어서 개가 들어있는 CABIN에는 공기를 정화 처리하여 개에게 식물을 주고 배설물(排泄物)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원거 전달기에 의해 개의 맥박(脈搏) 호흡의 회수 혈압 등이 특별한 기계에 기록되었던 것이다.

CABIN속의 공기를 정화 처리하여 공기의 필요한 부분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내놓고 탄산(炭酸) GAS와 여분의 수증기를 흡수하는 화합력이 강한 화합물이 사용되었다. 개가 들어있던 CABIN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절되었다. 비행 중에 있는 개에게 식물과 물을 주는 데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다. 인공위성에 타게 된 개(라이카)는 미리 훈련되었고 이 개는 특별한 의복을 입고 밀폐한 CABIN에 장기간 꼼짝 못하게 서서히 훈련시켰다. 생리기능을 기록하기 위해 개 몸체의 각 부분에 측정기를 다는 것에도 훈련되었다. 의학생물학 조사계획의 실행에 의해 얻은 자료는 현재 상세히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인공위성이 궤도에 들었을 때의 긴(長) 가속작용과 그 후 수일간 계속된 중량감이 없는 상태에서 잘 버텨낸 것은 현재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얻어진 자료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동물의 상태가 대단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소련의 인공위성 제2호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가 금후의 혹성간 비행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는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조사는 인간의 우주 공간 비행을 안전하게 하는 수단의 완성에 기여한다.

소련에서 처음의 인공위성이 2개 울려진 것은 대기권 상층부의 연구에 커다란 공헌을 하며 인간이 주위의 우주를 인식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와 이에 의한 조사는 태양 주위의 공간이 모두 직접 인간에 의해 조사되도록 할 때를 예견한 것이다.

소련의 저명한 과학자이고 인공위성에 태운 개의 훈련에 참가한 체르니코프스키 교수는 11월 13일의 모스크바 뉴스 지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공위성 제2호의 비행 조건에서는 라이카 개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번 실험조건에서는 인공위성 제2호가 지상에 돌아오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에 개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교수의 언명은 인공위성 제2호의 생물학적 의학적 연구에 관한 장문의 성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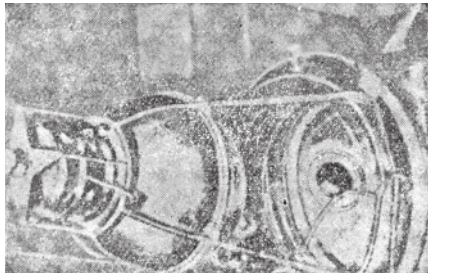
SPUTNIK 제2호도 금년 4월 14일 지구상에 떨어지고 말았다.

미국(美國)의 EXPLORER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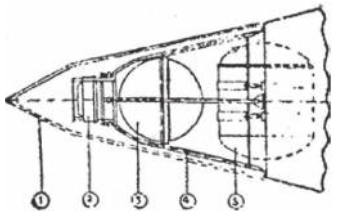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인공위성 경쟁에서 미국이 하루빨리 앞서주기를 열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현안 중이었던 세율 인하까지도 포기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미국 내 48주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작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이 소련에서 발사된 이후 만 3개월 만인 금년 1월 31일 미국의 인공위성 제1호인 EXPLORER 발사 성공했다.

작년 10월 소련이 SPUTNIK를 발사한 이래 3개월간은 온 자유진영 국민들의 초조감과 분함은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미국 육군이 JUPITER-C 유도탄이 인공위성을 궤도에다 처음 울리는데 성공했다는 보도는 미 국민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비록 인공위성 발사에서 미국은 소련에 뒤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미국 육군이 EXPLORER를 제조하고 있을 때 머리 위에는 소련 인공위성이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과학자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경이적인 짧은 시일에 제조되어 발사에 성공한 EXPLORER는 상공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EXPLORER는 80인치 원주와 같이 생긴 것이며 거기에 붙은 4개의 ANTENA에서 통과하는 상공의 온도 우주선 등을 끊임없이 무전으로 지상에다 연락한 타원형 궤도로 하루에 12회 지구 상공을 도는 이 EXPLORER는 80인치 원주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붙은 4개의 ANTENA는 통과하는 상공의 온갖 비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전으로 통고해준다. 온도 유성의 동태 우주선(宇宙線)에 관한 지식들은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무전을 통해 지상의 과학자들은 아주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이미 EXPLORER는 오랜 인류의 꿈에 있던 우주정복을 위한 여러 귀중한 정보를 과학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번 EXPLORER의 우주선 채지기(採知器)는 VANGUARD 계획을 맡아오던 아이오와 대학에서 처음으로 설계한 것인데, 설계책임자인 제임스 V. 아렌 박사는 "아주 성능이 좋은 탐지기이며 아주 미지인 공간의 우주선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소련의 Sputnik 제2호>



<2호의 횡형(橫型)>

① 궤도에 유도된 후 버려지는 외피
② 자외선 및 륀트겐 선 측정 장치
③ 송신설비 기타 기구를 넣은 구장 용구
④ 기구를 고정시키는 장치
⑤ 실험용 동물을 넣은 기밀실

미 국방성은 이 인공위성이 발사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유도탄과 인공위성 중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 수집(蒐集)되는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제1단 ROCKET는 육군의 REDSTONE 유도탄이며, 액체연료를 중력으로 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자체 내에 가지고 발사된 JUPITER-C는 길이 약 70ft이다. 최종 단계와 과학장치를 넣은 원통형의 인공위성 CASE의 길이는 약 80inch로 직경은 6inch이다. 그리고 인공위성과 최종단계 ROCKET는 결합한 그대로 하나로 되어 지구를 회전하게끔 설계되었다.

인공위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와 TELE METER는 4종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게 되어있다. 위성의 표면 온도 내부온도 우주 DUST(진(塵)에 의한 손상 및 우주선 DATA이다.

수집된 DATA는 2개의 송신기로 끊어지지 않고 송신된다. 강력한 것으로서의 송신기는 108.003메가사이클의 주파수로 100분 6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송신기는 2, 3주간 발신한다.

제2송신기는 100분의 1w의 출력으로 주파수 108메가사이클의 전파를 낸다. 이 송신기의 수명은 2, 3개월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송신하는 인공위성은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미국(美國)의 VANGUARD 제1호

미국의 두 번째 인공위성이 성공리에 발사되었는데,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금년 3월 17일 미 해군에서는 VANGUARD 유도탄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이 인공위성을 VANGUARD 제1호라고 부르는데, 3월 17일 12시 15분(GMT)에 발사했다. 해군은 새로운 소(小)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3차의 실패를 거듭한 후의 긴장과 초조감을 해소했다.

유도탄 발사대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희에 넘친 축하를 했다. VANGUARD 제1호는 육군의 JUPITER 유도탄으로 발사된 EXPLORER 제1호 및 소련 인공위성 SPUTNIK 제2호와 더불어 신비의 외기권을 선회하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VANGUARD 제1호의 발사는 미국이 국제지구관측년계획(IGY)의 일부로서 할 일련의 VANGUARD 위성발사 실험의 일부라고 말했다. VANGUARD

제1호는 18,000 miles 이라는 시속으로 지구로부터 3,000마일 거리의 궤도에 오른 후 지구를 향해 계속적인 승리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VANGUARD 제1호는 CAPE CANAVERAL 발사대에서 발사된 10분 후에 그 궤도에 들어갔다.

미 해군의 VANGUARD 위성은 육군이 1월 31일에 발사한 EXPLORER 제1호와 더불어 지구의 수백 마일 상공을 선회하고 있다.

지구를 선회하고 있는 인공위성 수는 미국이 소련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소련의 SPUTNIK 제2호는 2개의 미국의 인공위성보다 훨씬 크다.

VANGUARD 제1호는 지구형으로 직경 6.4inch 중량 3.25 LBS이고 그 표면은 ALUMINUM

이다. 육군의 EXPLORER 제1호는 원추형으로 길이 80inch이다. 워싱턴에 있는 해군과학 연구소는 정오 2시 20분 현재 VANGUARD 제1호는 이미 지구를 3회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인공위성이 발사 성공하기에는 미 육군의 EXPLPRER를 제4호까지 발사했으나 제1호만이 성공했고 미 해군은 VANGUARD 제1호를 발사하기까지에는 3차의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는 앞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예상할 수 없으리만큼 클 것이다.

소련도 작년 10월 4일 인공위성 제1호인 SPUTNIK가 발사하기까지에는 수십 차의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했다고 소련의 인공위성 계통에서 종사하다가 망명 온 사람이 진술했다.

소련의 제3호 위성(衛星)

소련은 드디어 제3호 위성을 발사했다. 작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이 된 제1호 계속하여 '라이카'라는 개를 태운 제2호를 11월 3일에 발사한 후로부터 실로 반년 만이며 4월 29일 – 30일에 발사실패의 소문이 떠돌고 있는 참이었다.

제2호를 발사한 후에도 월(月) 로켓 실패 설명이 수차 전하해졌고, 5월 1일의 MAYDAY를 기하여 제3확 발사되지나 않을까 하는 말이 있었다. 먼저 발사한 1호 2호의 양 위성은 금년 1월과 4월에 각각 소멸되었고, 1월 이래 계속하여 발사된 미국의 VANGUARD 1호 EXPLORER 1호가 14mm였는데 비해 라이카라는 개를 태운 SPUTNIK 2호가 1,120 LBS나 되어 당시 소련의 우수한 ROCKET 기술이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발사한 위성의 중량은 실로 2,920 LBS(파운드)로 1톤대(약 1.33

톤)를 넘어 전회의 2.6배, 미국 위성의 약 1,000배나 된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내부의 측정기는 무게가 2,130 LBS에 달하고 1,120 LBS의 제2호 위성에서도 라이카라는 개 그것을 1주간 생존케 하는 산소 보급기와 식량 그 외에 태양광선 우주선 온도 기압 등 각종의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었는바, 이번 위성에는 성능이 보다 우수한 각종의 기구가 장치되어 있다.

5월 15일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제3호 위성에 탑재한 관측기구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① 지구 상층부의 대기 압력과 성분(지금까지 미 소가 발사한 위성의 관측결과로부터 이 부근의 대기가 처음 예측한 것보다 수십 배나 농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 양성이온의 집중도(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나 X-선을 받아서 대기의 원자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와 이온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양을 조사한다)

③ 인공위성 자체가 띄는 전기양의 측정

④ 지구자장의 영향

⑤ 태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입자(粒子)의 흐르는 강도(지금까지 얻은 자료에서 상층의 방사선의 양이 매초 수만 카운트와 대단히 높은 치를 표시하는 것이 알려졌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양자 등이 이러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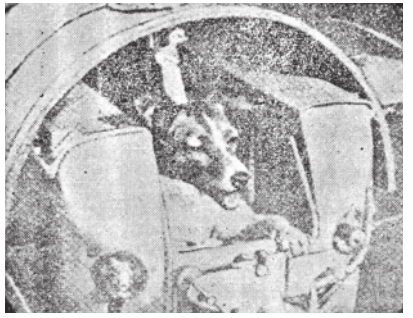
⑥ 제1차 우주선(宇宙線)의 성분과 변화의 모양(제1차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의 대기에 돌입하기 전의 생 우주선을 말함)

⑦ 우주의 파장으로부터 오는 무거운 입자의 상세한 분절

⑧ 위성 내외의 온도

등으로부터 지구 물리학상의 일련의 상세한 연구가 행하여지는 까닭이다.

또한 위성에는 다량 통신식의 송신기가 적재되어 있고, 이것으로 각종의 자료를 지상에 보내는 외에 궤도의 방향을 계량하여 이것을 지상에 전하는 특별한 장치도 있어 전부가 AUTOMATION으로 자동 조종된다.



<2호에 탑승(搭乘)시켰던 "라이카"라는 개>

그리고 송신기와 각종 기기들을 작용시키기 위해 축전지(蓄電池) 외에 처음으로 태양 전지도 비치되었다.

또한 최근 소련에서는 ROCKET로 고공에 개를 올려 이것을 무사히 지상에 데려오는 실험에도 성공하고 있으므로, 이번도 위성을 지상에 데려오는 시험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2,920 LBS의 ROCKET에 2,130 LBS에 달하는 각종 기구를 비치하고 있으나, 전 중량의 7에 달하는 기구를 적재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더라도 우주선이나 태양광선의 측정기는 한 종류가 4.4~7LBS 밖에 안 되는 것이 보통임으로 위성의 무게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어떠한 특수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여하간 이 무게는 충분히 인간 한 사람을 탑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인간은 탑승하지 않았겠지만, 만약 탑승하고 있다면 도중에 날개를 펼쳐 지구를 싸고 있는 공기층의 위를 도약하면서 지상에 무사히 귀착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량 1톤이 넘는 것이 공중 높이 올려 저 궤도에 탄 것은 경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모스크바 발 타스 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 6월 27일 오전 12시 30분(한국시간) 현재 이 소련의 제3호 인공위성은 지구를 581회 공전하고 있다고 한다.

미소(美蘇)의 인공위성(人工衛星) 성능비교표(性能比較表)

	발사일	소멸일	중량 (LBS)	장 (IN)	직경 (IN)	속도 (MPH)	선회 시간 (227 마일/분)	궤고도 (Miles)	궤도 경사	형	수명 (월)	로켓최초 추력(LBS)
스푸트니크 1호	57.10.4	58.1.4	184	23	22.8	17.660	92.2분	138 ~598	65도	구	3	250,000 ~395,000
스푸트니크 2호	57.11.3	58.4.14	1120	19Ft		19.170	103.52	132 ~1009	65도	원통	5~6	250,000 ~395,000
익스플로러 1호	58.1.31		30.8	80		18.470	114.95	227 ~1575	35도	관(管)	24 ~48	83,000
뱅가드 1호	58.3.17		3.25	9~4	6.4	18.000~ 19.000	135	407 ~2513	35도	구	60 ~120	27,000
스푸트니크 3호	58.5.15		2.920	12.3Ft	5.7Ft			116	65도			

기능

스푸트니크1호: 온도, 기압
스푸트니크2호: 온도, 기압, 우주선(線), 태양X선, 심전도
익스플로러1호: 우주선, 온도, 유성 DUST
뱅가드1호: 태양전지
스푸트니크3호:

미국(美國)의 월세계(月世界)에 로켓 발사(發射) 계획(計劃)

미국 공군 과학기술 본부사령관 E. E. 앤더슨 중장은 금년 6월 10일 미 공군은 8원 중에 달나라에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중장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군은 금년 중으로 3개의 달 탐험 로켓을 보내는 데 나머지 2개는 9월과 10월에 발사된다고 말했다. 앤더슨 중장은 그 크기나 무게는 밝히려 하지 않고 다만 이번 로켓은 월세계에 가서 떨어지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중장은 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이륙의 주동이 되는 개량된 THOR MISSILE는 2일 반 동안에 전 코스를 날 것이다. THOR탄의 사정은 1,500마일로서 현재까지 13개를 시험하여 5개가 성공했다.

2. ROCKET이 달에 명중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으로 대단히 흥미 있는 인공위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타원궤도는 달과 지구의 둘레를 8자 꼴로 왕복 회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3. ATLAS 탄도탄의 전 사정 실험도 8월 만에 처음 실시될 것이다. ATLAS는 조금만 더 보강하면 소련의 SPUTNIK 제3호 만한 3,000LBS짜리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4. 자금만 충분히 있으면 미국은 우주에서 어떤 나라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의 4할 밖에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 EXPLORER 제1호를 발사한 독일 태생의 VON BRAUN 박사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는 달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외계를 자유자재로 여행하게 될 것이다.

가수(歌手)에서 의원(議員)으로

일찍이 토스카니니가 '세기적으로 훌륭한 성대를 가진 여인'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미국의 오페라 가수 마리안 앤더슨(금년 50세) 금년 가을 UN 제13차 정기총회에 참가할 미국 대표의원으로 뽑힐 것이라고 한다. 작년 미 국무성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아시아 친선여행을 끝마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트랄토(여성최저음) 가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UN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존재, 사상과 정력을 모두 기꺼이 바칠 거예요."

★성층권(成層圈) 내(內)서도 백발백중(百發百中) 추락(墜落)★

★미(美) 새 요격유도탄(邀擊誘導彈)을 생산(生産) 중★

음속의 2배나 되는 속도로 지상에서 수 마일이나 떨어진 성층권으로부터의 음속 비행기 및 유도탄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 낼 수 있는 새로운 유도탄이 곧 제조될 것이다. 동 유도탄의 길이는 38척, 중량은 7,600 파운드, 날개 길이는 10척이다.

미소(美蘇)의 유도탄(誘導彈) 경쟁(競爭) 소고(小考)

발전상(發展上)의 지체(遲滯)는 생산(生産)으로 능가(凌駕)

외지(外誌)에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장거리 탄도유도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사태와 책임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공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기술적 완벽으로 끊임없이 지향해 그것이 실제적 방어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공업적, 과학적 역량은 필요한 양의 유도탄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의 한 사람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노력의 최후 결정(結晶)으로서의 이 무기를 허위적인 평화를 유혹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의 실험장이나 미국 산업의 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류의 심장과 사고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평화는 수 세기 동안 인류의 가슴속에서 살아왔다. 우리 공군의 방위적 무기로서의 대륙 간 횡단 내지는 중거리 탄도유도탄은 서방 진영의 평화를 보존하며, 다른 대륙에 있는 자유 인민들에게 미국이 자유를 위해 강력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재보장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탄도유도탄을 발전시키고 있는 =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 유일한 이유이다."

미(美) 공군(空軍) 유도탄연구발전본부(誘導彈硏究發展本部) 사령관(司令官)
공군 소장 버나드 슈라이버

미국은 어떠한 원인으로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소련에 뒤졌으며, 지금도 중량에서 소련에 뒤떨어지고 있는가?

대륙 간 횡단 유도탄의 경쟁에 미국과 소련은 얼마나 진보하고 있을까.
인공위성이나 유도탄 경쟁이 인류에게 미치는 사실상의 중요성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우주여행은 과연 몇 년 내로 실현될 것인가?

이와 같이 허다한 의문을 받아 가면서도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 일익(日益) 과거의 결점을 시정하고 있다. 과연 미국은 탄도유도탄의 발전에 최고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일찍이 미국 육군의 고위 유도탄 전문가들은 소련이 유도탄이나 인공위성 경쟁에서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으나, 그들의 예고는 미 국무성에게 거의 묵살되었다.

제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V-2호 로켓을 설계한 장본인이며 미 육군의 레드스톤 및 쥬피터 유도탄을 발전시키고 있는 폰 브라운 박사는 1956년에 벌써 2개의 인공위성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것을 발사할 수 있는 국무성의 허가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잠시나마 소련과의 유도탄 경쟁에 뒤졌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정책 수립가들은 소련의 기술적 수준을 과소평가했으며 인공위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적, 과학적 및 선전적 가치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유도탄과 인공위성 연구를 상호 분리하여 연구상의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실험의 결과 개량된 군사용 유도탄의 사용을 금했다.

그러나 미국 유도탄 경쟁의 장래성은 대단히 희망적이며 가까운 장래에 소련을 능가할 수 있다. 알라바마 주의 레드스톤 병기창(兵器廠)에 있는 육군 유도탄 본부의 사령관인 홀가 토프토이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54년 이후로 폰 브라운 박사는 수개월의 연구명령만 내렸어도 충분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었다. 1956년에 벌써 육군의 주피터 C가 3,000마일 거리를 성공적으로 날았다. 명령만 받았더라면 1956년 초에 이미 양호한 계기를 갖춘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것이다."

육군의 유도탄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이 만일 인공위성 계획을 유도탄 계획과 합작하여 연구하도록 명령만 했어도 소요된 경비 이상의 값있는 결과를 획득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전체적인 로켓 발사계획이 소련보다 뒤떨어졌다는 사실은 결정권을 가진 미국 국민들이 충분한 선견지명이 모자랐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래까지도 사실이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청신호를 보았다. 우리가 만일 초조감과 경제적인 불안만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훌륭히 소련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유도탄이나 인공위성 발전 연구에 있어 많은 방해자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커다란 장해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바클레이 장군은 로켓이나 인공위성 경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련이 발사한 현재까지의 유도탄과 인공위성을 보고 우리는 소련이 충분한 추력과 정밀성을 가진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을 발전시켰다고 확인하게 되었다.

<폰 브라운 박사(博士)>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정확도와 재추진 한계(지구의 인력을 통과하여 다시 달나라로 향하는 추력을 얻는 속도의 한계점)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을 충분히 발전시켰다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경솔한 행동일지도 모를 뿐이다."

"소련이 고도로 발전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아마도 최근에 와서 그들은 제2차 대전 당시 포로로 한 독일 과학자들에게 그리 많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이 뽐내는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을 그들 자신의 과학자들의 힘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항공수석고문인 테오도어 폰 카르만[27] 박사는 소련 과학자와 미국 과학자들이 발전시킨 로켓을 각각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본다. 카르만 박사는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유도탄과 로켓에 관한 미국 최고의 권위자로 숭앙(崇昂)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까지 소련이 발전시켜온 인공위성을 보면 소련의 3단계 로켓을 사실상으로 완성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미국의 아틀라스는 3단계 로켓이지만 실용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 또 미국의 토르나 주피터는 역시 3단계 로켓이지만 대륙 간 횡단 유도탄으로서의 충분한 추력은 아직 미급이다. 현재 토르나 주피터의 제1단계는 노스 아메리칸 항공회사에서 제작한 15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이와 같은 엔진을 두 개 사용하고 있

27) Theodore von Kármán; 주로 항공 우주 및 우주 비행 분야에서 활동해온 헝가리 계 미국인 수학자, 항공 우주 엔지니어 및 물리학자.

다. 그런데 소련인들은 제1단계에 25만 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로켓을 가진 것만은 사실이다. 소련이 이제까지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리한 증거를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소련 과학자들은 효과적이고 완전한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륙 간 횡단 유도탄은 인공위성보다도 10배나 더 엄밀한 정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련의 인공위성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세 개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추력이고 둘째는 정확도이며 셋째는 정밀도이다. 그런데 미국은 쏘아나 쥬피터와 같은 중거리 유도탄에서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에 들어가서 추력은 해결했지만, 정확성과 정밀도는 아직 실험 중에 있다.

물론 유도탄에서 100%의 정밀도를 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2개 중에 1개가 명중하는 다시 말하면 50 내지 45%의 정확성만 가진다면 족한 것이다. 유도탄의 정밀도는 유도탄 자체의 부분을 제작 과정의 정밀도에 의존한다. 펌프, 신관, 기관, 전기장치 등 35개의 부분품 중에 모든 것이 98%의 정밀도를 가지고 제조되었다고 해도 완성된 유도탄일 경우 50%를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유도탄이 발사된 후 한 조각의 장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유도탄의 실패로 끝나버린다.

<미국(美國)의 유도탄 전문가(專門家)>

소련은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대륙간횡단 유도탄의 정확성을 시위했던 셈이지만 정밀도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회사의 로켓 추력 연구학자인 아서 클레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는 15만 파운드의 추력은 그것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보다도 놀랄 만치 강력한 추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얼마나 큰 추력이냐는 비밀에 부쳐진 숫자이다. 물론 얼마나 큰 추력이냐는 비밀에 부쳐진 숫자이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100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가진 유도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것이다. 나는 롤스로이스 회사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추력을 얻는 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의 과학진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은 능력의 한계를 초과했다는데 의심치 않은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유도탄 과학자인 싱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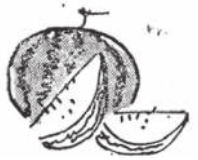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의 발전은 다만 제1단계의 과정이다. 생산이 반드시 뒤따른다. 소련은 우리 미국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발전 과정의 침체는 반드시 치명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2차 대전에서 경험했다. 한번 생산 공장의 기구가 돌기만 시작하면 발전의 침체와 지연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우리의 유도탄 계획에도 대규모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소련이 현재까지 우리보다 약간 앞섰다는 사실은 우리보다도 언제나 앞선다는 것이 아니다. 생산 단계에 돌입하고 미국의 거대한 공업력이 활동할 때는 이미 소련이 멀리 뒤떨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금언(金言) 명언(名言)

☆ 천재란 1%의 영감(靈感)과 99%의 땀(발한(發汗))으로써 이루어진다.
에디슨(미국, 발명가)

☆ 영웅이란 보통사람보다 용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다만 5분 간 쯤 용기가 지속될 따름인 것이다.
에머슨(미국, 평론가)

☆ 내 명예는 내 생명보다 고귀한 것!
세르반테스(스페인, 소설가)



<수필(隨筆)>

계절(季節)

김요섭(金耀燮)

4계절 중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한 계절을 유독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가끔 글 같은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공연스러울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계절에다 지나친 가치와 아름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읽었다.

한번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나더러 4계절 중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느냐의 질문을 받고 나는 대답을 못하고 어물어물한 적이 있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게는 4계절 중 어느 한 계절을 지피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극진히 차별 없이 다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나는 욕심이 많은지도 모르겠다. 또 욕심이 많다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나는 4계절을 다 사랑한다고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계절을 사랑하게 하느냐 하고 물으면 또 나는 이 질문에도 어물어물 할 수밖에 없다.

봄은 따뜻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꽃이 피니까, 여름은 태양의 치열함이 푸른 그늘이 눈부시니까, 가을은 무엇이 익어가고 감상적이니까 겨울은 눈, 바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따위의 맛을 아주 맛보지 못한 신경이 무딘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쯤의 맛으로 나는 어느 한 계절을 꼭 짚어놓고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도 겨울도 길을 걷다가, 아니면 오피스 같은 데서 창을 문득 내다보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느껴지는 그리고 눈에 비쳐드는 선명하고 생생한 계절의 빛깔에 나는 방순(芳醇)한 술을 마셨을 때의 흥분이 있다.

이건 그냥 흥분이 아니다. 침체되었던 나의 내부에 새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 생명의 충일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개 계절이 금방 바뀔 때마다 느끼기 쉽다. 봄이 됐는데 여름이 됐는데 가을, 겨울이 됐는데 하는 이런 평범한 생각이 이상하게 나에게 긴장을 주고 땅에 계절마다 새 피가 돌고 일을 시작하듯 나도 무엇인가 서둘러야 하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마다 일을 하다가 무척 피곤하던 머리에 생기가 피어나면서 한바탕 약동하는 생명의 물결을 재울 수가 없어서 한 바퀴씩 거리를 쏘다니지 않으면 못 배긴다.

마치 소년과 같은 이야기다. 발육기에 있는 소년들이 충일(充溢)되는 생명감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서 아침 눈 뜨자 공연히 벽을 발로 두 주먹으로 걸어 차든지 쥐어박는 격이다.

계절감을 선명하게 내 핏줄 속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때마다 나의 생명이 성장하는 듯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어렸을 때 성장한다는 것은 청년이 된다는 말이겠으나, 다 큰 젊은이가 더욱 성장한다는 것은 늙는다는 말이 아닐 것이다.

4계절을 다 사랑하던 나는 이제 나의 앞에 다가올 가을과 같은 세대, 겨울과 같은 세대도 지금 이 젊은 여름의 30대와 함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나간 어린 시절은 철없이 보냈으니 지금 더 어찌할 길이 없지만 가끔 나의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을 때의 생을 지금 계획하여 보고 꿈꿀 때가 있다.

내 머리 위에는 될수록 고운 빛깔의 흰머리가 겨울의 흰 눈이 내리듯 덮였으나 나이 많은 늙은이로서 살고 싶지 않다.

가혹한 겨울과 같은 죽음과 얼음 언 땅을 밟고 선 늙은이지만 안에는 저 봄의 피가 생생하게 그리고 음악처럼 흐르는 늙은이가 되고 싶다.

나는 그 때 어린이를 위한 시와 동화만 흰머리를 뒤집어쓰고 끝없이 눈이 내리는 깊어가는 겨울밤 고향인 북극에서 쓰려고 한다.

이제 나의 봄과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인 이제 40대가 오고 50대가 오고하여도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이다. 태양이 뜨겁게 비치는 계절 지금처럼 열심히 살려고 한다.

바람과 눈과 긴 밤이 있는 계절을 향해서-.

<수필(隨筆)>

말의 생리(生理)

박남수(朴南秀)

먹는다는 말이 있다. 밥을 먹는다든가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보급물자라든가 와이로라든가 – 하는 그런 것 말이다.

"자네 또 얼마나 먹었기에 그렇게 배가 나오나?"

물론 농담 섞인 인사말이다. 흔히 듣는 인사의 하나이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두 의미가 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음식물이 아닌 것이 더 크게 의미되어 있는 것이다.

"예끼 이 사람, 자네 같은 줄 아나."

물론 부정의 대구(對句)다. 그러나 화를 내도 시원치 않을 말에, 이렇게 대구하게 되는 것은 무슨 도량이 커서가 아니다. 사회풍속이 그쯤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치 예사로운 일로 된 것이다.

공갈이란 말이 있다. 공갈이란 말은 형법전에 있는 말인 듯하다. 이를테면 범죄용어란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고 듣는 일상용어로 된 것이다.

"글쎄 안 된다잖아. 그래서 재미없다고 공갈을 쳤더니 금세 되더군!"

물론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용건을 이루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만사는 공갈로 된다는 뜻이 된다. 가공할 노릇이다.

"그저 공갈을 때려야 해"

공갈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만 어째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이 안되게 되었을까?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용건을 해결해 주지 않는 관습이 생겼을까?

'먹든가' '공갈을 치든가' 해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싫어진다. 언젠가 어떤 부자가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이 자식아. 정직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야. 정적하다간 굶어 죽기 꼭 안성맞춤이지……"

"글쎄 그렇지만……"

"저런 바보 같은 것. 세상 뭇놈이 다 먹는걸, 네가 정직하다고 세상이 바로잡힐 줄 아느냐 어림도 없지!"

글쎄 그런지는 모르겠다. 부정만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부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겠지.

"그건 대한민국에선 안 돼."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안 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 나라를 '우리 나라에선' 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꼭 '대한민국에선'이라고 딴 제3의 나라처럼 부르는 관습 말이다.

좀 창피하다는 수작일까? 그 '먹는' 관습이 있고 '공갈을 때리는' 습관이 있고 정직은 패배라 일컫는 교훈이 있고 안 될 일은 테러를 구사(驅使)해서 관철시키는 의미가 있고……하는 나라를 제 나라라고 하기는 좀 창피하다는 수작일까?

어쨌든 그 '먹고' '공갈을 치고' 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것이다. 피하기 전에 뉘우치고 뉘우쳐서 부정한 것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테러를 조종하는 그런 양반처럼이 아니라 또 그 '미욱한 애국자'인 테러리스트들처럼이 아니라 좀 이성을 가지고 말이다.

말이라는 것은 의사를 유통 시달하는 데 쓰이는 부호이지만, 이 말 하나로 민족을 움직일만한 힘이 있더라는 것을 여기서 나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말은 존재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3.1 운동을 상기해 보자.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 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뜻에 찬동한 33인이 선언문을 썼다. 파고다 공원에서 읽었다.

생각하면 단순한 듯한 몇 개의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선언문이 읽혀졌을 때 3천만은 일어난 것이다. 깨우쳐진 것이다.

나는 무슨 선동(煽動)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말을 정화하자는 것이다. '먹는다.' 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배가 나왔으면 다 뇌물을 먹었을 것인가?

거참 몸이 좋아졌군!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지"

"자네도 마찬가지일세그려. 거 하는 일이 순조로운 모양이군." 해도 좋을 것을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한다는 말이.

"자네 또 얼마나 먹었나. 배를 보니 몽땅 삼킨 모양이지. 잘 봐가며 하게나."

"예끼 이 사람 나도 다 듣고 있네. 자네도 꽤 든데."

따위가 되니 딱하지 않은가.

그야 두 놈팽이가 뇌물 먹기에 선수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그런 뇌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이런 '멋진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말이 하고 싶은 것이다.

글쎄 어쩌면

"거 순리를 따졌더니 금세 결재가 나더군."

"그야 그럴 게 아닌가, 관리라고 다 머리가 핑핑 도나. 그럴 땐 잘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게 아닌가." 하면 될 상도 싶은데 고르고 골라서 하신다는 말씀이

"거 공갈을 한 대 때렸더니 금세 되더군."

"공갈이 제일이야."

하는 따위가 되니 딱한 노릇이 아닌가. 말이란 우리 '의식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한 마디의 말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인품과 정비례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쉬운 한 예를 들면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우리 집사람'

'우리 여편네'

'우리 그거'

'우리 내부대신'

'우리 내자'

등등에서 우리는 그 말의 주인공을 연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가령 '우리 집사람'에서 중후한 신사를 '우리 여편네'에서 좀 속된 사람을 '우리 그거'에서 좀 야비(野卑)한 사람을 '우리 내부대신'에서 좀 경한 신사를 '우리 내자'에서 중후는 하지만 봉건적인 신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기 아내 하나를 부르는데도 여러 개의 전형을 볼 수 있듯이 말의 사용법은 그 인간을 표현하

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될 수 있는 한도에서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품위 있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일을 우리 개개인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지만 말(言路)은 존재를 낳는다.

<수필(隨筆)>

5월의 창(窓)을 열면

박기원(朴琦遠)

1. 낙화(洛花) 속에서

한밤 무참히도 휩쓸고 간 비바람 속에 산란히 떨어진 꽃잎들이 내 뜰 앞에 주체할 수 없으리만치 흩날리고 있는 것은 아직 어제인 듯 기억에 남은 한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마음 한구석에 선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온갖 아쉬운 상념은 아마도 그만큼 눈부시던 그 날이 이제 어느 찰나로 돌아가는 영원한 내일을 못내 가슴 조이는 탓인지도 모른다.

○

누구를 위해 피었다가 누구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 꽃잎들인지 굳이 들추어 알려고 말라. 그저 피었다가 그냥 져가는 꽃잎이거니 알아두면 외려 마음은 한결 편할 것이 아니겠는가.

푸른 하늘이며 맑은 바람이며 흐르는 강물이며 밝은 태양의 빛은 이것은 확실히 낙화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오는 아까운 언덕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몸부림치는 침묵인지도 모른다.

○

저토록 먼 하늘가에 빚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정경들은 손을 저으면 언젠가 한 번은 대답할 수 있는 아릿한 그리움으로 하여 사무치는 온갖 사연들이 끌고 가는 계절의 모습인 것이매 어찌하랴.

구름은 무슨 뜻 있어 문득 메뿌리를 이루고 산마루에 서 있는 것인가 새는 훨훨 창공을 날아도 해지면 깃을 찾아 돌아오는 것은 우주의 마음인 것이다. 구름 흘러 영(嶺) 위에 섰고 씨울어 멀리 사라지는 것은 꽃 떨어져 낙화지니 강산이 적막(寂寞)하다는 별리(別離)의 하소연인가.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감정 속에 정이라는 감정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이고(離苦)의 쓰라린 발길이며, 잡아도 한사코 뿌리치고 떠나야만 하는 슬픔들이었기에 그 연연한 소매 끝에는 분명코 눈물방울이 아롱져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살다가 싫어지면 헤어져야 하는 허전할 인연보다 차라리 눈뜨고 돌아서기에는 산산조각으로 가슴을 찢어놓는 아까운 계절임을 어찌하랴.

인생은 꿈같다고 한다. 그저 꿈같이 살다가 꿈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한다.

이렇듯 인생이란 그 타고난 숙명 속에서 한시도 헤어가지 못하고 끝내 앙탈할 사이도 없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찰나인 것이다. 찰나이기 때문에 꽃은 피었다 지고, 영원하기 때문에 인생은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내일의 연장이다.

○

그렇기 때문에 저토록 산란(散亂)히 흩날리며 무참히도 비바람 속에 떨어져 가는 낙화를 아껴 인생의 수유(須臾)함을 애석히 잡아 보려고 촛불을 잡고 춘야의 짧은 시간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병촉(秉燭) 야유(夜遊)로 인생을 즐겼던 시옹(詩翁) 태백은 산락(散落)하는 도이원(桃李園) 속에서 짐짓 장탄을 참지 못하고 술로써 시를 읊었고, 시로서 인생을 달래본 것은 낙화의 찰나를 탄식하기보다는 인생의 수유(須臾)를 앙탈하여 천지는 만물의 역려(逆旅)요 광음은 백대(百代)의 과객(過客)이라 하여 자연과 술과 시로서 인생을구가(謳歌)한 것이다.

○

이렇듯 슬픈 정경들을 눈앞에 보내면서 나긋이 방초 깔린 언덕에 올라서면 뜻 없이 구름은 흘러 말없이 인생이 가고 있다. 여기에 나의 '낙화'라는 자작시 한 편을 적어 두는 것은 내 필시 낙화 속에 묻혀 있는 애틋한 영혼뿐 만은 아닐 것이다.

○

참아 아까운 시간입니다.
손 저어 보내기엔.
아직도 먼 하늘이 있습니다.

정으론 못 막을 떠나는 발길이매.
뿌리친 소매 끝엔 분명.
눈물이 아롱졌나 봅니다.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허전함보다.
차라리 눈뜨고 돌아 서기엔.
가슴 찢는 계절입니다.

인생은 꿈같은 것.
그저 꿈같다는 것.
산산이 비바람에 져가는 화화(花花).

이렇듯 수많은 슬픈 얼굴들을 보내며.
나긋이 방초를 밟고 서면.
무심코 구름이 흘러가는 언덕입니다

2. 녹음(綠陰)에서 오는 것

5월의 창을 열면 온통 초록색으로 넘쳐흐르는 산과 산들이 한 아름씩 품 안으로 다가온다.

저토록 많은 산이며 숲들이 무성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은 강산에 정이 있기 때문이다. 강산에 줄줄 봄비는 내리라 강물은 넘쳐 굽이치리니 굽이치는 강물에 돛단배 뜨면 고운 임 두둥실 오시리란다. 오시는 이 옷자락이 저렇듯 푸른 것은 그 빛이 내 마음에 와서 물들 것이다.

저 무성한 숲속에는 시방 한창 5월의 호흡이 사뭇 바다처럼 가쁠 것이다. 이 풍성하여 하나도 가난하지 않은 이 푸르름의 향연 속에 기쁨이 차라리 낙화 뒤에 오는 착실한 생명들로 인해 벅차게 살쪄가고 있다.

메말라 무딘 도시의 한복판에 수목이 푸르게 자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인정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 수목 한 그루가 도심 지대에 무성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사막에서 샘물을 찾은 듯 각박한 인항(人巷)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정임이 틀림없다.

5월의 창을 열면 3각의 높은 메뿌리가 그대로 한 아름 품속으로 차들어오는 것은 내게 그만큼 벅찬 생명이 봉우리마다 우량하기 때문이다.

골짜기에 구름이 흐르면 숲은 한층 더 무거운 바람을 안고 하늘을 향해 번들번들 손을 휘젓고 있다.

5월은 수목 함께 있는 염원의 석탑 위에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푸르름으로 하여 항시 시들지 않는 나무와 함께 나의 기도(祈禱)는 영원할 것이다. 넘치어 출렁이는 강물과 함께 나의 강산은 울창(鬱蒼)할 것이다.

(필자=시인)

유도탄(誘導彈)과 그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 (승전(承前))

세계적(世界的) 문제점(問題點)과 그의 발전(發展)에까지

전봉희(田鳳熙)

5. 유도방법(誘導方法)

제1도(圖)에 표시된 것과 같이 유도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천에서는 둘 또는 셋의 작용을 하는 것이 많다.

유도에는 3단계가 있다. 발사, 중간 COURSE 및 최종으로 발사 시에는 BOOSTER가 달린 것은 극히 적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전용으로 하는 유도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중간 COURSE는 지상에서 유도 또는 자력으로 목표를 발견하기 전의 상태 최종은 목표발견에서 충돌할 때까지 HOMING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목표에는 고정과 이동의 2종이 있어 이것에 의해서 유도방법도 다르다.

(a) COMMAND 식

유도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것으로서 근거리의 지대지 GM에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유도탄은 단지 조작원이 목측(目測)으로 조작하므로 복잡한 전자장치가 필요없다. 유선을 사용하는 것(제 1a도)은 WIRE의 중량이 문제로서 극히 단거리에 한하지만, 적의 방해를 받는 일은 없다(예 미 육군 지대지 DART). 이것을 레이더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적기의 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효거리는 유선보다 길지만, 조종에 대한 숙련을 요한다(제 1b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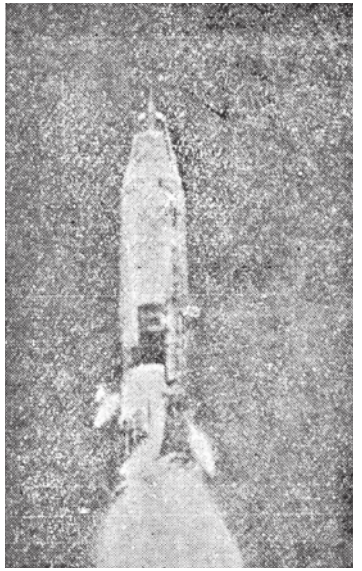
(b),(c). RADAR COMMAND 식

직접식은 목측인 것을 RADAR로서 목표를 포착하여 계산기를 통해 탄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미래 위치를 계산하여 탄을 그 방향으로 뜨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복잡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지연을 가져오게 된다.

목표가 급속한 대피행동을 하면 접근한 유도탄은 이것을 견실할 우려가 있고 원거리일수록 정도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다. 미 육군의 지대공 나이키(NIKE) 등은 그의 좋은 예로서 이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 별도로 HOMING 장치를 하고 있다(제1C도).

(d) BEAM RIDER 식

발진지점 부근에서 나오는 작은 RADAR의 BEAM을 타고 목표에 뜨는 것으로서 전술한 COMMAND식에 비하여 특수한 것이다. 발사로부터 BEAM을 타는



<미 공군의 ICBM ATLAS>

사이가 무(無)유도인 것과 목표근처에서 제1정도가 나쁜 것이 결점이라서 대체로 HOMING식과 병용되고 있다(제1도).

(e) SEMI ACTIVE HOMING 식

지상에서 목표에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유도탄이 그의 반사파를 받아서 유도되는 것이다. 두부에 유효한 수신원판을 달아야만 하는 난점이 있으나 목표에 접근함에 따라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BEAM RIDER 식과 병용되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많다(제1e도).

(f) COLLISION COURSE HOMING 식

중심과 어떤 각도를 정해 달려 있으므로 비행 COURSE가 달리 되어 목표의 옆(또는 밑)에서 충돌하게 된다(제1 g도).

유도탄 자체에서 전방으로 전파를 내어 반대파를 받아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으로서 유도탄으로서는 이상적이나, 구조가 복잡하여 중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작은 유도탄에서 발사하는 전파가 약하므로 적의 방해전파에 의해 방해되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범위가 협소한 BEM RIDER로 접근하여 어떤 장거리 내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유효하다.

(h) 수동 HOMING 식

목표에서 발하는 음과 열 또는 목표가 있음으로서 변화하는 것, 예를 들면 정전기 자장 등의 변화를 계산하여 뜨는 것이다.

최근 이 열선(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이 간단하고 대단히 유효함을 알았기 때문에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열선은 전자파보다 파장이 짧고, 영상(映像)이 잘 보이며 일정한 파장(TURBO JET 발동기는 750℃로서 3MICRON)에 합쳐지면 그의 발생원에 자동적으로 접근하여 간다. 다만 방해를 받기 쉽고, 두부에 투명한 창을 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결점이다(제1g도 미 해군의 SIDE WINDER가 그의 예).

(i) 천측식(天測式)

장거리의 고정목표를 공격하는데 적합하다. 발사 전에 일정한 항성(恒星)에 합치면 항법장치가 그의 각도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목표 상공으로 유도탄을 운반한다. 구름이 나오거나 측정실이 착수하면 일시적으로 맹목(盲目)이 되므로 보조의 조종 장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j) 관성식(慣性式)

발사와 폭격지점의 정확한 위도(緯度)와 경도(經度)를 알고 있으면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관성력을 계산하는 속도로서 탄의 비행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부에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고 외부로부터도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적의 방해가 불가능하여, ICBM에 사용될 것이다. 가속도계는 GYROOC MPASS 상에 놓여져 있어 탄이 속도나 고도 및 방향 등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자동장치가 정위치에 돌아오도록 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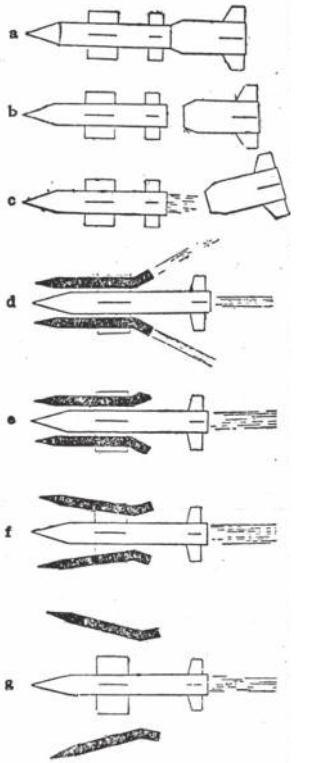
(k) 지방식(地方式)

지자기의 변화를 측정하여 목표에 도달케 하려는 것으로서 천측식과 원리는 유사하다. 이것도 장거리용에 한한다.

(1) BOOSTER의 투하법 미국식은 BOOSTER가 연소하면 공기의 저항으로 용이하게 벗어진다. 영국식은 BOOSTER가 연소하여 버리면 후퇴하고 앞의 금구(金具)는 먼저 이탈되어 외부로 회전(廻轉)하며 계속해서 금구도 풀어져서 투하되므로 제작하는데 힘이 든다.

미국식을 달리 TANDEM 식이라고도 하며 미국의 지대공 유도탄은 거의 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벗기기는 용이하지만 탄이 길어서 취급하기와 공작에 불편하며, 중요한 발사시에 본체의 ROCKET을 행동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영국식의 별명은 포입식(包込式)이라고도 하며, TANDEM 식과 반대로 COMPACT에 졸라매는 이점은 있지만 BOOSTER 1개가 고장 나면 별 도리가 없다. 또 소형의 것을 여러개 엄밀히 조정하여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등



포입식(包込式)
제1도

우수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최근에는 점차 쇠퇴하여 영국에서도 TANDEM을 채용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양방을 모두 시험하고 있으며 아직 어느 편도 결정치 않고 각종의 탄에 의해서 제일 좋은 편을 채택하고 있다(제2도).

(m) BOOSTER의 부착법

미국과 영국은 전혀 다르며, 소련은 미국과 대체로 동채(同採)이고 프랑스는 쌍방을 다 사용하고 있다.

① TANDEM 식,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길이가 크게 되어 강도(强度)상 불리하므로 정비 및 취급하는데 불편하지만 BOOSTER 하나가 고장이 생겨도 불안전하게 되지 않고 투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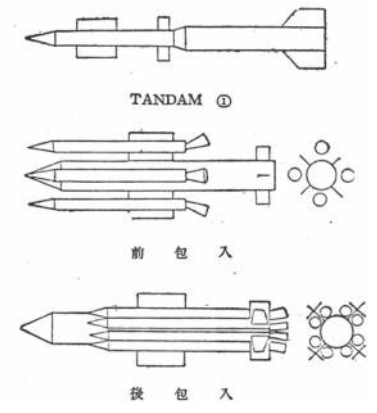
② 포입식은 강도와 취급상에서는 이롭지만, 저항이 증대되어 투하에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며, 하나가 고장이 나면 불안전해지기 쉽다. 상(上)은 머리 부분, 하(下)는 꼬리 부분으로 나란히 한 것. 전적으로 영국에서 사용된다(제2도).

(n) 익형(翼型)

익형은 크게 나누어서 4종류가 있다.

①은 비행기 형의 것에 사용되는 상하비대칭식 평면형은 후퇴각이 있다 없다 하여 일정치 않다.

②는 단형 더블워치식으로 미국의 고속유도탄에 광범히 사용된다. 더블워치는 2종설이라고 말하는 뜻으로 익의 단면형이 설(楔)을 2개 합친 것과 같은 형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2도>

③은 단형 2중 철면식으로서 더블워치보다 다소 저속이다.

④는 장 4각 평행 더블워치 식으로부터 영국의 고속유도탄에 많다(제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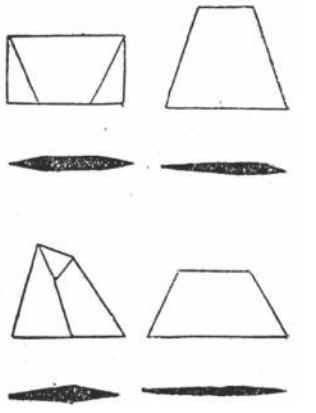
(o) 익의 배치

제4도와 같이 익의 배치는 크게 나누어서 3종이 된다.

①은 전익식으로서 주익은 후부에 고정되어 있어서 전익만이 움직인다. 타(舵)의 움직임이 좋으므로 미국의 유도탄의 표준적인 형식이다.

②는 유동주익식(遊動主翼式)으로서 타의 움직임은 대단히 좋으나 미익에 대한 대류가 대단히 혼란스런 까닭에 안정이 나빠지기 쉽다.

③은 영국의 유도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유동미익식(遊動尾翼式)이라 한다. 주익 후부에 미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류가 혼란되어 타의 움직임이 좋지 못한 결점이 있다. 비행기와 같은 형태의 유도탄도 익의 배치는 이 중 어느 것인가에 분류된다.


<제3도 익형의 종류>

3종 중 어느 것이 우수한 것인가는 설계 방법 및 목적에 따라서 일정치 않다. 최근에는 이외에 ROCKET만으로 추진 방향을 자유로 변경시키는 무익식(無翼式)이 ICBM 등의 대형 MISSILE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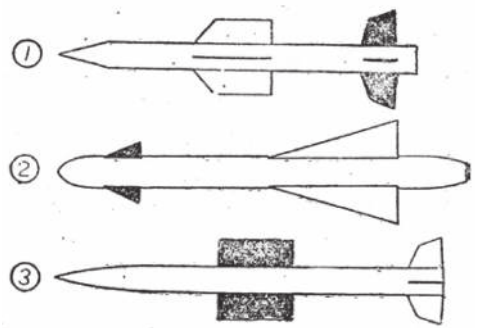
6. 유도탄(誘導彈)의 전략적 가치(價値)

오늘날 유도탄은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발사할 수 있으며, 이 거대한 무기는 이제 재래의 전략공군과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들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단거리 방공 지상물의 방위, 장거리 목표물에 대한 포격에서 대공포, 전투기, 전략공군, 야포시대에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도무기는 현재의 어떠한 비행기보다도 그 속도가 빠르고 또 어떠한 포보다도 사정거리가 크다. 여기에다 수소탄두를 장치하면 무제한의 위력을 발휘하므로 방위용이나 공격용에 훌륭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ICBM은 다른 유도무기보다도 달리 수소탄두를 장치하고 뉴욕과 모스크바 간 8,000KM(5,000마일)를 발사 후 불과 30분간에 날 수 있다.

재래의 미국과 유럽, 아시아 양 대륙 간을 나는데 10시간 전후가 걸리던 전략공군의 전략적 가치란 아마도 수년 내에 급속도로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도무기는 전략적인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치적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기능을 가진 병기라는 것은 그 병기의 목적을 최후의 순간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병기이며, 따라서 최대의 특징은 명중정도가 극히 좋다는 데 있다. 그



제4도

러나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원래 병기의 효력은 사용기회의 대소, 도달률, 명중률, 파괴력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되며 종합효력은 이 여러 요소의 상승적이다.

(1) 사용기회

인간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무인임은 어떠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적을 찾아가서 명중하려고 하는 성질은 일반적인 무유도인 것에 비해 원거리이고 넓은 범위의 태세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도의 병기에 비해 사용기회가 일반적으로 크다.

(2) 도달률

MISSILE 가운데서 무인비행기 같은 것은 방어화력의 사용 회피운동 RADAR나 대공유도탄에 대한 기만, 방해 등을 하기 어려우므로 유인비행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약하며 도달률도 나쁠 것이다. 그러나 탄도 MISSILE은 초 고속성과 고공성 때문에 저지 격추(擊墜)는 극히 곤란하다. 원폭 대공 유도탄의 실현 이래 유인 및 무인의 비행기는 엄중히 방어된 목표에 대해 도달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전용 탄도 MISSILE은 전폭이나 경폭 또는 무인 전술폭격기에 비해 그 도달률이 훨씬 좋으며, 전략병기 중에서도 ICBM이나 IRBM은 중폭(重爆), 중폭(中爆) 혹은 무인 전략 폭격기에 비해 도달률이 극히 우수하다.

(3) 명중률(命中率)

이것은 유도병기의 최대 특징이지만 비교하는 대조에 따라서는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예컨대 전략폭격기로서의 폭격정도와 ICBM이 명중 정도를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못하지만 비유도가 ROCKET에 비해 훨씬 좋을 것이 틀림없다.

(4) 파괴력(破壞力)

명중률과 파괴력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명중률이 좋으면 파괴력은 비교적 적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대공 대잠 목표와 같은 비교적 적고 취약(脆弱)한 것은 정도만 좋으면 보통 폭발약으로도 충분히 파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유도병기라고 하면 핵병기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無)유도 같으면 대 파괴력의 원 수폭이 필요하지만, 유도병기에서는 보통의 폭격약으로도 좋은 경우가 있다.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수반하여 또한 전략태세의 필요상 입체적 광범위성과 고속성이 현저해지고 있다. 중폭은 5,000마일 이상의 전투반경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대륙 간이 직접 전투거리로 들어갔다.

높이는 유인기가 2차 대전 당시의 약 2배로 잠수함의 잠항심도는 약 3배에 달했다. 속도는 유인 해용기가 약 4배로 잠수함 수중속력이 2-3배로 되었다. 거기에다 핵무기의 출현과 보통화에 의해 일반적으로 병기의 파괴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으므로 공방 양자 공히 일순 일초를 다투는 사태가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 고속, 순간적 전쟁 양상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한 유도병기의 우수한 성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이 없다. 인류가 그 대립 항쟁을 그만두지 않는 한, PUSH BUTTON 전쟁이 일어날는지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일반 과학기술의 진보에 수반하여 병기의 고도화의 요구는 점점 치열해지고 군비형태가 MISSILE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같이 MISSILE은 전략전술병기의 여러 부문에서 일반화되어 여기서 MISSILE 시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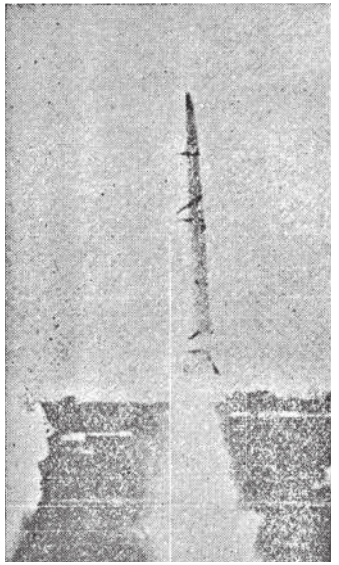
7. 유도탄(誘導彈)의 전망(展望)

최근의 과학기술의 진보속도는 비약적인 것으로 장래에 대한 예측이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대체로 금후 5년간을 개관하여 보기로 하면 미소 양국은 다 같인 사정 1,500마일(2,500KM) 정도의 IRBM의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ICBM도 계속하여 시사가 행하여지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나, 미소 양국이 다 같이 아직은 개발시험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잠수함용 탄도탄(FBM, FLEET, BALLISTIO, MISSILE)으로서 미 소병의 POLARIS는 아직도 개발단계에 불과하나, 소련의 COMET-1형 및 2형은 생산에 옮겨졌으며, 일부는 잠수함에 탑재될는지도 모른다.

소련은 IRBM 시대에서 전략태세의 열세를 COVER하기 위해 잠수함용 탄도병기에 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각 부문의 MISSILE에도 큰 진



<미 공군의 IRBM THOR>

보가 있을 것이나, 대 MISSILE MISSILE은 일부 시사(試射)가 행하여지는 정도로서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을 것이다.

(1) 인공위성의 군사적 이용

인공위성을 직접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하지 않아 5년 이내에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2) 정찰 목적 이용법

인공위성에 RADAR나 TV 및 사진기 등을 적재하고 전 세계를 고공에서 정찰하려는 것이다. 첫째, 중량문제가 있는데,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RADAR 등의 초고공에서의 정찰능력이 문제이다.

현재의 RADAR로서 311마일 내외의 고도에서 지표면 혹은 해면에 대해 전파를 발사해도 16,400척의 활주로까지도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것이다. 하물며 소규모 선박이나 비행장의 비행기 등은 도저히 해상(解像)하여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상에 있는 대부분의 트럭 1대까지도 찾아내 국방은 전부 폭로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언어도단이다. TV로서 촬상관(撮像管) 자체의 해결력은 RADAR에 비해 훨씬 좋지만, 브라운관에 수상하기까지에 전체로서는 육안에 비해 그 해상력, 식별력은 그리 좋지 못하다.

우리가 청명한 창공에 비행기운을 그리고 날다 JET전투기의 실태를 육안으로는 시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의 고도는 33,000 피트 정도이며, 인공위성은 그의 50배 이상의 고도로 나는 까닭에 현 TV의 능력으로서는 정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TV로서는 촬상관까지는 빛을 사용하므로 야간에는 안되고, 구름이나 안개의 장해, 자연적 및 인공적인 연무의 방해를 대단히 받기 쉬우며, 극히 불안전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진기는 TV와 같이 광학적인 장해를 받기 쉽고 311마일의 상공이라면 시야의 넓이와도 관련되고, 해상력에도 문제가 되며, 이용자에게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적인 지연과 확실한 회수방법 등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많다. 또한 이러한 장치의 무인 원격조작에는 아무래도 유효한 기만이나 방해를 받기 쉽다.

요컨대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연구되고 또한 학술연구용으로 혹은 특수목적용으로 인공위성에 탑재 사용될 것이다. 앞으로 5년 내에 군사 목표를 군사적으로 가치 있을 정도로 식별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3) 공격목적 이용법

인공위성에다 핵탄두를 장착하여 소요되는 목표에 향해서 강하(降下) 공격을 한다든가 인공위성에 핵탄두 ROCKET를 탑재하여 두고 그의 발사기지로 한다든가, ICBM의 유도기지로 하는 등의 방법이다.

앞의 2자에 대해서 중량 문제가 있는 것과 미리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심리전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계 영격(迎擊)에 여유를 주고 또한 정도도 ICBM에 비해서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ICBM에 비해서 훨씬 거대한 ROCKET을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이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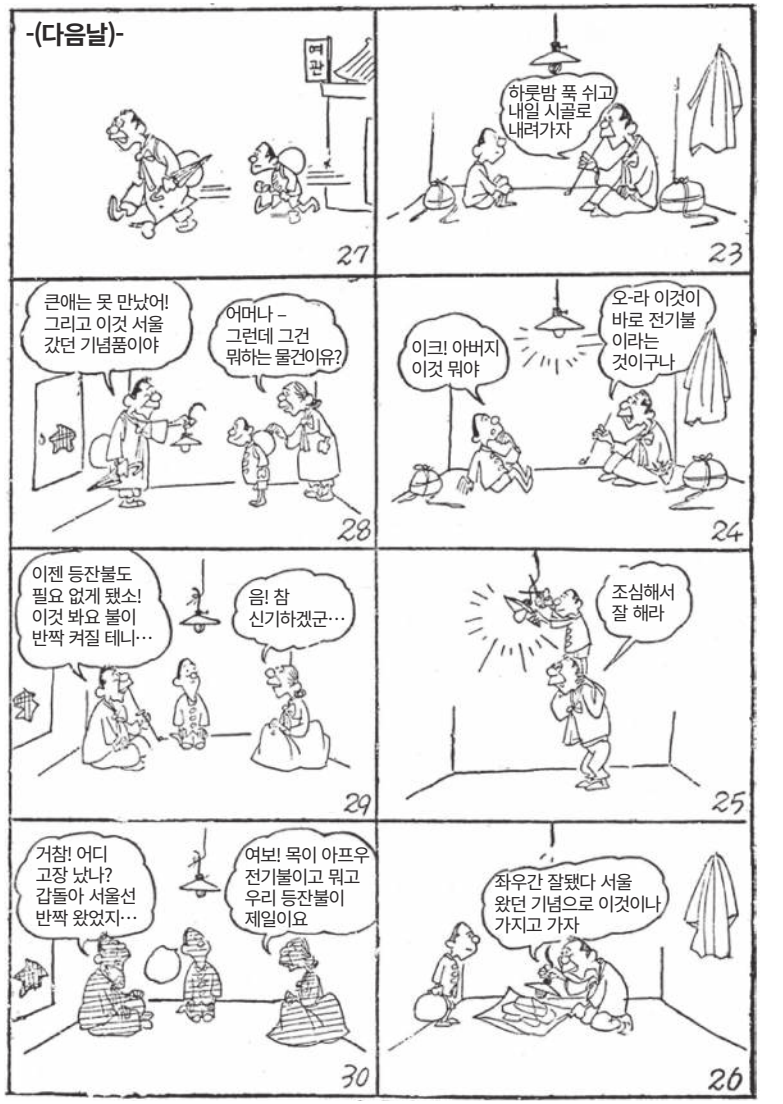
ICBM에 대한 유도에 사용하는 것은 ICBM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수단이기는 하나 인공위성에 고성능 RADAR나 유도장치를 탑재하고 또한 ICBM 탄두에 피유도장치 및 탄도수정용 ROCKET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의 궤도정도가 ICBM의 유도정도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5년 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것 같으면 금후 5년간이란 인공위성을 직접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대 MISSILE의 연구훈련목표에 적당한 것이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끝)

양지영감
(이상호(李相昊))
와-아버지! 여기가 서울이죠…
그래! 참 크지…
4
서울엔 자동차가 많다니까 조심하고 형 만나면 내가 안부 전한다고 해라
응!
1
이크! 갑돌이가 어디 갔니
5
여보! 마누라 갔다 오겠소!
갑돌아 잘 다녀온
2
야-갑돌아
6
감돌아! 저 산만 넘으면 너의 형이 있는 서울이란다
3

아이구 배야! 아버지! 큰일 났어 서울엔 뒷간(변소) 어디 있노…
11
아이구야 아버지
7
야 – 빨리 싸거라 에헴!
12
이크! 여기 빠졌군
8
이크! 저기 나-리께서 온다! 야-갑돌아 그만 보고 일어 서거라
빨리 휴지 줘!
13
자 – 이 우산을 꼭 잡아라…
9
감돌아! 서울은 참 크지…
음
14
감돌아! 우리같은 시골 사람은 서울에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응!
10

음! 바로 여기가 너의 형이 일하는 곳이야
19
여보! 영감 이리 좀 오시요!
15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올테니 기아려 응!
20
이크! 갑돌이가 없다…
16
거참! 큰일 났군 글쎄 너의 형이 여기를 그만뒀다니…
그럼 어떻게
21
야 – 갑돌아 -
잠깐만,
17
아저씨! 여관 가세요
여관? 그래 할 수 없군
22
휴 – 큰일 날 뻔했다 저-리 가버렸다…
난 잡아갈까봐 도망 왔어
18


-(다음날)-
여관
27
하룻밤 푹 쉬고 내일 시골로 내려가자
23
큰애는 못 만났어! 그리고 이것 서울 갔던 기념품이야
어머나 – 그런데 그건 뭐하는 물건이유?
28
이크! 아버지 이것 뭐야
오-라 이것이 바로 전기불 이라는 것이구나
24
이젠 등잔불도 필요 없게 됐소! 이것 봐요 불이 반짝 켜질 테니…
음! 참 신기하겠군…
29
조심해서 잘 해라
25
거참! 어디 고장 났나? 갑돌아 서울선 반짝 왔었지…
여보! 목이 아프우 전기불이고 뭐고 우리 등잔불이 제일이요
30
좌우간 잘됐다 서울 왔던 기념으로 이것이나 가지고 가자
26

경종(警鐘)

공산마수(共産魔手)는 이렇게 뻗쳐온다

김의섭(金義燮)

1.

요즈음 걸핏하면 '어이가 없다' 또는 '기가 막힌다' 하는 따위의 말들을, 마치 입버릇처럼 쓰는 이가 많다.

이는 물론 '이럴 수야 있으랴?' 하는, 어이없고 억울한 나머지, 숨이 들도 나도 아니하는 사정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말이 너무도 흔하고 변해서,

"아이, 기가 막혀……" 하여 지금은 도리어 젊은 그녀들의 한날 애교를 보여주는 말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도로 찾아야 할 때도 없지는 않다. 가령, 아주 목곧이 사나이가 나타나서, 온갖 세상 순리와 법도를 무시하고, 바람벽을 문이라고, 마구 제 의견만 우겨대는 경우일 것이다.

그가 만일에, 대동강이나 한강의 흐르는 물을 붙잡고, 그더러 산을 향해서 거꾸로 흘러가라고 떼를 쓰며 듣지를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힌다느니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를 확실히 돌았거나, 미친놈으로밖에 도저히 상대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물을 거꾸로 흐르라는 정도는 또 별문제일는지도 모른다. 만일 오늘날의 원자과학이 앞으로도 그대로만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저 크고 적은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겠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된다손 치더라도 이미 수천만 년을 통해서, 오직 피와 땀으로, 한 치, 한 층계씩 쌓아 올린 오늘의 인류문화와 자유인권의 신성한 상아탑을 함부로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원시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야 있으랴?

아무리 세상이 넓다 한들, 또 아무리 돌대로 돌고, 미칠 대로 미쳐버리는 일이 있을지언정, 어찌, 누가 감히 이따위 억지를 받아들일 수야 있겠느냐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의 독재나, 몇 사람의 호화로운 향락(享樂)을 위해, 오늘날 최고 문명에 도달한 20세기의 문명인들을 억지로 노예화 야만화하려고 온갖 폭악을 서슴지 않는 무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의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민주주의며, 또 가장 인민을 위한다는 공산 독재도당들은 그 말과는 정반대로 인민을 압박 착취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조국도 가족도 있을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혈통을 까지도 일절 무관심하고 오직 저 하나만의 영화를 추구하는데 눈이 어두워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 독재권을 둘러싼 암투와 음모란, 피로서 피를 씻는 지극히 무자비한 것이며, 이에는 진지력과 국력을 기울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하도고 악착스레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탈전에서 패배하여 희생된 자는 허다하다, 그들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는 레온 트로츠키의 일일 것이다.

그가, '소련의 원수'라는 이름 밑에 멀리 망명지에서 암살당하던 모습이 심히 기괴했을 뿐 아니라, 그가 본국을 추방된 지 이미 30년이나 지나간 오늘날, 새로운 독재자 흐루쇼프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있나니, 가로되, - 트로츠키는 이데올로기(주의(主義)) 상으로 레닌과 대립했으나, 그의 주장은 좀 지나치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 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공산당 창립 공로자임에 틀림없는 자라고 추켜올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레닌의 1국 적화주의에 반하고 세계적화를 주장한 트로츠키가 승리를 거두어, 그의 주장대로 실천할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도리어 고난의 씨가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가 일찍이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서 말살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유진영을 돕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는지도 모른다.

흐루쇼프가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를 재평가한다는 것도 용혹무괴(容或無怪)한 일일지도 모르나, 이제 감히 여기에 트로츠키의 이름을 꺼내려는 것은 다만 그를 암살하던 자의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음모 사실이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의 대공 투쟁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츠키가 반소 음모 혐의로 본국을 추방당한 것은 1929년 봄이었으나, '위험한 혁명가'란 낙인(烙印)을 짊어진 그를 따뜻이 맞아줄 곳은 없어, 이 나라 저 나라로 방랑자 신세를 면치 못했건만, 천성이 투쟁적인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갖은 음모를 조종하다가 가장 광범히 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소조 토하체브스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유럽대륙을 피하여 대서양을 건너 멀리 중미 멕시코에 망명지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흉악한 게페우(비밀경찰)[28]의 마수는 이미 그들의 뒤를 따랐고, 그리하여 먼저 트로츠키의 장남 세도프를 그의 품 안에서 빼어 버리는데 성공했다.

이때 파리 유학(留學) 중이던 세도프는 1938년 2월, 갑작스런 발열과 복통으로 입원하여 맹장염(盲腸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이 수술의 마취에서 다시는 깨어나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체 언제, 어떻게 해서 꾸며진 음모였는지 모르나, 하여간 병사와 마취를 가장한 교묘한 게페우의 암살방법의 하나였음에 틀림이 없다.

한편, 멕시코로 건너간 트로츠키는 수도 멕시코시티에 가까운 고요아칸에 거

28) GPU(State Political Directorate); 러시아어로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ГПУ)

처를 정하고 스탈린과 그의 정책에 대해 한층 더 열렬 가혹한 비난을 퍼부었고, 이를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없는 스탈린은 곧 게페우를 시켜 그의 말살을 명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북미대륙의 한 모퉁이에서 끝을 맺을, 이 세기적인 암살 음모극은, 그보다도 약 3년간의 여유를 두고, 유럽의 한복판인 화려한 파리에서, 한 쌍의 아름다운 젊은 남녀의 등장으로부터 막은 울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2.

트로츠키의 장남이 병원에서 희생당한 바로 다음 달인 1938년 3월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매우 이지적인 한 미국부인이 프랑스로 건너왔으니, 그 나이는 27세, 이름은 실비아 아게로프라 했고, 그의 자매(姉妹)의 한 사람은 이때 레온 트로츠키의 비서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전공과목인 임상심리학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그녀가 근무하고 있던 뉴욕시 교육국을 사퇴하고 이곳 파리로 건너왔는데, 이곳에 도착하자 곧 잭 모르날 반 덴 드레슈트라는 소르본느 대학에서 신문학을 공부한다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실비아에게 대해, 자기는 벨기에의 유서(由緖)깊은 부호의 자제라 했을 뿐더러, 실지로 그는 부유한 살림을 하는 것 같아서, 거의 매일같이 그녀를 불러 미술관, 극장, 요리점 혹은 나이트클럽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그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 실비아는, 자신은 고학하러 파리로 왔다는 일을 비롯하여 자기의 육친에 관한 일, 자매의 한 사람이 트로츠키의 비서로 멕시코에 있다는 따위의 신상비밀을 모조리 말해 버렸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즉석에서 그녀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신청했으나, 트로츠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흥미조차 나타내지를 아니했고, 항상 정치와 사상문제보다도 놀기를 즐기는, 아주 쾌활한 청년 같았기에 그가 열심히 실비아에게 교제해 온다는 것이, 이면에 어떤 비밀이나 까닭이 있으리란 따위의 의심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해서 잭은 아무 말도 없이 그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실비아는 몹시 궁금한 가운데 얼마를 지내노라니, 그해 여름철에 이르러서야 편지 한 장이 브뤼셀에서 날아왔다. 거기에는 그의 부친이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종내 사망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만사를 호의로만 생각한 그녀는 이 불행에 빠진 그를 위문이라도 해 주려고 부랴부랴 브뤼셀로 찾아갔으나, 이상하게도, 알려온 주소에 그는 있지를 않았다.

낙심한 그녀는 허덕이며 돌아와, 이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또다시 얼마를 지내던 어떤 날, 그는 홀연 파리에 나타났고, 이 브뤼셀에서 서로 만나지 못한 것은 제가 급한 용무로 영국에 건너갔었기 때문이었다고 우물쭈물했으나, 그를 신용하는 처지인지라 여기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의심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2년 후에 알려진 일이기는 하나, 이 서신이 경찰의 손에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벌써 거기에 쓴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부친은 1926년(4259)년, 곧 이 서신에 기록된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는 해보다도 12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조사관들에게 태연자약해서 진술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약 10년이 지난, 다음 해 2월의 일이었다. 잭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즉 그는 벨기에의 어떤 신문사로부터 미국 특파원에 임명되었다고 말하고, 자기도 곧 뒤처리를 끝마치는 대로 따라갈 터이니, 실비아더러 먼저 뉴욕에 돌아가 있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청을 들은 실비아는 곧 그의 말대로 뉴욕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다. 그것은, 충분한 학비 없이 파리의 유학이란 용이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잭이 미국에 파견되어 확실한 직장을 가진다는데 대해 많은 앞날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잭은 그 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뉴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까닭인 즉 미국 입국수속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전에 근무하던 시후생부(市厚生部)에 다시 직장을 잡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잭은 9월이 되어서야 겨우 뉴욕에 도착했다. 그런데 괴상한 일은 그의 이름이 잭 코르날이 아니고, 프랑크 잭슨으로 되어 있었다. 까닭인즉 벨기에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 때문에 미국 도항(渡航)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3,500만 달러란 대금을 주고 거짓 여권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도 신문기자가 아니고, 멕시코 주재 유럽인 원료 중매상 보좌역이란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화려한, 신문사의 재외 특파원!'이란 꿈은 사라지고, 별로 신통할 것도 없는 일개 중매상 대리인이란 미미한 존재로 떨어진 데 대해 실비아의 실망은 컸으나, 그를 의심할 수 없는 그녀는 잭 아닌 잭슨이 그래도 자기를 찾아온 것만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애썼다.

잭슨은 그녀와 같이 한달 동안 뉴욕에 머무르다가 10월 달에 멕시코로 떠났는데, 그는 간 지 1주일도 못되어, 자기는 매우 고독하다는 것과, 실비아도 그리로 와 달라는 서신이 보내어 왔다. 이런 서신이 사흘이 멀다 하여 그녀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그 간청에 이기지 못해 1940년 1월, 그녀는 3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멕시코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그녀는 곧 트로츠키의 비서인 자매를 비롯하여, 모든 트로츠키파 사람들에게 잭슨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친밀한 교제를 부탁해 주었으니, 트로츠키 암살계획자는 이와 같이 하여, 마침내, 그렇게도 삼엄한 트로츠키 아성의 한 모퉁이에 그 첫발을 디디는 데 성공했다.

3.

3월에 들어, 실비아의 휴가가 끝난 후에도, 잭슨은 이 새로 얻은 친지들, 더구나 트로츠키의 주객인 로스메라는 프랑스인 부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잭슨은 뜻하지 않은 찬스 하나를 탐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로스메 부부가 5월 말에 귀국하게 되어 베라크루스 항으로 떠난다는 것과, 트로츠키 부인이 이를 전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스메 부부가 5월 28일에 출발할 것이 예정되자 그는 곧,

"그 때는 제가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고 청하여 승낙을 얻었다.

그런데, 로스메 부부의 출발을 며칠 앞둔 24일이었다. 그들의 출발준비를 위해 뒤숭숭한 틈을 탔음인지, 이날 새벽을 기해서, 하마터면 트로츠키는 그 몸이 벌집같이 될 번한 위기를 겨우 모면한 청천벽력의 대사건이 돌발했던 것이다.

이날 오전 3시를 조금 지나서였다. 멕시코 육군 대령복을 입은 사나이가 인솔하는 약 30명의 멕시코 경찰복을 갖춘 일단이 수명씩 승용차에 타고 트로츠키의 집으로 달려들어, 그의 신변경호를 위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파견되어 있던 10명의 경호원들에게 강도단처럼 덤벼들어 무장 해제시키고 전원을 포박(捕縛)해 버렸다.

이때, 그 소란에 놀라 깨어 나왔던, 트로츠키의 개인 경호원 중 한 사람인 로버트 셀든 하트가 마침 그 대령복 차림의 괴한을 보자, 얼떨결에,

"앗! 자네는—"

하고, 분명히 상대방을 알아본 듯한 말을 꺼냈던 탓에 그만 가엾게도 생명이 끊기는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때려눕혀져,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의 구석에 처박혀 그들의 퇴거와 함께 끌려갔는데, 그 후 멕시코 경찰에 의한 필사적인 탐색의 결과 겨우 어떤 창고 속에서 발견은 되었으나, 그는 이미 보기에도 무참한 석회(石灰)투성이가 된 참살체로 변해 있었다.

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날 침입자들이 취한 흉행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이 흉도들은 기관총을 먼저 앞뜰에 설치해놓고, 건물의 모든 문과 창을 향해서 마음껏 한껏 총탄의 우레를 퍼붓기 시작했다. 트로츠키 부부는 이에 대경실색하여 곧 침대에서 굴러 내려와 방바닥에 엎드렸고, 죽은 듯이 숨도 안 쉬고 누워 있노라니 아니나 다를까, 흉한 하나가 이 캄캄한 침대로 뛰어들어 권총을 한 바퀴 둘러 쏘더니, 아무도 생존자는 없으리란 듯이 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트로츠키 부부는 구사일생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담한 이들 암살단 흉도들의 정체는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트로츠키의 신변경호는 한층 엄중해지고, 그의 거실은 요새처럼 굳어졌다. 정면 입구에는 전동식 강철제 2중문 한 짝이 설치되었고, 내방자는 일일이 그 옆에 장치된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그 자신이 확인되어야 만 출입이 허락되었고, 주인공인 트로츠키의 거실 문과 창에는 강철 덧문을 달아, 밖으로부터의 저격에 대비했다. 방바닥과 천장에도 두터운 철판을 깔았고, 집 주위에는 제방을 쌓은 다음 철조망을 둘러치고 요소마다 망루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강렬한 외등을 비추었기 때문에, 마침내 집 주위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기어둘 수 없도록 엄중한 경호진을 펴 놓았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이와 같은 경계의 대상자인 잭슨은 도리어 자유자재로 그 경계망을 뚫고 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잭슨이 이와 같은 신임을 얻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기회로부터서였다. 즉 흉도의 피습을 받은 지 4일 후였다. 로스메 부부와 트로츠키 부인의 여행을 위해 자동차를 몰고 트로츠키 가를 방문하니 거기서는 때마침 아침 식사 중이었다. 잭슨은 여기서 커피의 대접을 받으면서, 레온 트로츠키와 더불어 처음으로 대면할 기회를 얻었고, 트로츠키는 그에게 미소를 던지면서 오늘 베라크루스에서 한 수고를 치하하면서 따뜻한 악수를 교환했는데, 후에 그는 잭슨을 평하여

"그는 매우 상냥하고 고상한 좋은 청년……"이라고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는 만큼 트로츠키는 이때부터 무조건 잭슨을 신임했고 잭슨은 그의 주택을 언제나 무상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트로츠키의 모든 경호원과 비서들은, 이 잭슨이란 자는 트로츠키의 가장 친근한, 그리고 가장 신용할 만한 인물로 되어 버렸다.

4.

잭슨은 그 후도 매일같이 트로츠키 가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그는 점점 병인처럼 쇠약해 갔다.

8월에 들어서 실비아는 그녀의 여름휴가를 지내기 위하여 멕시코로 찾아왔다. 임상심리학을 연구하는 그녀는 그가 분명히 심리적인 과로에 빠져 있는 것임을 진단했다.

전지정양(轉地靜養)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은 매우 힘이 드는가 보지요?"라는 그녀의 물음에 대해서,

아니야, 너무 더워서인지 요즈음 잘 잠을 자지 못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말은 그것으로써 그쳤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는 많이 원기를 회복한 듯했다.

10일, 두 사람은 트로츠키 집으로 다과(茶菓) 초대를 받았다. 잭슨은 여기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토론에 참가했는데, 그는 전적으로 트로츠키의 의견에 찬성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기사를 신문에 투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로츠키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지금껏 정치 사상담(談)에는 아주 초연한 태도만 취했던 그가, 그와 같은 신청까지 한다는 것은 진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쾌히 승낙하면서, 그러면 다음다음의 목요일까지의 그것을 써보라고 일렀던 것이다.

그 목요일 – 1940년 8월 20일 저녁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 오후 5시

40분에, 약속한 원고를 가지고 잭슨이 찾아왔다. 마침 이때 당번으로 있던 경호원 하롤드 로빈스는 뒤뜰에서 산책 중인 트로츠키한테도 그를 안내해 데리고 갔었다.

"이제부터 잠시 동안 작별하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잭슨의 음성에는 어딘지 전과 같은 쾌활한 맛이 없어 보였다.

"실비아도 곧 작별인사를 드리러 올 것입니다."

그것은, 잭슨의 전지를 겸하여 그 이튿날 두 사람이 같이 뉴욕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허! 대단히 적적해 지는걸……"

트로츠키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때 트로츠키 부인은 베란다 위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본 잭슨은

"대단히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주세요!" 하므로 부인은, 어서 그러라고,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는데 그 얼굴빛이 너무나 창백함을 발견하고

"어디가 편치를 않은가요? 얼굴빛이 매우 좋지를 못한데요?……" 물었다.

"아니올시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으나, 부인은 곧, 그가 무엇인가 흥분하고 있다는 것과, 또, 평소의 그의 습성에 반하여 모자(帽子)는 쓴 채로이며, 왼쪽 팔에는 레인코트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묘한 생각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얼마 후 그는 트로츠키와 같이 실내 서재(書齋)로 사라졌는데, 그것은 약속한 논문을 읽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약 3분 후였다. 부엌에 있던 트로츠키 부인과 로빈스, 그리고 옥상에 있던 3인의 벗들은, 무섭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부르짖음 – 고통에 신음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그들이 뛰어 오자, 서재의 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트로츠키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양, 두 팔을 내뻗고 식당까지 가서 마루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어버릴 듯이 보이는 순간이었으나, 분격(憤激)한 경호원들이 뛰어 들어간 서재를 가리키며, 매우 분명한 어조로 외쳤다.

"그놈을 죽이지는 말아! 살려두고 자백을 시켜야 해……"

그러나 아무런 손쓸 길도 없이, 26시간 후 그는 드디어 사망하고 말았다.

로빈스 이하의 경호원들이 서재로 뛰어 들어가니 잭슨이 손에 권총을 든 채 헐떡거리며 서 있었다.

"이 자식!" 부르짖으며 로빈스가 달려들어 그를 마루에 때려눕혔다. 권총은 그의 손에서 튀어 날아갔다.

잭슨은 거의 실신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놈들이 나를 시켰다. 놈들에게 강요당했다!"

"놈들이 어머니를 붙들어 갔다. 어머니를 감옥에……"

수 초 후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그는 도망쳐 보려는 태세를 취했다. 그러자 로빈스는 곧 덤벼들어 재차 일격을 가한 다음 그를 묶어 버렸다. 그러나 웬일인지 처음 말할 적 태도를 일변한 그는 다만

"나는 게페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실비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고, 한마디 중얼거렸을 뿐, 꼭 입을 다문 채 일절 침묵을 지키고 말았다.

이윽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잭슨은 달려온 경찰들에게 그의 범행이 진행된 모습을 다음같이 말했다.

– 트로츠키가 책상 앞에 걸터앉자, 나는 가지고 온 원고를 꺼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왼쪽, 의자의 바로 뒤에 다가섰다.

그가 읽기를 시작하자, 나는 왼손 레인코트 밑에 숨겨두었던 흉기 – 무거운 나무 손잡이의 한쪽 끝에 예리한 동철제 곡괭이를 단 것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참말 죽기만큼이나 괴로운 일이었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다. 둔한 소리와 함께 괭이 끝이 그의 머리 한복판에 들어박혔다.

그는 무서운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서자, 나를 밀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괭이 끝이 3인치나 뇌에 들어박혔으니만큼, 그와 같은 중상을 입은 이상, 도저히 움직일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는 비틀거리면서 나가 버렸다.

나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고 도망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5.

범인은 곡괭이와 권총 밖에도 9인치가 넘는 단검을 옷 안에 꿰매 넣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미제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물건이란 아무것도 가지지를 않았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가지고 있던 캐나다 여권은 불살라 버렸다고 대답했다.

본청으로 옮겨진 다음, 본격적인 취조를 받았을 때에도 제 신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실비아에게 말한 대로를 되풀이했을 뿐이었으나, 멕시코 주재, 벨기에 공사관원은 그를 벨기에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긴 시간 서로 담화해 본 결과, 그의 벨기에 생활에 관한 진술이 부정확할뿐더러, 그가 사용하는 프랑스 말은, 그것을 스위스에서 배운 사람의 액센트라고 말했다.

잭슨은 자신의 신분만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 전부가 모조리 거짓이라는 게 취조해 볼수록 늘어만 갔다.

첫째, 그의 캐나다 여권이라는 게 엉터리였다. 그는, 그 위조 여권의 생년월일조차 기억치 못한다고 뻗쳤으나, 마치 멕시코 시의 미국 영사관에 보관된 서류

가운데 캐나다의 몬트리올 통과 사증(査證)을 청구한 프랑크 잭슨의 신청서가 있었으니, 거기에는 그가 1905(4238)년 6월 13일, 유고슬라비아의 로비낙크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여권을 조사하니, 다음 같은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그 여권 번호를 따져보니, 그것은 동년 동일, 동소에서 출생한, 캐나다에 귀화한 영국인 호니 밧치에게 발행한 진정한 캐나다 여권의 그것이었으며, 그 밧치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그 당시의 스페인 내란에 종군하여 적색파의 병원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판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수께끼는, 그때 미국으로 탈출해 온, 전 소련군 첩보부 장관 리토프스키 장군이 폭로시킨 정보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당시 국제 의용군으로 스페인 내란에 참전한 자들은 그 여권을 상관에게 제출시켰고, 전사자의 것은 그대로 모스크바로 보내, 교묘히 사진을 바꾸어 외국으로 파견되는 스파이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러므로, 잭슨이 한사코 부인하더라도, 그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은 게페우의 앞잡이였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잭슨이 재판을 받는 동안 즉 계속해서 그의 감방(監房)에는 축음기와 레코드며, 또는 온갖 서적(書籍)들이 차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식사는 고급 요리점에서 날아들어 왔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측만은 되지만 지금껏 그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다.

이렇듯 대규모적이고도 치밀한 세기적인 암살 음모는, 그대로 완전히 암흑에서 암흑 속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범인의 사진과 그 기사가 온 세계, 모든 신간 잡지에 게재되었으나, 단 한 사람도 그를 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를 아니했다.

이처럼 큰 사건의 배후관계는 물론, 오직 혼자서 표면에 나타난 범인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것조차 끝끝내 밝히지를 않고, 이같이 기괴한 존재로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20세기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 K.N.A 납북기 승객들의 귀환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공산 간첩의 손은, 이미 남한 전역에 깊숙이 뻗쳐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들이 벌써 우리의 모든 기밀을,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세밀히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또한 트로츠키를 암살한 음흉한 모략과,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그림자 없는 마수가 오늘날 이 순간에도 지구상 모든 자유민 각 사람의 신변에 붙어 다니며, 무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넘어뜨려 볼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경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내 신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산 마수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마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 어느 정도의 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서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시기라 믿는다.

하여간 멕시코 정부는 1943년 4월 16일, 이 기괴한 사건 내용을 그 이상 밝힐 길이 없어, 그대로 재판에 회부했고, 재판장은 - 오직 허위와 모략으로 일관한 모르날의 멕시코 여행은 트로츠키 살해가 유일한 목적이었다 – 고 단정하고, 그에게 모살죄(謀殺罪)로서 20년의 금고형을 선언했던 바, 이 괴상한 사나이는 곧 지극히 근실한 태도로 이에 복죄(服罪)했으며, 그보다도 더 괴이한 일은 그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도리어 천국 생활보다도 행복하게, 또 무한 안락한 것처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끝)

월세계(月世界)에 현대도시(現代都市) 건설(建設) 가능(可能)

- 태양(太陽) 에너지 이용(利用)으로 물 추출(抽出) -

필라델피아에 있는 펠즈 위성 박물관 관장인 I. M. 레벳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월세계로 여행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월세계에 영구적인 도시들이 건설될 것이라고 한다.

레벳 박사는 위성여행 부문의 유명한 연구자인 동시에 천문학자이다. 레벳 박사는 최근에 〈U.S. 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 지(誌)와의 단독 회견 석상에서 "우리가 한 번 월세계에 도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월세계에 문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열과정 또는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물은 암석들로부터 추출될 수 있으며, 산소는 물에서 획득될 수 있다.

레벳 박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대기권이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학적 과정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레벳 박사는 이어 다음과 같이 부언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곡물과 가축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월세계에 거대한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다."

현대철학(現代哲學)의 특징(特徵)

박종홍(朴鍾鴻)

철학이란 본래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학문인만큼 각기 시대 정세를 이탈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시대의 특성을 잘 파악한 사상 즉 시대정신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요, 현대에서도 다를 바 없다. 현대의 정신적인 정황이 다름 아닌 현대철학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징을 가진 철학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가를 안다면 현대의 정신적인 정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히 총괄적으로 말하기 힘든 일이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직은 하나로 잘 통일되어 있지 못함을 알게 된다.

1. 주체성(主體性)에 대(對)한 새로운 반성(反省)

한때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소위 실존주의(實存主義)가 성행했다. 근대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항이라 할까 과학적 기계주의의 균일성에 대한 불만이라 할까 좋게 말하면 속임 없는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 했다. 일찍이 독일의 헤겔도 주체성을 중요시한 바 있으나, 그것은 세계사적 정신의 주체성이었고 개인은 그의 괴뢰(傀儡) 구실밖에 못하는 너무나 무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온 세계를 얻는다 하더라도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린다면 무엇하랴 하는 식으로 어디까지라도 나라는 개체에 충실하려는 것이 키르케고르[29]의 실존사상이었다. 축에도 섞이지 못하는 고독한 예외자인 실존을 온갖 고뇌를 무릅쓰며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실존으로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며 행동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프랑스의 사르트르의 사상에서도 엿볼 수 있으리만치 소위 실존 주의사상의 특색처럼 되어 왔다.

그래 아무런 기성적 권위에도 굴함이 없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여기에 섣불리 잘못 이해된 실존주의의 비극을 보게 된다. 말초적(末梢的)인 감성의 노예가 되어 일시적 흥분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을 마치 실존에 충실한 것처럼 망상하는 것이 그것이다. '케세라 세라'[30] 식의 자포자기가 실존인 줄 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진퇴양난, 이율배반이라는 자기모순을 부둥켜안고 그래도 악착같이 그 해결을 위해 애쓰는 곳에 실존이 실존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리하여 키르케고르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비로소 새로운 신앙의 경지가 열리는 것이었다. 합리적 이성적인 것이 싫다 하여 감성의 노예 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일 리도 없고, 존엄성일 리도 없다. 그런 것이 실존이라면 그 얼마나 편하고도 재미있는 실존이랴만,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에는 키르케고르가 말한 바와 같이 몸서리치는 고뇌가 있으며, 모순이 있는 것이다. 야스퍼스[31]도 공명(共鳴)하여 주장한 것처럼, 실존은 이 세상에 발 디딜 자리가 없도록 불행한 것이다. 이 고뇌, 이 모순, 이 불행을 견디어 거기서 새로운 광명을 찾으려고 헤매는 곳에 실존의 참다운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한때 불안의 철학이나 고민의 철학이니 위기의 철학이니 했으며, 동시에 그것이 시대정신 자체의 불안정성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고독이니 예외자니 하며 너무나 개인의 내면적 주체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세계는 고사하고 민족 국가 등 일반으로 사회의 의의를 경시하는 폐단이 생겼다. 나 개인의 내면적 고민만이 유일한 참된 것 같이 확대되어 그에 대한 성실성을 고조하다보니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의 존재가 희미해진 것이다. 남이야 어찌 되건 사회 국가가 고난 속에 허덕이건 나의 관여할 바 못 된다는 듯이 외계와의 교섭을 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망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즉 나라는 개인은 한시도 사회나 국가를 떠나서 생존할 수는 없다.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나 국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 사상은 점차로 실존과 실존과의 교섭, 실존과 신과의 교섭 등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야스퍼스나 마르셀 같은 실존철학자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떠나서는 실존도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오, 특히 누구보다도 실존적 개체의 자유를 극단으로 주장하는 사르트르도 연대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독이니 절망이니 하지만 사회성을 이탈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자유부인' 노릇을 해보았자 그거나마 사회를 떠나서 자유도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독한 실존의 주체성을 떠나서는 진리도 있을 수 없다던 실존사상은 이와 같이 하여 사회를 다시 생각 아니 할 수 없게 되었거니와, 더구나 하이데거는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인 주체성으로부터 완전히 초과하는 것이 올바른 실존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나라는 주체적인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실존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존(Existenz)이라는 용어 대신 탈존(脫存, Ex-sistenz)이라는 말을 쓰

29) Søren Aabye Kierkegaard
30) Que Sera, Sera
31) Karl Theodor Jaspers

고 있다. 개인적인 주체성에 사로잡힐 때 오히려 진리의 빛깔은 감추며, 왜곡되는 것이요, 이 주체성을 벗어날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인위적인 조그마한 기교를 즐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체성을 극복하는데 자유가 있고 진리가 나타난다고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주체성을 강조한 것, 나라는 것을 어디까지라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서양 근대사상의 특색인데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어딘지 동양의 노장사상(老莊思想)과 통하는 점이 있음직한 생각이라 하겠다.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주체성이 곧 진리라고 한 키르케고르의 실존 사상은 현대의 몇몇 실존철학자에 의해 점차로 사회성에 착안하게 되었고, 급기야 인간으로서의 모든 주체적인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는 하이데거에 이르러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대 철학의 특징이 일러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라 하여 무방할 줄 안다.

2. 지식(知識)의 논리적 분석(分析)과 과학자들의 협조(協助)

현대정신이 정밀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충격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일면 비합리니 부조리니 하면서도 원자력이니 인공위성이니 장차 지구의 표면이 어떻게 변모할는지 상상하기 힘든 오늘날, 이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수증기나 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데서 근대문명이 형성되었다. 그에 의해 인간의 생활양식은 물론 사고방식조차 좌우되었다면 원자력이라는 엄청난 새로운 동력의 구사가 가져올 변혁이 우리의 정신적 정황만을 그대로 둘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것은 막연한 명상(瞑想)으로서는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구체적 사실로서 나타나고야 말 것이오, 정신과학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위력은 과학적 진술이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검증된 다른 명제의 힘을 빌어 간접적으로 검증가능한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갓 정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를 엄격한 윤리적 연역과정(演繹過程)에 의해 이끌어 내려는데 그 방법의 특색이 있다. 여기에 최근 수십 년 내로 소위 과학 철학 또는 분석 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철학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처음에는 비엔나에서 시작된 소위 비엔나 학단(學團)과 베를린에서 시작된 베를린 학파가 거의 동일한 목표를 향해 잡지도 같이 간행하고, 합동 발표의 회합을 여러 번 거듭했다. 대회를 혹은 프라하에서 혹은 파리에서 개최하기도 하여, 점차 주위로 그 영향이 미치는 동안, 영국의 버틀랜드 러셀[32]은 케임브리지에서 논리적 실증주의의 기본이 될 여러 이론을 전개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대륙과 영국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창적인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 그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많은 학자들은 나치의 탄압에 못 이겨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프라그마티즘[33] 사상과 결부되면서 진지한 연구를 계속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 철학계에 거의 군림하다시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슐리크[34]와 라이헨바흐[35]는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카르납[36]이 그 뒤를 이어 주도적인 몫을 다하고 있으며, 화이글, 헴펠 등 쟁쟁(錚錚)한 중견들이 앞장서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 경향을 논리적 실증주의 최근에는 특히 논리적 경험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학적 용어의 논리적 분석과 아울러 소위 통일과학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심리학 더 나아가 사회과학 일반에서의 용어 분석이 다루어져서 점차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주로 문제 삼다가 타르스키[37] 같은 학자의 연구가 영향을 끼쳐 점차 의미이론을 과제로 삼게 되었다. 순논리적 구조를 문제 삼는 태도는 일정한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 일관성만이 문제인데 대해, 의미이론은 일정한 언어가 무엇을 지시하는가가 문제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때 그 언어는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시금 프라그마티즘과 관련하여 일정한 언어가 무엇 때문에 즉 무엇을 위해 써지는가를 다루는 어용론(語用論)이 문제되고 있다. 거기서 또 다시 최근에 이르러서는 가치가 중심과제로 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경향의 특징으로서 가장 주의할만한 것은 현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현상이다. 연차 대회가 열릴 때마다 고명한 과학자들이 참가하여 연구 발표를 함으로써 과학의 전 분야에서 이 운동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나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럴수록 새로운 약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영미는 물론이고,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러한 과학적 논리적인 연구가 주요한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철학 내지 분석철학은 순논리학 태도에서 가치를 문제 삼는데 이

32) Bertrand Russell

33) Pragmatism, 실용주의
34) Moritz Schlick
35) Hans Reichenbach
36) Rudolf Carnap
37) Alfred Tarski

르렀으나, 무엇보다도 널리 많은 과학자들의 협조에 의해 뜻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이 경향의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3. 동양사상(東洋思想)에 대(對)한 새로운 관심(關心)

나는 끝으로 현대철학의 특징의 하나로서 동양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위에서 말한 하이데거는 천명(Geschick)을 말하고 있나. 공자는 '오십이 지천명(五十而 知天命)하고, '육십이 이순'(六十而 耳順)이라 했거니와, 하이데거는 존재의 소리 로고스의 소리를 그대로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요, 이른바 창조라는 것도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샘(천(泉))물과도 같이 나타나는 존재의 빛깔을 그대로 받아들여 길어 올리는(급수(汲水))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섣부른 자만성을 극복하고 천리(天理)와의 합일의 경지를 희구한다고나 할까, '칠십이 종심소욕'(七十而 從心所欲)하여 '불유구(不踰矩)'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함이 그의 이상일 만도 하다. 실존철학자 야스퍼스는 최근에 「위대한 철학자들」이란 대저(大著) 1권을 출판했다. 거기에는 석가, 공자, 노자, 용수(龍樹)에 관한 연구가 각기 상당한 매수를 할애해 다루고 있다. 그는 일찍이 이성의 부정성과 동양적인 무의 부정성을 대조 논의한 바 있거니와, 필자와 직접 면담했을 때에도 불교의 반야사상(般若思想)에 관심이 많음을 피력한 바 있었다.

끝으로 철학자는 아니나, 사학자 토인비가 특히 그의 사관에서 동양의 음양이론(陰陽理論)과 중용사상(中庸思想)을 근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서양에는 헤겔의 변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동양의 음양사상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필자에게, 헤겔의 변증법은 너무나 지적으로 흘러 일면적임을 면치 못하는데 반해, 음양사상은 보다 포괄적인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음양사상에는 그 속에 중용적인 율동(律動)이 내포되어 한쪽으로 극한에 도달하면 반대적인 것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대답을 했다.

종래에는 주로 불교학자를 통해 특히 선에 관한 것이 일부 서구학자들의 흥미를 끌어온 데 불과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말 그대로 심지어 실존철학자 또는 사학자들까지도 동양사상에서 어떤 새로운 시사라도 발견할 수 없는가 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같다.

이상 간략한 대로 현대철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열거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짐작되듯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 속에도 새로운 의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와 동시에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저들의 장점을 살려 받아들이는데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현대철학의 특징을 우리의 입장에서 살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으로 전개할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시해 주는 안내의 몫도 비로소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筆者) 서울 문리대(文理大) 교수(敎授)>

(170페이지 하단에서)

절제생활을 못하게 하므로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레이더는 강력한 전파를 발사하는 전자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현대적 전자병기를 가지고, 공중방어의 긴요한 위치에서 부단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AC&W 부대의 대열에서 일하게 된 것을 크게 자부하고 있다. AC&W는 창립 발족한 지 시일이 아직 천박하고 현재 그 발전도상에 있다. 그러나 대한공군 AC&W는 가까운 장래에 그 필요한 요소와 면모를 갖춰 조국 하늘을 지키는 중추적(中樞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민주 우방 여러 나라와도 견고하고 빈틈없는 상호 공중방어의 연쇄를 맺어, 그 긴요한 일환으로서 기여할 바 크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바이다.

<필자(筆者) 제301경보대대장(警報大隊長)>

주기(註記)

1. 기밀관계로 레이더와 방공작전 업무 및 AC&W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여기에는 대략 일반적 사항만 기술했습니다.
3. 사진수집도 군기의 제약이 많아 못하게 됨을 아룁니다.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영공이론(領空理論)

이한기(李漢基)

(1)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에서 영공이라는 것은 영토 및 영해의 상공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영공에는 그 국가의 주권의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1944년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체약국(締約國)은 각국이 그 영역상의 공간에서 안전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제1차 대전 후의 파리 항공조약을 재생한 것이다. 파리 조약 이후에도 1926년의 이베로 아메리칸 항공조약, 1928년의 판 아메리칸 항공조약은 각각 국가의 절대주권으로 규정했으며, 전후 2개국 간 항공협정 및 각국의 항공입법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역주권(空域主權)을 전제로 했다.

일찍이 상공에도 일정한 고도 이상에는 자유공(自由空)을 인정하여 마치 공해와 같은 법적 지위를 여기에 부여함으로써 국제항공을 조장(助長)하자는 소위 자유공설이 나타난 적이 있다. 그러나 제1차 대전 당시의 중립국은 그 상공에 교전국 항공기의 침입, 통과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교전국 역시 이 중립국의 태도를 인정하여 감히 항의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제1차 대전 후 각국의 일치한 실행에 의해 공역의 법정성질(法定性質)은 주권설로 낙착되었으며, 제2차 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역주권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이 타국의 항공기가 자유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자국 영역에 착륙하는 것을 금할 수 있으며, 또 만약 허가한다면 허가의 조건을 규제할 수도 있다. 타국의 항공기가 허가 없이 일국의 영공에 침입했을 때에는 국제법상 이러한 비행기로 강제 착륙시킬 권리가 있으며, 또는 이것을 떨어뜨릴 권리까지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해상의 공역에서도 영해상의 무해(無害) 항행권과 같은 무해 항공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어느 모로 보든지 영공주권에 못지않을 정도로 배타적이다. 그러므로 또 만약 일국이 타국의 영공을 향해 정찰용의 기구를 띄울 경우에는 그것은 타국의 영공침범이 되며, 국제법상의 문제가 된다. 자동촬영기와 발수신용 라디오를 장치한 군사정찰용의 기구는 항상 대공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최신의 과학무기이다. 소련 자신은 과거 2년 전에 이와 같은 기구를 알래스카 상공에 띄운 일이 있어, 미국의 중대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2)

그러면 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역은 상공 무한인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 1천억 개의 항성 집단으로 구성된 은하계에 속하여 미세한 1개의 소유성(小遊星)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은하계의 저 멀리 지구로부터 150만 광년의 공간에는 한층 광대한 안드로메다의 대성운이 또 하나의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직경 3만 광년, 1천억 개의 항성을 포함하고 태양의 3억 배나 되는 총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의 또 하나 저 멀리 대우주에는 항성의 대집단으로 된 독립의 도우주(島宇宙)가 있다. 20억 광년을 반경으로 한 범위 내에 이러한 도우주의 수는 약 30억 개, 이 30억 개의 도우주가 각각 1천억의 항성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것은 실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지구에서 대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주권을 주장하는 이상의 천문학적 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넌센스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지구는 적도에서 초속 465km로 자전하고 동시에 초속 29.99km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며 또 태양계는 초속 20km로 태양계 전체로서 헤라클레스 성좌를 향해 낙하한다. 또 은하 우주는 초속 220km의 속도로 회전을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무량(無量) 공간 더욱이 순시(瞬時)도 멈출 줄 모르고 거대한 운동을 이어가는 대우주에 대해 영공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그러므로 상공 무한의 주권설은 일정한 제한에 필연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영공'(領空)에는 상한이 있어 무제한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학설이다. 오늘날 기구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곳은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해석이 대체로 확립됨에 이르러 영공주권의 한계는 여기까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연한 결과로서 공기가 존재하는 공기권 이외의 우주권은 영공의 범위 내에 들지 않고 따라서 현재 이것을 규율하는 국제 법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법

학설에는 지구의 주위 11km의 대기권과 11km로부터 75km에 이르는 성층권은 다 같이 일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양권(兩圈)은 다 같이 공기권에 속하며 현재의 항공기술에 의하면 평시의 항공과 전시의 작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 공기권에 대한 외국 항공기의 비행을 규제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결국 일국의 영공은 영토, 영해의 상부에 있는 공기권이며 비행가능의 범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상기와 같이 현행 조약인 시카고 국제민간항공조약은 현재 소련은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망라한 다수국 간의 조약이다. 이 조약의 제1조에, 국가는 그 영역상의 '공간'에 완전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조약의 부속서는 항공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항공기라 함은 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의 반동으로 대기 중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타 유사의 기구'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카고 조약의 공간이란 말은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해석되며, 또한 '공기의 반동으로 대기 중에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로켓'이나 인공위성이나 우주항공기는 이 조약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카고 조약의 공간이란 말은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해석되며, 또한 '공기의 반동으로 대기 중에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로켓이나 인공위성이나 우주항공기는 이 조약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카고 조약에 규정된 이외의 외기권과 새로이 발명된 전기 인공위성 등은 현행법에는 없고 장차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리하여 공기권 이외에 무한히 전개되는 우주권에 관해는 시카고 조약에 관한 한 지구상의 영역에 근거를 둔 국가주권을 연장할 수 없다. 여기에 영공의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거듭 말해 둔다.

이리하여 지표로부터 최대거리 1,500km의 고도를 가지고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은 발사과정에서 타국의 상공을 몇 백 번 회전할지라도 영공침범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의 발사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난(難) 문제는 우주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바야흐로 우주법 시대에 도달한 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인공위성을 발사한 경우에 대기권에서 타국의 영공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광대한 영역의 일부로부터 또한 확대한 공해 상공으로 발사한 경우에는 타국의 영공에 침입하기 전 이미 공공(公空)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기술상으로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나 귀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발명되었을 때 그 귀로가 조절되면 문제없으나, 그렇지 못하여 하강 시 지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지표상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줄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는 국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인공위성이 귀로에 타국 영공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사전의 양해가 없는 한 당연히 영공 침해의 항의를 받을 것이며, 또한 인공위성이 군사상의 중요 데이터를 취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방상의 견지에서 이것을 격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

상기와 같이 영공주권의 한계는 일단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주는 누구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이다. 인공위성의 평화적 이용을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漸漸)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것은 원래 국제정치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국제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분열의 세계에서 국제관리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위성을 갖지 않는 우리 한국은 우선 우리 주권이 미치는 대기권의 영공을 수호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인에 관한 한 마디가 허용된다면, 지난 '눈송이 작전'에서 산화한 이열수(李烈秀) 대위의 명복을 빌고자 한다. 고인은 필자의 친척이며 우리 영공주권의 수호자이다. 지금 창공의 어느 곳에서 달같이 훤하고 꽃같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다.

<필자(筆者) 서울 법과대학(法科大學) 교수(敎授)>

TV는 이렇게 방송(放送)된다

원리(原理)와 방송의의(放送意義)를 중심(中心)으로

김상림(金相林)

격증(激增)하는 TV

전파로서 소리를 멀리 보내는 라디오 방송이 실현된 것은 1920년부터였고 움직이고 있는 그림, 즉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광경을 멀리 보내는 텔레비전 방송은 1929년에 실험 방송을 했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문에 일단 중단되었다가 대전이 끝나자 정상적인 방송을 개시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선회하고 있는 이때, 앞으로 우리는 월세계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할 사람 없겠지만, 우리 옛 선조들은 움직이고 있는 광경을 멀리 보낼 수 있고 이것을 시간의 지체 없이 바로 눈앞에 볼 수 있게 재현하는 지금의 텔레비전(이하 TV)을 상상인들 했었을까? 앞으로 인간은 인공위성에 TV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제적 TV 방송을 가능해질 것이다. 즉 우리는 각 가정에 앉아서 미국의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일어나는 뉴스나 쇼를 시간적으로 늦어짐이 없이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현재, 530여 개소의 TV 방송국에 5,700만 대의 수상기(受像機)가 보급되고 있는 미국을 위시해서 50개 국가에서 TV 방송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1,080여 개소의 방송국과 7,000만대의 수상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방송국인 HLKZ에서 지금부터 만 2년 전 1958년 5월 12일 개국하여 불충분한 시설이지만, 기술면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날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방송을 해오고 있다. 또한 주한 미 8군에서도 작년 가을 1957년 9월 15일부터 영화 프로만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상기 보급 대수는 이것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과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재 4,00대 정도이며, 보급률은 외국에 비해 아주 저율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무 상태인 통신공업이 하루속히 발달하여 수상기를 직접 생산하고, 또 전 국민이 부유해짐으로서 농촌의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한 구식 장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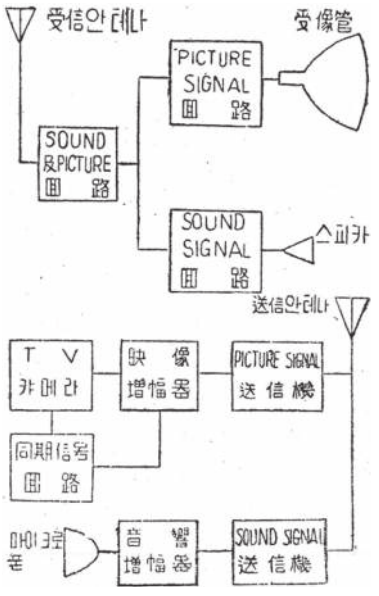
<뉴스 시간의 한 장면>

촬상관(撮像管)과 수상관(受像管)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으로서 재현할 수 있는 범위는 자연 경관 안에 있는 범위보다 훨씬 적고, 사람의 눈처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곤란하다. 자연 장면에서는 명암의 비가 수만 대 일이 되는 곳도 있는데, TV 수상기에서는 불과 수백 대 일 밖에는 재현할 수 없으며, 또한 아주 세밀한 부분도 재현할 수 없어 눈으로 직접 광경을 보는 것처럼 명료해질 수 없다.

다음에 텔레비전 계통도를 통해 그 원리 등을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제1도의 TV카메라에서 송신해야 할 화면을 전기적인 영상신호(Vidio Signal)로 바꾸어 전파로 송신하게 되는데, 이 영상신호라는 것은 한 화면을 화소(picture element)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연속적인 적은 점으로 분해해서 이 적은 점(화소)들의 명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전기적 신호로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광학적인 영상을 전기적인 영상신호로 바꾸는, 즉 광학변환을 하는 진공관을 촬상관(Image orthicon tube, vidicon tube 등)이라 하며 TV 카메라 속에 들어 있다. 이 촬상관 앞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어떤 상(像)이 촬상관의 스크린(target)에 형성되면 이 상을 여러 개의 적은 화소로 분해해서 우리가 마치 횡서(橫書)로 된 책을 읽어가듯이 상의 좌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각 화소의 명암의 비에 따라 전류의 강약으로 변환시켜 그 적은 화소 하나하나를 연속적으로 하나의 전파로 해서 라디오와 같이 송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상기에서는 전파로 보내온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의 강약에 따라 광학적인 명암의 화소로 다시 변환시켜 순차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원래의 화면과 같은 한 영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 작용을 하는 진공관을 수상관(kinescope)이라 한다.



제1도 텔레비전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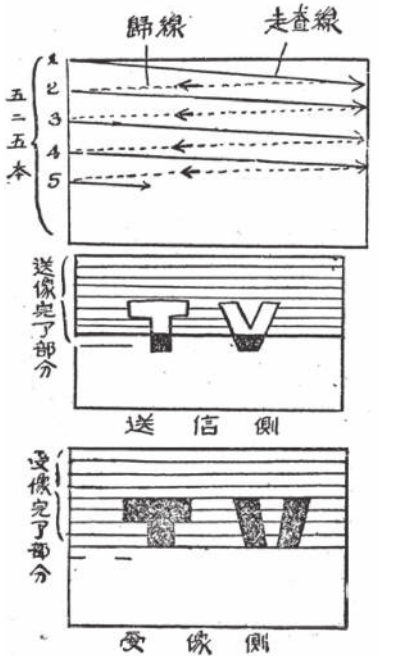
화소(畵素)와 화상(畵像)(FRAME)

신문지나 잡지(雜誌)[38]에 인쇄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주 적은 점들이 모여서 한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점들이 즉 화소인 것이다. 화소가 적을수록 다시 말해서 단위면적에 화소가 많이 있을수록 그 화면은 조밀하고 선명해진다. 보통 신문지상의 사진에는 1평방 면 당 약 600개의 잡지 같은 데는 1,600개 정도의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 35mm 영화 필름의 한 프레임(frame)에는 화소가 약 100만개, 16mm 필름에는 약 30만 개가 들어있다. 현재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TV에서는 한 장의 프레임의 화면을 TV 카메라에서 약 50만개의 화소로 분해하여 영사(映寫) 신호로 바꾼다. 그러나 실제 송신하는 것은 약 27만 개, 수신기에서 재현되는 화소는 프레임 당 20만 개 정도이다.

이 하나하나의 프레임의 상들이 연속적인 반복으로서 또는 재현되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1초 동안에 24매 식의 화상(정지한 화면인데 조금씩 드리워진)을 연속적으로 영상하여(한 프레임이 이동하는 시간은 정지해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다) 우리들의 눈의 잔상 작용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는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TV에서도 매초 10매 이상의 화상이 반복되어야만 움직이고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TV는 매초 30매식으로 규정되고 설계되어 있다.

주사(走査)에서 송신(送信)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매의 화상(frame)이 완전히 전기적 영상신호로 바꾸어지는가 하면 촬영관 속의 전자총(electron gun)에서 튀어나온 많은 전자를 합해서 가느다란 전자의 줄기(Electron Beam)로 만들어 촬영관 Target에 맺어진 상에 모내어 좌측 상단에서부터 좌측으로 가면서 부닥치게 된다. 그리하여 광전물질로 된 target에 부딪힌 이 전자의 줄기(Beam)는 target에서 부동(浮動)하는 자유전자를 포함함으로서 그 상의 각 화소의 명암에 비례하는 전자의 줄기의 강약으로 변하여 즉 전기적 영상신호로 변하여 증폭(전류를 세게 한다)되는 길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자철(電子鐵)에서 나오는 전자의 수는 일정하지만, Target에 맺어진 상의 화소에 부딪히고 되돌아갈 때는 그 화소의 명암에 따라 Beam의 전자의 수가 다른 것으로 될 것이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한 줄의 주사가 끝나면 그 다음 줄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사해 간다. 즉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줄을 다 읽었으면 그 다음 줄을 읽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1매의 화상을 완전히 주사하는데 미국식은 525번 하게 되고, 시간적으로 30분의 1초 걸린다. 즉 횡서(橫書)로 된 책 1페이지의 가로 525줄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읽는데 30분의 1초 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1초 동안에는 30매의 상을 주사(走査)하여 송신하게 되고 1초간에 횡으로 주사한 선수는 525x30 = 15,750선이 될 것이다. 한 선의 주사가 우측에서 끝나고 그 다음 선을 주사하기 위해 좌측으로 돌아갈 때는 화소를 분해하는 주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사할 때보다 대단히 빠르다. 또한 한 프레임이 끝나고(우측 하단에서) 다음 프레임으로(우측 상단)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대단히 짧다.

영화 필름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마찬가지다.

38) 원문의 難誌는 雜誌의 오기임.

이렇게 촬상관에서 변환된 영상신호는 몇 단의 증폭기를 거쳐서 약하던 신호가 강하게 되고, 또 송신 측과 수상 측의 종횡의 주사의 기대를 맞추는데 필요한 다른 신호(동기 신호)와 합성되어 송신기에서 반송파(신호를 운반하는 전파)로 변조되고 증폭되어 안테나로 해서 공간으로 전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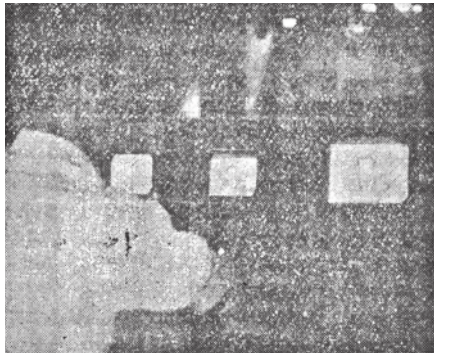
동기 신호(Synchronizing signal)라는 것이 TV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수상관에서 영상 신호가 화소로 다시 변환되고 화면이 재현되는 순서와 시기를 촬상관에서 그 화면이 화소로 분해되고, 영상 신호로 변환되던 그 순서와 시기에 일치하게 해 준다. 제3도에서와 같이 각 주사선이 수상 측과 송신측이 언제나 일치되어야 하며(동기가 되어야 함), 만일 일치하지 못하게 될 때는 수상관에 화면이 완전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흐트러지거나 흔들리게 된다.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촬상관에서 횡으로 주사하는 선수(線數)가 1초간에 15,750번이라고 했는데; 수상관에서의 주사선이 15,750이 되어야지 이보다 적거나 많아지면 그림이 형성되지 못한다. 또한 1초간에 30매의 상을 촬상관에서 분해한다고 했는데 수상관에서는 1초간에 20매 혹은 50매를 조립하도록 작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림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안정된 화면을 수상관에 형성하려면 수상기의 종횡의 주사선이 방송국의 그것과 일치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송신 측에서 동기 신호를 영상신호에 업쳐서 보내는 것이다.

TV전파(電波)와 전파(傳播)

영상 신호를 공간으로 운반하게 되는 전파는 그 주파수가 대단히 높은 50MC 이상 되는 초단파(VHF, 30MC~300MC)와 극초단파(UHF, 300MC~3,000MC)에 속하는 것을 쓰게 된다.

그리고 TV 방송에는 주파수의 폭도 대단히 넓어야 해서 그 폭이 6MC나 된다. 현재 HLKZ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초단파의 186MC에서부터 192MC까지인데 이와 같이 TV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6MC의 폭을 가진 주파수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을 Channel이라고 한다. 전기한 HLKZ의 186MC~192MC는 채널 9이고, 미 8군이 사용하는 채널 3은 역시, 초단파의 66MC~72MC의 주파수대이다.

이와 같이 TV에서는 높은 주파수와 넓은 주파수 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기한 바와 같이 30만 개의 화소가 있는 상을 1초 동안에 30매 송신하게 되므로, 1초간에 결국 30만x30 = 900만 개의 화소를 송신하는 것이 된다. 영상신호는 한 쌍의 화소의 명암에 따라 한번 변할 것이므로 1초간에 450만 번 변하는 신호가 될 것이며, 이것은 4.5MC(45,000,000사이클)의 주파수가 된다. 그리고 반송파(搬送波)는 이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라야만 안정화되는 방송을 할 수 있고 주파수 폭은 4.5MC보다 높아야 하므로 6MC로 정해져 있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주파수 대 폭을 14MC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조정실에서 뉴스 장면의 카메라의 영상을 조종한다>

미국에서는 TV방송을 위해서 초단파에서 채널을 12(11에서 13까지)와 극초단파에서 70(14에서 83까지), 도합 82의 채널을 배당하고 있다. 530여개소의 TV 방송국이 있으니까 채널수도 많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채널 9로 방송하고 있는 HLKZ의 그림을 송신하는 전파수는 187, 25MC이고 소리를 송신하는 전파는 191.75MC이다. 소리는 그림보다 4.5MC만큼 높은 전파로 제1도와 같이 독립된 계통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과 같은 방법으로 송신된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에서나 그림과 소리의 송신전파 사이에 4.5MC의 간격을 두게 되어 있고 소리의 송신 전파가 높은 쪽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 조건에 의해 제일 적당하기 때문이다.

전파가 공간을 전파할 때 파장이 짧을수록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파장 = 30만 km/주파수)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TV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높은 초단파나 극초단파는 직진한다. 따라서 이런 전파는 지구의 곡면이나 산이나 높은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은 곳이 가로막히면 지나가지를 못하고, 반사되거나 흡수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TV 방송국 안테나는 될 수 있는 한 높이 세워야 하고, 수상기 안테나는 방송국 안테나가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구가 둥글고 또 방송국의 안테나를 무한히 높이 세울 수 없는 문제로 해서 결국

TV 방송이 커버(cover)할 수 있는 지역은 송신출력을 아무리 높여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웃 일본에서는 날로 급격히 증대되는 TV를 세계에 과시하고(수상기 보급대수 70만대), 또 그 커버하는 범위를 넓히려고 동경 한복판 어떤 공원에 그들의 화폐 21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들여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보다도 10미터나 더 높은 세계 최고의 TV 안테나 탑(도쿄 타워)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현재 HLKZ 방송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안테나 높이가 낮고 또 방송 출력이 낮은 관계로 영등포를 포함하는 서울시 일대밖에 안되지만, 조만간 넓히게 될 것이다. 미 8군에서는 송신 안테나를 남산 정상에 높이 세웠고(남산 타워) 송신 출력도 높기 때문에 인천, 의정부 등지까지 완전히 커버(cover)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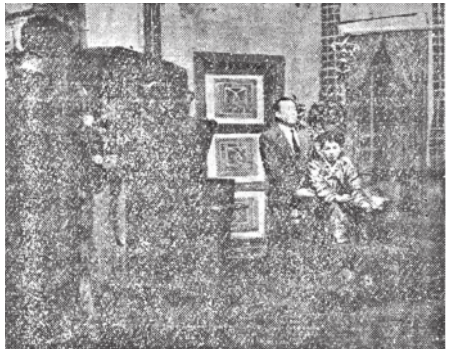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중파(300KC~3MC)나 단다(3MC~30MC)는 파장이 길어서 지구 국면을 따라 전파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먼 외국의 방송도 라디오도 들을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파장이 짧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직진하기 때문에 먼 외국 방송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파의 산란 작용이나 혹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국제세계의 실현을 위해 각국에서 열심히 연구중이니까 이것이 가능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수상(受像)의 품위(品位)

제1도의 TV계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상기의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간 영상 전파와 음향 전파는 동조 절부에서 증폭되고 국부 발진 주파와 혼합됨으로써 라디오에서와 같이 중간 주파(그림=41, 25MC 소리=45,75MC)를 이루게 된다. 이 중간주파가 몇 단 증폭된 후에 검파(檢波)되면 그 신호는 TV카메라에서의 영상 신호와 꼭 같은 것이 된다. 이 신호가 수상관에 들어가서 화면이 재현되게 된다. 소리를 내게 되는 음향 신호는 중간 주파 혹은 검파된 영상 신호에서 분리시켜 또 다시 검파함으로서 얻게 된다. 물론 이 신호가 스피커로 가서 소리가 재생된다.

라디오에서 하이 파이니 DX니 해서 그 품위나 성능을 말하듯이 TV에서도 그 품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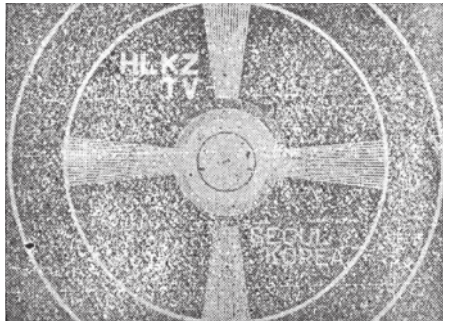
수상이 좋고 그름은 수상할 때까지의 TV 송수의 전 계통에 걸쳐 여러 가지의 요소로 좌우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정세도(精細度), 안정도 휘도(輝度), Contrast, Distortion과 같은 것들이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 좌측에 보이는 것이 텔레비전 카메라>

정세도는 주사선의 수 증폭 회로의 주파수 특성과 전자 Beam의 초점 등에 의해 정해지고 이것들은 해상력에도 영향을 준다. 주사선이 많을수록 정세도나 수직 방향의 해상력이 좋아지겠지만 어떤 한도 이상으로 하기는 기술적으로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개 525 본(本)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수상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로서 대개 350본 정도이면 좋은 상태일 때이다. 제4도와 같은 테스트패턴의 수평 방향의 설형(楔形)에서 선이 525본 보이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전기한 바와 같이 350본 정도 보이면 수상 상태가 좋을 때이다. 설형에서 3이나 300의 숫자가 있는 곳은 300본이나 400의 숫자가 있는 곳은 400본을 의미한다.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주파수 특성급 전자 광학계의 초점 등에 의해 좌우된다. 제일 복잡한 화면에서 1초간에 약 800만 개의 화소(영화신호 4MC의 폭)을 송신기에서 송신하게 되는데, 수상기에서 이것을 전부 수신하고 일정한 세기로 증폭하여 재현시킨다면, 이 수상기는 주파수 특성이 4MC의 것이 된다. 즉 이것은 600만개 정도의 화소를 재현하고, 1매의 화상에 대해서는 20만 개 정도의 화소를 재편한다. 수상관의 스크린이 넓을수록 화소가 많이 재현될 수 있어야 화면이 정밀한 것이 될 터이니까 특성이 높아야 한다. 지금 서울 시내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RCA 수상기 21인치는 주파수 특성이 3.2MC이고 14인치는 2.8MC, 8인치는 2.1MC이다.

수평 해상도는 테스트 패션의 수직 설형을 보고 얼마라고 하게 되는데 대개 320본 정도 보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해상도라는 것은 화면을 얼마나 세부까지 재현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4도의 테스트 패턴의 4개의 설형(楔形;



상하좌우)에는 해상도를 표시하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지만, 대개 내원에 접해있는 곳까지 각 설형의 선들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라면 수직 수평각 해상도가 350본 내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상기를 보는데 적당한 거리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가까이 보면 주사선이 보이고 너무 떨어지면 해상도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8인치 수상기라면 0.6m, 14인치는 1.1m 17인치는 1.3미터, 21인치는 1.6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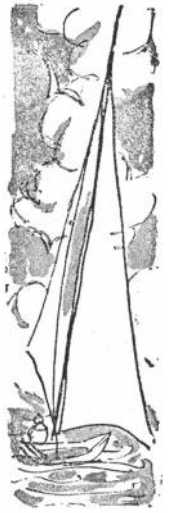
이외의 수상의 품위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필자(筆者) D.B.C 텔레비전 방송국(放送局) 기술담당관(技術擔當官)>

레코드 음악(音樂)의 감상(鑑賞)

그 입문(入門)으로부터

계정식(桂貞植)



음악은 그 자체가 절대적 표현이올시다. 음악의 작품을 통칭하여 '말 없는 시'라고 합니다. 음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하고, 또는, 음에 의해 조립된 '건축'[39]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말의 형용은, 음악은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음악은 독자(獨自)의 표현수단을 통해 직접 이것을 느끼고 향락(享樂)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은 두말할 것 없이 감각적으로 된 음의 합리적인 결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시나 그림과 같이, 일정한 관념을 묘사하거나 구체적 사물을 그려내기는 곤란합니다. 음악 작곡에 있어서 특종의 감정 사상 또는 자연적 정서의 묘사가 계획된다 하여도 이런 작곡은 결코 작곡가의 본래의 의도를 그대로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이 성립되는 목적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각을 창조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음악의 이해의 문제는 자명하게 될 것입니다. 시가는 그 표현 수단을 위하는 것이고, 그림은, 그 표현하는 형태를 논하여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언어를 주체로 하고, 그림은 자연을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 우리들의 경험에 호소하는바 많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음악만이 이런 것을 이해하기 곤란한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시와 결합되고, 또는 다른 자매 예술의 힘을 빌린다면, 협력을 예술을 통해 음악도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가령 슈베르트의 여러 백곡의 노래 곡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편곡보다. 원곡(原曲)의 노래곡이 한층 친근하기 쉬운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가극 작품들이 무대에 상연될 때 퍽 이해하기 쉬운 것이며, 또는 음악이 자연음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에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우리들이 공통적 체험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음악의 감득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같은 곡을 동일한 외적 조건 아래 청취하더라도 두 사람이 온전히 동종의 감응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듣는 경우라도 그때그때의 심리적 태도 여하에 따라 개별감이 없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음악이 결정적인 비애 유쾌를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음악적 표현은 슬픔과 쾌락을 전연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리듬(節奏), 멜로디에 의해 보편적 감정을 독특한 음악표현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악의 이해는 음악이 주는 막연한 환상을 연상에 의해 내심으로 구상화하면 족한 것입니다.

시와 그림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이해한다면, 이것은 정서적 기억 가운데 쌓아 올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상상에 의해 이해되는 것입니다.

---

39) 원문의 견측은 건축의 오기임.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한 민요에서나 바흐의 푸가[40] 또는 페르트펜의 심포니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으로 일반적으로 주관적 의식으로만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한편으로는 음악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 악곡의 구성의 여러 가지의 모티브를 식별해야 되고, 악곡의 추이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화성 절주 멜로디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지는지 알아야 음악의 이해가 차차 근접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음악적 교양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될 과정이올시다.

"음악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어떻게 음악에 공명할 수 있을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악의 작품을 문자만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키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문자의 설명은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고, 다만 실지 체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합니다.

축음기관으로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곡 몇 곡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대(大) 바흐[41](바하가 아님)(1685~1750)

'G선상의 아리아'라는 제금곡(提琴曲)[바이올린 곡]은 바흐 작곡 제3조곡(組曲) D장조의 제2악장의 곡인데 유명한 제금가 빌헬미[42]가 G선으로만 연주하도록 C장조로 편곡하여 많이 연주되는 곡으로, 퍽 아름다운 곡입니다. 곡이 대단히 천천히 흐르지만, 옛날에는 이런 가요곡에도 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리아(aria)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가조(歌調; 서정적인 소가곡이나 그 기악곡)라는 뜻입니다. 곡은 2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각 부가 반복하도록 되어있는 정숙미를 나타내는 곡입니다.

가보트 E 장조(Gavotte en Rondeau)

이 곡도 이전 곡과 같은 바흐의 작곡으로 제금을 위한 무반주 조곡(組曲), 제3번의 제3악장인데, 저명한 제금가(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 Fritz Kreisler (1875 - 1962)가 피아노 반주를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연가(名演家)들이 많이 레코드에 취입했습니다. 가보트는 본래 프랑스의 고 무곡(舞曲)으로 17세기 말부터 프랑스 귀족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곡은 그 형식을 빌려 작곡되었습니다. 경쾌한 곡으로 곡 전체가 해학미(諧謔味)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제가 원조성(原調性)으로 3회 반복되는 동안 매회 간주부(間奏部)가 있어 주제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는 곡입니다. 2/2 박자.

샤콘(샤코느가 아님) (Chaconne)

샤콘도 앳 무곡이라고 하지만 아리아와 같이 천천히 진행되는 곡입니다. 4분의 3박자로 된 변주곡입니다.

이 곡도 대 바흐의 제2조곡(Partita)의 끝 악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이올린 곡 중 가장 중요

40) Fugue(이탈리아어로 Fuga); 모방대위법적인 악곡 형식의 하나로,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주된 악곡의 형식으로 쓰였다. 이전에는 '둔주곡(遁走曲)', '추복곡(追覆曲)'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바흐의 작품에서 형식의 발전과 표현 효과가 최고에 달했다.
41) Johann Sebastian Bach
42) August Daniel Ferdinand Victor Wilhelm

한 작품으로, 대가들의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곡이며, 어려운 곡이면서 또 깊은 곡입니다.

프렐루디움(Preludium Amou) 바흐 곡

일반 서곡(一般序曲)[43]이라고 합니다. 대 바흐 시대에는 소나타 조곡의 주요 악부 앞에 있는 부분으로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신포니아[44], 우베르튀르[45], 토카타[46] 등도 이와 동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별개 곡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마리아(Ave maria Bach-Gounod)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곡으로, 원곡은 바흐가 피아노곡으로 작곡하고, 멜로디는 구노[47]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추후로 붙인 곡이라서, 2인의 작곡가의 명의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독창곡으로, 첼로나 바이올린, 기타 악기로도 많이 연주되는 곡입니다.

베트호펜(베토벤이 아님) Beethoven(1770~1827)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작품 2의 3번, 제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48], 제2 아다지오[49], 제3 스케르초[50], 제4 알레그로 라사이[51].

작품 31번은 베트호펜의 1802년경 작곡으로 3곡의 소나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은 아니나, 악성의 2면을 나타내는 곡으로, 역시 많은 연주가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번은 유머가 충만한 것으로 애호를 받고 있습니다.

발트슈타인 소나타(Waldstein Sonate)

제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제2 인트로두치오네[52], 제3 론도[53].

이 곡은 다음 '정열 소나타'와 같이 1804년 작으로 악성의 가장 원숙 시 작품입니다. 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를 보여준 곡입니다. 베트호펜은 이 곡을 자기 후원자 발트슈타인 백작[54]에게 봉정(捧呈)했는데 동 백작의 선조인 발트슈타인 장군은 30년 전쟁 당시 가톨릭교도의 지휘자로 용명을 떨친 장군으로 점성술을 열심히 연구했고, 또 극광의 신비를 신봉했으나, 17세기 전반의 기록에 가장 아름다운 극광이 나타난 후 자객의 손에 최후를 마쳤습니다.

43) 이 반대는 Postludium 후주곡
44) sinfonia
45) ouverture
46) toccata
47) Charles Francois Gounod
48) allegro con brio; 씩씩하고 빠르게
49) adagio; 느리게
50) scherzo; 해학곡
51) allegro assai; 메우 빠르게
52) Introduzione; 도입부
53) rondo; 되풀이 형식
54) Ferdinand Ernst Joseph Gabriel von Waldstein, 1762~1823

베트호펜은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선조의 운명을 지배했다고 하는 천신의 신비를 묘출(描出)하려고 했습니다. 제1 및 3악장에 불꽃과 같은 번쩍이는 장식음과, 찬란한 삽구(揷句)는 북극의 신비라고 하는 극광(極光)[55]을 생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로 발트슈타인의 명칭이 붙어있는 동시에, 일명 '극광 소나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열정(熱情) 소나타 작품 57(Sonate Appasionats)

제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제2안단테 콘 모토[56], 제3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57].

이 곡이 발표된 당시 어떤 사람이 베트호펜에게 이 곡 내용을 물을 때, 악성은 셰익스피어의 폭풍(템피스트)을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다른 평론가는 또 이것을 '대지를 찢고 천공을 막는 대화산의 폭발'이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명칭은 후세의 출판업자가 임의로 붙였다지만, 이것이 이 곡을 이해시키는데 확실히 적당한 명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1과 제3악장의 돌개바람과 같은 열정이 쌓여 있으며, 중간의 제2악장에는 고요한 위안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피아노 콘체르트 C 단조(제 3) 작품 37번

베트호펜은 전부 5회의 피아노 콘체르트(Konzert)를 작곡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演奏家)로 당시 비할 데 없는 명수로 알려진 그는, 관현악에 대해서도 본래 정통했습니다. 처음 2곡은 그 형식과 경향이 선배 모차르트 풍이 없지 않으나, 제3번 즉 이 곡은 분명히 그의 독창력을 나타내었고, 그 후 원숙(圓熟) 시대의 작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곡입니다. 특히 제3악장에 관현악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는 다만 주위에 음의 당초 모양과 같은 장식을 꾸미며 나아가는 부분은, 경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이 곡은 신선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풍부하므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B장조(제 5번) 작품 73번

이 곡은 일명 '황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곡두에 흘러나오는 진행 곡풍의 주제의 당당한 위엄은 황제의 행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실로 모든 콘체르토 중에 최고의 미를 표현하는 곡으로 모든 콘체르토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1809년경 악성의 예술이 이상의 절정에 달했을 때 나온 곡인 고로 그의 재래의 악풍과 달라 관현악과 피아노와의 혼연일체하고 전체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전에 없던 위대함을 보여준 곡입니다.

그의 영묘한 기능은, 듣는 사람에게 심원한 예술의 신전에 들어가게 하는 곡입니다. 그러나 '황제'라는 것은 작곡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고 어떤 영국 출판업자가 잘 팔리게 하기 위해 붙였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황제라는 명칭을 아직도 쓰지 않고, 다만 위대한 피아노 콘체르토 제5번이라고 속칭하고 있습니다.

55) 오로라
56) andante con moto; 느리게 그러나 활기차게
57) allegro ma non troppo; 빠르게 그러나 적당히

서곡(序曲) 코리올란, 작품 62번(Overture EZu Coriolan op. 62)

강직한 로마의 영웅 코리올란은 자기 고향에서 추방된 것을 분개하여 적과 결탁하여 로마를 정복하려고 점점 로마 근교에 임박할 때 그의 모친과 처의 애원에 의해 그 계획을 단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 동명의 비극에도 취급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베트호펜은 셰익스피어 작은 위해 이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대 오스트리아인 하인리히 요제프 폰 콜린[58]이 1804년에 쓴 비극 『코리올란』을 위해 1807년에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코리올란의 분개를 표현하는 결연한 악상과 2인의 여성의 탄원을 묘사한 선율과 2개의 악상으로 성립되어 끝으로 가면서 처음의 강폭한 악상이 점점 완화해지면서 없어집니다. 영웅이 로마 정복의 계획을 버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곡입니다.

비극(悲劇) 에그몬트 서곡 작품(作品) 84번(Ouvercure Egmont op. 84)

이 서곡은 다른 에그몬트의 음악과 같이 비엔나 〈제국극장〉의 위탁에 의해 괴테의 동명 비극 『에그몬트』(1788)를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괴테의 비극은 중세기 네덜란드 귀족, 에그몬트를 주인공으로 한 심리적 사극입니다. 괴테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의 성격을 이상화하고 쾌활 정직한 정의를 위해 투쟁하여 몸을 멸망케 된 박명(薄命)의 영웅을 묘사했습니다.

이 밖에 시민의 딸 클래르헨[59]과 서로 사랑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클래르헨은 에그몬트가 투옥된 것을 듣고 시민과 같이 계획하여 구출하려고 하나, 공포에 싸인 시민들은 이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마취약을 먹고 옥중에 있는 에그몬트의 환상 가운데 자유의 화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그몬트는 자유의 전사로 자각을 얻게 되어 국민을 위해 죽게 됩니다. 베트호펜은 이 서곡에 죽음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획득한 일개의 인간을 영웅적 표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대를 사모함(Ich lieve Dich) (독일 리드)

이 곡은 민요풍의 적은 노래입니다. 가사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축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간단한 곡이지만 베트호펜의 노래 곡으로서 특기할 점은, 당시의 저급한 노래 곡에 대해 참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려는 악성의 진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델라이데(Adeleide)

일반적으로 베트호펜의 성악곡은 기악곡에 비해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편이나, 이 곡만은 슈베르트의 독일 예술가곡을 미리 예언한 것 같은 감을 주는 훌륭한 곡입니다. 가사는 마티손[60]의 시이며, 서정미(抒情味)가 흐르고 있습니다.

58) Heinrich Joseph von Collin
59) Klärchen
60) Friedrich von Matthison; 1761-1831

벨리니 Bellini(1802~1833)

가극 『몽유병 여인』 아미나의 서정조(La sonnambula, ah! non giunge)

벨리니[61]는 처음 기악곡 및 교령 음악의 작곡가로 출발했으나, 얼마 안 되어 가극작가로서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의 가극 『몽유병 여인』(1831)는 정통 이탈리아 가극의 대표작으로 지금도 각지 오페라 하우스에 상연되고 있습니다.

서서(瑞西)[스위스] 어떤 시골 처녀 아미나[62]의 결혼문제가 있었으나, 아미나의 몽유병 때문에 뜻하지 않은 비극을 자아내었습니다. 그 후 진상을 알게 되자 행복하게 결혼한 것인데, 서정조는 제3막 끝에 아미나가 기쁨에 차서 불리는 유명한 노래곡[63]입니다.

가극(노르마) 노르마 서정조(抒情調) (Cesta Diva in Norma)

이 곡(1831)은 하늘의 여왕의 노래곡인데 드루이드 종족[64]의 제1의 여신궁인 노르마[65]는 드루이드 종족이 로마인에 대해 선전포고한 것을 듣고 놀라서 드루이드 종족의 수호신인 달의 여신[66]에 대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평화의 기도도 선율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콜로라투라[67]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곡으로 명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배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

파우스트의 겁벌(La Damnation de Faus; 1846)

시성 괴테의 천고의 명작 『파우스트』는 여러 음악가들이 작곡의 제재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 곡 같이 소녀 마르그리트[68]와 파우스트[69]의 연애의 이야기를 구노의 가곡 『파우스트』처럼 배를리오즈는 대담하게 원작에서 떠나 파우스트를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전부 8장으로 된 극적 이야기의 명사(名詞)는 대부분 배를리오즈의 자작으로 그의 특유하고 강한 심각미와 환상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 라코치 행진곡[70], 튈레 왕의 노래 2중창[71], 최후의 유명한 지옥에 떨어뜨리는 대목은 훌륭한 음악입니다. 작가는 결코 이 곡을 오페라로 쓴 것이 아니고, 성악가의 심포니도 아니고 또는 오라토리오도 아닌 그가 말하듯이 극적(劇的)[72]이라고도 했습니다.

61) Vincenzo Bellini
62) Amina
63) ah! non giunge 아! 기쁜 이 가슴
64) the Druids
65) Norma
66) the Chaste Goddess
67) coloratura
68) Marguerite
69) Faust
70) Rakoczy Marsch, 헝가리 행진곡
71) Autrefois un roi de Thule
72) 극으로 재현한 전설

라코치 행진곡은 제1막을 장식하는 것으로, 헝가리 독립운동(1711년 경)의 수령인 라코치 페렌츠 2세[73]를 위한 용감한 행진곡을 편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숍(Bishop)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헨리 비숍[74]의 이름은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로 1786년 런던에서 출생하여 각지에 지휘자로 활약하는 동시에 영국 발라드식의 오페라를 130곡 이상을 썼습니다. 가곡작가로는 무어 시를 편곡한 3권의 민요집을 비롯하여 각국 민요집도 있습니다. 그는 1848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1853년에 동 대학에서 음악박사의 명예칭호를 받았습니다. 이『홈 스위트 홈』(즐거운 나의 집)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므로 해설을 생략합니다.

비제(Bizet) (1838~1875)

카르멘(Carmen)

가극 〈카르멘〉은 모든 가극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작곡가 생존 시에는 실패였으나, 그 후에 이르러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작자는 스페인의 습속과 음악을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만든 곡입니다. 전주곡은 열광적인 진행곡으로 시작되고, 제4막에 나오는 투우사의 행렬을 환영해주는 합창의 반주를 취급한 곡입니다. 그 다음 투우사의 노래가 현악으로 활기 있게 연주됩니다.

제1막 아리아『하바네라』[75]는 카르멘이 노래하는 곡으로, 카르멘의 분방(奔放)한 성질을 표현하는 곡으로 병사 돈 호세를 유혹하는 노래입니다.

『투우사의 노래』[76]는 가극 2막에 릴리아스 파스티아 주막에 투우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쇼팽 Chopin(1810~1849)

야상곡(夜想曲, nocturne) F조 작품 115의 2번.

녹턴은 원래 일정한 형식에 구속 없이 애조와 몽상적 성격을 띤 사랑스러운 곡이므로 연인에 구애를 하는 의미에서 세레나데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곡은 달콤한 여성적 쇼팽의 일변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야상곡 D조 작품 제27의 2번

이 곡은 작자의 완전한 전형적 작품입니다. 곡은 따스한 남국의 여름의 밤을 생각하게 하는 곡이며, 저음부는 고요한 물결의 소리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73) Rákóczi Ferenc II; 1675-1735
74) Henry Rowley Bishop
75) Habanera;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L'amour est un oiseau rebelle)
76) Toreador Song; 여러분의 건배에 삼가 잔을 돌려 드리겠소(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전주곡 D조 작품 28의 15번(Prelude op.28 no.15)

전주곡(前奏曲)[77]이라고 하지만, 다른 작곡의 서곡과 같이 쓰인 것이 아니고, 서정적인 환상곡으로 24곡이나 작곡했습니다. 이 곡을 빗방울(우적(雨滴))의 곡이라고 프란즈 리스트가 말한 것은 동일한 음이 반복되면서 진행하는 까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쇼팽의 창작곡 천재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곡입니다.

연습곡 작품 25의 1번(Etude op 25 no 1)

연습곡(練習曲)[78]이라고 하지만, 피아노 기교 연습용 곡이 아닙니다. 시적 요소가 듬뿍 실린, 27곡으로 된 책이올시다. 이 곡에 대해 작품가 자신이 제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폭풍우를 피하여 고요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 양치는 사람"이라고 하며, 폭풍우는 요란하나 목자(牧者)는 고요히 피리를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육성적인 유창한 멜로디를 피아노로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이 쇼팽의 특징의 하나입니다.

폴로네즈 작품 제40의 1번(Polonaise op 40, no 10)

폴로네즈[79]와 마주르카[80]는 쇼팽의 폴란드 정신을 극도로 발휘한 것입니다. 야상곡에 나타난 여성적 쇼팽에 대해 이것은 남성적으로 되었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의 그의 용장한 미와 엄숙을 동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폴로네즈는 옛날 폴란드의 궁중 무악곡(無樂曲)이었습니다. '군대 폴로네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장송행진곡(葬送行進曲, Funeral march)

이것은 쇼팽의 작품 중 유명한 곡 중의 하나입니다. 이 곡은 B조 소나타의 제3악장에 속하는 곡으로 리스트는 이것을 평하여 '이것은 전 국민의 장례'라고 말했습니다.

환상즉흥곡(幻想卽興曲, Fantasie Impromptu)

이 곡(1834)은 3부로 전반부가, 노래하는 빠른 악구이고, 중간부는, 사람의 마음을 도취시키는 아름다운 멜로디이므로 쇼팽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독특 감상적인 '흐르는 멜로디'로 누구나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지정된 페이지가 되었으므로, 남은 다른 곡들은 후일로 미루겠습니다.

(필자 계정식(桂貞植) 음악학원장)

77) Prelude
78) Études
79) Polonaise; 폴란드 춤곡
80) mazurka; 폴란드 춤곡

연극예술(演劇藝術)의 기초(基礎)

「공군지휘관(空軍指揮官)」 공연(公演)을 보고

한빈(韓彬)

1. 서(序)

인간은 날 때부터 배우이며 연극적이다. 고로, 인간이 연극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진실한 것이다. 연극은 연극의 형성 중심인 배우가 희곡을 무대 위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또 그 행위를 연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4월 21일 오후 7시 공군대학 교관들에 공군 본부 강당에서의 행위는 그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엄연한 연기였으며 또 연극을 형성한 것이다.

혹자는 연극이 소인극(素人劇)이란 점을 생각하고 혹평을 꺼리지 않으나 공연 전후 사정을 잘 알며 또 연극을 공부하는 필자의 생각은 공군 지휘관 공연의 가치와 의의를 높이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연출가 고 김규대(金圭大) 교수의 마지막 연극이었다는데 한국 연극사적 의의도 있지만, 열전을 치르고 이제 심각한 냉전의 도가니 속에서 언제 있을 참혹할 열전에 임해야 하는 지휘관들의 위치를 이 작품처럼 멋들어지게 다룬 것을 못 보았으며, 또 이 땅에서의 첫 공연이란 점으로도 우린 이 연극을 소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딱히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연극이란 하나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일 관중들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데서 두 번이나 정전되었으니 그 흐름은 순조롭지 못했다.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지방에서 순회공연을 하며 차츰차츰 결점을 없애고 완전해질 때 비로소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아도, 연극의 초연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부분적 미숙이 드러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인 연기자의 미숙을 탓함보다도 연기자(여기선 소인(素人) 배우)들이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밝혀져야 하겠기에 필자는 모든 소인 배우들이 알아야 할 연극 예술의 기초를 논하려는 것이다.

먼저 William Ulister Hanies 작인 희곡 "Commanders Decision"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

2. 경개(梗槪)[줄거리]

무대는 유럽 주둔 미 육군 항공대 제5 폭격비행단 단장실. 때는 1942년 초가을, 독일군과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전세는 연합군이 불리할 때, 어느 날 유명한 종군기자 부륵허스트(田豊奎(전풍규) 분)는 비행단장 데니스 준장(채민석(蔡敏錫) 분)을 인터뷰하러 온다. 그러나 항시 요령으로만 군 생활을 이어가는 눈치 빠르고 영리한 2등중사 에반스(이충갑(李忠甲) 분) - (비행단장 당번)은 부륵허스트의 돌

연한 출입에 작전상의 기밀과 스파이를 경계해야 할 비행단장실이라 하면서 종군기자 부륵허스트를 체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륵허스트는 비행단장보다 한 계급 위인 캔 소장(미 육군 항공부대 방면사령관으로 데니스 준장의 직속상관 – 안수은(安洙恩) 분)이 사인한 출입증을 제시한다. 그리고 독일 공군 조종사의 행방을 알기 위해 비행단장을 인터뷰하겠다고 데니스 비행단장의 소재를 묻는 부륵허스트는 에반스의 전쟁은 군인만이 하고 있다는 말에 전후방에서 미합중국 청년은 모두가 전쟁하는 것이라고 언쟁한다. 부륵허스트가 나간 다음 데니스가 옆방에서 나온다. 캔 소장의 사인이 된 출입증을 갖고 부륵허스트가 왔다갔다는 말을 듣고 데니스는 흥분한다. 부관(조치홍(趙致洪) 분)을 불러 사무적 말을 끝맺고 학자 타입인 데이비스(기상장교 – 허직강(許直康) 분)를 불러 내일의 기상을 묻는다. 데이비스 소령의 "출격 비행은 어렵겠다."는 말에 항시 그랬듯이 충격할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자연은 아직 인간에게 정복되지 않았다."고 데이비스는 말하나 데니스 단장은 "정신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 데이비스가 나가고 젱크스 대위(비행 편대장 – 김도영(金道榮) 분)가 들어온다. 젱크스 대위는 엄호권 외 180마일이나 밖에 떨어진 적을 폭격하라는 데니스 단장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영창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다. 끝까지 젱크스 대위는 데니스 비행단장의 엄호권 외 출격은 희생을 많이 낼 뿐, 별 성과가 없으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태에서는 솔직히 고향 생각과 애인 골든이 생각이 난다고 말한다. 데니스는 단호히 젱크스 대위를 다시 영창에 가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자신(데니스)의 잠재되었던 고향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운 아내의 편지 소리가 끝나자, 캔 소장과 카넷르 준장(미 본토 합동참모부 근무. 데니스 준장과의 동기생이며 마린 대령의 매형 – 강중향(康中鄕) 분)이 방문한다. 방문 이유는 종군기자 부륵허스트가 제5폭격비행단은 항상 모험을 해서 전과는 올리나 비행기의 파괴와 인명의 손실은 그만큼 크다는 비난보도를 해서 더욱 문제가 되어 본국에서 내일 하원 의원들이 비행단에 오게 되었으니 미리 제반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젱크스 대위의 삼촌 말콤 의원(白萬浩(백만호) 분)이 특별 조사위원이라고 말한다.

드디어 심판의 날은 왔다. 말콤 하원 의원을 비롯해 스롤(김성호(金聖浩) 분) 필드(장원복(張元復) 분) 하원 의원들은 맹렬히 데니스 준장의 작전을 무모한 것이라고 공격한다. 밖에선 천둥이 일고 소낙비가 쏟아진다. 그러나 카넷트 준장의 처남 마린 대령(제5폭격비행전대장, 유병종(劉秉鍾) 분)은 동석한 의원들과 군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출격 비행한다. 말콤 의원은 데니스에게 자기 생질 젱크스 대위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 출격 비행중이라고 한다. 하원 의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때마침 출격 비행한 마린의 아내로부터 득남의 전문이 날아오고, 사태는 더욱 험악하여 출격비행으로 떠난 마린이 전사했다는 무선보고가 들려온다. 무대는 조용하고 이따금 들려오는 비행기 폭음소리와 천둥소리, 부관이 들고 온 서류를 보고 데니스는 '면(免) 제5폭격기사단장. 후임으로 카넷트 준장으로 보(補)함' 이라고 낭독한다. 데니스는 섭섭히 이별을 고하고 후방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나갔던 부관이 다시 급히 들고 들어온 새로운 국방성의 명령문은 '준장 데니스는 중장으로 행하라, 신예 B-29 폭격기 사단이 도착 즉시 지휘에 임하라'는 것이다. 미합중국을 위한 훌륭하고 뛰어난 작전지휘였다는 것을 깨달은 전원은 그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눈물어린 데니스 준장의 뒷모습을 환송하는 것이다.

3. 연기자(演技者)의 임무(任務)

연기자는 산 자신의 육체를 소재로 또 자신의 동작과 화술의 신체적인 변화로서 작가가 제기하는 세계를 올바르게 관객 앞에 전달함으로써 임무를 완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연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인 배우들은 우선 육체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또 노력해야 한다. 물론 질적(내적)으로도……극작가가 머리(두뇌)를 무기로 하는 예술가라면, 배우는 육체를 무기로 하는 예술가이다. 그러나 육체 그것만으로 연기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연기자는 임무완성을 위해 항시 여러 인간형의 움직임을 낼 수 있는 형과 기교를 습득해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심구(深究)를 뜻하는 것이다. 연극의 생명이 대화에 있으며 대화의 주체자인 연기자는 모든 인간들의 계급 연령 시대적인 조건을 마스터해야 한다. 배우 예술은 감동과 표출에 의해서 어떤 상태를 창조하며 관중 앞에 보이는 것이며 형성 중심은 배우(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합체)인 것이다. 배우는 주체적 소재로서 희곡의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올바르게 연극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어떤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약속된 행동에 따라 움직여야 조명 음악과 효과 무대 장치 분장 소도구 연출 그리고 타 배우의 연기 대사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으며, 이로써 연극의 앙상블이 사는 것이다.

4. 무대(舞臺)

그런데 연기자가 상기한 임무를 완성하려면 무대를 알아야 한다. 연극 구성은 연극에 동원되는 제반 예술, 즉 희곡 장치 조명 효과 음악 의상 소도구 분장 배우 연출 등의 제반 자매 예술을 융화 조화시킴으로써 한 극적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A. 무대장치(舞臺裝置)

무대장치는 회화나 건축과 같이 독립적인 예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연극에 필요한 반회화적인 또 반(半)건축의 요소를 띄고 있는 특수 예술이며, 희곡이 제기하는 장소 환경 계절 등을 설립해주는 한정 미술이다.

B. 조명(照明)

여러 모양의 전기광선을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극적 감정 변화 시간을 암시할뿐더러,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보조하는 시각 예술로서 특히 현대 연극에 서는 조명의 역할이 가장 크며, 또 극작가 자신들도 조명의 효과를 많이

노린다.

C. 효과(効果)

시각적 분위기 묘사가 조명이라면 효과는 청각적 분위기 묘사이다. 음향으로 무대상의 극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감각적 정경, 분위기, 정서를 조성하는 공간 예술이다.

D. 음악(音樂)

음악은 보편적으로 극적 리듬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각 장면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또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예술이다.

E. 의상(衣裳)

의상은 희곡이 제시하는 시대 사회 성격 연령 계급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관객에게 사실적 요소와 상식적 요소를 보여준다.

D. 소도구(小道具)

무대장치 및 인물의 환경정리로써 절대적 연극요소이다. 시대와 인물의 특징과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E. 분장(扮裝)

분장은 배우가 자신의 골육을 토대로 하여 극중 인물 즉 자신의 배역의 성격에 알맞도록 얼굴 변형시키는 것이다.

인종과 사회 그리고 연령과 계급 또 인물의 성격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다.

F. 배우(俳優)

배우는 연극의 3대 요소의 한 부분이며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발판으로 연극에서의 역 중 인물의 동기적 존재이며, 결과적 존재이다. 그리고 전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이다. 연극을 형성하며 또 희곡의 이상을 직접 설명하는 존재로서 연극은 배우에서 시작하여 배우에서 끝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배우는 연극의 일부이며 전부이다.

G. 연출(演出)

연극의 매력은 희곡이 포장하는 세계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 즉 희곡을 완성하기 위한 희곡이 포장하는 세계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지도적 존재가 연출가이다. 연극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장치 연기 조명 소도구 등)와 청각적 요소(대화 효과 음악)의 극적 입체성의 조화를 예술적으로 갖추는 예술인이 연출자이다. 모스크바 예술좌의 창설자인 단젠코는 세계의 얼굴을 갖는 존재가 연출가라 했으며 네미로빗취는 연출가를 설명, 교육자, 조직자라고 했으며 또 제1 관객이라고 했다.

H. 희곡(戱曲)

희곡은 무대 기술엔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기의 제반 무대요소와 함께 배우가 알아야 할 중대한 요소(연극적)이다.

희곡은 연극의 모태이다. 희곡도 문학적 가치포함도 극적 표현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희곡의 본질은 대화에 있고, 대화는 행동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희곡은 인간 의지의 표현이며 인물의 대화 및 동작 자연물의 변화 이행에 의해 어떤 사건의 흐름을 행위적으로 구상한 문학이며 무대에 표현하는 연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5. 등장(登場) 이전(以前)이란?

소인극 배우들이 연극 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배우의 내적인 준비, 즉 바로 이 등장 이전이란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공군 대학 교관들의 육체적 요소는 충분했으나, 연극의 효과를 십분 더 올리지 못한 이유의 하나로 필자는 이 등장 이전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배우가 등장한다는 것을 다만 무대 뒤나 옆에서 관중이 보이는 무대 복판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우가 등장만 하면 그 연극은 벌써 죽은 시체의 움직임이지 결코 생동하는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인생을 그리는 연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등장 이전이란 무엇인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과 자신(작품속의 인물)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왔는가? 즉 여기가 어디인가?(무대가 아니고 작품 속의 어떤 지역)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어떤 상태로 왔는가? 처음인가? 구면인가? 또 자신(역중 인물)의 과거를 자세히 알아야 하며, 또 그 연극적 분위기 속에 실 자신을 망각하고 역중 인물로서 조화되어야 한다. 말콤 하원 의원은 미국에서 유럽 제5공군폭격비행단 단장설에 왔으며, 그 이유는 데니스 비행단장의 무모한 작전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으며, 자신도 하원의원으로서 특별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온 것이다. 또 쟁크스 대위의 외숙이다. 이 사실은 작품(희곡)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무대로 나갈 때 즉 등장 할 때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위치인가, 또 누굴 암살하기 위해선가, 절도 사기를 위해서인가?

이러한 여러 문제를 작품을 알고 곧 연구하고 연기 연습에 임해야 하고, 또 등장해야 관중에게 그들이 아는 사람(배우) 즉 실사회에서의 인간이 아니고 작품 속에 새로운 인간으로서 말하자면 배우가 아닌 연기자로 보이는 것이며, 연극을 성공적으로 끝맺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기자와 배우는 엄연히 그 뜻이 달라, 차(次)기회에 연극의 본질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6. 결론(結論)

결론적으로 재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기한 내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시정에는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배우라고 돌아치며, 또 되겠다고 돌아치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연기의 그 근본은 인류의 상징과 표현의 형태이다. 연기란 것은 배우의 전 유기체 즉 육체와 정신 곧 상상력과의 조화로 말미암아 창조적 기능과 표현적 작용을 훈련하여 음조적(音調的) 요소와 육체의 운동 음의 파동과 선의 율을 심미적 변화로 극적 연기의 전 생명을 정돈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희노애락(喜怒哀樂)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기는 생동하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다.

배우의 연기는 인류의 신성한 악기이며, 창생의 소망과 동경을 구원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인류의 가장 숭고한 표현을 맡은 연기는 다른 예술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연기를 표현하는 연기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양각색의 인생이나 인간성격의 연구를 본질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상기한 모든 것을 구비한 자라야 천재적 연기자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기라야 예술적 연기라 할 것이다. 진실한 배우는 인류의 시대적 정신 그 속에서 약동하는 생의 의식으로 선명한 감각과 생명의 유동을 파악하여 인류의 활미(活美)를 여실히 표현해야 할 것이며, 또 신예술화(新藝術化)해야 할 것이다.

7. 참고(參考) (무대구분(舞臺區分)과 기호(記號))

1. 무대구분

B′	O′	A′
B	O	A

A……(상수(上手)라고 한다)

이 구역은 형성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곳으로, 이곳은 외래적인 방문, 상담, 모방 애욕, 즉 강탈 독백 또는 고립한 인간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위치이다.

A′……(뒷 상수라고 한다)

무대 위의 구역에서 가장 약한 구역이다. 초자연적인 사건의 처리, 살인강도 유령, 또는 광란의 장면 등에 사용한다. 그러나 소인 배우들을 이곳에서 등장시키면 효과적이다.

B……(하수(下手)라고 한다)

친근한 맛, 온화한 분위기와 우정이 넘치는 방문, 자기의 감정에 만족할 때의 위치로 사용한다.

B′……(뒷 하수라고 한다)

이 구역은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곳, 유혹, 꿈, 공상 현실을 떠난 밀회, 자기감정을 만족하려는 사색, 고민 등은 이곳에서 행함이 적합하다.

O……(중앙이라고 한다)

이 구역은 관객의 시선과 감정을 제일 집중시키는 곳이며, 아주 인상적인 곳이다. 고로 극적 클라이맥스, 투쟁, 사건의 충돌 등에 많이 사용하는 구역이다.

O′……(뒷 중앙이라고 한다)

의식적인 위엄, 극적 복선, 법정의 연설 선언 주례 등에 사용.

※ 상기의 무대구분은 특히 연출가는 물론이지만 극작가도 무대 구분의 보편성을 많이 참작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들도 알아야 할 문제다

2. 기호

L……조명(Light)	□……누워있는 곳에 표시
E……효과(Effect)	□……걷고 있는 곳에 표시
M……음악(Music)	□……보통의 간
C……막(Curtain)	□……중간의 간
D C…암전(Dark Change)	□……긴 간
F I…용명(Fade in)	□ 혹은……웃을 데에 표시
F O…용암(Fade out)	□ 혹은……울음을 표시
□……상수로의 등장을 표시	◆……주의 환기
□……하수로의 등장을 표시	(□□)……청(靑) 연필로 시대 계절 장소 등을 표시
→……중앙으로의 등장을 표시	(□)……청 연필로 대도구(장치)
←……상수로 퇴장	□……청 연필로 소도구 명을 괄호 속에 기입한다.
←……하수로 퇴장	□……인명, 연령, 분장(적(赤) 연필로)
←……중앙으로 퇴장	□……인물의 행위, 심리 및 작자의 특별지시가 있는 곳에 적 연필로.
□……서 있을 곳에 표시	
□……허리를 굽힐 곳에 표시	□……조명에 관한 것과 시각. 적 연필로
C……앉아있을 곳에 표시	□……효과에 관한 것은 청 연필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문자에 청 연필로.

이상의 기호는 현 연극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편적이다. 이 외에도 조명을 위시해서 특수용어와 기호도 많으나 소인(素人) 배우들에 필요한 것만 골랐다.

상기 기호도 연출가뿐만 아니라, 연극의 전 스탭들에 필요한 것이며, 특히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 중 인물명을 적색 잉크나 연필로 테니스 이렇게 표시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레이더에 의(依)한 방공원칙론(防空原則論)

공군 소령 배종영(裵鍾榮)

1. 서언(序言)

현대전에서 레이더의 용도는 다각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제의 범위를 좁혀 한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것에 국한하여 그 중에서도 원칙에 가까운 것만을 논하려 한다.

공군에서는 고층 기상관측 및 지상 관제착륙 – Ground Control approach(G.C.A)을 위해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적기의 조기경계 – Early Warning(EW) 및 지상관제요격-Ground Control Interception(GCI)의 임무를 띤 관제경보지대 Air Craft Control and Warning(AC&W – 일명 레이더 부대)의 주요장비로 되어 있다.

육군의 고사포 부대에서도 단거리 조기경계를 위한 경(輕)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에서는 대형 함정에 레이더를 장치하여 조기경계에 임하고 있다. 민간 어선에서도 어군(魚群)을 탐지하기 위해 또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에서 사용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상의 운용에 비하여 기타 기구의 레이더는 하나의 장난감에 비교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 방공(防空)의 요소(要素)

항공전에서 적의 공격에 앞서 적의 공격능력을 마감(磨滅)하여 선제를 획득함은 당연한 근본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 및 전술의 발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이것 만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방어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과 동일한 것이다.

방공에는 적극적인 방공과 소극적인 방공이 있다. 전자는 적의 공중세력을 지상에서 파괴하는 것이며, 후자는 적이 공격을 가하여 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민간방공과 공통되는 점을 제외한 군 방공은 이를 3개의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요격 전투기 부대 고사포 부대 및 관제 경보부대이다. 이 3자 간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관제 경보 기구에 의거하여 목표를 탐지하고, 적기임을 식별하면 요격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이더로서 효과적인 공중 전투 위치에 유도시킨다. 만약 요격기에 의한 격추에 실패하면 중요 목표물 주변(즉 비행장 혹은 항만)에 주둔하고 있는 고사포 부대에 의해 최종격파를 기도하게 된다.

3. 관제경보(管制警報) 기구(機構)

관제경보부대는 (1) 배당지구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탐지 및 계속적인 공중감시. (2) 항공기의 적 또는 우군기 식별. (3) 방공작전 시 모든 우군기의 요격관제. (4) 군 및 민간 공중경계지구에 절박한 공중공격 경보 제공. (5) 방공작전의 정확하고 계속적인 사항을 방공 중앙관제소(ADCC)에 전시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이 부여 되어 있다.

관제 경보 부대는 보통 아래와 같은 작전계통에 의거 배치된다. (그림 1) 참조.

방공중앙관제소 – Air Defense Control Center – (ADCC)는 합동작전본부(JOC 또는 COC)와 인접하여 해당 지역 내 방공작전의 지휘 본부가 된다. ADCC는 레이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작전 지휘망을 위한 통신기구만 보유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① 공중감시정보의 수집, 전시 및 평가. ② 요격기 출동. ③ 경보 발령. ④ 임무 할당.

방공 지방관제소 – Air Defence Direction Center – (ADDC)는 중 레이더 및 부수 통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제경보작전의 핵심체가 되어 예하 전방부대를 장악한다. ADDC의 주요 기능은 ① 공중 감시. ② 식별. ③ 요격 관제. ④ 항법 보조이다.

방공 전방관제소(INTERCEPTION/SURVERLANCE SITE)는 ADDC와 동일한 중 레이더 및 통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명 지상 요격관제소(GCI SITE)라고 부른다. 주요 기능은 ① 공중 감시. ② 요격 관제. ③ 항법 보조 등이다.

조기경계소(SURVERLANCE OR EARLY WARNING SITE)는 경 레이더 및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조기 경보소(EARLY WARNING SITE)는 방공 전방(前方) 관제소의 무방어 지역을 메꾸고 또한 레이더 유효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통신 배치된다. 주요기능은 ① 조기경계 ② 항법보조. ③ 공중감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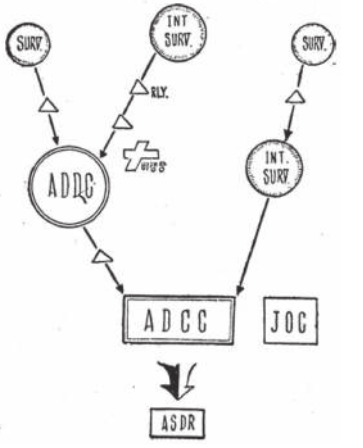


그림 1. 작전계통

제공이다.

무선 중계소(RADIO RELAY SITE)는 상기 각 부대 간의 무선 전화를 중계하는 임무부대이다. 공중 상황실(ASDR)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서 합동작전 지휘본부 이외의 혹 종 지휘본부가 있을 때 ADCC의 여러(諸) 작전상황을 전시하는 곳이다.

4. 레이더 배치(配置)의 기본방법(基本方法)

이제 방공작전의 한 도구인 레이더를 좀 더 기술적으로 생각하여 보아야겠다. 즉 어디에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작전상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경제적이냐? 말할 것도 없이 영토 주위에 많이 놓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레이더의 배치는 두 단계로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레이더로서 방어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고 둘째로,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특수 지구의 공중방어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방어선(MILD)은 곧 특정 유효범위를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선정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소 방어선, 다시 말해서 레이더 포착선(捕捉線)[81]을 결정하는 예를 들어보자.

상하이(上海) 방면에서 중공의 폭격기부대가 부산(釜山)을 공격해온다고 가정하자. 부산시의 방공을 위해 고사포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부산 교외 비행장에는 1개 요격전투기부대가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대기하고 있다. 상하이 방면의 방공을 위해 유효범위 220마일의 레이더를 최소한 어느 지역 전방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

고사포 방어지역 – 20마일
레이더 부대에서 전투기 부대에 통보 소요시간 – 영분
전투기 출동 소요시간 – 3분
적기고도 – 30,000척(呎)
적기속도 – 360마일/매시
전투기 32,000척 상승소요시간 – 5분
전투기 35,000척 상승 시 지상이동 거리 – 60리
전투기간 – 10분
전투기 대지속도 – 420마일/시로 가정하면 적기를 만나 전투를 개시할 때까지 소요시간은 출동시간 – 3분 상승시간 – 5분 및 전투 개시점까지 소요시간 – 10분 계 18분간이며, 이 동안 적기는 360마일/매시로 96마일 비행할 것이다. 즉 최소 요격선(MLI)부터 최소방어선(MLD)까지의 거리가 된다. (그림 2 참조)

목표로부터 최소 요격선(MLI)까지의 거리는 전투기가 적기를 만나 전투를 개시할 지점까지의 거리이며 전투기의 상승 시 지상 이동거리 60마일과 수평비행 10분간의 지상 이동거리 70마일 계 130마일이 될 것이다.

목표부터 최소 방어선까지의 거리는 MLI 및 MLD 간의 거리 96마일과 MLI 및 목표 간의 거리 130마일로 합계한 226마일이 된다.

상하이 방면을 위해 부산 근방에 설치된 레이더는 226마일의 탐지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투조종사의 기능에 따라 전투 시간, 즉 격추의 소요시간이 10분 이하이면 더 적어질 것이다.

상기 예(例)에 의하면 220마일의 유효범위를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배치는 부산에서 상하이 방면 6마일 지점보다 전방에 의치(依置)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레이더는 1개소만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본 방면에서의 적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대구 대전 등 연쇄적으로 인접목표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레이더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레이더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될 사항은 레이더의 중첩 배치론이다. 〈그림 3〉과 같이 인접 레이더가 동일 목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견지에서 충분한 중첩이 불가능하고 경계지구를 확장할 경우 또는 지형적으로 탐지거리가 축소되는 방향에는 조기경계소를 설정하여 작전상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작전상 요구에 따라 어떤 지점에 설치하게 되는 레이더 설치는 전술적 및 탐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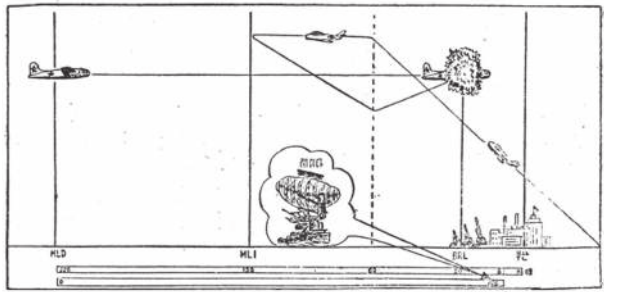


그림 2. 레이더 위치 선정의 예

81) 원문의 補促線은 捕捉線의 오기임.

적(探術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적인 고려가 더욱 중요하여 고려될 사항은 ① ADDC, GCI 또는 EW의 기능 선정. ② 요구되는 탐지망을 위해 각 레이더의 요구 범위. ③ 각 경보소의 수평 및 수직으로부터의 탐지 범위. ④ 선정한 지역 내에서의 대략적인 위치. ⑤ 목표 탐지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펄스(pulse)의 길이. ⑥ 레이더망을 설치 유지하기 위한 후방 및 기술적 지원 등이 있다.

기술적 면에서 설명하면 레이더의 안테나가 높을수록 좋다. 즉 높은 산봉우리 같은데 통상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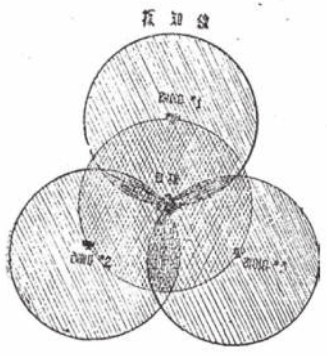
기술적 면에서 고려된 사항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공학의 전문 분야 지식이며 제한된 용지에 간단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미 상식화된 것으로는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성능이 좋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5. 레이더에 의한 남한방공(南韓防空)

방공 요소의 하나인 관제경보 기구 및 레이더 배치의 기본방법을 설명해왔으나. 이제는 레이더에 의한 남한 의 방공 문제를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북미 대륙은 미국과 캐나다에 의해 DEW LINE, MID-CANADA LINE 및 PINE TREE LINE으로서 빈틈없는 3중의 경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대서양 및 태평양에는 OFF SHORE PICKETS 및 INSHORE PICKETS의 2중 해상경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상적은 수천마일 밖에 위치하고 있으니, 방공의 원칙론에 입각하여 그들의 국가와 민족을 빈틈없이 경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레이더의 중첩(重疊)>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만족한 MLI를 구상하기에는 가상의 적이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 남해 및 서해로부터 침입해오는 적기는 원칙론에 입각할 수 있는 것이나 DMZ 선을 가까이한 북방의 방공은 항시 전투요격기를 4만 척의 상공에 대기시켜 놓음으로서만이 방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더의 유효범위는 고도의 증가에 따라 확장되나, 그 초극단파의 성질상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대가 많은 곳은 전파(電波) 전파(傳播)상 방해를 받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더욱 심중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즉 공간지대(SKIP ZONE)를 메꾸기 위한 (GAP FILLING) 조기경보소의 설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육지로부터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전투의 진퇴에 따라 경보소의 기동성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진퇴에 따르는 재배치의 기획을 항시 수립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 작전상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대한민국 공군의 힘으로 운용 지속되고 있는 레이더 부대는 오래지 않아 완전히 우리의 힘으로써 단독운용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기해야 할 사항은 RADAR 망으로써 방공하는 데에는 WORLD WIDE NET SYSTEM, 즉 세계연쇄적인 기구가 절대 요구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나 일본 혹은 대만 등 국가가 단독으로 RADAR를 통한 완전한 방공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 각 국가가 서로 RADAR COUVERAGE 상의 연결과 정보 교환의 동맹이 없이는 각각 자기 한 나라의 방공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레이더의 전망(展望)

대륙간 유도탄(ICBM)은 일종의 무인 조종기이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파로서 조종하는 것이다. 즉 대륙 간 레이더 조종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륙 간 유도탄이 발명되자 고속도로서 비행하여 오는 이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3천 마일의 유효범위를 가진 새로운 레이더가 출현했다고 한다.

이 대륙 간 유도탄의 요격을 위해 새로운 대 대륙간 유도탄 요격유도탄이 발명되어 레이더 부대에 의해 관제(管制) 요격될 것이다.

과학은 일일(日日) 급진하여 인공위성의 출현은 이미 역사로 변했고, 오래지 않아 월세계 무인기도 발사한다고 한다. 여기에 조종은 레이더에 의할 것이며, 도중(途中) 제반 정보는 텔레비전의 원리에 의해 송수신될 것이다. 텔레비전은 레이더의 장난감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레이더를 가까이 벗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레이더는 인류 과학의 최선단(最先端)을 걸어가는 데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필자가 레이더의 전망에 대해 과학자에게 덧붙여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방향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인생에 좀 더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애인을 혼자 사랑하건만 애인의 마음 속 깊이 들어 있는 애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레이더의 출현과 이 레이더로서 애인의 애정을 좀 조종해 볼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꿈꾸며.

★ ★ ★

제한된 지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레이더 부대의 배치 레이더의 특성 및 작정상의 전문적인 문제는 군 기밀에 속하는 분야이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의 예를 들어 실제 설명할 수가 없었다.

레이더에 의한 방공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공군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약한 원고를 끝맺으려 한다.

<필자(筆者) 레이더 부대 작전참모(作戰參謀)>

기상예보(氣象豫報)도 전자뇌(電子腦)로!

미국에서는 각 처에 산재한 약 1만 명의 지원 기상학자들이 매일같이 기상 보를 발송해서 미국 기상국을 도울 뿐더러, 기상국에서는 고공에 띄워진 풍선 기상관측기구에서 수집 발신되는 기후 상태를 레이더를 통해서 판단하는 최근 시설을 구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정확한 일기예보는 얻지를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거대한 규모의 전자계산기(일명 전자뇌)를 시설하여 기상 관측 풍선에서의 보고를 직접 전자계산기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 계산기는 입수된 각종 보고를 비교 조사한 후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려 풍부한 말로써 전환 발신해 준다고.

레이더와 방공작전(防空作戰)의 실제(實際)

공군 대령 손주현(孫周鉉)

1. 공중 요격(邀擊) 개시

"BLUE EYE CONTROL, THIS IS TIGER 61, AIR BORNE 30,
STANDING BY FOR INSTRUCTION"

거리 백마일 3만 척(呎) 상공에서는 초고단파 무전을 통해 고성능 요격전투기 조종사의 레이더 스테이션(RADAR STATION)을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그는 지금 불과 몇 분 전에 우리 레이더로서 포착한 식별 불명의 비행기를 요격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식별 불명의 비행기는 지금 3만 5천척의 고도에서 속도 700마일로 수도 서울을 향해 날고 있으며, 이는 능히 핵무기를 장비할 수 있는 적의 고성능 폭격기일지도 모르며, 혹은 항로를 이탈한 우군 비행기일지도 모를 일이나, 우리는 이 비행기를 시간의 지체 없이 요격하여 적기라면 이를 격추해야 한다. 수도 서울까지는 수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니 우리는 촌각을 다투어서 이 비행기(飛行機)[82]를 절대 요격선 외에서 요격해야만 한다. 대공(大空)은 무한 무궁하며 비행기는 한낱 극히 미소(微少)한 점에 불과하다. 우국기(友國機) 조종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적기는 시속 700마일의 고속으로 발견됨이 없이 스쳐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일이며, 혹은 오히려 후방으로부터 우군기를 기습할지도 모를 일이다. 적기는 운중(雲中)이나 운하에서 비행함으로써 운상에 있는 우군기에 발견되지 않고 서울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적기가 수도 서울 상공에 도달하여 핵무기를 투하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군기 조종사는 대공에서 적기를 찾아 헤맬 수도 있는 것이다. 탁월한 조종의 기술과 우수한 비행기의 성능만으로서 공중으로부터 침공해오는 적기를 맞아 이를 요격한다는 것은 과학 병기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는 거의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며, 현대인의 상식이 아닐 것이다.

레이더 – 여기서 우리는 현대 공군전력의 가장 중요한 불가결의 요소인 레이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레이더는 모든 공중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즉 적기나 우군기 그밖에 제반 공중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는 우군기를 유도하여 적기를 요격하는 가장 좋은 전법을 알고 있다.

82) 원문의 戰行機는 飛行機의 오기로 보임.

"TIGER 61, BLUE-EYE CONTROL, I HAVE YOU ON MY WEAPON,
VECTOR 090, ANGELS 36"

요격기 조종사의 부름에 응하여 레이더 스테이션은 곧 이와 같이 응답하여, 적기 요격을 위한 첫 지시를 한다.

2. 방공(防空)과 AC&W

어느 나라에서나 총체적으로 방공을 적극, 소극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적의 공중 공격의 효과를 완전 소멸 혹은 최소로 극한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수단, 즉 중요 설비의 의장(擬裝), 철수, 소화반 및 민방공기구편성 등화관재, 구호반 및 화생방 공격에 대한 제독 작업반 편성 또는 미국 같으면 피츠버그나 디트로이트 같은 중요 도시의 분산 등이 소극 방공의 방법이며, 적극적 공중방어는 어디까지나 공군을 중심으로 한 기타 부대의 책임이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적극 방공은 공군 내에서도, 방공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 즉 요격 전투기 부대 AC&W 부대 및 고사포 부대(방공작전 중에는 공군 AC&W의 통제를 받는다)의 책임인 것이며, 요격 전투기와 고사포, AC&W는 적극 공중방어의 3대 요소인 것이다. 적의 침공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요격기는 공중에서 이를 요격 격추하고 고사포는 지상에서 이를 격파한다.

그러면 AC&W는 무엇을 하는가. AC&W는 공중 상황 통제기구와 레이더 스테이션과 기타의 부수적 통신전자설비로 구성되어 공중 방어전을 지상에서 유도 통제하는, 방공의 가장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을 한다. 즉 방공전은 탐색, 식별, 요격, 격추의 4단계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AC&W는 레이더로서 목표를 찾아내, 이것이 적기인가 우군기인가를 식별한 후 요격기나 고사포를 유도 통제하며, 이를 격추하는 것이다.

방공전(防空戰)에서 AC&W의 위치와 그 주 임무는 이상과 같거니와, 그러면 AC&W는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방공전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AC&W의 역사를 들추어 본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전쟁 공백 기간을 통해, 열강 제국(諸國)은 공군력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공군력 강화에 즉 비행기 제작에 상당한 힘을 경주했다. 이 결과로서 JUNKER[융커; 독일군 6발 폭격기]에서 투하된 폭탄에 프랑스의 공업이 마비되었고, MESSERSCHMID[메서슈미트; 독일군 전투기]의 공격에 영국 국민이 공포에 허덕였으며, 영국은 SPITFIRE[스피트파이어; 영국 전투기]를 만들고 해서, 전쟁의 형태는 일대 변이를 일으키게 되었다.

2차 대전 중 미영은 적의 공군 공격에 대비하여, 유효하게 우군 진지를 방어하고 침공하는 적기를 저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AC&W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일의 AC&W의 시초이다. 당시의 AC&W는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저성능 탐색 레이더와, 방향 탐지기, 소규모의 통제소로서, 우군 전투기를 미리 약속된 지점에 대기시켜 놓고, 적기의 편대군(群)을 탐색 발견한 뒤 우군 전투기에 통고하여 이를 공격하게 하는 치열(稚劣)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 당시의 비행기의 성능이나 운동성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AC&W는 이상과 같은 유치한 장비 시설과 미숙한 전법으로서도, 지상 관측소, 탐조등, 청음기, 기타 보조적 기구와 협조하여, 그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와 공중 전술의 무한정한 발전에 따라 그 장비와 기구를 개량하고, 공중 방어통제전술을 개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면으로는 방어 전투기로서 야간 전투기나 레이더 탑재 전투기가 제작되었으나, 유효 거리의 제한 정확도의 결핍, 혹은 기상에서의 레이더 운용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결국 AC&W는 그 기구, 장비, 전술이 개량 발달되어, 금일과 같이 대규모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공전의 핵심적 기구가 된 것이다.

AC&W는, 방공에 있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기능을 가진다.

① 소관 공중방어 구역 내의 모든 비행기(목표물)을 탐색 탐지하고 이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한다.
② 포착한 비행기가 우군기인가 적기인가를 식별한다.
③ 공중 방어 작전 중 방어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우군기를 통제한다.
④ 각종 형태의 공중 공격 경보를 관계 기관에 통고 이에 대비케 한다.
⑤ 모든 공중 상황 및 방공 작전 상황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관장한다.

3. 레이더 작전(作戰)의 실제(實際)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기타 장비 기구를 가지고, 공중을 감시 경계하여 목표물을 발견하고, 이를 식별하여 우군 요격전투기나 고사포를 유도 통제하여 적기를 요격하고 격파한다.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위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대의

적기라도 이를 우리의 상공에 접근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수도 서울이나, 군사, 산업 주요 도시 인명 기타 특수 지역을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 완전무결한 방공경계 레이더망을 펴고 부단한 작전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의 작전은 1년 366일, 1일 25시간을 계속해야 한다, 촌각이라 할지라도 중단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야의 분별없이 전시 평화 시의 분별없이 레이더는 돌아가야 하며,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병사들도 부단히 작성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는 오히려 야간이나, 기상의 악조건 하에서 더욱 적기의 기습에 대비해야 하며, 오히려 평화 시일수록 보다 더 긴박한 전쟁 의식을 가지고 작전에 임해야 한다.

현재나 혹은 앞으로의 전쟁이 공군력의 제1격으로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면, 평화 시라고 해서 우리는 정신의 유대(紐帶)를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휴전 협정으로 휴전선은 수도 서울과 임박한 거리에 있고, 공산 괴뢰는 야욕적인 재침을 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치라도 적기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방어해야 하며, 적의 기영(機影)조차도 우리의 상공에 침범함이 없게끔 대공 경계 감시의 완벽을 기해야만 한다.

레이더는 우리의 기본 병기이며, 현대 전자 과학의 결정체라 할 만큼 정밀하고, 고가한 기계이므로 레이더를 돌리고 장비하기 위해서 극히 우수한 장병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병들은 군에서나 사회에서 장기간의 교육을 받은 일유의 전자 통신 기술자들이며, 이들은 부단한 방공 작전의 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레이더의 정비 운영에 온갖 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전투기는 한 대가 고장으로 출동 불능하면, 대기 중인 다른 비행기로 대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레이더의 운영이 중단되면, 그 소관 방공구역 일대는 방공 작전상 거의 마비되고 맹목 지역이 되고 만다. 적기는 이러한 허점을 뚫고 공격할 것이며, 고장 탐구 중, 혹은 수리 중에도, 적기의 기습이 감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레이더는 기계이니만큼 진공관이 터질 수도 있을 것이며, 회선이 절단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비 장병들은 혈안이 되어 사전의 고장 탐구와 예비 보호정비에 몰두하는 것이다. 방공 레이더 운영 정비는 시간적 여유란 있을 수 없으며, 즉각적인 고장 탐구, 수리, 회복은 충분한 교육 장시일을 통한 경험과 기지로서, 그리고 절실한 책임감과 열성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충분한 부속 자재와 우수한 정비 기술의 확보는 방공 작업 수행상의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중요 병기가 레이더이고 이 병기로서 직접적으로 방공작전을 운행하는 관제 장교나 경보 하사관들이 레이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응당한 일이나, 이 밖에 이들은 가장 광범한 작전과 정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반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피아 상황에 통달하여, 우군과 적의 항공기 성능을 주지하고 항법과 기상을 알고 공중 전법에 익숙하여, 소관 작전 구역 내의 모든 지형에 숙달하는 한편, 비행 부대, 고사포 부대, 구조 부대 및 인접 육, 해군 부대 상황 등을 잘 알아야만 한다.

보다 더 유효적절한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이들에 대한 상당한 장기 정보의 제공도 필요되며, 작전 전투 및 정보에 과하여는 특히,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 제반 규정에 통달하고 또한 가장 광범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M-레이더 스테이션에서 목표물을 포착했다. '지점, JH 4235, 고도, 3만 5천 척, 시속, 700마일, 방향은, WSW, 목표물은, 중형 제트 폭격기 2대인 듯하다. 이 TRACK은 사전 비행 계획이 없으며, 항로에서 이탈되어 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곧 이 TRACK을 추적 감시하면 이의 식별을 한다. 공중 상황 통제소와 민간 항공 관제국 혹은 인접 레이더 스테이션과 연락, 상호 협조한다. 곧 목표물은 적기로 판명된다. 점차 적기는 수도 서울에 접근하고 있으며, 적기에 대한 조그만 동태도 시시각각으로 보고된다. 이들은 상황판을 보고, A공군기지에 대기 태세에 있는 요격 전투기 2대를 곧 출동하게 한다. 모든 작전 행동은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수행된다. 이들은 출동한 우군기를 잡아서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지시하고, 이를 유도한다. 물론 적 침공기(侵攻機)를 요격하기 위해서이다. 수도 서울에는 벌써 공습경보가 발령되어 모든 중요 설비는 엄호되고, 시민은 대피완료 했을 것이다. 고사포 부대는 응시 사격 준비 완료 태세에 있음을 조금 전에 통고하여 왔다. 적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마일 선 외(절대 요격선 외)에서 격멸시켜야만 한다. 이들은 우군기가 속도를 증가하게 하며, 조종사는 이들이 관제하고 유도하는 대로만 비행한다. 우군기로부터의 적기의 위치는, 30도, 8마일, 아직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다. 전투 예상 공역의 기상 상황은 썩 좋지는 못하나, 3만 5천 척 상공에서의 전투 활동엔 지장이 없겠다. 이 고도에서 상층풍(上層風)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피아(彼我) 전투기 성능, 고도, 속도, 또 상층풍의 속도 방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정확 면밀(綿密)한 공격 전법을 결정하고, 또한 우군기가 태양을 등지고 적기의 측후방에서 공격하도록 유리하게 유도한다. 우군기에

접근하는 적의 전투기도 없다. 우측 5도 방향, 2마일, 드디어 조종사의 'TALLY-HO'하는 소리, 지금부터 공격 개시. 레이더 스코프를 응시(凝視)하며 잠시 대기한다. 다시 귀에 들어오는 조종사의 무전, '적 폭격기 2대 SPLASH.' 공격은 성공했다. 우군 전투기 피해는 전무하며, 이들은 어둡고 무더운 기밀실(암실(暗室)) 속에서 진땀을 흘린 얼굴로 환성을 올리는 것이다.

4. 레이더 사이트(RADAR SITE)

레이더 사이트는 대개 레이더의 특성이나, 지역 지형 등을 고려하여 고립된 고지나, 산간벽지, 혹은 해안 고촌 변에 위치하게 되며, 이것은 그 기밀 유지상으로 보아서도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외로운 지역에서는 외부와의 접촉 왕래는 극히 제약되며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같은 시도 부근에 주둔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바라기는 곤란하므로, 대개의 경우, AC&W 근무장병의 생활면에서의 입지 조건은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구 방공사령부에서는 이러한 고역(孤域)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생활환경 향상, 오락 위로시설 및 기타의 보조적인 설비를 위해 상당 액수의 예산이 특별히 인가 할당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레이더 사이트 근무 장병들은 거의 기밀실과 같은 암실 속에서 부단한 계속 근무를 하므로 그 건강에 대해 각별한 유의해야 하며, 환기가 여의치 못하고 태양 광선의 수사가 부족하고 암방(暗房) 속에서 레이더 사이트의 섬광선(閃光線)을 계속 응시해야 하므로, 뇌와 눈의 피로가 빨리 온다. 주야 분별없는 근무는 시간적

(129페이지 하단으로)

레이더의 역사(歷史)

공군 대위 박문기

국토방위에서 공중방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른 말이 필요치 않으며, 열핵무기 탄도유도탄 또는 급진적인 항공기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공중방어의 중요성을 가일층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공중방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AC&W 부대의 주 장비이자 현대 3대 무기 중의 하나인 전자무기의 정수(精髓)인 레이더의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고, 동시에 그의 기본 원리를 피상적으로나마 현대인의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다.

1. 태평양(太平洋)에 등장(登場)한 괴물(怪物)

1942년 11월 14일 저녁 늦게 미국의 전함이 솔로몬 군도 근처의 남태평양 부근을 순항하고 있었다. 그 군함은 상부 구조상에 계속적으로 회전하는 한 개의 그물(網)이 장치되어 있는 이외는, 함대의 다른 어떤 배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과달카날[83]을 탈환하기 위한 해전은 거의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었으며 그 섬에 일본군의 증원대가 상륙하는 것을 저지할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미국 측에 크게 유리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전하던 그물은 회전을 중지하고, 좌우로 돌리는 동시에, 거대한 16인치 함포는 좌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물이 중지한 지 15초 만에 갑자기 함포는 진흑(眞黑)의 어두움 속에서 포성을 울리고 불빛과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전함 주변은 불빛으로 어두움을 깨뜨려 버렸다. 과달카날을 탈환하기 위한 결전은 드디어 개시되었으나 함상의 누구 한 사람도 육안으로서는 그들의 적을 볼 수가 없었다. 바로 그 다음 일제(一齊) 포격(砲擊)은 명중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 일본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비참함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그 경이적인 승리는 레이더라고 불리는 전자장비의 발달에 귀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는 제2차 대전 중 광범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최단기간에 완성에 도달한 가장 혁신적인 단일무기였다. 이 중요한 무기는 수많은 역사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길을 남몰래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합군의 적 역시 그와 유사한 장비, 즉 전파 탐지기라는 것을 갖고는 있었지만, 연합군의 고위 군사 지휘자들은 그 신예무기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켰고, 사용 범위를 그 당시로는 최대한으로 확대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연합군의 레이더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은 전쟁의 결과 및 전후

83) Guadalcanal

에 양측의 레이더의 비교로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2. 레이더의 명칭(名稱)

1943년 4월 25일 미국의 육군 및 해군은 공동으로 전파탐지 측정 장치(RADIO DETECTING AND RANGING DEVICE)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그 장비에(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라고 해군 식 약호 명칭을 붙였다.

레이더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 연구 및 실현은 그 공표한 1943년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이 그러했던 바와 같이, 이 레이더도 역시 그 위대한 발견과 발견자는 미 국방성 및 해군성의 조롱거리였으며, 그들은 그러한 조소(嘲笑)나 불신에 개의치 않고 아무런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싸우고 구걸하고 차용하고 해서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레이더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3. 선구자(先驅者) 및 레이더 발달(發達)의 초기(初期)

초기의 연구에서의 중심인물로서는 한 때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였던 알버트 호이트 테일러 박사를 들 수 있다. 테일러 박사를 수반으로 하여 그의 동료인 레오 씨, 영 씨, 루이스 A. 게하드 씨 등은 통신 공학을 연구할 목적으로 5대호 해군 기지로 배속을 받게 되었다. 이때가 바로 제1차 대전 중인 1917년이었다.

1921년에는 그들은 라디오 방송에 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포토맥 강의 버지니아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당시로서는 가장 새로운 단파(短波)에 관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데 시초부터 그들은 송수신을 할 때 여러 번 신호가 왜곡되거나 불명료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방해 현상의 원인을 널리 조사한 결과 선박이 강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야기된다는 결론을 맺었다. 이것이야말로 발견이었다. 라디오가 거의 40년 전에 발명된 이래로 큰 산이나 큰 건물이 전파를 굴절시킨다는 사실은 이목을 끌고 있었지만, 선박과 같은 작은 목표물이 그와 같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포토맥 강에서의 소발견 이후로 바로 그것이 타인에 의해 인정만 되었던들 오늘날의 레이더가 더욱 빨리 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이 발견이 실증되었을 때 해상에서 구축함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는 이 생각이 무기로서는 너무나 공상적이라고 인정되어 군 고위층의 누구 한 사람도 그 실험에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는 완전히 좌절되어 버렸으나 그들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때까지는 상부의 인식을 변경시키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초지일관하여 연구에 전념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25년에서 1930년 사이에 카네기 연구소에서는 펄스(Pulse; 맥동파) 송신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순수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게하드[84]박사는 카네기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최초로 펄스 원리를 이용하는 무선 송신기를 발달시켰다. 주파수가 높은 무선파로서 펄스 동작 원리를 이용하여 뒤돌아오는 신호 즉 에코(반향신호)[85]를. 수신 장비를 공백시키지 않고 펄스 노력이 발사되어 공간으로 나가 전리층(전기지붕)에 부딪혀 다음 펄스가 발사되기 전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펄스의 송신된 시간과 펄스의 속도를 알아내 전리층(電離層)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7년에 서부 전기회사의 매슈 베이치 쉬벤크 씨는 오늘날의 레이더의 펄스에 매우 유사한 전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증폭시키고 또한 펄스 폭을 좁히는 방법을 발달시켰으며, 또 이러한 방법을 과학 잡지를 통해 세계에 공표하여 해외 열강들이'전파탐지기'를 발달시키도록 하는 데 큰 자극이 되었다. 이때에 이르기까지 테일러[86] 박사 및 그의 동료들은 해상에서 함선을 탐지하는 한 수단으로서의 레이더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오직 해군의 실제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하일랜드[87]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테일러 박사의 연구팀에 가담했으며, 1930년 6월 24일에는 그들이 레이더에 관한 연구를 착수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발견을 테일러, 영[88] 그리고 하일랜드 3자 공동으로 성취하고야 말았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그들은 워싱턴의 볼링 비행장에서 단파를 이용한 항공기 맹목(盲目) 착륙방법에 관한 연구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영 씨는 송신기를, 하이랜드 씨는 수신기를 각각 담당하여 작동시켜보고 있었다. 하이랜드 씨는 주기적인 방해상이 야기됨으로 해서 그 실험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치 및 주변의 지형을 조사해 보았으나 아무런 결함을 발현치 못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그 방해 현상이 항공기가 그 라디오의 빔(전파속(電波束))을 통과할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의 AC&W에 관한 기본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그 두 분이 비행 중의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었고, 또한 전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항공기 자체가 자랑하는 극히 놀라운 점을 엄격히 제한하는 발견인 동시에, 항공기의 발명 이래로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전술적인 진보였던 것이다.

이 방면에 관한 목표물로부터 뒤돌아오는 '라디오 에코'라는 제목 하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되었을 때, 공무국 무선과(無線課)에서는 그 보고서를 2개월간이나 조사 숙의한 끝에 이 분야의 연구를 광범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

---

84) Dr. Louis A. Gebhard
85) Echo
86) A. Hoyt Taylor
87) Lawrence A. Hyland
88) Leo C. Young

더욱 광범하고 시급을 요하는 그 연구를 담당한 사람은 미네소타 주의 세인트 폴에 있는 햄린 대학[89] 출신 한 청년 로버트 M. 패이지[90] 씨였는데 이 청년이야말로 지금의 레이더에 대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공헌한 바가 크다고 공인되어 있다. 그는 연구 조수로서 로버트 C. 거트리[91] 씨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레이더에 관해 10년 이상이나 연구에 종사해 온 사람이었다. 이들은 레이더 박사 및 그의 동료가 수집해 둔 모든 지식을 기초로 하여 실험을 개시했는데, 그들은 이미 기본 원리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실용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는 데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표물이 반점으로서 나타나면 거리와 방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을 해야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바와 같은 레이더에 비한다면 수많은 제한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더욱이 어떤 목표물을 포착하여 그것의 거리와 방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을 하는 동안 그 목표물은 계산의 결과가 아무런 가치도 없으리만큼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방법을 개량하여 레이더 자신이 계산을 하게하고, 목표물의 위치를 레이더의 표시기에서 직접 읽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장치의 크기에 관한 것이었다. 주파수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매우 큰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특히 함선(艦船)에서는 장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각 방향으로 지향하는 여러 개의 분리된 안테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 공격이라도 능히 알 수 있게 회전하는 한 개의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리하여 몇 개월 간 실험을 해 본 결과 테일러 박사에 아무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패이지 씨는 6개월 이내로 실용적인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모든 계획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하지만 5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패이지 씨는 실용적인 것을 완성하여 먼 곳에 있는 목표물을 잡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만들어냈다. 당시에 먼 곳이라는 것은 겨우 5마일을 넘는 정도였지만 – 이것이야말로 패이지 씨를 제외한 다른 과학자들에게는 전자공학을 발달시키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그 장치는 드디어 국회의 여러 관계자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그들에게 크게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까지 얻게 되어 수개월 후에는 유효 거리가 14마일을 넘을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국회 및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레이더를 구경함으로써 더욱 많은 연구 자금을 충당해 주고 여러 레이더 연구가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기는 했다. 하지만 그 연구 사업이 제2차 대전 중 가장 잘 비밀을 지켰던 것 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높이 칭찬받을 일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안테나나 레이더 전체의 크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작동 주파수가 높아야 하는데, 이 극초단파 이상의 주파수를 발진시키려면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진공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하지만 1940년에

89) Hamline University
90) Robert Morris Page
91) Robert C. Guthrie

이르러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공통 마그네트론[92]이라는 특수한 발진관(發振管), 즉 매우 높은 주파수를 발진해낼 수 있고 매우 높은 전압에도 견디어낼 수 있으며 매우 높은 전압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해냈다. 그 후로 미 영 합작으로 실전용 레이더 출현에 진력하게 되어 오늘날에 볼 수 있듯이 회전하는 한 개의 안테나와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는 소형 레이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극히 중요하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2차 대전 중 미 영 양국 간의 유대가 공고했다는 사항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레이더가 발달하기 시작한 기초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의 제작과 그것을 운용할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진보도 수년간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계속하여 진보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적의 위압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간난(艱難)을 무릅쓰고 레이더 연구에 헌신한 선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영국(英國)에서의 전쟁(戰爭)

새로운 무기의 가장 위대한 실험의 한 가지로서 영국에서의 전쟁에서 비로소 레이더를 실제 전쟁에서 실험해 보게 되었다. 때는 1940년에서 1941년에 이르는 사이에 독일 공군은 런던을 폭격했고 영국의 주요 도시는 모조리 파괴되어 거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독일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조종사는 이를 갈면서 용감무쌍하게 싸웠으나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영국 국민은 언제 다른 죽음의 비가 내릴 줄을 전혀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24시간 영국 해안선을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예방법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으며, 더욱이 휘발유의 고갈과 조종사의 과로는 물론 항공기의 손실의 격증(激增)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영국은 드디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움켜쥔다는 식으로 레이더를 사용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레이더를 영국 해안선에 배치하여 영국 본토를 전파로서 망을 쳐놓는 한편, 항공기를 지상에서 출격명령을 받도록 대기시켜 두었다. 이리하여 독일 항공기는 해안선 밖으로 멀리, 해상에서 또는 대부분 유럽 대륙 상공에서 레이더에 의해서 스코프 상에 포착되었으며, 스피트파이어 영국 전투기는 명령을 받아 즉시 출격하여 해안선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기와 조우(遭遇)했으며, 이러한 작전은 야간에도 계속되었다. 심지어는 항공기 자체에 레이더를 설치함으로써 죽음을 각오한 야간 전투기의 출현을 보게 되었으며, 독일 공군의 후방은 여지없이 교란되었다.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범자 재판에서 공군사령관 헤르만 괴링[93] 자신의 말에 의

92) magnetron
93) Hermann Göring

하면 "독일 공군을 패배하게 하고 영국에서의 전쟁을 대승의 전환기로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단 하나의 군사 무기는 연합군의 발달된 레이더였다."고.

5. 진주만(眞珠灣)

영국의, 그 조그마한 섬을 수비하기 위한 큰 전쟁에서 실증된 바가 있는 후에도 미국의 여러 군사 지도자들은 이 새롭고 모든 것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한 증명은 1941년 12월 8일에 미국 국민에 크게 감명을 주고야 말았다.

그날은 바로 진주만에 대해 일본군이 불의의 공격을 가한 날이며, 우리들이 일찍이 미증유(未曾有)의 대(大)전쟁으로 몰아넣은 첫 날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다. 만약 그 당시에 영국에서 레이더라는 것을 신뢰했더라면 진주만에 대한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주만 해군 기지에서 내려다보이는 오아후[94] 섬에 위치한 외로운 전초에서 록 하드라는 공군 이등병이 섬을 향해 비행하는 항공기의 편대를 레이더에서 포착했다. 그때가 바로 오전 9시 3분이었다. 그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상관에게 보고했으나 그 상관은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군기로 오인했기 때문에 아무런 요격활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진주만은 30분 후에 맹격을 당하여 태평양 함대는 병신이 되어 버리고 수많은 귀중한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고야 말았다. 여러 각도로 생각건대 만약 일본군이 그 공습에 뒤이어 계속해서 그 섬을 공격했더라면 그들은 그 섬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대전의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제2차 대전 중 레이더가 전쟁의 판국을 전환시킨 실례(實例)는 허다하며, 더욱이 전쟁의 판국을 쓰디 쓴 패배에서 적을 참혹한 퇴각으로 몰아넣어 연합군의 빛나는 승리로 전환시킨 수많은 예가 얼마든지 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고 그동안 새로운 무기가 우리들의 상상을 앞서서 속출하는 오늘날에 듣는 바에 의하면, 제2차 대전 중에 사용하던 수많은 무기가 시대의 유물이 되어 구경거리로서 진열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달리 레이더만은 나날이 발달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우리가 6.25 전란을 통해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대 후퇴는 했었지만,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덕분에 무난히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물론 다른 모든 조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공권의 완전장악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가능하지만, 그중에서도 레이더의 힘이 컸다는 사실을 감히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휴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밤도 눈을 감고 다리를 길게 뻗고 베개를 높이고 쉴 수 있는 것도 소리 없이, 혹은 고지에서 혹은 벽지(僻地)에서 2,300마일 밖을 8방으로 감시해 주는 레이더의 덕분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레이더 선구자들의 위대한 노고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원자시대니 무인비행기의 유도탄이니 야단법석을 하고, 레이더 발달의 부진을 우려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새 시대에 적응하는 우리가 상상하기 곤란하리만큼 새로운 레이더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결코 일종의 망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희구하는 동시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확신하면서 끝을 맺는다. 끝.

94) Oahu

진기(珍奇)한 소송사건(訴訟事件) ②

미국 조지아 주에서 일어난 일. 어느 부부는 그들의 1년 6개월 된 어린 아들이 열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 부부는 비단 그 어린애의 죽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린애가 생전에 집에서 해온 '귀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서비스란 심부름을 해 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갓난애를 돌보아주는 일 등등이었다고.

영국에서 일어난 일. 한 신부(新婦)가 결혼식에 참석한 어느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인즉 – 그 손님은 결혼식이 끝난 뒤에 자기에게 쌀을 뿌려 놀라게 했기 때문이라고.

독일에서 일어난 일. 한 환자가 외과 의사를 걸어 고소했다. 그 이유인즉 – 의사가 절단한 자기의 다리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일어난 일. 어느 사팔뜨기 사업가가 미술가를 걸어 고소했다. 그 이유인즉 – 자기의 초상화를 완성했는데 그 사팔뜨기 눈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이라고.

미국 켄터키 주에서 일어난 일. 한 운전수가 보행자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 이유인즉 – 자기 자동차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 노발대발한 어느 어머니가 학교 선생을 걸어 고소했다. 그 이유인 즉 – 자기 아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신기(神奇)한 메아리

안내인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피서지를 구경시켜 주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여서 두 사람은 굉장히 경사진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의 잔디밭 위에 앉아서 쉬기로 했다.

"이곳은 신기하게 메아리 소리가 울리는 곳이랍니다."

하고 안내인이 설명했다. "어디 내가 한 번 소리쳐 볼 테니 들어보세요. 맥주 두 병!"

그러나 아무런 메아리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손님이 물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랬더니 안내인 대답하기를 –

"글쎄올시다! 여하튼 그 대신 호텔 바텐더가 맥주 두 병을 가져올 겝니다."

미(美) 남북전쟁(南北戰爭) 시(時)의 두 장군(將軍)

그랜트 장군(將軍)과 리 장군(將軍)

조효원(趙孝源)

(1)

자유와 행복을 찾아 신세계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영국 식민지의 굴레를 벗기 위한 독립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되었음은, 그들의 불굴한 개척 정신과 경건(敬虔)한 청교도적 정신에 기초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 신세계에 발전의 호기와 번영의 영광만이 충만했었던 것은 아니며, 퇴보와 분열의 요소도 아울러 여기에 찾아 볼 수 있었다. 국민의 이질성과 경제적 이익의 대립, 그리고 흑인에 대한 대우의 차별 등이 한데 어울려 급기야는 골육상쟁의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초래했다. 1861년 4월 12일 새벽 찰스톤 항의 섬터 요새[95]에서 남군의 대포 소리와 함께 싸움이 시작되어, 1865년 4월 9일 버지니아 주 아포마톡스[96]에서 리[97]장군의 항복이 있기까지 그것은 만 4년간의 싸움이었다.

북군은 총인구 2천 2백만을 가진 23개 주의 후원을 받는 반면에, 남군은 총인구 900만에 흑인 350만을 가진 11개 주의 지원을 받았다. 링컨 대통령을 지휘자로 하는 북부 연합은, 제퍼슨 데이비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남부 연방에 비해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북부 연합은 공업이 발달했으므로 부력, 공장, 재정, 조선 등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남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남부는 식량, 육류, 설탕, 그리고 연초(煙草)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북군에 의한 해안 봉쇄에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남부 연방도 유리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국가들이 언제나 가지는 것과 같은 사기의 자극제(刺戟劑)를 가졌다. 대부분 순박(淳朴)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도시의 깍쟁이에 비하여 군무에 기꺼이 종사했다. 그리고, 남부군의 지도관들은 북부군의 지휘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능하고 훈련된 장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양 편에는 서로 유리점을 가지고 필승을 위해 싸웠으나, 이 싸움을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미합중국의 존속이냐 아니면 분열이냐의 싸움이었고, 노예의 해방이냐 아니면 노예의 혹사이냐를 건 내란이었다. 남부의 주민들은 그들의 곡물을 수입했던 영국과 기타 다른 나라의 후원을 기대했으나, 당시의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남북전쟁에 손을 대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취했다.

이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인하여 합중국의 분열을 위기에서 구했고 자유와 평등의 정의를 연장하여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기하게 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남부에 싹트려던 귀족주의적 과두정치를 분쇄했다. 이러한 공이 있는 반면에 이 내란은 국가의 사회적 도덕적 성격에 불행한 영향(影響)을 초래했다. 이 전쟁은 금력과 권력을 갈망하고, 기질이 비천하며, 취미가 고상하지 못하여 행동에 절개가 없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했다. 물론 미국인들 대부분은 근면하고 양심적이며 애국적인 기질을 그대로 간직했다고 하지만, 이 골육상쟁인 내란으로 인하여 저열하고 파렴치하며 탐욕적인 요소가 전례 없이 매우 현저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어떠한 전쟁이든지 승리를 거두기 위해는 유능한 지위자, 병사의 사기, 공급물자의 풍부, 국민의 협조 그리고 기타 여러 요소에 있어서 상대편보다 우세해야 한다. 무명전사의 선혈이 지휘자의 영예와 훈장에 빛과 보람을 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명전사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북군의 지휘관 율리시스 S. 그랜트[98] 장군과 남군의 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하여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마지막 2년간 양 장군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장단점을 밝혀 보려고 한다.

(2)

북부군의 총 지휘관 그랜트 장군에 대해 가해지는 큰 비난은 그는 자기 부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인백정'(人白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이 널리 퍼졌다고 하지만 뚜렷한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랜트는 그 당시의 다른 모든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전한 보루 속에 숨어서 행동하는 정병(精兵)의 발사 정지력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랜트는 최후의 결전에 이르기까지 보루의 공폭(攻爆)을 퍽 삼갔다. 그는 스폿실바니아 전투[99]에서

"만일 온 여름이 걸릴지라도 이 전투에서 결판을 내겠다." 고 선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어떤 비평가는 그를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사태를 조성하여 놓고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라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노스 안나 강으로의 접근과 파먼키 강의 도강, 제

95) Fort Sumter
96) Appomattox
97) Robert Edward Lee
98) Ulysses S. Grant
99) Battle of Spotsylvania Court House

임스 강의 도강에서 증명되었다. 그랜트의 최근 전기자(傳記者)는 그랜트는

"멸시받아도 어쩔 수 없는 실패를 저질렀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피터스버그[100]를 눈앞에 두고 9개월간이나 정지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이 또한 그랜트로 하여금 좋은 평을 듣지 못하게 했다. 이 정지 상태를 위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즉 초여름에는 피터스버그의 후면을 맡고 있는 우군에 대한 공격력의 불신과, 초가을에는 워싱턴에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병력의 부족을 이유로 시티 포인트에서 보루만 공고히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사람들은 리 장군이 이와 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그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랜트 장군이 '시기의 요소'에 대한 진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에 속한다. 1864년의 시기는 남군에게 유리했으나, 피터스버그를 점령한 후에야 그랜트는 이를 깨달았고, 1865의 시기는 북군에게 유리했으나 그는 셔먼[101] 장군이 합동작전의 준비를 끝내기 전까지 제자리에서 꼼짝도 않았다. 즉 1864년이 1865년보다 그 시기에 있어서 더욱 모험성이 많았는데 그랜트는 이와 반대로 생각했다. 그랜트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겠으나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리 장군을 두려워한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랜트가 지휘관으로서 갖추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은 착상의 광범성과 목표의 단순성이었다고 한다. 그는 시종일관 남부군을 서서히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남으로부터 셔먼 장군과 서남으로부터 토머스 장군의 지원을 받기 전, 11시간이나 조바심을 쳤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의 명예에 관한 것이 된다. 즉 이 사실이 그는 무엇보다도 융통성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며, 비록 자기가 신중히 검토한 계획과는 다르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기회를 포착하려고 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셔먼이 그랜트의 지휘 하에 있었다면 셔먼의 행동을 고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그랜트가 세리든[102]에게 보낸 "지금 모든 것은 끝난 것 같다."는 말은 로마의 카이사르 장군의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과 더불어 전쟁사의 가장 위대한 말이 될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나 자기의 부하에게 영웅이란 말을 듣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어떤 장군이든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직속 부하에게 영웅이란 존경을 받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하가 좋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랜트

100) Petersburg
101) William Tecumseh Sherman
102) Philip Henry Sheridan

의 휘하(麾下)에 있던 미드[103] 장군은 그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했다.

"그랜트 장군은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아무리 곤경에 처해도 실망하지 않는 낙관자이다." 그는 위대한 천재는 아니지만 훌륭한 군인이며, 인격의 고상한 요소 중 정직성, 고결성, 그리고 특히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참모는 그랜트 장군의 인물을 평하여 '진실, 용기, 겸손, 관대, 충성'을 구비한 인격자라고 했다.

이상의 두 견해로 미루어 보아 그랜트 장군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군사적 견지에서 그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적의 주력군을 분쇄함에 있다고 보는 그의 이해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주된 목표는 적군을 정복함" 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옳은 것이며, 그랜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승리에의 첩경도 없고, 전투에서 우군의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길도 없다. 교전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임전에는 용단이 요구된다.

공격 준비를 도운 것은 세만 장군이었고, 최후의 일격을 가한 사람은 그랜트 장군이었다.

(3)

남군의 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은 어떠한 인물인가를 보기로 한다. 그를 악평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그는 '큰 전략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출신지인 버지니아 주만을 방어하려고 했지 다른 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R. S. 헨리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로버트 E. 리에게 물어 보아도 그가 지킬 국가는 버지니아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는 아마 리에게는 야망이 없었고 그의 지도권을 다른 주에게까지 뻗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말도 해석될 것이다. "나만이 이 조국을 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한 자기 존대증(尊大症)은 리 장군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발휘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그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까지는 야망이 없다는 데서 나온 생각일 것이다. 그는 자기 부하인 데이비스[104]에게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로, 그는 무능한 부하를 취급하면서도 너무 친절했다는 것이다. 넷째로, 행정가로서의 실패를 범했다고 한다.

103) George Gordon Meade
104) Jefferson Finis Davis

전술가로서 리 장군이 갖추고 있는 장점은 모험을 좋아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용단성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작전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행동의 위험성과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적극적 손실 성과를 식별해야 한다." 리 장군은 와일드니스 전투에서 그랜트 장군을 공격했을 때 그의 용단성을 보여 주었다.

리 장군은 수세보다도 공세에 유익함이 있다고 믿었고, 오로지 방어의 태세만을 취한 전투는 하지 않았다. 전쟁의 마지막 고비까지 그는 공세를 취했다. 그는 인품이 원만했으므로 대인관계에서 대등자의 오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장군으로서의 존경을 받은 것은 언제나 그의 인격의 위엄 때문이었다. 롱스트리트를 제외하고 그의 직속 부하들은 모두 그에게 최대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패군지장으로 아포마톡스에서 그랜트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에 대한 존경의 념(念)이 변하지는 않았다. 모리스 장군은 리 장군을 평하여

"개선장군이 국민의 열렬한 환호의 아우성 속에 귀환하는 일은 많지만, 패군지장으로서 환호의 소리 속에 귀환한 일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다." 그와 적대시했던 북군의 장군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에 임하여 주의 깊고, 도량이 넓으며, 대담했고, 벼락불 치는 기질을 가진 그는 필승의 신념을 가졌지만 할 수 없이 패전했고, 패전은 했지만 그는 위대했다." 미국인이 아닌 울스레이 경(卿)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나의 일생에 오직 두 영웅을 보았는데 R. E. 리 장군이 그 중 한 분이다……나는 북부인의 노기가 사라지는 날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존경을 받으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의 말을 빌려보기로 한다.

"남부인(南部人)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그 가장 큰 요인은 로버트 E. 리였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인물평이란 각각 상이한 것이지만, 리 장군이 존경을 받는 군사 지도자였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필자(筆者)는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교수(校敎)>

베스트 골프 (3)

(Your Best Golf)

토미 아머 저(著)

제6장 그립(grip)은 스윙(swing)까지도 쥔다.

어떻게 훌륭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를 결정하는 것은, 첫째로 클럽을 쥐는 방법이다.

사람과 클럽과의 결부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게 샷을 할 기회가 전무(全無)하다.

골퍼 중에는 오랫동안 무익한 연습에서 자기만의 나쁜 그립으로 아주 숙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 엑스퍼트(전문가)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독특한 그립을 고안한 사람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외의 경우로서 그 이외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와 클럽을 육체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확실히 결부시키는 '쥐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기회를 상실하고, 큰 진보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자기의 스윙을 그르치고 있는 결함을 탄하여 오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어떤 때는 그들은 자기가 그 고장의 진단을 하고 있다.

이 진단은 이것저것 모두 같은 분석이나 지도의 능력이 없는 동료들이 클럽의 술집 같은데 모여 그 증상에 관해서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나온 것을 매우 복잡한 진단이다.

이들 환자 중에는 자기의 스윙의 어떤 곳이 나쁜가를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자기로서 나쁜 곳을 알고 있으면, 구태여 나에게 와서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 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그들은 모르는 상 싶다.

나는 대체로 그러한 경우, 고장의 원인은 그립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의 어떤 요소도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이 상태는 자동차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

만약 다른 것이 모두 좋아도 동력 전환 장치가 좋지 못하면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그 결부가 정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손목, 팔, 어깨, 몸뚱이, 그리고 발(足)의 각 부분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다.

<훌륭한 골프의 기초적(基礎的) 요소는 그립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기타의 동작은 스스로 정확하게 따르게 될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생도에게 가장 빠르게 숙달시키기에는 볼을 칠 때 연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도록 클럽을 쥐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클럽을 정확하게 쥐기에는 샤프트를 좌우의 손가락들이 손바닥(장(掌))과 서로 닿는 곳에 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그립을 꼭 쥔다.

<비결은 좌우의 소지(小指)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음의 두 손가락도 자연 꽉 쥐게 된다.>

좌우의 엄지손가락은 그립의 우측에 붙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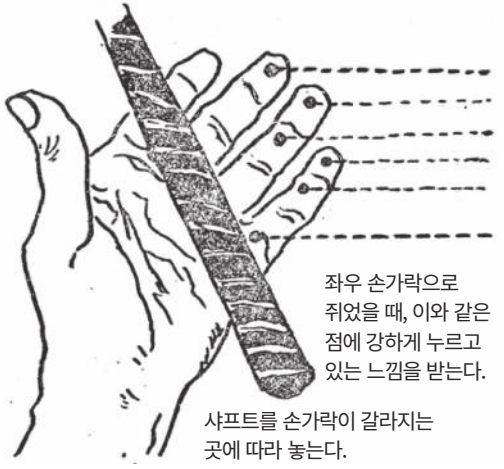
좌우의 그립에서 흔히 틀리는 것은 샤프트를 식지(食指)[집게손가락]와 장지(長指)[엄지손가락]가 갈라지는 곳부터 손바닥의 꺾기는 선에 기울어지도록 손바닥에 가로질러 놓는 것이다.

샤프트를 좌우 손가락이 붙은 곳에서 그것을 꼭 쥘 것 같으면 그립은 장종(掌踵;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곳)쪽으로 조금 눌린다. 그리고 그립의 좌식지에 대한 원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최초에 정확하게 놓는다는 것은 손바닥을 비스듬하게 가로질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좌우의 그립에 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그것을 손가락이 서로 갈라지는 짬 사이에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다.

좌우를 샤프트의 위에 놓는 위치는 반드시 우측에 덮어씌우는 기분으로 엄지와 집게손가락이 만드는 V자는 오른쪽 어깨(우견(右肩)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일러오는 충고인데 오늘날에도 최량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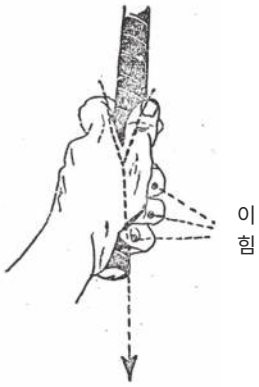
좌우 손가락으로 쥐었을 때, 이와 같은 점에 강하게 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샤프트를 손가락이 갈라지는 곳에 따라 놓는다.

오른손의 그립은 네 개의 손가락을 꼬부렸을 때 생기는 틈바구니에 샤프트를 통하게 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밑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꽉 붙도록 한다.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은 왼손의 집게손가락 위에 올려놓든가, 집게손가락의 관절에 꼬부려 맨다.

왼손의 그립(Grip)



이 세 손가락을 힘 있게 쥔다.

대지와 식지의 V자는 오른쪽 어깨 쪽을 향한다.

오른손의 새끼손가락 위치는 이 어떤 경우로 해도 좋다. 편하고 좋은 대로 하면 된다.

오른손은 샤프트의 위 정면보다 약간 우측으로 둔다.

오른손 엄지는 샤프트의 좌측에 자연적인 위치에 있다. 오른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은 편하게 가능한 한 근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립에 있어서 오른손의 이 두 손가락의 어울림은 타력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두 손가락의 어울림으로서 클럽을 전속력으로 위프(whip)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른손의 그립은 좌우의 그것의 약 반분의 압력을 쥔다.

양손은 밀접하게 협동해서 동작을 해야만 한다. 왼손의 조정, 오른손의 힘이라는 필수의 요소를 상호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활동하지 않는 한, 손의 동작은 실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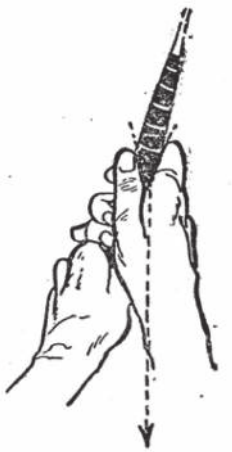
계획적으로 후크(hook)나 슬라이스(slice)를 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샷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그립과 스탠스(stance)를 조합시키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

슬라이스의 경향을 줄이기 위해 오른손을 샤프트의 하방에 돌려서 쥔다는 것은 과오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만성적인 슬라이스를 하는 사람은 때로는 권고되었던(나로부터가 아니라) 방법이다. 반대로 후크의 경향을 없애는 데는 오른손을 샤프트의 상방에 돌려 쥐면 좋을 때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은 왼손의 그립을 강하게 하여 오른손의 전력을 받아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물을 단순하게, 그리고 직접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은 골프에서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이다.

클립에 관해서 항상 탐구하고 체득해야 할 것은 힘과 컨트롤의 최고 효율을 내는 것이다. 클럽 페이스(club-face)는 볼이 클럽 헤드(club-head)를 떠날 때까지 항상 스윙의 궤도와 정확한 일선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클럽 페이스가 그 정확한 위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가장 중대한, 가장 범하기 쉬운 과실(過失)은 스윙의 탑(top)에서 일어난다.>

양손의 그립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의 V자도 우측 어깨 쪽을 향한다. 오른손의 식지는 히팅(hitting)에서 가장 힘이 들어가도록 샤프트의 횡측(橫側)에 댄다. 두 손은 상호 꼭 붙어서 같이 움직인다. 오른손의 그립의 강함은 왼손의 그것의 반 정도.

클럽을 꽉 쥐는 것과, 클럽을 스윙의 톱에서 늦추지 않는 것의 상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전문가는 별도로 하고 – 대단히 적다. 어드레스에서 클럽을 힘들고 딱딱하게 쥐는 사람을 보면 99퍼센트가 왼손의 나머지 세 가락의 딱딱한 그립을 스윙의 탑에서 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다운스윙(down swing)때에 클럽의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드레스(address)의 경우(境遇)에는 클럽을 강인하게 꽉 쥐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꼭 쥐는 것이 대단(大端)히 좋은 – 필수의 – 생각이다.>

클럽을 쥐는데 이와 같은 농간으로서 스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좋다. 좌우의 나머지 세 가락으로서 클럽을 꼭 쥔다. 오른손의 그립은 늦추고 백스윙(back swing)과 다운스윙(down swing)의 초기 간에는 결코 강하게 하지 않는다. 임팩트(impact)의 직전과 그 순간에 오른손의 그립이 강하게 된다. 그때 강하게 하는 동작은 자연적인 것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정확한 타이밍(timing)으로서 행하여진다. 이 동작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서 행하여지므로 두 손의 근육의 힘을 생각해서 사용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전문가들은 인터로킹 그립(inter locking-grip)을 쓰고 있다. 이것은 오른손의 소지를 왼손의 검지에 교우하는 악법(握法)이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오버래핑 그립(overlapping-grip)의 사용을 권한다. 이것은 헤리 바든[105]의 이름을 따 '바든 그립'이라고도 칭한다. 이 유명한 선수는 이 그립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전영 선수권을 6개, 전미 오픈, 기타의 우승 기록을 통해 이 방법을 보급시켰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의 그립도 있다. 그들은 상당한 연습과 실전으로서의 힘과 컨트롤의 변칙적인 조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른 그립으로서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식이 아닌 방법은 통례로는 헛된 실험의 대상이 될 뿐, 실험하는 사람도 결국은 먼저 것이 좋았다고 깨닫기 때문에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105) Harry Vardon

<그림 설명(說明)>

스윙의 탑에서의 정확한 오른손의 그립. 남은 세 손가락이 어떻게 힘 있게 그립을 쥐고 있는가에 주의하라. 이것은 절대불가결한 것으로서 결코 이완(弛緩)시켜서는 안 된다.

<그림 설명(說明)>

왼손의 그립이 이완되어 있다. 이것은 스윙의 탑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과오이다. 이 때문에 탑에서부터 그냥 힘을 들여 치려고 하고, 그것도 두 손으로서가 아니라. 자체가 치려고 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슬라이스, 후크, 탑, 더프(duff) 등 여러 가지 얼토당토않은 일을 초래한다.

표준적인 기량의 예외로서 때때로 유능한 선수가 사용하는 것은 에버리지 골퍼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위험스러운 예외의 그립을 사용하면 나쁘다는 것을 넘어서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세상에는 우수한 손의 동작을 할 수 없으면서도 일류의 골퍼인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자기의 손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그립을 할 수 없으면 훌륭한 손의 동작은 명백히 할 수 없다.

<골프는 양손(兩手)으로 하는 게임이다. 왼손은 클럽을 인도(引導)하고, 클럽 페이스(club face)를 타격에 필요한 위치에 유지(維持)한다. 그리하여 타력(打力)은 오른손과 클럽과의 결부(結付)에서 생겨난다.>

양손은 가능한 한의 지레 작용, 정확성, 및 속도를 얻기 위해서 항상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샷은 언제나 오른손으로서 위프(wip)하는 마음의 준비(準備)를 갖는다.>

<이것은 '불가결'의 것이다.>

샷을 하는 경우에 오른손으로서 위프하는데 반대하는 의논을 들었을 때는 그 근거는 오류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틀림이 없다.

오른손에 관해서 조심해서 연습해야 할 것은 오른손 검지가 손바닥에 제일 가까운 부분을 히팅할 때 확실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오른손의 그립이 검지와 엄지와의 사이에 확실하게 있는 사실이 빠르고 강한 위프를 하기 위한 완전한 상태이다.

왼손의 위치나 작용이 혹시 불가결하게 보이는 것은, 왼손은 오른손처럼 손에

오버래핑 그림프(Overlapping Grip)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검지의 돌출할 관절에 감아 붙인다.

띄는 데가 없고, 특수한 주의를 끌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실에 의하는 것이다.

왼손이 만약에 정당하게 클럽의 컨트롤을 보지(保持)하고 있다면 핸디(handy)가 많은 사람의 통폐 – 즉 손의 동작을 너무 서둘러 쓴다는 실패 – 에 고심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실패는 다운스윙(down swing)이 시작하는 거의 직후에 손목을 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볼에 대한 강력한 위프의 동작 대신에 막대기처럼 딱딱한 팔의 눌림이 가해지는 것이 된다.

독자는 아마도 전문가의 빠른 동작에서 그 손목의 코크(cock) 회복하기 전에 양손이 볼 위에 와 있든가 혹은 그것을 약간 넘어서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에서 이 전문가들의 동작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어떻게 오른손으로서 정확하게 위프를 하고 있는가 – 이것은 중급 정도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늦다 –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립이 정확하면 오른손을 움직임이 빠르다는 경향은 없을 것이다. 스윙의 탑에서부터 그냥 오른손을 내던진다는 것은 왼손의 그립이 이완되고, 오른손의 힘과 컨트롤을 대신하려는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하려고 서두르게 된다.

클럽이 공에 가까워질수록 오른손을 활용해야 할 필요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양 어깨, 허리, 풋워크(foot work)가 손의 동작과 동조해지는지에 놀란 것이다.

스윙의 세부에 관해서는 또 하나의 손목의 코크(cock)라는 것이 있는데, 그립이 정확하면 그다지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백스윙(back swing)의 경우에 왼손의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정확한 그립을 하고 있으면 스윙의 톱에서는 손목은 편하게 콕크한다. 더욱 콕크는 샤프트의 밑에서 거의 수평면에 가까운 정확한 것이 된다.

왼손이 반 뱀 – 그립으로 되어있으면 손목을 정확하게 콕크하여 클럽의 컨트롤을 보지할 수 없게 된다.

클럽 헤드(clubhead)가 볼에 가까워 왔을 때 손목의 콕크를 회복한다는 것은 정확한 그립을 하고만 있었으면 대단히 용이한 일이며, 거의 확실하게 된다.

나는 생도에게 가르칠 때 상대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혼미하게 할 세부적인 것은 모두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있다.

생도에게는 무엇이든 의식적인 노력으로서 혼란에 빠질 여유가 없다. 그들은 의식한다는 방해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혼란스러운 또 하나의 문제는 스윙의 도중에 오른쪽 팔꿈치(우주(右肘))가 신체로부터 심하게 떨어지는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점은 결정적으로 그립이 정확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립이 정확하면 오른쪽 팔꿈치는 반드시 기분 좋게 신체에 붙어 아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그립은 스윙의 도중에서 팔꿈치의 위치에 마음이 끌려 혼미를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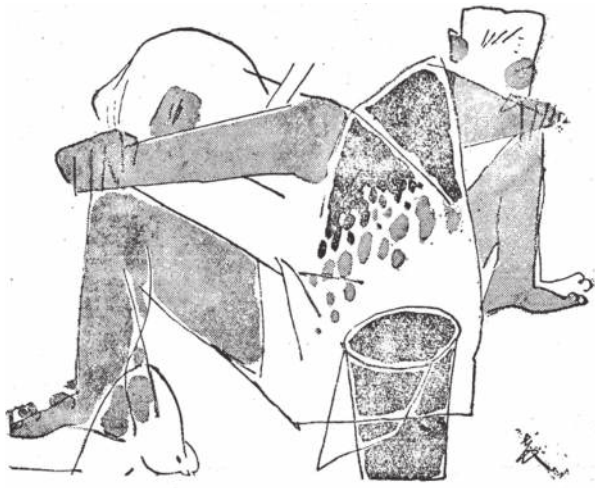
그립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잘 된다.

정확한 그립은 손의 동작에 있어 지배적인 요건으로서 쇼트의 방향과 거리를 얻기 위한 최대의 간단한 조건이다.

그립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혼미하고 훌륭한 샷을 방해하는데 마음이 끌릴 세세한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오른손의 위프(whip)

whip하는 것은 식지와 대지와의 합치는 곳에서 발생하는 힘에 의한다.



<단편소설(短篇小說)>

외로운 사람들

이명온(李明溫)

시내 변두리의 우중충한 아파트. 그 속은 마치 피난민 수용소와도 같은 외로운 군상들이 살고 있다.

임종이 박두한 구십 노인 아버지를 현관방에 눕혀 놓고 홍 씨(洪 氏) 집에서는 소위 가족회의가 벌어졌다.

큰딸 영숙(英淑)이 셋째 딸 영옥(英玉)이 그리고 칠십 난 어머니.

문제는 누가 돌아가는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담당하겠느냐의 의론이었다.

영숙이들의 고향은 평양이었으나 딸들은 출가하여 해방 이전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여 왔고, 그네들의 양친은 아편중독자인 장남 영식(英植)이와 같이 해방 이후에 월남한 것이다.

장남이 아편쟁이가 되어 가재를 탕진하고 살 길이 없는 영남 노친네가 딸네들을 찾아 월남하여 온 그 당시에도 누가 어머니 아버지를 떠맡느냐에 대해서 적지 아니 옥신각신들 했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오빠를 큰딸 영숙이가 어머니를 셋째 딸 영옥이가 차지하기로 결말이 났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맏사위는 광산업으로 윤택하게 살았고 둘째사위는 경남(慶南) 어느 중학교장, 셋째는 의학박사였으니 장모 장인쯤 부양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벅찬 부담은 아니었으나, 요는 맞딸 영숙이와 셋째 딸 영옥이의 혈계가 어느 불행한 비밀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목이 스며 있었던 것이다.

인생이 지낸 슬픔과 불행과 원한의 증오 – 그러한 것은 모순된 진리 위에 끊임없이 연쇄되는 것이요, 행복의 면류관이란 오색이 영롱한 한낱 무지개 같은 것.

제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부·귀 다남을 하고 오복을 누려온 사람일지라도 임종이라는 그 찰나에서는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엄숙한 표정으로 합장을 하고 앉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송경(誦經)하는 것이다.

마치 현세에서 저지른 한 인간의 부덕(不德)과 불미(不美)와 불효(不孝)와 불선(不善)을 관대하게 사하여 달라는 인간다운 참회인지도 모른다.

그 옛날 평안도 관찰사(觀察使)로 세도를 누리던 영숙이의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곁방살이를 하게 된 큰딸의 집 현관방에서 인생의 마지막 종식을 할 줄이야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으랴.

그는 관리형이라기보다도 학자풍의 풍류객이었다.

술을 즐기고 서화(書畵)의 조예도 깊고 모름지기 강직한 선비.

영숙이 어머니는 성격이 칼날 같고 의지가 강하고 감정이 화려한 서도(西道)의 미인.

홍영감이 남매를 데리고 상처를 했을 때 영숙이 어머니는 세 살 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에게로 재가를 한 것이다.

영숙이 삼 형제는 그 두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초라면 시초이고 남녀가 형성하는 운명이라면 운명일 수도 있다.

딸들은 그들이 홍가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명예롭게 생각하고 조상이나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 이상으로 홍씨의 혈계를 사랑하고 의리와 화곰긍 존중히 아는 여성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이 출생한 근본을 영원히 □□□과 같이, 각자가 지낸 과거의 인간 고락이란 구곡간장(九曲肝腸)에 스며들어 여하한 경우에도 심중에서 도려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홍씨집 딸들의 그러한 화목 – 특히 셋째 딸 영옥이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윤리관 도덕관 인간적인 의리가 앞섰기 때문이요 뼈에 사무치는 애정의 진실은 아니었다.

어느덧 사십 고개를 넘어선 영옥이 삼형제.

인생 사십에 도달하고 보면 잘살고 못살고 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세대롸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한 때는 여왕 부럽지 않게 내로라하고 후덕하게 살던 맞딸 영숙이도 남편이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나머지 이제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아파트에서 고생을 떡 먹듯 하고 있지만 그래도 떼쳐버릴 수 없는 자존심이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부부로서의 위신을 조금만치라도 상실하지 않고 의젓하게 버티고 앉아 영옥이의 심리를 타진해 보는 것이었다.“옛날만 같으면 네게 괴로운 소리를 비칠 내가 아니다마는 이번만은 네가 전적으로 아들 노릇을 대신해주어야겠다. 내가 넉넉하지 못한 탓으로 3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고생시켜드린 생각을 하면 그만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아서…….”

언니의 목 메인 음성이 금세 통곡으로 변할 것 같은 공기에 눌려버린 동생 영옥이.

“언니는 쓸데없는 소리……. 누□□□□

자라는 데까지 하면 그만 아냐요. 언니 □□□식 노릇도 못한 나인데.”

마음이 약한 영옥이는 절대로 형 하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중에 뿌리박혀진 슬픔과 고독의 원한은 참으면 참을수록 복받쳐 올랐다.

허기야 생아자도 부모요 양아자도 부모 그것을 야박하게 따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낱 도의에 얽매여 오늘까지 살아 왔다는 것이 무한히 무한히 쓸쓸하고 서글펐다.

돌이켜 생각할진대 영옥이 자신은 부모의 애정도 형제간의 우애도 받았다면 받았고 없었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고독한 존재이다.

해방 이듬해 어린 것 삼남매를 데리고 미망인이 되어 이를 악물고 모질어빠진 당나귀마냥 갈팡질팡 살아온 영옥이.

독하고 약빠르기[106] 때문에 번화한 종로 3가에 3층 건물을 세우고 비록 외로울망정 자식들과 밥걱정 없이 살고 있는 오늘이다.

남들은 말해 왈 지독한 악바리[107]라고 하지만 영옥이의 처지로 본다면 지독해서가 아니라 눈물겨운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정신적인 산물이다.

“나는 호적상으로 홍가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왜 홍가야?”

하는 마음과

“어릴 때 나를 학대하고 그처럼 미워하던 아버지……”

하는 생각을 지금 임종이 가까운 구십 노인 앞에서 해서는 아니 될 줄을 알면서도 절치부심으로 잊혀지지 않는 쓰라린 과거가 가슴 한 구석을 아프게 쥐어뜯는다.

진실한 애정에 굶주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고독과 허무.

매가 고픈 것 돈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불행이지만 사람으로서 따뜻한 자애나 애정에 굶주림을 받는다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는 정신적인 불행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니는 동생보다 훨씬 행복한 위치에서 있다고 영옥이는 말하고 싶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친정의 혈육이 딸들에게는 과분한 인생의 부채이기도 했다.

배다른 오빠가 아편쟁이가 되어 월남하여 큰 누이동생에게 민주대다 죽어 버리고 살림살이가 기울어져 아이 칠남매를 데리고 곁방살이를 하게 된 딸의 집에서 여생을 마치게 된 홍 노인의 신세가 그지없이 처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차한 살림살이에서 늙은 아버지 한 분을 시중들고 살아온 큰딸의 고충도 그렇게 가벼운 애로는 아니다.

영옥이가 어머니 한 분쯤 모시고 있는 것은 극히 수월한 일이다.

다만 영옥이로서는 어머니의 성미가 싫었고, 딸을 무조건 사랑하려 들지 않고 자식의 눈치를 살피는 어머니의 태도가 웬일인지 정나미가 떨어져 모녀간에 호흡이 맞지 않는 게 탈이었다.

“얘야, 어제도 아버지가 네 말을 하시더라. 그 애가 빚을 다 갚았는지 모르겠다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모든 게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야.”

어제도 밤을 꼬박 새웠다는 영숙이는 피곤에 지친 눈두덩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었다.

“언니, 의사나 한번 부릅시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지만 하룻밤이라도 편히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울에 양친이 올라오신 이후 실제에 있어서 영옥이는 부녀라는 의리 외에 진정한 효심도 발휘해본 일이 없었고 간혹 작은 딸의 집이라고 찾아올라치면 술값 정도를 손에 쥐어 줄 정도였고 옛날과 달라 궁기가 주르르 흐르는 아버지를 보고는

“처량한 노인네 참 오래도 사신다.”

하고 심중으로 생각하던 영옥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끝나버리는 인생의 마지막 길.

진정한 효심은 아닐망정 죽어가는 노인에게 최후의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인간의 의리일 것이다.

106) 원문의 약바르기는 약빠르기임.
107) 원문의 약바리는 악바리임.

영옥이는 일어나 현관방으로 들어갔다. 20일째 곡기를 끊었다는 노인의 미라 같은 얼굴이 들어서는 영옥이를 또렷이 응시한다.

그 놀라운 정신력…

육체는 무참스럽게 쇠진했지만 사람을 응시하는 정신력은 아무런 이상도 없을뿐더러 성한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예리해 보였다.

살만 남은 부채 같이 앙상한 손이 가슴 위에서 의식 없이 움직인다.

영옥이는 아버지의 한쪽 손을 두 손으로 따뜻이 잡고 앉아,

"아버지! 무어 잡숫고 싶지 않으세요? 영옥이에요."

노인은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

의사가 와서 포도당에 강심제 주사를 놓고 수면제를 한 봉 주고 갔다.

"의사를 부르겠다면 질색을 하고 말리더니 네가 놔드리니까 맞누나. 큰 딸이 애쓰는 게 딱해서 싫다고 했던 모양이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어머니가 불쑥 말했다.

주사 기운이 돌자 아버지는 실오리만한 목소리로,

"이제 이틀 밖에 안 남았어-"

자기의 생애가 앞으로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정명을 설명했다.

"아버지 히숙 어미에게 하실 말 좀 없으세요? 어제도 히숙 어미 보고 싶다고 그랬죠?"

맏딸이 큰 목소리를 내니 노인은 그저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듯 입술을 야릇하게 일그러뜨렸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띄운 반갑다는 관대한 미소였는지도 모른다.

영숙이는 아버지가 불상타고 연방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아 내는데, 영옥이는 눈물도 스며 나오지 않고, 등골에서 진땀만 스며 나왔다.

X X

영숙이 삼형제가 철없던 소녀시절 아이들이 행동하는 버릇으로 두 언니가 아버지 팔소매를 붙들고,

"아버지! 우리 사탕 사먹을 테야 돈 줘-" 할 때에 영옥이는 겉묻어 쫓아가 벼락같이 아버지 가슴팍에 매달리면서

"나두……나두……"

하고 응석을 떨었다.

그러나 두 언니들에게 자애가 넘치는 표정을 내쏟던 아버지는 영옥이가 매어달리자마자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이맛살을 찌푸리고

"에잇 고년 귀찮다. 저리 썩 물러가-"

하고 노기를 띄웠다.

도대체가 영문 모를 일이었다.

막내딸이라고 까불어대면 부모는 더욱 귀여워하는 것이 원측인데 아버지가 유독스럽게 어린 딸년을 미워하는 그 이유를 영옥이는 알 도리가 없었다.

언니들 형제는 아버지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돈도 얻어 가졌으나, 영옥이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온 기억이 없다.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하고 고독했으나 워낙이 앙칼진 영옥이는 삐죽삐죽 울지는 않았다.

차차 나이가 먹을수록 영옥이가 느끼는 인간의 고독은 더욱더욱 부풀어 가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 갔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붙들고 마음의 불평을 폭로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싫었다. 그러나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영옥이가 열일곱 먹던 해 봄이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날씨도 따사로운 봄날 오후 책가방을 들고 형들보다 한걸음 먼저 집으로 돌아온 영숙이가 방으로 향해 들어가는데 어머니와 손님이 무어라고 지껄이는 소리에 우연히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글쎄 형님도 그리 고집세우지 말라고용. 영옥이하고는 천륜인데 억하겠소? 딸내미라고 마지막 보고 죽겠노라 말하는데 체면이고 쥐뿔이고 집어 치시고레. 아…네. 이집 두상 모르게 영옥이만 슬그머니 다녀오면 뭐라리? 남의 애비를 일평생 애비라고 불러야 좋단 말이요?"

"안된다면 안 되는 줄 알라우! 십여 년이나 홍가 새끼로 키운 계집아인데 지금 와서 내래 억한단 말이가? 씨 안 먹는 소리 그만하고 가라고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디? 핏덩이 때 데려가랄 땐 지 애비 지 계집 무서워 못하고 다 키운 자식 보고지고? 이제는 홍가 자식이니 도리 없구먼."

"내 원…형님도 별나게 고집 세누만. 제 씨가 번연이 있는데 딸년이 진짜 아버지의 낯이라도 봐 두면 얼마나 좋으리? 여엉 홍가 씨라고 삭힐 작정요?"

이러한 대화를 듣고 섰던 영옥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핼쑥해서 책가방을 든 채 벼락같이 방으로 쫓아 들어갔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들었던 권연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머니! 나 아주머니 따라 갈 테야" 영옥이는 새까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랫목에 앉은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날은 홍 영감도 집에 없었다.

"뭣이라고? 가긴 어디엘 가? 덜 되먹은 계집아이. 당장에 뒤져 죽고 싶건 가려무나."

어머니는 대뜸 방망이를 잡아 쥐고 일어났다.

"아우님 어서 가소. 공연히 와서 속 뒤집어 놓는구먼, 그 따위 거짓말 두 번 다시 비치지도 말라우. 어서 가소. 어서어서-."

서슬이 시퍼래서 영옥이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교섭을 하러 온 손님은 움찔해서 물러가고 영옥이는 가슴이 마구 떨려 와 건너방으로 건너가 이불을 쓰고 흐느껴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도랑처럼 두 볼에 흘러내렸다.

분명히 영옥이가 홍가가 아니라는 것. 성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내 아버지라는 어느 우상이 그리워져서 미칠 것만 같았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건너왔다.

"그놈의 에미나이 너를 꼬여 갈려고 꾸며낸 말인데 네레 왜 이러니, 아두 못하구? 맹초 같은 년 해맹이가 빠져서 별걸 다 곧이 듣노만. 아버지가 알면 단박에 벼락이 떨어지겠다야. 빨끈 못 일어나간?"

"엄마! 나 정말 홍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영옥이는 왈칵 일어나 두 팔을 휘저어 가며 도리머리를 쳤다.

어머니는 무자비하게 영옥이의 귀쌈을 갈겼다.

벼락불보다도 무섭고 날카로운 어머니의 성격을 꺾을 도리는 없다.

영옥이는 그만 의지가 질려서 두 번 다시 입도 못 떼고 귀때기를 부둥켜 잡고 밖으로 쫓겨나갔다.

극도로 흥분한 영옥이는 그 길로 대동강으로 달려가 철교다리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그대로 날쌘 제비마냥 물속으로 포르르 뛰어 내렸다.

햇빛이 뉘엿뉘엿 넘어 가려는 늦은 봄 석양판이라 오가는 뱃사공에게 즉시로 발견되어 자살이라는 소녀적인 감상은 종지부를 찍어 버리고 말았으나, 지금 아버지라는 홍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고 셋째 딸인 영옥이에게 집을 지라는 명령이니 윤리의 부당성보다도 흘러간 자기의 과거가 뼈아프게 사무쳐서 오직 인생이 피곤하기만 하다.

돌에도 바위에도 부딪힐 곳 없는 무변공간 같은 인생의 애수!

천편일률로 슬프고 고독하고 불행한 것이 여자의 일생은 아니련만 40고개를 넘도록 살고 나니 이제는 슬픔과 괴로움에서 해방을 당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물질이란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신세와 의리를 갚을 수도 있고, 애정의 진실을 표시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영옥이가 이 자리에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않다면 여러 사람이 영옥이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을 것이요, 비위를 맞춰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영옥이는 비록 홍가는 아닐망정 홍씨의 딸들과 같이 같은 어머니의 뱃속을 빌어 세상 밖에 나온 사람 – 십여 살 때 폭발하지 못한 울분을 몇 십 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 새삼스럽게 벽을 두고 이 식구들에게 미움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저것을 열심히 궁리하고 있는데 영숙 언니가 또 입을 열었다.

"얘, 영옥아! 딸이란 출가외인, 아버지의 사후를 유감없이 받들어 드리지 못할 형편이니 화장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버지도 외손 봉사가 싫으신 모양인지 화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매장해 드리지 못하니 죄송은 하지만……"

듣고 앉았던 영옥이는 등골에서 진땀이 흘렀다.

언니 자신은 화장하고 싶지 않은 심리이지만 장례빙용을 담당해야 할 영옥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홍 노인이 영옥이의 친 아버지라면 다소의 무리를 해서라도 매장을 하지 않을 영옥이는 아니었으나 구태여 없는 정성을 보이기는 싫었다. 그러나 형제간에라도 인사나 닦아야겠기에

"내가 웬만만 하면, 아버지 한 분 매장하는 것 쯤 문제도 아닌데 이번에 김서방이장을 하고, 며칠 전에 또 시숙모 장례식을 치르고, 연거푸 또 아버지를 모셔야 하니 사실 내 힘으로는 너무 벅차구먼. 섭섭하고 죄송한 마음은 언니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고 다 알 수 있는 설명을 되풀이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리게 화장을 하잔 말야. 조석으로 상식 한 번 제대로 못 올릴 바에야 깨끗이 화장해 치우는 거야. 별 도리 있니?"

영옥이는 언니의 말소리가 무척 귀에 거슬리기는 하나 잠자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영숙이 아버지가 임종을 한 것은 바로 그 이튿날 저녁때였다.

영숙이보다도 영옥이가 여러 친지들에게 부고를 돌리면 부조깨나 조히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영옥이는 그러한 통고를 일체 삭제해 버렸다.

중앙지도 아닌 변두리 아파트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신세에 조객도 들어앉힐 곳이 없고 둘째는 영옥이의 아버지가 서울 바닥에 살아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연 공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식구끼리 서둘러 3일장을 치러야 할 판이니 모든 격식을 낱낱이 갖출 필요도 없었다.

사람이 걸머진 인연이 무엇인지? 정말은 영숙이가 상주 겸 맏상제를 겸해야 할 것인데 결국은 영옥이가 아들 겸 딸 겸 안팎 일을 돌보아야만 했다.

화장을 모시고 영옥이는 젓가락으로 손수 홍 노인의 뼈를 추려냈다.

고정된 눈동자로 방 안에 들어서는 영옥이를 응시하던 눈도, 뼈만 남은 부챗살같이 앙상한 손도 유황빛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고, 잿빛으로 숯이 되어 버린 해골만이 영혼의 흔적인 것처럼 눈에 띄었다.

"아니다, 아니다, 나 홍가 아니다." 하고 세상 밖에 나왔단 한번 소리친 그날 영옥이의 존재가 대동강 물에 잠겨버렸다면 영영 홍 씨와의 인연은 해소되어 버렸을 것을….

홍 씨 노인의 불우한 유골을 줍게 되었으니 그와 영옥이는 부녀라는 인간의 도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된 상 싶다.

다만 그것 뿐도 아니다.

영옥이의 아들딸들이 진짜 외조부라고 인정하는 착오를 영옥이는 영원히 묵살해야 한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생에서 이 '우리'라는 말 같이 애정 깊고 힘 있는 존귀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해당화 한 가지 와지직끈 꺾어 우리 마누라 머리에 꽂아 줄까."

영옥이는 우리 XXX라는 말만 들어도 자기의 비굴한 고독감에서 까닭 모를 질투와 시기와 공허와 회오가 서릿발같이 가슴에 안겨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과오 때문인지? 또는 알지 못하는 한 사나이의 그릇된 욕망 때문인지? 그러한 것을 깊이 파고들어가 누구를 원망하여 본 일은 없으나, 진실이란 울타리 안에서 살아보지 못한 어린 시절의 불행한 운명이 살아갈수록 잊히지 않는다.

영옥이는 유골 상자를 들고 영숙이는 술 한 병을 들고 한강으로 나가 형제가 아버지 유골 앞에서 마지막으로 술잔을 나누었다.

생생한 정신으로 아버지의 골분(骨粉)을 강물에 뿌리고 돌아설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해서였다.

"얘얘, 영옥아!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이다."

"언니 우리 마지막이란 말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죽으면 그만이야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게 그만이야, 없어. 뭐가 있어?"

영옥이는 어느 영혼에게 호소하듯이 조용히 외쳤던 것이다.

<연재장편(連載長篇)>

붉은 밤 (4)

임옥인(林玉仁)

석훈이었다.

흰 붕대로 머리를 감고, 왼쪽 팔을 목에서부터 줄로 느리고, 반즈봉을 입은 바른편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벌건 머큐롬을 바른 채, 멍 해 서 있었다.

"어쩌면!"

나는 미처 말도 못 맺고 그의 뒤에서 대문에 빗장을 지르다 말고, 바깥을 살폈다.

"몹시도 기다리시더니……"

정혜 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눈을 끔벅하며 속삭였다.

"눈치 있게 감춰야 해요!"

정혜 아버지는 지금 마루 밑에 있을 것이었다.

정혜 어머니는

"쉬이!"

하며 밖으로부터 대문 고리를 당겼다. 나는 후달거리는 손으로 빗장을 지르고, 안으로 뛰어 들었다. 그새 석훈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다락으로 기어 올라간 것이다. 나는 영창에 눈을 대고 다시 한 번 바깥을 살폈다. 나더러 피복 공장에 함께 다니자고 하던 강춘희라는 여인이 검정 깡동치마에 흰 모시적삼을 받쳐입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보아 그런지, 우리 집 대문께를 힐끗 돌아보고 가는 듯 했다. 나는 가만히 다락문을 밀었다. 이 문을 여는 동안에 다락 안에 사람이 섣불리 움직이면 영창을 통해서 길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석훈은 벌써 다락 마룻바닥 돗자리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가, 내켠으로 고개를 돌려 벙끗 웃어 보였다. 그리곤 내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와락 매어달리며,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만가만 속삭였다.

"퍽 걱정하셨죠? 용산 어떤 공습당한 빈집에 숨어 있었어요. 길에서 마구 붙잡는 통에……"

"그래 사람을 그렇게 걱정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선가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그의 몸을 떠밀어 눕히고, 한줄기 빛이 겨우 새어 들어올 만큼 문을 닫고 발판에 한 말을 얹은 채 석훈의 곁에 앉았다.

"숨어 있다가 공습을 당했어요!"

머리며 팔다리를 가리키며, 석훈은 열적게 웃었다. 나는 냄새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가져갔다. 석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냥 썩어 버리게 놔두죠!"

여전히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안방 약장에서 붕대와 크레졸과 머큐롬을 꺼내 다시 다락문을 열고 석훈에게로 가까이 갔다.

"손질합시다."

석훈은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얼굴을 몹시 찡그렸다. 내 손이 그의 이마에 닿자 열이 대단하다는 것을 곧 알 수가 있었다.

"큰일 나겠군요!"

나는 단독이나 되면 어쩌랴 하고 걱정이었다. 그리고 겁이 더럭 났다.

석훈은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다가 이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붕대를 끄니까, 이마와 귀 밑 두 곳에 약 2cm 길이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칼에 찔린 것처럼 날카로운 상처가 아마도 며칠이 지난 듯 싶었다.

크레졸로 닦아내니 몹시 쓰라린 모양이었다. 발을 버둥거리며 아파했다. 나는 한쪽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지긋이 누르고 상처를 손질하고 붕대를 감았다. 팔과 다리도 그렇게 했다.

며칠이 지난 이른 새벽이었다. 마루 등침대에서 잠든 내게로 석훈이가 가까이 오자 내 귀에 속삭였다.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데요!"

그리곤 내 손에 종이쪽지를 쥐어주는데 대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났다. 석훈이도 나도 꼼짝 못하고 발소리 나는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발소리는 우리 동네 구석진 골목에서부터 우리 집 켠으로 다시 왔다.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석훈이를 다락으로 떠밀어 문을 닫아버린 뒤 영창에 눈을 대고 바깥을 살폈다. 흰옷 입은 병든 서 노인이 어떤 젊은 사람에게 끌려가는데 뒤에는 그의 마누라가, 양편에는 그의 두 딸이 그를 부축하고 걸으면서 흑흑 느껴 울고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걸어가더니, 동네 어구까지 나가자 젊은 사람이 거친 솜씨로 서 노인에게서 그의 가족들을 하나하나 떼어 버리고 바쁜 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다. 세 가족은 울며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내가 누웠던 등침대를 얼른 안방에 들여놓고, 마룻장을 들었다. 눅눅한 곰팡내가 풍겼다. 6월 24일 밤 혼자서 배기던 나의 피난처이기도 한 마루 밑에는 거적을 깐 대로였다. 나는 석훈에게 담요 한 장을 안겨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위로 가야말로 무자비하게 사방 넉자 쯤 되는 마루뚜껑을 닫아버리고 그 위에 초석을 깔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이 조금 진정이 되었다.

이럭저럭 하는 사이에, 날이 다 밝아버렸다. 나는 아까 석훈이가 내 손에 쥐어주던 쪽지를 경대위에 놓았다가 그제야 펴 보았다.

"양심이 괴롭다니 무슨 소리인가?"

그 사연은 다름이 아니었다. 그새 열흘이 지났지만 용산 폭격당한 자리에 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미아리에 있는 처가(妻家)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처가 근처에는 공산당에 들끓었고 사실 처가 친척 가운데는 일선에 가서 날뛰는 사람도 있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다. 상처는 그 처가를 아내도 모르게 빠져나오다가 철망에 걸친 것이오, 또 오다가 충신동 친척집에 사흘을 숨었다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목숨은 부탁한다는 사연이었다.

"흥! 처가에 갔다고?"

나는 처음부터 그가 솔직하게 말 못한 심경을 이해는 하면서도, 그다지 유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는 목숨만이 문제인 것이다. 그 밖의 생각을 되씹을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내 손에 한 사나이가 전 생명을 의탁하고 있다. 내게는 내 먹을 것을 줄여서라도 그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무거운 짐과 공포가 이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빙거(憑據)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노파로 변장하고 동대문시장에 나가서 해가 지도록 돌아다녔다. 석훈은 감추고 밖으로부터 쇠를 잠그는 것이 훨씬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때는 음식을 여러 날 치를 마련해 놓고 딴 데 가서 묵은 때도 있었다.

밤이면 경마장에서 콩 볶듯 총소리가 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인민군은 양민(良民)을 끌어다가, 조금만 책잡을 일(그들로 보아서)이 있어도 밤중에 총살을 했다는 것이다. 시체는 트럭에 실어서 강물에 던지거나, 산이나 벌판에 웅덩이를 파고 수없이 처치했다고 한다. 나는 경마장이 보이는 건넌방에서 그 콩 볶듯 하던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비가 몹시 퍼붓는 날이었다. 나는 비오는 날이면 견딜 수 없이 슬퍼지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슬픈 일을 많이 당해서 일게라고 남들은 그렇게 여길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의 이런 버릇은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저 까닭 없이 자꾸만 슬퍼지는 것이다. 이런 버릇은 비올 때뿐만이 아니라. 달이 굉장히 밝아도 꽃밭이 유난히 고와도 나는 슬퍼지곤 한다. 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그 까닭을 대답할 수가 없다. 사실 나 자신도 그 까닭을 모르니까 말이다. 그렇게 슬퍼질 때면 별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다. 한숨이 새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전신이 이슬에 젖는 듯, 안개에 감기는 듯하며 이어 창저 속에서부터 더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이런 때면 누구를 만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된다. 대개는 자리에 누워 버린다. 눈을 감고 그 슬픔이 지나가기를 지긋이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나는 그러한 상태를 즐기기조차 하는지도 모른다. 아득한 옛날에 - (아마 그것은 내가 나기 이전에) 그 영혼의 고향에 희망이라거나, 행복이라거나 건강이라거나 그러한 것을……, 그것들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필요하고 또한 지극히 유익한 것인데,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다.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그러한 상태 속에 빠져서 나는 나의 그 슬픈 대가를 오직 시간과 인내로서만 지불하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나직이 내리는 비는 내게 가만한 흐느낌을, 좌악좌악 퍼붓는 빗소리는 내게 결렬한 슬픔을 반주(伴奏)처럼 가져 오는 것이다.

그 슬픔은 또한 단지 나의 조그만 몸뚱이에서나 영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닌 상 싶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의 그것이 – 그것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한없이 소급(遡及)해 올라가면 거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브 할머니에게 도달한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 혼자만의 소생은 아니다. 역시 아버지의 족보도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의 경우처럼 이번엔 아담 할아버지한테까지 나의 슬픔의 줄은 뻗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아담 할아버지와 이브 할머니는 누가 창조했나!

나의 신앙과는 별개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본다. 나의 슬픔과 육체는 거기로부터 온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하늘의 얼굴에 구름이 끼어서, 그리고 그 하늘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도 이렇게 슬퍼지나 보다 – 하고, 말갛게 씻어진 하늘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슬픈 것이 아닌가? 그런 원시적인 생각도 하며, 빗소리를 듣고 있다.

시인 박두진의 〈해〉란 시의 구절이 생각난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아 먹고 밤새도록 어둠을 살아 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의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싫어."

빛이 그리워서, 해가 그리워서, 그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이, 그 하늘이 그리워서 슬픈 것인지로 모른다. 나의 고향 나의 집이, 나의 아늑한 영혼의 고향이 그리워서 이렇게 슬픈 것인지 모르겠다.

이 슬픔은 나만의 것일까?

아니 그것은 몇 만 년 전 사람의 가슴속에나 지금 살아 있는 내 가슴속에나, 그리고 몇 만 년 뒤에 살아 있을 어느 누구의 가슴속에도 깃들 것이 아니겠는가? 정체 모를 슬픔! 이 세상의 아무 것으로도 근치(根治)가 되지 않는 뿌리 깊은 이 슬픔은 인류 공통의 것이리라. 다만 그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덜 느끼고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 슬픔이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이름 지어 본다.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로되, 나는 그것을 원죄(原罪)라고 부른다. 원죄인 까닭에 우리의 의사대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 슬픔을 추구하기 위해 붓을 든다. 편지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글이 된다. 어떤 때에는 그것은 신께 대한 항변으로도 변한다. 훨씬 젊었을 때의 일이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가끔 이렇게 대들었었다.

"어머니 왜 날 세상에 낳아 주셨어요?"

어머니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원 세상에 너 같은 자식 처음 보겠다. 부모 공덕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낳아 줬다고 원망을 하니…… 그래 내가 병신을 낳았단 말이냐, 머저리(바보)를 낳았단 말이냐?"

나도 어머니의 넋두리에 할 말이 없던 것을 기억한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들던 날은 내게 그 속모를 슬픔이 닥쳐오는 때 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절망에 부딪혔을 경우였던 것이다. 어머니에게 대한 나의 철없는 그런 항변은 다시 말하면 조물주께 대한 나의 항변이었다.

이 슬픔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사랑을 한다. 그러나 글이나 사랑은 그 슬픔을 덜어 주기는커녕 더 크고 더 깊은 슬픔과, 아니 때로는 상처를 내게 남긴다. 나는 이 슬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을 안다.

또 공습이 왔나보다.

아니면 천둥인가? 빗소리 속에 파묻혀 내 슬픔의 고삐를 놓았던 나는 다시 살벌한 현실로 돌아왔다. 점심때가 되었다. 점심을 차려서 마루 뚜껑을 열고 석훈에게 디밀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천둥이 울고, 소낙비가 마구 퍼붓는 속이었다. 지 우산도 접어들고, 나는 언덕길을 내려갔다.

먼 하늘에서는 우르르 꽝꽝, 와지끈 꽈르릉 하는 소리가 끊일 새 없었다. 칠색 빛깔이 불꽃처럼 공중에 튀었다간 사라지곤 사라졌다간 튀었다. 빗줄기가 삼대(麻)마냥 퍼부어 내렸다. 길에는 별로 다니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갈 작정도 없었다. 다만 발작(發作)처럼 이렇게 걷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 어느 날엔가도 나는 이렇게 일기가 광란하는 속을 한강을 향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었다. 손에는 주머니 하나. 그 속에는 마지막까지 차마 태워 버리지 못한 원고 뭉치와 편지 몇 통, 그리고 빨간 선을 친 하얀 엷은 반소매 스웨터. 이 하얀 스웨터는 얼마 전 오 선생님한테 선사받은 것이었다. 오 선생은 내게 처음으로 〈가갸〉를 가르쳐 주신 분이요. 그의 부군 정 목사님과 더불어 내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 주신 분이었다. 정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뜬 지 20년이나 되지만 내 아버지와는 절친한 친구였으며, 내게는 모교 스승일뿐더러 은인이기도 했다. 그의 부인 오 선생님 또한 내게는 스승일뿐더러 어머니같이 생각되는 분이요 그분 역시 내 거취에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나는 그분을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다. 아니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찾았던 것이다. 나는 그분을 경원(敬遠)하고 있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분에게 대해서……그분에게 뿐만이 아니겠지만 말 못할 어두운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분은 나의 어두운 그러한 사정을 내게 대한 세상의 악평 속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나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가끔 직장으로 찾아 주시고, 또 어디서 물품이 생기면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 나는 이렇게 광란하는 일기 속에 손주머니 한 개를 듣고, 길을 걷고 있었다.

상철과의 문제 때문이었다. 처자가 있는 그와 나의 사이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풍파 속에 휘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다음 기회에 자세히 고백해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이야기를 계속해서 엮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날의 심경과 광경을 어느 신문에 연재한 〈XX〉라는 중편소설에 주인공 옥숙이라는 여성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해 본 일이 있었다.

"좌악, 좌악,"

바람과 함께 비가 퍼붓는다. 번갯불이 번쩍, 우렛소리 따룽 따룽, 그리고 바람이 온 천지를 뿌리째 잡아 흔드는 것 같았다.

우숙은 언제든지 들고나가도 되는 세간 - (그것은 38선을 넘어 올 때의 배랑이었다-)을 들고 순용의 집을 이런 폭풍우 속에 나선 것이었다. 다리가 화들화들 떨리고, 몸이 오싹오싹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그는 몰랐다. 다만 1초라도 순용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허겁지겁 길에 나서게 한 것이었다. 발이 닿는 대로 어디든지, 얼마라도 걸어 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몇 걸음 떼어 놓기도 전에 우산 없는 그의 몸은 벌써 물주머니가 되었다. 그런대로 자꾸 걸었다. 비바람이 거릿집 창문을 때리고, 나무를 흔들며 옥숙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옥숙은 그런 속을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눈앞을 가리는 것을 주먹으로 닦아가며 절벅절벅 걸어갔다. 주위는 삽시간에 깊은 시내와 같이, 물줄기를 이루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철철 흘렀다.

"맞자, 때려라, 얼마든지 어느 때까지라도, 의식이 잃어질 때까지 비바람아 실컷 때려다오."

빗물과 함께 눈물이 닦아도, 닦아도 흘러내렸다. 귀에는 순용(상철의 아내인

옥숙의 친구)의 저주와 악담이 비바람을 타고 더욱 날카롭게 더욱 거세게 앙칼스럽게 들려오는 듯 싶었다. 그런가 하면 석구(상철)의 절망한 듯 한 시선이 눈앞에 와 탁 가로막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옥숙이" "옥숙이"하고 연상 뒤를 잡아다리듯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어디로 간다니,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다니? 이 하늘 아래 석구와 순용이가 살아 있는 이 하늘 아래에서……"

흑흑 느끼며 또 머리를 옆으로 되게 흔들었다.

"와하하, 와하하……"

사태밥이 무너지는 듯 지독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였다.

"아아, 저 여자 미쳤나? 아하하, 아하하……"

그것은 약하게 혹은 탁하게 옥숙의 청각에 마치 이 세상 아닌, 딴 세상 속에서 왁자거리는 조롱 같았다. 그 소리 속에는 순용의 선동이 섞여 있는 듯, 여겨졌다. 옥숙은 소리 나는 쪽에 머리를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그치노라고, 어느 큰 빌딩 문어귀에 우글우글 모여서서 옥숙의 걸어가는 모양을 바라보며 떠드는 소리였다.

"바쁘지도 않은 가운데, 미쳤어, 얼이 빠졌어, 실연했나 원! 야아 그 종아리 근사하다."

그리고 또 한바탕 "와하하하……" 하고 웃어들 댄다.

개중에는 손뼉을 치고 "와하하……"하고 웃어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옥숙은 그대로 자꾸 걸었다.

비바람은 더욱 지독히 휘뿌린다. 옥숙은 엉엉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그 속을 자꾸 걸어갔다."

나는 지금 그날의 나의 모습을 회상하며 폭풍우 속을 걷고 있었다. 그런 날의 위험과 고통을 피하여 있는 지대(地帶)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대인 것이다. 피했다고 생각하자 그것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더 무서운 공포지대인 것이다.

석훈이를 보호해야 할 까닭이 어디 있을 것인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혈친도 고향도 그리고 그이의 무덤까지도 버리고 온 것이 아닌가?

처자가 있는 상철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석훈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동란을 만나 서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시피 된 것이다.

아무도 없는 한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묻혀 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선은 다가오고 있었다. 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이 세상 아무 것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분별이나 상식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게는 무서운 체험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낳은 것을 항변하고 저주하는 목숨이 지겨운 경험 말이다. 나는 자칫하면 다시 솟아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려야 하니…….

나는 비가 더욱 쏟아지기만을 바라고, 천둥이 더 요란하기만을 바라면서, 넓은 길에 나서서 종로를 걷고 있었다. 나는 걸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여인이다."라고.

그 거리 어느 구석에서 나는 나의 고종아우 을민이가 뛰어나와 내게 권총을 겨누어 주기를 바랐다. 저 헤산진 그 거리에서 나를 향해 권총을 뽑아 들던 것처럼……. 이남에 나와서 싸워 보았댔자 나는 내 몸 하나를 거느릴 실력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의 무지한 냉소를 전신에 뒤집어쓰고 자학(自虐)을 김치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걸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살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살아갈 만한 아무 까닭도 보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절망에서가 아니라 무의미에서였다. 정말 그 자살이라는 걸 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어 갈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가 없었다. 공습을 무서워 한 것도 끌려가는 것을 무서워 한 것도, 꿈같이만 여겨졌다.

그러한 허탈 상태에 빠져서 길을 헤맨 나는, 드디어 남대문 가까운 이 여사의 집에 다다랐다. 얼마 전 한강에 근로보국대로 끌려갔다가 남대문시장 근처에서 졸도했을 때 나를 일으켜 집에까지 데리고 갔던 친구의 집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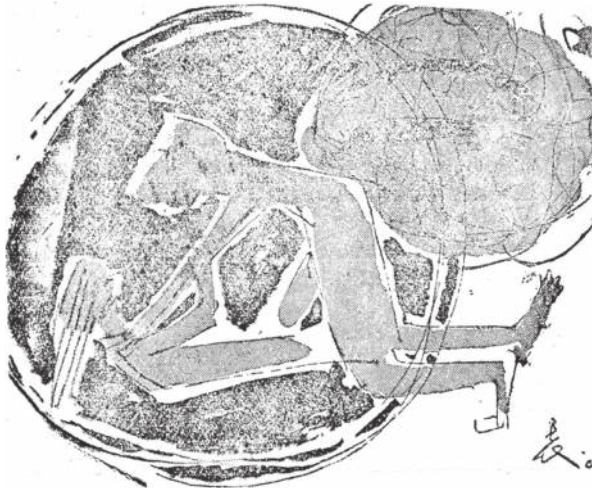
"안 갔어요?"

이 여사는 내가 대문에 들어서자 남하(南下)하지 않은 것을 놀라는 빛으로 물었다.

"웬일이셔? 이렇게"

다그쳐 물었다. 나는 젖은 솜 덩어리마냥 마루 끝 이 여사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몸 하나가 이렇게도 시름겨웠던 것이다.

- 계속 -



<명작신비소설(名作神祕小說)>

몽중(夢中)의 살인(殺人)

로버트 아더 원작(原作)

박운암(朴雲巖) 역(譯)

데이비드 군, 자네는 지금 자고 있는 걸세.

네, 나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네 부인과 얘기할 동안 잠깐 자고 있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쉬겠습니다.

카펜터 부인, 당신 남편은 지금 가벼운 최면술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깨우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맨슨 선생님.

그럼 당신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악몽(惡夢)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이 결혼하신 첫날밤부터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곧장 이 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축하연이 있어서 우리는 밤 열두 시 넘어까지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데이비드가 자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잠을 깬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그를 흔들어 깨웠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연 기억할 수 없단 말이지요.

네, 전연…… 그 후 그는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밤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 또 그 이튿날 밤에도 매일밤마다 그러했습니다.

반복하는 악몽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 데이비드 군이 어렸을 적부터 그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에게서 악몽을 일소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

아마 리처드란 놈이 다시 살아난 모양입니다.

네? 리처드라니요? 리처드가 누군데요?

리처드는 데이비드 군의 또 하나의 인격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데이비드 군은 열두 살 때 자동차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때 그는 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고 그 결과 일종의 인격불명증(人格不明症)에 걸렸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뚜렷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데이비드 군 자신이고, 다른 또 하나는 해로운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하는 흉악한 인격이었습니다. 이 인격을 데이비드 군은 리처드라고 부르고 마음속에 살아 있는 자기의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도 있을까요?

의학상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피곤하거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이 리처드가 그의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를테면 자고 있는 동안에 데이비드를 걸어다니게 하고 잠옷을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리처드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을 동안에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전연 기억할 수가 없었고 어떤 때는 무서운 꿈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가 다 있어요?

그때 나는 데이비드 군의 병을 치료하고 완전히 병이 나아서 리처드는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하튼 데이비드 군에게 이 반복하는 악몽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 꿈의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될 테니까…… 여보게, 데이비드 군!

네, 맨슨 선생님.

자네를 괴롭히고 있는 그 꿈 얘기를 해주게. 이제 기억이 날 걸세. 나지?

그 꿈 말이지요? 네, 네, 지금 생각이 납니다!

흥분해서는 안 되네.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히 그 꿈 얘기를 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진정하지요.

그래야지. 그럼 처음으로 그 꿈을 꾸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게.

내가 처음으로 그 꿈을 꾼 것은 – 앤과 내가 결혼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한가?

네,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며칠 동안 쉴 수 있도록, 부탁받은 소송(訴訟)사무를 정리하느라고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새로 산 이 집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들려 보았습니다. 앤에게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내가 독신자 아파트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몹시 피곤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으나 너무도 피곤해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좀처럼 잠이 오질 않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지, 데이비드 군?

꿈속에서 전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실제로 전화기는 내 침대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것은 꿈이 아니라 생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나. 데이비드 군?

왜냐하면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자였는데 그게 바로 루이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꿈속이지만 루이스는 죽은 지 오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언제 죽었지, 데이비드 군?

일년 전 입니다. 친정에 가려고 서부 버지니아의 산길을 자동차로 달리다가 그만 길에서 빗나가 차에 불이 나서 타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데이비드, 나에요. 루이스에요……데이비드, 왜 대답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나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루이스라니? 그럴 리가 없어."

"루이스는 죽었어."

"그건 나도 알아요, 데이비드. 물론 나는 죽었어요." 하고 말하는 그의 음성은 생전에 듣던 루이스의 그 조롱하는 어조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난 어서 꿈에서 깨어나야지."

"네, 아무렴 그러셔야지요. 내가 찾아갈 때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해요. 난 지금 공동묘지를 나가니까요. 지금 곧 그곳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루이스는 다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전화를 끊은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군요. 별안간 꿈같지가 않아 나는 일어나 앉아서 옷을 갈아입고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공동묘지를 나와 나의 아파트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루이스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꿈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 개 째 담배를 피우고 났을 무렵 아파트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루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리처드였습니다.

자네의 쌍둥이 리처드 말인가?

네, 나의 쌍둥이 말입니다. 그러나 키가 나보다 크고 힘도 세고 잘 생겼지요. 그가 빙그레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며 옛날처럼 심술궂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나를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나? 15년 동안이나 서로 못 만났는데……" 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돼, 리처드! 왜 또 돌아왔어?" 하고 나는 호령을 했습니다.

"돌아온 걸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그는 나를 떼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널 찾아오려고 했지. 그런데 오늘이 마침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넌 왜 또 나타났어? 넌 죽었잖아. 맨슨 선생과 내가 널 죽여버렸는데."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죽기는 루이스도 죽었지. 그러나 그는 오늘 밤에 돌아오는데 왜 나는 못 돌아온단 말인가?" 리처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날 찾아온 용무는 뭐야?"

"데이비드, 널 도와주려고. 오늘 밤에 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걸. 죽은 아내와 홀로 얼굴을 맞대기에는 넌 너무도 겁보니까."

"제발 없어져 줘, 리처드!" 하고 나는 그에게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문 앞에 와있는 모양이야. 루이스가 왔나 보지. 그와 혼자서 얘기하게.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옆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루이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장했을 때와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무서운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베일은 그가 나의 옆을 스치고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가 서서히 의자에 앉을 동안 그의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루이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데이비드, 왜 그렇게 꿀 먹은 벙어리 모양 말이 없어요? 창문을 닫아줘요. 난 바람이 싫어요. 거의 1년 동안 관 속에만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무뚝뚝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뭐하러 왔어? 왜 왔느냔 말야? 죽은 지가 오랜데!"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루이스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그걸 정말이라고 믿고 있군요. 난 죽지 않았어요. 난 약간 당신을 놀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나를 놀려주고 있다고?" 하고 나는 물었으나 그는 마치 히스테리의 발작이 일어난 모양으로 웃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언제나 겁이 많으니까 당신이 놀라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말아! 당신은 죽었어. 매장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걸." 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럼 어디 내가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봐요." 하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훌렁 베일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얼굴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은 맑게 반짝이고 있었으며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매장한 시체는 사실은 내가 도중에서 차에 태워준 어떤 여인의 시체였던 거예요. 사고가 일어난 후에 나는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 나의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시체 밑에 나의 핸드백을 집어넣고는 부서진 자동차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건 또 왜?" 나는 다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냔 말야?"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난 당신이 나에게 싫증을 느낀 이상으로 당신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로 살아가려고 그랬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장난에 싫증이 나면 난 언제든지 내 정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일 결혼하는 사람이야. 앤 하고."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신문에서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좋아요. 나는 다시 멀리 가서 좀 더 죽은 사람 노릇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염려 말고 그 부잣집 딸과 결혼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돼! 나는 돈을 줄 수 없어.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그럼 내일신문 석간에 '저명한 청년 변호사의 아내 무덤에서 나오다 – 죽었다는 아내가 결혼식장에 나타나 일대 혼란이 일어나다'라는 기사를 읽을 수밖에 없군요."

"그건 안 돼! 누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 줄 알아?" 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그건 1만 달러만 내놔요. 조용히 이혼을 해주고 당신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럼 만사는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맥이 풀리고 머리가 혼란해졌으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루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그동안 난 화장을 하고 올 테니. 5분간 여유를 주겠어요 – 난 수표를 원해요."

루이스는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어찌할 줄 몰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민하면서 어서 이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위를 쳐다보았을 때 나의 눈앞에는 쌍둥이 리처드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왜 그렇게 서투르게 일을 처리하는 거야? 죽었다는 어리석은 거짓말로 널 위협해도 내버려 두다니. 루이스는 지금 널 이겼다고 의기양양 하고 있는 걸 몰라?"

"그러나 사실 루이스는 죽었어! 이것은 모두가 꿈이야!" 하고 나는 외쳤습니다.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이라는 걸 누가 알아! 내가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루이스에게 돈을 준다면 그는 또 돈을 달라고 올 것이 틀림없거든."

"그러나 별다른 도리가 있어야지." 하고 나는 맥없이 말했습니다.

"도리가 없기는 왜 없어? 루이스는 한번 죽었는데 또 한번 죽으면 될 게 아냐?"

"그건 안 돼!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군 – 우리가 어겼을 때처럼. 날 좀 쳐다봐, 데이비드."

"싫어!" 하고 나는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번쩍이는 눈동자는 마치 최면술을 걸고 있는 듯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내 눈을 쳐다봐, 데이비드."

"싫어! 보기 싫어!"

그러나 나는 도저히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리처드의 두 눈은 한없이 커져서 큰 검은 호수로 변하여 내가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이제부터 나는 그 전처럼 너의 육체를 지배하겠다. 너는 여태까지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두뇌 속으로."

나는 잠시 반항했으나, 그 굉장히 큰 호수로 보이는 그의 두 눈 속으로 자꾸만 빠져 들어갔습니다. 나의 온몸이 비틀어지는 것 같더니 리처드의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리처드가 진짜였습니다. –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나는 무력해졌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들을 뿐 리처드가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때 루이스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결심했어요?" 하고 그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결심했어."

리처드는 나의 음성보다도 굵고 힘차고 자신 있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음성의 변화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럼 어서 수표를 써줘요." 잠시 후 루이스는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표도 줄 필요 없고 이혼도 할 필요 없어." 하고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다소 시끄럽고 기분 좋지 않은 소문이 날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출세에도 지장이 많을 걸."

"소문이 날 필요도 없어. 당신에게만 얘기지만 사실은 난 데이비드가 아니라 리처드라는 사람이야."

"리처드라니?" 하고 루이스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릴 하는 거요?"

"나는 데이비드와 쌍둥이야. 데이비드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난 가겠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여유를 줄 테니 그때까지는 결심해야 해요."

"수표는 줄 수 없어. 나는 당신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리처드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자 루이스는 비로소 놀란 듯 했습니다. 루이스는 도망이나 치려는 듯이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졸라맸습니다.

그러나 나는 리처드가 더욱 힘차게 루이스의 목을 졸라매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의 안색이 변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30초 동안은 발로 차고 손으로 할퀴면서 반항을 하더니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납빛으로 변하고 딱 벌어진 입가에서는 침이 줄줄 흘러나오고 눈은 거꾸로 뜨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루이스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졸라맸습니다. 이윽고 루이스는 힘없이 마룻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됐어, 데이비드. 이제는 말해도 좋아." 하고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를 죽이고 말았어!" 하고 나는 외쳤으나 그는 나의 손수건으로 입술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참 재미있는 말이군. 내가 과연 그를 죽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 않았을까? 그는 과연 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었을까?"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물론 그는 죽은 사람이야. 이건 단지 꿈이야. 그러나……"

이때 리처드는 나의 말을 가로채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너의 아파트 마룻바닥 위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 시체를 그가 있던 곳으로 가져가야 해 – 공동묘지로 말이야."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네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아. 난 루이스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내려가서 택시로 공동묘지까지 가져갈 작정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가 말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리처드는 침착하게 그의 미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의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는 루이스의 핸드백에서 베일을 꺼내어 루이스의 모자에 핀으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반항할 때 흐트러진 루이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내

리고 코트에 솔질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루이스를 마치 잠든 어린애나 안듯이 두 팔로 안고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벨을 누르고는 루이스의 시체를 안은 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야간 당번인 지미 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약간 귀찮은 일이 생겼네, 지미 군." 하면서 리처드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젊은 부인은 나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술을 많이 마셨던 모양이야. 칵테일을 한 잔 주었더니 그만 이렇게 녹초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지미 군, 택시를 좀 잡아주겠나?" 리처드는 이렇게 태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카펜터 씨." 하고 말하는 지미 군은 만사를 다 눈치채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제 조사를 받고 체포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미 군은 택시를 불러왔습니다. 리처드는 루이스의 시체를 안고 택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리처드가 약다 할지라도 아무런 장해도 없이 무사히 그 미친 계획을 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운전수가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장해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페어필드 공동묘지로 갑시다." 라고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페어필드 공동묘지요? 이 한밤중에? 농담은 그만두십시오." 하고 운전수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농담이라니. 천만에. 이 여자는 정말로 죽었소. 그래서 이제부터 이 여자를 매장하러 가는 길이라오." 리처드는 남이 자기 말을 곧이 듣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렇듯 화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그 몸집이 작고 인상이 좋지 않은 운전수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난 그런 농담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서 주소를 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차에서 내려주시오."

리처드는 약간 주저하다가 어깨를 으쓱하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농담이 약간 지나친 모양이군. 235번가로 가주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게지." 운전수는 투덜거렸으나 마음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극장이 과한 번잡한 뉴욕의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전등불이

베일에 가린 루이스의 얼굴을 환히 비치며 지나갔습니다. 간혹 교통신호를 기다리느라고 멈추고 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킥킥대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교통순경이 잠시 노려보기도 했으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시체를 안고 가는 리처드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앤과의 신혼주택으로서 산 바로 이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리처드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운전수에게 주었습니다. 밥은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리처드가 축 늘어진 루이스의 시체를 잠시 돌층계 위에 눕혀놓고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방 안의 전기를 켜지도 않고 그대로 루이스의 시체를 긴 안락의자 위에 내던지고는 그 앞에 마주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됐어. 데이비드. 이제는 말해도 좋아."

"리처드, 넌 미쳤나?" 하고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루이스의 시체를 내 아파트에 두는 것과 여기로 가져오는 것과 무엇이 달라?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이야?"

"지금 그걸 궁리 중이야. 그 놈의 바보 같은 운전수 때문에 일이 잡치고 말았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루이스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마치 병자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는 손으로 목을 어루만지며 목 쉰 굵은 고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나, 당신은 날 죽이려고 했지."

리처드는 루이스를 돌아보았습니다. 루이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일을 완전히 처리 못한 것 같군." 하고 귀찮다는 듯이 리처드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죽이려고 했어." 하고 루이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해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이 죄로 감옥에 보내고 말 테야.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천만의 말씀." 하면서 그때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루이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부득이 다시 한 번 처리해야 되겠군."

루이스는 겁이 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데이비드. 내가 돌아온 것이 잘못이었어요. 난 가겠어요. 정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데이비드."

"나는 데이비드가 아니라 리처드야." 하고 그는 굵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

습니다. "루이스, 당신은 죽이기 힘이 드는군. 벌써 두 번이나 죽었는데도 아직 살아 있으니. 그러나 세 번째는 틀림없을 테지."

이때 나는 "리처드, 그만둬!"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게 내버려 둬. 그는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는 루이스와 같은 여자에 대해서는 몰라." 하고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문제는 나와 루이스와의 문제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잠이나 자, 데이비드. 잠이나 자…"

이때 나는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별안간 나를 휘덮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꿈속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리처드는 완전히 나를 없애 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침대 위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만사는 끝났으니 나는 가겠네. 그러나 다시 돌아올 테니 그리 알어."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어떻게 했어? 넌 그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하고 나는 외쳤습니다.

리처드는 하품을 파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 생각은 잊어버려. 그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너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설복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설복했어?"

리처드는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잘 자게, 데이비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나쁘게 여길 필요는 없어. 이건 단지 꿈이니까. 재미나는 꿈이니까."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조금 후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였고 사발시계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고맙네, 데이비드 군. 이제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자네의 꿈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는데 나의 해명을 들으면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게 될 걸세.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네의 그전 부인 루이스가 죽기 전에 자네는 그가 죽기를 바란 거야, 그렇지?

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럴 거야,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자네는 마치 자기가 죽이기나 한 듯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단 말일세. 자네가 앤과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죄악감이 루이스가 다시 살아난 그 악몽으로 표시된 거라네. 아마 사발시계의 종소리가 전화소리로 들려서 그 꿈 – 루이스, 리처드, 그 밖의 모든 것을 꿈꾸게 한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잠시 동안 쉬게.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거든 일어나게. 그러면 그 꿈은 완전히 머리에서 사라지게 될 테니 다시는 그 꿈이 자네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걸세. 그럼 쉬게, 데이비드 군.

네, 선생님.

저, 맨슨 선생님 –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

이제 다시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될까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의 깊이 잠재하는 죄악감이 표면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인데 이제 그 잠재의식은 없어졌습니다.

정말 기뻐요. 가엾은 데이비드는 정신분열증에 빠질 뻔 했어요…… 선생님, 잠깐 실례하겠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있는 걸 보니 누가 왔나 봐요.

네, 어서 가보세요.

……우리 담요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의 누님이 보내온 결혼 선물인데 글자를 넣으러 보냈댔지요. 아름답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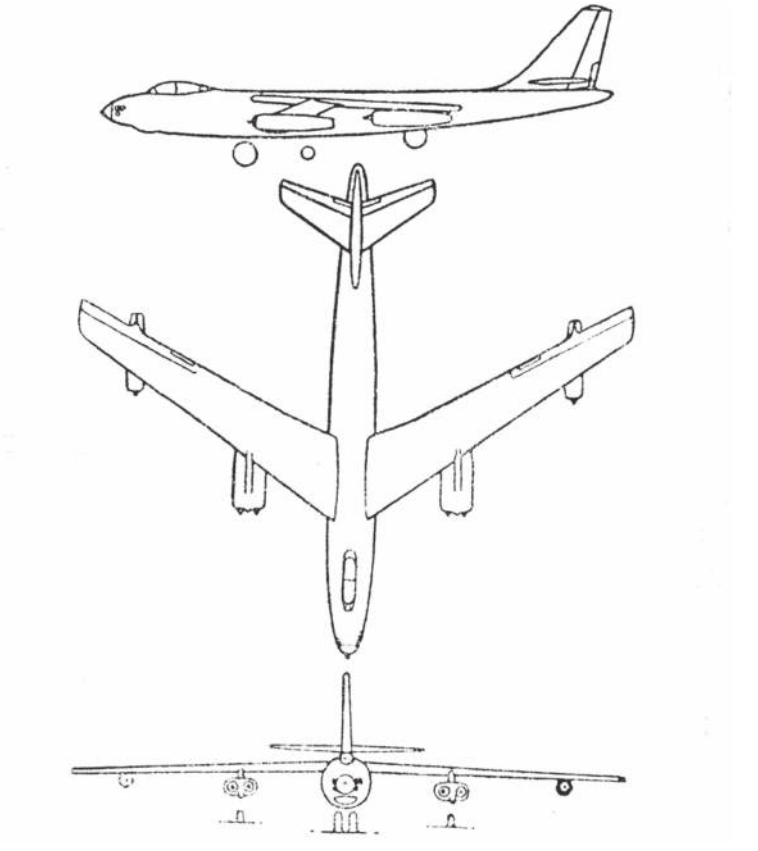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곧 넣어두어야 하겠어요. 데이비드가 이 창(窓) 걸상 밑에 으루나무(삼(杉))로 커다란 궤짝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은 공기가 통하지 않고 절대로 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걸 만든 사람이 그러더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훌륭한 담요를 좀이 먹으면 야단이에요.

데이비드 군, 이제 그만 일어나게…… 됐어. 이제 기분이 좀 어떤가?

퍽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나는 데이비드가 아니라 리처드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데이비드가 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데이비드가 진실을 감추려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을 그때 정말로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보, 앤! 그 궤짝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그걸 열어서는 안 돼! ……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비명을 울리고 서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야. 끝.

Boeing RB-47E Medium Bomber



코 메 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김기완(金基完)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이계환(李繼煥)

경축(慶祝)

광복 제13주년
정부수립(政府樹立) 제10주년

코 메 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